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평양 근로자사 1968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 호 (311)

차 례

—수령의 위대한 10대정강을 철저히 관철하자! —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자

조선인민의 고도로 앙양된 정치적열의속에서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데 뒤이어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선거자들이 100% 참가하여 100% 찬성투표한 금번선거의 결과와 제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의 진과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고야 말 확고한 진의를 뚜렷이 시위하였다.

특히 금번 최고인민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천리마조선》, 《사회주의의 모범》으로 나라의 이름을 온세상에 떨칠수 있었으며 제3기 최고인민회의선거가 있은후의 짧은 기간에도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들을 이룩할수 있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지금 전체 조선인민은 금번 최고인민회의가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또다시 내각수반으로 모신것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끓어넘치는 환희로써 지지하고있으며 그이를 세계혁명의 탁월한 지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 받들고있는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이 또한 이것을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다.

실로 40여년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위대한 승리에로 확고히 인도하시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세운 불멸의 공적과 높은 덕성으로 하여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시는 천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의 한분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다시금 내각 수상으로 추대한것은 전체 4천만조선인민의 절실한 념원의 실현이며 더 없는 영광이며 기쁨으로 된다.

조선인민은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그리고 오늘의 변혁을 가져온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을 통하여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전진할 때 어떠한 풍파와 시련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체득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경모하며 그이의 령도를 받는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자신의 모든 운명을 그이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확고히 전진하고있다.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다시금 내각 수상으로 모신것을 무한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그이께서 제시하신 공화국정부정강을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정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전투적강령이다. 그것은 우리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국가활동에서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복잡한 국제국내정세하에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정강을 일관하고있는 기본사상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며 조선혁명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완수하려는 확고한 혁명정신이다. 정강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확증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매개 분야의 모든 과업들을 바로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제기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번영을 보장할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것입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8~9폐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항상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력사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시면서 독창적으로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해결하여오셨다.

김일성동지께서 지난 40여년간 일관하게 견지하신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하여 우리는 혁명의 매단계마다 그 어떤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항상 명확한 혁명의 앞길을 내다보면서 모든 중첩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혁명을 가장 곧바른 길로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모든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주체를 세워야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와 다른 나라 경험을 자기 나라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나갈수 있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특히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은 주체를 세울것을 특별히 절실한 요구로 제기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진행정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철저히 관철시킬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선의 현실을 연구하고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1～12페지).

정치에서 자주성원칙을 관철하여 우리 민족의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는것은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는 기본조건이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해결하여야 공업과 농업, 교육과 문예,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옳게 해결할수 있다.

조국통일위업도 철저히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할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그것은 전조선을 외래침략자들의 손에 내맡기려는 매국배족행위로 된다. 우리는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조국땅에서 미제침략군대를 쫓아내고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우리 당의 자주로선은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경제적관계를 맺는데서도, 반제투쟁과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일관하게 견지되여야 할 원칙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모독하는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모든 대외활동을 전개할것이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경제건설에서와 국방건설분야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관철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관철하여야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기초를 닦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믿음직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하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입니다.

이러한 혁명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여야만 우리는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에서도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4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경제건설에서의 자력갱생의 원칙의 구현으로 되는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가지는 원칙적인 의의에 대하여 새로운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지난기간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 나라의 정치

적독립을 공고히 하는 길일뿐아니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 가장 정확한 길이며 매개 민족들의 불평등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한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5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매개 민족국가의 범위에서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단위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여야만 나라의 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정확한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고 과학과 문화의 급속한 발전과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의 체계적인 장성을 이룩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우는 과업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들은 자체를 근로적인 사회주의적민족으로 만들어야 할뿐아니라 자체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개화를 이룩하기 위한 매우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온갖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민족들은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6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민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근본방도를 새롭게 밝히신것으로 된다.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민족들 사이의 불평등의 실재적기초는 경제적락후성이다. 따라서 민족들의 불평등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자마자 인차 없어질수 없으며 또한 이러저러한 민족들의 통합에 의하여 없어질수도 없다. 그것은 오직 매개 민족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자체의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는 기초우에서만 없앨수 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이라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원칙적이고도 일반적인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제국주의반동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국제로동계급의 단결과 지원이 노는 역할과 매개 나라의 주체적력량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전면적인 분석을 가하시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어디까지나 주체적력량이라는것을 강조하시였으며 우리 당의 자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자위의 정신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처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하며 이미 쌓아놓은 튼튼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에 의거하여 나라를 방위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는 동시에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7페지).

우리는 정치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우리의 자위력을 칠벽으로 다져야만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으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관철하는 기초우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혁명적인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인공적인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인한 현재와 같은 우리 인민의

불행을 하루빨리 없애고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반부인민들을 항상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을 지원하며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타도하고 남조선인민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데 대한 사상은 정강을 일관하고있는 중요한 사상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미제의 강점으로 인한 남조선인민들의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폭압속에서도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더욱더 세차게 일떠서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하여 절절한 심정으로 분석하시였으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지니고있는 중대한 책임과 숭고한 임무에 대하여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남조선의 해방과 조국통일의 위업은 우리 세대에 부과된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이 과업을 앞에 두고서는 조선의 그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수 없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빨리 성숙시키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것은 오늘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전체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임무를 자기의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인식하고 남녘형제들을 한시도 잊지말며 그들을 반드시 해방하여야 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이 고조되고 혁명정세가 성숙되여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결정적투쟁에 동원될수 있는 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할것이다. 동시에 모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더 혁명적으로 전개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고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고 건설하며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물자를 극력 아껴쓰며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 굳건히 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전체 인민이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려는 숭고한 정신에서 출발하여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주인답게 일하며 어떠한 자만과 해이성도, 사소한 안일과 부화와 사치도 허용하지 말고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적기풍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당이 부를 때에는 언제나 혁명투쟁에 떨쳐나설수 있도록 준비되여있어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될수 있을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해결하여야 할 정치, 경제, 군사적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공화국북반부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할 절실한 필요성과 그 구체적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더욱 강화하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농민과 인테리를 비

못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26페지).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이다. 사회주의하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반항을 진압할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로동조건의 차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의 차이를 없애는것과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과 도덕, 문화와 기술수준에서의 차이도 점차 없애야 한다. 이것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부르죠아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동시에 문화혁명을 수행하여 그들을 높은 문화기술수준의 소유자로 만들것을 요구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 혁명은 매우 간고하고 어려운 그리고 장기적이고 긴장된 투쟁을 요구한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내쫓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자면 모든 근로자들을 강의한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구체적방도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9페지).

우리는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적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풍파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하여야만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하며 그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근절하고 개인의 리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더 무겁게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나아가는 집단주의정신과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배양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살고 일하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인식하고 이 제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는 동시에 나라살림살이에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며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모든 단위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혁명적사업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혁명전통교양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경험은 혁명전통교양이 직접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비할바 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1폐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뿌리를 똑똑히 알고 혁명선렬들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본받도록 하여야만 그들을 혁명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어떤 풍파속에서도 동요함이 없이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열렬한 공산주의자, 당과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만들수 있는것이다.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문화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없으며 사상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근로자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세워 그들의 일반지식수준을 높이고 누구나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게 하며 로동계급의 인테리대군을 양성하여야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다.

실로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후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계급적내용,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적차이를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밝힘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리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풍부화한 새로운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절실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우리의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온나라를 붉은 대가정으로 꾸리고 전사회가 혁명적정열로 들끓게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언제나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에서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도록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하며 그러자면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이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버리고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없애며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도록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2폐지).

정강에서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를 모든 혁명과업수행의 결정적고리로, 우리 일군들의 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본질적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이 제시하고있는 모든 로선과 정책은 정확하며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들도 모두 명백히 제시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앙양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가, 경제 기관정무원들은 다 인민이 선출한 일군들이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군들이다.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쳐 싸우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사명이다.

일군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하며 김일성동지의 교시, 우리 당 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적극적인 선전자로, 철저한 집행자로 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관료주의를 없애며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지도를 아래에 더욱 접근시키고 지도방법을 결정적으로 고치며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례절이 밝은 인민적품성을 가져야만 인민정권과 인민간의 혈연적련계는 더욱 강화되고 우리 당의 정책은 철저히 관철될수 있다.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문제가 아니라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사상의 표현이다. 따라서 국가경제기관일군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속에서 계급적관점과 군중관점을 세우는것이 그들의 사업작풍을 개선하는 결정적고리로 된다. 이와 동시에 학습기풍을 세워 그들의 기술실무수준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우리의 일군들은 관료주의를 없애며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가 되여야 하며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여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과업과 함께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우리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공업화정책을 계속 견지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6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이미 제시한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가까운 년간에 나라의 생산력을 전반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며 공업생산을 배이상으로 높일데 대한 뚜렷한 목표를 규정하시고 이를 위하여 인민경제 각부문이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앞세우고 금속공업 특히 강철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 인민경제의 당면 및 전망적 요구에 맞게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며 화학공업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과업, 방대한 기본건설에 상응하게 건재공업을 발전시키며 경공업부문에서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며 원가를 낮출데 대한 과업, 수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가공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과업,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제반 과업 등 우리 공업부문앞에 제시한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업의 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우고 인민경제전반에서 그 지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임에 있어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또한 농촌경리에서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를 강력히 추진시키고 생산적건설과 문화주택건설을 적극 전개하면서 알곡생산을 비롯하여 공예작물, 남새, 축산업과 과수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구체적대책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발전의 강령적과업들은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에게 명확한 전망과 그 실현방도를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의 로력적열의를 더욱 앙양시키며 우리의 경제적위력을 더 빨리 강화할수 있게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인민들의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천명하시고 그 구체적과업들을 규정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의 기본원천으로 되는 국민소득을 더욱 늘이고 근로자들의 화폐임금과 실질수입을 높이며 사회문화시책에 더 많은 국가투자를 실시하며 특히 상업과 보건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방침들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크나큰 배려를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문제에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로동행정사업의 의의와 내용, 로동행정사업개선의 기본방향과 구체적과업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는가 못하는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로동행정사업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된다. 농경지가 제한되여 집약농법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의 특수성으로 하여 농촌경리의 기계화가 오랜 시일을 요구하는 우리 나라 조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공업에 끌어들일수 있는 농촌인구의 원천이 많지 못하다. 더우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을 추진시켜야 하는 조건에서 로력자원을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여 그들의 로력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며 매개 생산단위에서 제정된 규률을 엄격히 지키고 로동조건을 최대한으로 보장함으로써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며 기술혁신을 전개하여 로력을 극력 절약하며 부문간의 로력배치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며 로동계획화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강에서 재시된 모든 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하여야만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고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과 국방건설의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정강에서 제시된 경제건설의 모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성스러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적문화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업도 제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적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5페지).

정강에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인민경제의 당면 및 전망적 요구에 부합되게 기술공학 특히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발전시키며 그리고 화학, 생물학, 농업과학, 림산과학, 해양과학 등을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들이 규정되여있다. 이 과업들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이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짧은 기간내에 얼마마한 높이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며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과 전체인민을 새로운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한다.

정강에는 또한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철저히 잘 실시하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한계단 높일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여있으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며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과 그것을 계승한 우리 인민의 강엄한 투쟁모습과 약동하는 현실을 형상한 혁명적인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여있다. 이 과업을 잘 실현하여 혁명의 장래운명을 걸머질 혁명의 후계자들을 더 훌륭히 길러내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정강에서 제시하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군사적으로 칠옹성같이 강화할데 대한 문제이다.

《…공화국정부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적, 전인민적 방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8~59페지).

정강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새전쟁도발음모를 명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전쟁의 위험이 더욱더 커가고있는 현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당의 자위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킬 과업이 제시되여있다.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며 국방사업은 전체인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이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군사로선에 따라 인민군대에서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속 관철하며 인민들은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 방침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며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불패의 혁명대오로,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철벽같은 군사요새로 전변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강을 받들고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최대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인제 어디에서 원쑤들이 덤벼들어도 일격에 쳐부실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정강에서 제시하신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이 모든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림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해외의 조선동포들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을 다시한번 천명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리익과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68페지).

오늘 우리의 해외동포들은 존엄있고 위신있는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들이다. 60만 재일조선동포들은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

국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으며 자기들의 민족적민주주의권리와 조국에로의 귀국을 계속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지금 일본의 사또군국주의도당은 재일 조선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하여 온갖 박해와 단압행위를 감행하고있으나 결코 이것은 그들의 투쟁을 멈춰세울수 없다.

금번 정강은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할것이며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으며 그이의 따뜻한 배려와 육친적사랑속에 있는 모든 해외조선동포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대외활동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오늘 국제무대에서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원칙적해명을 주시었다.

국제적인 경제적련계는 국가의 대외활동에서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로선을 계속 견지하면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맺고 대외무역을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63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외적인 경제적련계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립장을 천명하시면서 세계사회주의시장의 의의와 역할, 대외경제활동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을 심오히 해명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세계사회주의시장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항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은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신생독립국가들에 민족경제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며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세계제국주의렬강들의 야망을 파탄시키고 그들의 전반적경제위기를 심화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주의나라들은 응당 대외경제적관계에서 사회주의시장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정치적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제적호상관계에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을 발휘하며 협애한 민족리기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회주의나라들 특히는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 어떠한 정치적부대조건도, 아무런 사심도 없는 더 많은 물질적지원을 줌으로써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렬강들의 경제봉쇄를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완전한 정치경제적독립을 이룩할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대외경제관계에서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으로 되며 공산주의적도덕과 동지적의리를 지키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적련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제국주의의 멍에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리와 경제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들과 무역 및 통상교류 관계를 발전시켜나아갈것이다.

이와 함께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우리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반제반

미투쟁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며 우리 나라와 평등한 립장에서 국가관계를 맺을것을 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도모할것을 시종일관 천명하여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외정책분야에서 이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70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항상 가장 원칙적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이러한 대외정책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전례없이 공고히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정강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반제, 반미적 립장을 천명하였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그들과 굳게 단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미제국주의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의 주되는 원쑤이다. 현시기 반미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해서도,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미제에 대한 태도는 오늘 사회주의 나라들이 진실로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안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되며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된다.

오늘 미제는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결을 피하면서 주로 분렬된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으려 하는 기본전략을 쓰고있으며 여기에서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다.

그러므로 오늘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미투쟁에서 나타나는 온갖 편향을 없애고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며 특히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번 정강에서 다시금 명시된,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모든 지역에서 미제에 집단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미제의 멸망을 촉진하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립장이다.

정강에서는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자기 조국의 독립과 사회주의나라들을 수호하기 위하여, 세계평화를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웰남인민들을 모든 힘을 다하여 도와줄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 제시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희망과 혁명적미래를 대표하고있는 꾸바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꾸바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데 대한 원칙적립장이 천명되였다. 동시에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이 명시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정강에서 천명된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은 현시기 세계혁명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준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서 우리 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길을 밝혀주고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문헌이다.

그것은 우리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 결정을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강력한 사상, 리론, 실천적 무기로 된다.

정강은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하여 책임적으로 완수하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 승리하려는 견결한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우리 세대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과업과 그 실현방도를 명시하고있다. 이리하여 정강은 우리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명확한 투쟁목표와 전망을 밝혀주고 혁명투쟁에로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지금 전체 인민들은 이 정강에 접하여 커다란 감격과 흥분 속에 휩싸여있다. 그들은 자기들을 부단히 새로운 승리에로 인도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경모의 정으로 가슴 벅차오르고있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은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끈것처럼, 해방후 20개조 정강을 포함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이 중첩된 난관과 시련을 뚫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켜 오늘의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게 한것처럼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위대한 종국적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 줄것이다.

이 정강이 실현될 때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더욱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보다더 행복한 생활이 창조될것이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강력하게 고무추동하고 그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하게 할것이다. 그것은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민주인사들, 모든 애국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주고 그들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반미구국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할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해외동포들의 투쟁에서도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은 커다란 국제적의의를 가진다.

정강을 일관하고있는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혁명로선이다.

지금 세계의 많은 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10대정강을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결정적인 기여》로, 《사회주의건설리론에 대한 고전의 하나》로, 《전세계 정치가들을 위한 하나의 교과서》로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다.

정강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더욱 굳게 하여주는 반면에 조선과 전세계에서 새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는 침천지원수 미제국주의자들에게는 강력한 타격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화국정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

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는 맑스—레닌주의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더욱 풍부화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문헌이다.

정강에 일관되고있는 주체사상과 모든 혁명적이며 창조적인 원칙들과 명제를 특히는 민족국가단위로 되는 사회주의 물질기술적토대의 축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민족문제해결의 원칙적방도,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방도, 세계사회주의시장의 의의와 사회주의나라들의 대외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태도 등을 비롯하여 이번 정강에서 더욱 명확하게 새롭게 정식화된 모든 문제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며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탁월한 기여로 된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은 우리 혁명의 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전투적강령이다.

오늘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영예로운 임무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10대정강을 심오히 학습하여 거기에 담긴 위대한 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10대정강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구현되여있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이 일관되여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10대정강을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등과 밀접히 결부하여 그 매조항, 매구절을 새겨가면서 심오히 학습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결정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정강에 제시된 모든 과업들을 자기 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방도를 세우고 정강의 위대한 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용감하게 박차고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며 부단히 혁신하는것은 영웅적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입니다》(우와 같은 책, 78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10대정강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계속 높은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새해 1968년에는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그이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전진할 때 우리의 과업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하더라도, 우리의 앞길에 아무리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인다고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고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10대정강을 철저히 실현할것이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것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고있는 조선인민은 반드시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고야 말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고야 말것이다.

남조선혁명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세대에 기어코 조국통일을 실현하자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오늘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우리 나라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다.

그러나 아직도 조국의 남반부는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며 남반부인민들은 갖은 계급적 및 민족적 압박을 받고있다.

우리는 이 민족적비운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하루빨리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금번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위대한 공화국정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인공적인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인한 현재와 같은 우리 인민의 불행을 하루빨리 없애고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반부인민들을 항상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을 지원하며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입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8페지).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강령적인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1

조국통일은 하루도 지체할수 없는 우리 민족의 절박한 민족적과업이며 조선혁명의 당면한 기본임무이다.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민족도 하나이며 조선혁명도 하나이다.

조선혁명의 목적은 전조선강토우에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반드시 도래하게 될 사회발전의 객관적법칙이다.

그러나 이 법칙이 언제 어떤 방도로, 어떤 속도로 실현되는가 하는것은 주로 공산주의자들의 의식적인 활동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20대도 못되는 청년시절에 벌써 장차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조선혁명의 위대한 설계도를 작성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김일성동지의 이 위대한 구상은 해방후 나라의 북반부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력사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내에 락후하였던 우리 나라를 강력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였다.

오늘 북반부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영원히 근절되고, 빈궁이 없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같이 복리를 누리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이처럼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나 국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남반부에서는 그것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이리하여 조선혁명은 전국적범위에서 완수되지 못하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의 차이는 날로 더욱 심화되여가고있다.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으나 남반부에서는 여전히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당면한 과업으로 남아있다.

국토의 량단으로 인하여 민족분렬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있으며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통성은 점차 사라져가고있다.

남북의 분렬은 나라의 재부와 인민의 지혜와 재능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없게 하고있다.

우리 조국의 분렬은 이처럼 조선혁명의 통일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것은 특히 남조선인민들을 모진 고통과 도탄 속에 몰아넣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였으며 남조선의 민족경제는 외국자본의 예속경제로 더욱더 깊이 전락되여가고있다.

민족공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은 외래독점자본과 매판자본의 압력과 극심한 원료난, 자금난으로 인하여 매년 총기업의 15~17%에 해당하는 2,500~3,000개가 파산당하고있으며 나머지 기업체들의 가동률도 40~50%를 미달하고있다.

경제의 이러한 파산으로 인하여 수백만에 달하는 실업자의 대렬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뿐이다.

남조선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농업생산력은 부단히 파괴되여 곡창지대였던 남조선은 오늘 매년 평균 약 100만톤의 알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근지대로 전변되였다.

생활수단을 잃고 정든 고향을 등지는 농가호수는 매년 20만호를 헤아리고있으며 금년에는 그 대렬이 50만~60만호로 늘어날것이라고 한다.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련일 《공판소동》을 벌리고 애국적인 인사들을 마구 체포구금하고있다. 그들은 경북대학교 교수 김대수박사를 중심으로 한 혁명조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10여명의 애국적인테리들을 체포투옥하였으며 작년 가을에는 부산일대에서 인민혁명당사건이란 죄명을 씌워 많은 청년들을 검거하였다.

최근 박정희도당이 날조하여낸 이른바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등이 잘 보여주는것처럼 남조선에서는 저주로운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인민의 자유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죄》로 되여 가혹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전역을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으로 전변시키고있다.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과 혁명가들의 무장유격대활동과 대중적혁명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작년 한해동안에만도 10여개사단의 침략군과 괴뢰군, 경찰들을 동원시켰으며 이른바 《소탕작전》에 내몬 연 병력동원수는 무려 600여만명에

달한다. 이리하여 남조선전역을 일대 인민의 감옥으로 전변시키고있다.

사회의 기본생산대중을 이루는 로동계급과 농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투쟁할 초보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있다. 그들은 오직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만 되여있으며 말그대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가 유지되는한, 우리 조국이 분렬되여있는한 남조선인민들은 결코 빈궁과 무권리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을 오늘의 처참한 처지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은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다.

이 길은 비단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할뿐아니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 길이다.

조국통일의 실현—이는 바로 조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당면하게 성취하여야 할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세대에 부과된 이 숭고한 력사적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결코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으며 우리 세대에 부과된 조국통일임무를 하루빨리 완수하여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김일성동지의 세대에,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한 우리 세대에 남조선해방을 적극 지원하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

조국을 통일함에 있어서 전조선에 실현될 사회정치적구조를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인민의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조국통일이 이루어지려면 통일독립된후 전조선에 실현될 사상과 령도, 주권과 제도에 관한 문제들이 인민의 리익에 맞게 실현되여야 한다.

이것은 응당 4천만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조국을 통일한다는것은 우선 전조선에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며 김일성동지의 전일적인 령도를 확립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보장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활동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나선다.

로동계급은 기존착취제도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거대한 력사적사명을 지니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수령과 당의 령도를 받기전에는 그 사명을 다할수 없다.

령도자를 가지지 못한 대중은 지휘관이 없는 군대와 같다.

로동계급에게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보장되여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그가 사회의 근본적변혁을 위한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특히 우리 나라의 혁명력사가 이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조선인민은 벌써 1930년대초에 김일성

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진두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자기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게 되였고, 수령의 령도하에 새력사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5성상에 걸치는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몸소 조직전개하시여 강도 일제를 처부시고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성취하시였으며 그 행정에서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여놓으셨다.

해방후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한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기치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으며 시종일관 주체적이며 자주적인 립장에서 우리 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시면서 당과 정권과 인민을 령도하시여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미제의 무력침공을 격파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 조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사상을 체계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그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조선로동계급과 피착취대중의 해방에 관한 무기이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과학적인 학설이다. 그것은 조선혁명에 관한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이며 리론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그의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것은 특히 과거 우리 나라에서처럼 락후한 식민지봉건적인 관계에 얽매여있는 나라들이 반제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보편적진리로 될뿐만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여야 할 모든 나라들에서도 타당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북반부에서 김일성동지의 령도는 확고히 형성되였으며 그이의 혁명사상은 전당과 전체 인민들 속에서 전일적으로 지배하고있다.

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떠나서는 오늘의 찬란한 승리와 행복도, 희망찬 래일도 없으며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의 빛나는 구현인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혁명수행에서 백전백승의 무기라는것을 확신하고있기때문에 수령의 교시에 충실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바치고있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복잡한가운데서도 미제의 강점하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동포들의 운명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고계시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령도하고계신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남조선인민들에게도 그 빛을 찬연히 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를 자기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태양으로, 민족의 수령으로 우러러보면서 전적으로 그이에게 자기들의 운명을 의탁하고있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령도가 하루속히 남조선에도 미치기를 절절히 념원하고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주민은 자기의 수기에서 《이미 한 강토의 북녘에서 비쳐오는 서광을 어떻게 막을수 있단 말인가? 서울, 부산, 그 어디에든 비록 마음놓고

말하지는 못할지언정, 민중들의 가슴마다에는 저마다 북반부에 대한 동경과 언젠가는 꼭 서울, 부산으로 오실 김일성원수를 일구월심 기다리고있는것이다》라고 쓰고있다.

여기에는 자기의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깊은 존경심이 담겨져있으며 김일성동지의 명도가 반드시 남조선전역에 미칠 그날을 간절히 바라는 절절한 념원이 담겨져있다. 이것은 다만 어느 한두사람의 심정이 아니라 남반부 전체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조국통일은 바로 수령의 명도밑에 행복하게 살날을 기다리며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력사적숙원을 실현시키며 조선인민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의 명도를 전조선적으로 확고하게 구현하며 우리 나라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종국적으로 그리고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할것이다.

조국을 통일한다는것은 또한 전국적인 범위에서 인민의 정권이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조국통일은 본질상 남북을 통한 통일정부를 구성하며 단일한 정권을 수립하는 문제이다.

이에 있어서 통일독립된후 수립될 우리의 정권은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로동자, 농민의 정권이여야 한다.

이것은 조국통일이 사실상 공화국의 기치하에 성취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송림선거구 선거자들과의 상봉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화국정부를 일층 강화하며 우리가 이룩해놓은 사회주의전취물을 더욱 튼튼히 보위하고 나아가서는 전조선을 통일하고 공화국기치하에 전국의 혁명을 완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것은 통일된 조선에 수립될 정권은 극소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친미친일주구들의 정권이 아니라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의 정권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며 통일된 조선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국가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정권은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명철하게 제시되였고 그때 벌써 유격근거지들에서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해방후 나라의 북반부에서 훌륭히 구현되였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20여년간의 실생활을 통하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똑똑히 체험하였으며 인민정권이야말로 자기들의 리익의 진정한 옹호자임을 확신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이 15개의 추종국가무력까지 동원하여 지도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광분하였을 때, 우리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원쑤들을 격멸하고 자기의 주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로써 사수하여냈던것이다.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의 빛나는 승리는 인민정권에 대한 우리 인민의 굳은 신뢰와 그의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시위한것으로 된다.

북반부에 확고히 수립된 인민정권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남반부인민들은 인민정권하에서 북반부로동계급과 농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국가대사에 직접 참가하고있으며 그들이 모든 살림살이의 주인으로 되여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찬란한 현실을 똑똑히 보고있다. 그들은 북반부인민들이 인민정권하에서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에서 벗어났을뿐 아니라 나라를 발전된 선진국가들의 대렬에 올려놓은 사실에 대하여 깊이 주시하고있다.

그들은 남북의 판이한 현실앞에서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정권이야말로 자기들의 진정한 리익의 옹호자이며 북반부에 이룩된 사회주의제도야말로 미구에 자기들이 누려야 할 제도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남조선을 방문하였던 한 외국기자가 《남조선인민은 어려울 때마다 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있다》고 실토한 사실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인민정권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동경하고있는가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조국통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서 즉 인민정권하에서 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을 실현시켜주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전조선적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될것이다.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조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들의 투쟁앞에 광활한 길이 열려질것이다.

통일이 실현되면 우리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지혜와 힘을 합치고 남북의 풍부한 자원을 통일적으로 개발하여 인민들이 살기 좋고 번영하는 새조선을 건설할수 있을것이다. 그때, 우리나라는 남부러울것이 없는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것이며 4천만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일적인 령도를 받으면서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것이다.

3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세대에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항상 나라의 통일이 자주적원칙에 의하여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왔으며 또 주장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또 결코 달리는 될수 없는것입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6페지).

조국통일에 대한 이러한 자주적원칙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철저히 근거하고있으며 그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조국의 통일문제는 어떤 외세에 의하여 해결될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이다.

그것은 오직 조선사람만이 해결할수 있으며 조선사람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권리도 없다. 《유엔》이나 그 어떤 외부세력에 의거하여 통일을 달성하려는것은 망상이며 그것은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예속을 가져올뿐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빛나는 위대한 10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에 의하여 해결될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입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민족문제를 자신의 손으

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일관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군대가 물러간 조건에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2～13페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서 흘러나온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자주적원칙은 자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려는 철저히 혁명적인 립장이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민족문제를 능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있다.

조선인민은 자기손으로 국가와 경제를 관리운영한 훌륭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있다.

나라의 북반부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기지가 축성되여있다.

우리에게는 인민을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가 계시고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기치인 공화국정부가 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 의거하여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공화국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후손만대의 번영을 이룩할 튼튼한 밑천이다.

이 모든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확고부동한 토대이며 이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은 자체로 통일독립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능히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조국통일의 자주적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그 주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에게 민족분렬의 비운을 강요한 원흉이며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고 침략과 략탈 정책을 감행하며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함에 있어서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대리인으로, 안내자로 리용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동시에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으로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우리 세대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코 성취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공동투쟁과업이다.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이 다같이 준비되여야 하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힘을 합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격멸소탕해야만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인민들은 혁명력량을 축적하고 혁명의 결정적시기에 튼튼히 대비하여야 한다.

오늘 미제와 그 주구들을 타도하고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급속히 확대발전되고있으며 남조선의 무장유격대원들은 도처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여야 하며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남조선의 해방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사업을 하루빨리 완수하는것은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이 혁명력량을 어떻게 확대강화하며 적들과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을뿐아니라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도 크게 달려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의 시기를 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체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동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갖추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3페지).

공화국북반부는 전국에서 민족해방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기지이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은 전조선혁명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오늘의 정세는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에게 모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더 혁명적으로 전개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여 우리 세대에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복종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수행하는것을 우리 세대의 숭고한 민족적임무로,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굶주리고있는 남반부 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하며 그들을 하루빨리 해방하여야 한다는 혁명적 각오를 가져야 하며 그들이 도움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응할수 있는 사상적 및 물질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북반부에서 이룩한 성과에 결코 자만하여 안일해이할수 없다. 우리는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 세대에 남녘형제들을 반드시 해방하여야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져야 하며 남조선에서 인민투쟁이 고조되고 혁명정세가 성숙되여 우리의 지원을 청할 때에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결정적투쟁에 동원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모두가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정치사상적준비와 함께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물질적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방침을 높이 받들고 한층더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켜야 한다.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일층 공고히 하고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을 잘해야 한다. 경제건설을 강화하여야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다.

경제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이미 창설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모든 분야에서 생산품과 건설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며 경제적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으며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수 있다.

또한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야만 앞으로 나라가 통일된후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며 령락된 남반부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개선할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게 될것이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의 전쟁정책이 일층 로골화되고있는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함께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원쑤들의 불의의 침공을 격파할수 없고 나라의 경제건설도 성과적으로 할수 없으며 인민생활도 향상시킬수 없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며 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후방을 더욱 공고히 꾸려야 하며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단 유사시에 적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성과적으로 수호할수 있을뿐아니라 나아가서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타도하고 나라의 통일을 주동적으로 실현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자만과 해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계속전진하고 계속혁명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하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적기풍으로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리하여 전체 인민이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다 당이 부를 때에는 혁명투쟁에 떨쳐나설수 있도록 언제나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25~26페지).

우리는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당과 수령이 부를 때에는 즉시 동원될수 있도록 백방으로 튼튼히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 세계형편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윁남과 세계도처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 더욱더 고립되고있으며 반제, 반미 력량이 부단히 장성강화되고있다.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은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거세찬 혁명투쟁의 일환이다.

우리들은 남조선혁명을 백방으로 지원하여 남조선을 해방하고 우리 세대에 기어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서야 한다.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그 주구들을 타도하며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

리 선 국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공화국정부정강—《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은 우리 인민들에게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었다.

정강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모든 부문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고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부터 출발하는 당면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과업을 명시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부정강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여 견지하여온 자력갱생의 원칙,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합법칙성에 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분석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으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경제분야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관철하여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충실히 집행하여나갈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합법칙성에 관한 심오한 과학적 분석은 맑스—레닌주의의 가일층의 발전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에 귀중한 기여로 된다.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원칙,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우리 나라를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으며 자기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현시기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앞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기초를 닦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믿음직한 경제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모든 과업은 오직 자력갱생의 원칙,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견지하고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로골화되고 사회주의나라들간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는 현정세는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

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　　　*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경제분야에서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기초이며 경제분야에서 그것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로선으로 구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입니다.

이러한 혁명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여야만 우리는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에서도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않게 되며 안일성과 해이성에 사로잡히고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범할수 있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우리 당과 인민이며 조선혁명의 승리의 결정적요인도 우리자체의 힘이다.

물론 국제적인 련대성을 강화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서로 도와주고 지지성원하는것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개별적나라들에서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국제적으로 호상 지지성원하고 백방으로 도와주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서는 국제적련대성에 의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지지와 원조만 바라면서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며 이러한 태도로써는 도대체 혁명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남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고는 아무일도 할수 없다. 의존심이 있으면 자기 나라의 원천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잘 노력하지 않을것이고 나라의 발전을 크게 지연시킬수 있다. 또한 이로부터 자기를 낮추 보고 남을 높이 보는 사대주의가 발생할수도 있고 여러가지 폐단들이 나올수 있다.

혁명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수 없는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조선혁명을 해줄수는 없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사업에서 국제적인 지지성원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우리자체의 힘이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고 외부의 지지성원은 부차적인것으로 여겨야 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투쟁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추진할수 있으며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에도 기여할수 있다.

자기 인민의 힘,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려는 립장에 섬으로써만 복잡한 국제, 국내 정세하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적절개를 굳게 지키고 모든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투쟁을 승리적으로 진척시킬수 있다.

실로 자력갱생은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립장이다.

경제분야에서 자력갱생한다는것은 곧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 즉 경

제건설에서 주체를 확립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누구를 물론하고 자기의 손으로 더 많이, 더 잘 건설하며 자기의 힘으로 더 빨리 전진하려는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더 찾아내며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에 있는 원천들을 총원리용하여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더 잘 살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것을 가지고 공업이나 농업 기타 모든 경제부문들을 발전시키려는 사상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는 철저한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국제분업에도 떳떳이 참가하여야 하며 세계사회주의체계의 위력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여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건설에서 주체를 확립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이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정치적독립을 보장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4페지).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살림살이를 자신의 힘으로 꾸려나갈수 있는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가지지 않고서는 정치에서 자주성을 유지공고화할수 없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토대우에서만 독립을 쟁취한 모든 민족들은 식민지통치에서 넘겨받은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으며 진정한 정치적독립을 달성할수 있다. 또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다른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관계를 맺을수 있으며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진출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 농업,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사회주의법칙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리를 전면적으로 높일수 있는 강력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한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부단히 장성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 자재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는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튼튼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놓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4～15페지).

인류력사상 가장 선진적인 생산관계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제도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생산력을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하는 높은 생산력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의 축성과정에서 창조된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기지의 창설이다. 중공업과 그의 핵심인 기계

재작공업의 창설만이 이여의 경제부문들인 경공업, 농업, 운수 등을 기술적으로 개건하여 높은 생산력을 창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법칙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리를 전면적으로 높일수 있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경공업, 농업 및 기타 부문들을 균형적이며 조화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장성하는 생산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자주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다.

그런데 아직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이 확대되여가는 과정을 통하여 달성된다. 경제조직자적기능을 포함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제기능은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수행되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도 매개 민족국가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혁명에서 승리한 매개 민족국가들앞에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무엇보다도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제기된다.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추진하여 인민들에게 부유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동시에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대처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지구상에는 제국주의가 남아있으며 그들은 력사무대에서 스스로 물러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발악하고있다. 특히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전세계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이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로 웰남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며 조선과 꾸바, 동부독일 등 분렬되여있는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고있다. 국내반동도 제국주의자들과 결탁되여있다.

이런 조건에서 매개 민족국가가 자기의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지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을뿐아니라 원쑤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으로부터 이미 쟁취한 사회주의제도도 수호할수 없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축성되여야 하며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축성되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부단히 장성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 자재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는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만 축성될수 있다.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추진하여 인민들에게 부유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으며 그들을 공산주의사회에까지 확신성있게 끝까지 인도할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았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매개 민족국가의 범위에서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단위로 축성하는것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정확한 균형에 기초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케 하는

기본담보이다.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건설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한다. 다양한 자연부원은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의 다방면적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반대로 경제의 다방면적인 발전은 나라의 다양하고 유용한 자연부원을 종합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조건이다.

원료의 채취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의 가공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종합적이며 자주적인 경제체계가 형성됨으로써만 자연부원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및 인민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사용가치로 가장 훌륭히 전화될수 있다.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건설은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균형을 보장한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적생산의 기본특징의 하나이다. 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는 로동도구와 로동대상의 량, 질 및 그 리용수준과 같은 요인들에 많이 의존된다. 특히 기술진보와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계제작공업, 연료동력공업, 금속, 화학 공업부문 등이 경제발전의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는 호상관련된 인민경제 각부문들간의 균형적발전을 전제로 한다. 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를 부단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기술진보와 로동생산능률제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공업부문들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급속히 변동되는 경제부문들간의 균형을 능동적이며 주동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이것은 생산순환의 호상련관된 환절들, 부문들을 다 갖추며 그것을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발전속도가 요구하는 수준에 있게 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는 인민경제의 각부문들간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조절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달성케 하는 가장 훌륭한 경제체계이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매개 민족국가단위에서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단위로 축성하는것은 또한 과학기술과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우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을 없애는 결정적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기도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5~16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명제는 민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근본원칙과 가장 빠르고 옳은 길을 명시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는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불평등의 완전한 청산을 의미하며 경제와 과학, 기술의 전면적발전을 요구한다.

민족적불평등의 실제적기초는 경제적락후성에 있으며 그것은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자마자 없어지는것도 아니며 이리저리한 방도에 의한 민족들의 통합에 의하여 없어지는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시대는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이 지배하는 시대이며 경제적으로 발전된 극소수의 민족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락후한 대다수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이 억제되고 민족적불평등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특히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적압력을 다른 민족에 대한 정치적지배와 예속의 상투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으며 놈들의 《원조》는 다른 민족에 대한 정치경제적예속의 미끼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들은 자체를 근로적인 사회주의적민족으로 만들어야 할뿐아니라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

여야 한다. 그래야만 제국주의자들의 예속과 압력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날수 있으며 자기 민족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개화를 이룩하고 모든 민족적불평등을 제거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으로서의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리론적해명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국제로동운동의 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킨 탁월한 기여로 되며 로동계급의 성스러운 세계사적사명을 완수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것이다.

* *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자력갱생의 원칙,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토대는 더욱 정비보강되였으며 대규모적이며 가장 현대적공장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종합설비들과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적개건을 추진하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공고히 하는 튼튼한 기지로서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공업분야에서도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닦아졌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의 축성은 나라의 공업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게 하였다.

1966년에 공업생산은 1962년에 비하여 1.4배로, 해방직후인 1946년에 비하여서는 41배로 높아졌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1940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제품을 닷보름동안에 생산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경리도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주민들의 식량과 경공업원료의 믿음직한 공급기지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 축성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는 경제적지반이며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믿음직한 물질적기초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축성함으로써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자체의 경제적지반을 가지게 되였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경제적자립은 또한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믿음직한 물질적기초로 되고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39페지).

우리 당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부단히 개선향상시킬수 있게 하였다.

지난날 헐벗고 굶주리면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의 근로자들이 오늘은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배우고 다같이 치료를 받으며 전체인민이 다같이 잘 살수 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임금은 전쟁

전보다 훨씬 증대되였으며 농민들은 현물세가 완전히 페지된 사회주의농촌에서 모두다 중농, 부유중농의 수준에서 생활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막대한 국가부담을 요하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뒤이어 보통교육부문교원들의 임금을 대폭인상할데 대한 조치를 취할수 있었으며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모성로동자들에 대한 6시간로동제 등 제반 인민적시책을 실시할수 있었다.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함으로써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하고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믿음직한 물질적힘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자기의 힘으로 성과있게 추진시키고있으며 어떤 풍파나 시련속에서도 자기의 운명을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 이미 축성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는 남반부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조국이 통일된후 남조선경제를 하루속히 복구하고 남반부인민들도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물질적담보로 되고있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인민들에게 조선인민이 나아갈 길이 어느길이며 어느 사회제도가 진실로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보장하여줄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을 반미구국투쟁에 더욱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축성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이것은 나라의 독립과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우리는 자체의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대내외활동에서 자주적으로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국제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있으며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성과있게 지원하며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우리는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축성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관계도 성과있게 발전시키고있다. 우리가 대외무역 기타 여러가지 형태로 다른 나라들과 실현하고있는 경제적련계는 완전히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유무상통하고 호상협조하는 관계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가져다준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실현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선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믿음직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선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기며 세계혁명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 방침으로서 현정세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혁명적이며 맑스—레닌주의적인 로선이다.

우리 당의 이 로선은 국방건설의 비중을 경제건설의 비중에 못지않게 설정하고 이 두 분야에 거의 같은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며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는 동시에 경제건설에서도 계속 천리마의 속도로 나갈것을 요구한다. 많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국방에 돌리면서도 동시에 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유지할것을 요구하는 이 로선은 그것을 감당해낼수 있는 경제적힘이 마련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만

단의 준비를 가지고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조성하며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국가와 인민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활력이 강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하였기때문에 인민군대를 최신기술로 장비하며 전국을 요새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는 방대한 과업을 자기의 힘으로 성과있게 추진시키면서도 싸우는 웰남인민을 비롯한 혁명적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원조를 줄수 있는것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여러나라들과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적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앞에는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파괴책동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분쇄하며 제국주의 및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수립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식민지통치에서 넘겨받은 세기적 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20페지).

지금 많은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거대한 성과에서 커다란 고무적힘을 얻고있으며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면서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의 하나는 그것이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데 있다.

우리 인민은 중첩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자력갱생의 원칙,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 행정에서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의 대진군은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에 일어났으며 그것은 당과 수령 앞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된 위력을 시위한 것이다.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밑천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우리 나라에서 달성한 이러한 성과들은 자력갱생의 원칙,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것이 매개 민족국가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옳은 길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자력갱생의 원칙,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관철에서 우리 인민이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오직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이 걸어온 길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겹친 험난한 로정이였다. 우리는 두차례의 복구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파괴암해책동이 계속되였으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대국주의자들은 우리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극력 반대하여나섰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로 자기 힘에 의거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해나간다는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오직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도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철저히 관철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직접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으며 제기되는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구체적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으로 전개된 전후시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전쟁피해는 말로 표현할수 없으리만큼 심한것이였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과 교육, 문화, 보건시설들이 여지없이 파괴되였으며 인민들은 주택과 가재도구를 거의다 잃어버렸고 먹을것과 입을것도 매우 부족하였다. 전후복구건설을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정도로 우리 나라의 형편이 어려웠으며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우리앞에 헤아릴수 없이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난관이 중첩되였던 바로 이러한 준엄한 시기에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령락된 인민생활을 급속히 회복하면서도 어떻게 하나 짧은 시일내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할수 있는 누구도 해보지 못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이며 창조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중공업을 전후복구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심고리로 인정하고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제기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가장 빠른 기간내에 나라의 경제기술적락후성을 청산하며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토대를 쌓기 위한 방향이며 방도이다. 이 로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함께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과 나라의 만년대계를 정확히 타산하여 제시한 가장 정확한 로선이다.

중공업은 인민경제발전의 기초이다. 중공업을 앞세우지 않고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수 없으며 인민경제 각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없다. 나라의 정치경제적독립을 보장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결국은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중공업이 국내의 자연부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발전하며 생산과 건설,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 및 국방력의 강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하고 급속히 장성하는 수요를 자체로 보장할수 있는 자립적이며 다방면적인것으로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중공업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로선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 주로 국내의 자연부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발전하며 그리고 우리 인민경제에 필요한 자재, 원료, 연료, 동력 및 기계설비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는 자체의 중공업기지를 창설하는데 있었다. 이것은 곧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중공업을 창설하는 로선이다》(우와 같은 문헌, 20페지).

자체의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을 창설함에 있어서 당은 중공업공장들의 복구와 개건 및 신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며 중공업의 발전과 경공업 및 농촌경리의 발전을 옳게 련결시키는 방침을 취하였다.

전후경제발전의 매단계의 구체적조건과 가능성에 따라 각이한 형태로 실현된 중공업공장들의 복구와 개건 및 신설의 합리적배합은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여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강력한 중공업을 건설할수 있게 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다방면적발전과 기술적개건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게 하였으며 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케 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 인민생활의 향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건설하는 당의 방침은 중공업자체의 다방면적발전을 실현할수 있게 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은 경공업과 농업이 중공업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며 경제토대의 축성과 인민생활향상을 그 어느 하나도 뒤로 물릴수 없었던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서 제시되였으며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독창적인 로선이다. 이 로선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그에 최대한으로 접근시켜 발전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민활성과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가장 정확한 균형을 보장케 한 고귀한 경험을 창조할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짧은 기간내에 튼튼히 축성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게 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다.

강력한 중공업에 의거하여 현대적경공업기지를 창설하는것은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본질적요구이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창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의 우리 당의 정책은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23페지).

우리 당은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규모중앙공업을 건설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것은 경공업의 토대가 거의 없었던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자체의 경공업기지를 창설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형편으로 보아 현대적인 대규모경공업공장들을 단번에 건설할수도 없었고 또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급속히 장성하는 대중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도 없었다.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규모중앙경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시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중공업기지와 중앙경공업기지가 상당한 정도로 꾸려진 유리한 조건에서 지방경공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생산으로 충족시킬수 있게 하였다.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켜 주민들의 식량과 경공업원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농촌에서 기술개건에 앞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는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케 함으로써 농업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 농민 및 농업 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을 개척하시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협동농장들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이 개선되고 농촌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농민들의 정치사상적자각과 로력적열성이 비상히 높아졌다. 오늘 우리의 농촌경리는 자립적민족경제의 믿음직한 한부분으로서 확고하게 발전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필수적요구인 민족간부의 대렬을 확대강화함에 있어서 근로인민출신의 새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한편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인입하며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함에 따라 그들을 더욱더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옳은 인테리정책에 의하여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려 42만 5,700여명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의 기술자, 전문가들의 지혜와 힘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으며 새로운 현대적공장, 기업소들이 부단히 건설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지혜,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옳게 조직동원하는것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축성의 필수적요구이다.

당과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과 협의하며 그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3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또한 5개년계획의 첫시기 미제와 그 주구들이 반공소동을 악랄하게 벌렸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에 도전하여나섰으며 거기에 자금과 자재가 부족하여 경제건설이 커다란 난관에 부닥쳤을 때에도 당은 대중의 열성과 창조적힘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그것을 성과있게 타개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을 동원하여 조성된 난관을 풀것을 결심하시고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에게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호소하시였으며 친히 공장과 농촌에 나가시여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 천리마운동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온나라가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던 그 장엄한 나날에 현대적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유력한 중공업기지가 꾸려졌고 인민소비품을 자체로 충당할수 있는 경공업기지가 생겨났던것이다.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도, 지방산업공장들의 건설도,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도, 페허로 되였던 도시와 농촌의 복구건설도 모두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군중로선에 의거하여 군중적운동으로, 전인민적운동으로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에 광범한 대중의 힘과 지혜를 조직동원하는 과정에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였다.

특히 대안의 사업체계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경제관리에 구현한것으로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맑스—레닌주의적길이며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함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실로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의 령도가 있었기때문에 우리 나라는 짧은 기간내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가 주로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 자기의 간부들과 인민들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부단히 장성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생산으로 충족시킬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는 로선과 정책이라면 반드시 관철하고야 마는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의 위대한 결실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원칙,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이미 축성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신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주체사상, 자력갱생의 혁명적정신으로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만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공고히 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사상이다.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정책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의 구현인 당의 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계급의식을 높이며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당대표자회에서 제시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부문들과 기업소들을 보강하고 완비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개선하며 대규모기업소들과 중소규모기업소들을 계속 병행하여 발전시키며 나라의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특히 지방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56페지).

생산부문들과 기업소들을 더욱 보강 완비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개선하는것은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시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기간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여 방대한 건설사업들을 수행하였으며 인민경제 각부문에 걸쳐 위력한 생산토대를 닦아놓았다. 우리가 건설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사회주의적

농촌경리는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미 축성된 경제토대를 더욱 정비보강하여 그 위력을 증대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제기되는 합법칙적요구이다. 또한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개선하며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로 발전되게 하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본질적요구이며 현존경제토대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필수적과업이다.

우리는 이미 건설하여놓은 공장들에 살을 붙여 모든 공장들을 갖출것을 다 갖추고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는 완비된 공장으로 만들며 공업생산구조를 더욱 개선하여 우리의 공업을 부문간, 부문내부간 균형이 맞고 조화가 잡힌 공업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자기의 공고한 원료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업발전에서 원료를 외국에 의존한다는것은 아주 불안전한 일입니다. 자체로 원료의 대부분을 해결할수 있는 토대우에서 발전하는 공업만이 안전할수 있습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291페지).

우리는 채취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우고 흑색 및 유색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등 중공업부문들을 계속 발전시키며 대형기계설비생산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대중소규모생산을 병진시키며 기본건설을 강화하고 순수능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농촌경리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혁명적고조를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하며 천리마운동의 심화발전된 형태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있다.

우리의 선두에는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서계신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 그 수행방도들은 우리에게 앞길을 환히 비쳐주며 굳은 신심을 안겨준다.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인민대중은 중첩되는 난관을 용감히 뚫고 자력갱생하여 대고조를 일으킨 경험을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있고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경리가 있으며 수많은 과학기술일군대렬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 물질적 힘은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더욱 촉진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뭉치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지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리 증 필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며 전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입니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처음으로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명확히 밝히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문제는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대한 방침에서 기본적인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력사적인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으며 1967년 2월 2일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교시에서와 금번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10대정강에서 이 과업을 강력히 추진시킬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들에서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까지 이끌고가겠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시고 그 구체적인 방도들과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대한 방침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한이후 혁명을 계속하며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교양개조하여 그들간의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앨데 대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힌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

농민을 혁명화하며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그것을 강력히 추진시키는것은 모든 농민들을 우리 당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 혁명과 건설을 급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농촌에서 계속되는 계급투쟁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광범한 농민대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강력한 정신적 및 물질적담보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농민은 사회주의하에서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인 농업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도시와 공업에 식량과 경공업원료를 공급하며 로동계급과 더불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대표자회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서 《농민은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입니다》(단행본, 68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이와 같은 위치와 역할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당 앞에는 농민문제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이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대한 방침은 바로 이 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을 가리킨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농민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동시에 그들을 하루빨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과 크나큰 배려가 담겨져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 농촌에서 협동화의 실현은 농민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에서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개조함으로써 농민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주었다. 협동화이후 우리 농촌에서는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되였으며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사회경제생활에서의 변화는 그들의 사상의식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농민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은 비상히 제고되여가고 있다. 그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고 그것을 더 훌륭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재능을 바쳐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통하여 우리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을뿐아니라 그들의 사상의식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들 모두가 자각적인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교양개조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농민의 개조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협동화후에도 우리 농민들은 기술, 문화, 사상 령역에서 로동계급에 비하여 일정하게 뒤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농민은 소유관계의 측면에서도 아직 로동계급에 비하여 뒤떨어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집단화를 통하여 농민들의 소유였던 땅, 농기구 등 생산수단들이 공동소유로 되고 모든 농민들이 사회주의적협동경리에 망라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 농민들이 틀림없이 사회주의적농업근로자로 되였으며 로동계급에 크게 접근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집단화가 실현되였다고 하여 어제날의 빈농이나 중농이 완전히 로동계급화되였는가 하면 결코 그런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협동농장원들은 로동조건이나 소유관계에서 로동계급과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으며 특히 사상면에서 로동계급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져있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금 우리는 농민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는것을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농민들은 그들이 살고있는 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미 사회주의적농업근로자로 되고있다. 문제는 그들이 기술이나 사상의식의 측면에서 과거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락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아직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수준에 완전히 접근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농민들을 로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문화, 사상의 모든 령역에 걸쳐 그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로동자와 농민의 이 차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로동자와 농민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기술을 발전시켜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간의 차이를 없애며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넘겨야 하는 동시에 농민의 뒤떨어진 사상을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가르침에서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있어서 사상적개조를 물질기술적개조와 밀접히 결부시킬것을 강조하시였다.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우리 당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농민들의 물질적생활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에게 로동자와 같은 로동조건을 지어주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사상은 결국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며 농민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회주의적농촌경리제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부단히 공고발전시켜 모든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로동자와 같이 발전된 현대적기계로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로동조건을 지어주는데 기초할 때에 성과적으로 개조될수 있다. 또 그러한 조건하에서만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넘길수 있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테제에서 농촌기술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농촌경리를 수리화하고 기계화하며 전기화, 화학화하여 농민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앨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테제의 과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농촌경리는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급속히 공고화되였다. 당과 정부는 많은 투자를 하여 농촌의 수리화를 하여주었고 기술혁명에 필요한것들을 만들어 싼값으로 농촌에 보내주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경리에서의 기본적인 작업은 기계가 수행하고있으며 농민들의 로동조건은 비할바 없이 좋아졌다.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도 급속히 향상되여가고있다. 낡은 오막살이 대신에 문화주택이 늘어나고 농민들은 병나면 무상으로 치료받으며 국가에서는 이미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무료로 공부시켜주고있다. 이와 같은것은 우리 농민들이 오늘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고있으며 그들의 생활조건이 로동계급에 크게 접근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여 농민들속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왔다. 당은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확고한 원칙에서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문화혁명을 강력히 전개하여 과거의 락후한 생활양식과 인습을 청산하며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농민들의 사상의식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오늘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부단히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것이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과 낡은 생활인습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그들의 사상을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으로 철저히 개조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상응하게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 특히 사상혁명을 강력히 전개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본래 사람들의 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들의 변화에 비하여 뒤떨어지기마련입니

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을 혁명화하며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은 매우 굼뜨게 진행될것이며 우리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근로자로 만들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농촌의 사회주의제도는 농민들의 사상의식의 개변에 비하여 훨씬 앞서나가고있다. 농촌에 수립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는 농민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할것을 요구하고있는데 그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가 저애로 되고있다.

이리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부단한 심화발전은 농민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이 늘어나며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여도 사상혁명을 강력히 진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과거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소소유자적근성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낡은 사상의 이러한 보수적인 성격으로 하여 《농민들의 사상을 혁명화하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진정한 공산주의적근로자로 만든다는것은 농촌에서 사회제도를 개조하거나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우리 농민들의 대부분은 과거 오래동안 락후한 소농경리와 련결되어 있었다. 농촌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빈농의 경우만 놓고보더라도 그들은 결코 완전한 프로레타리아는 아니였다. 그들은 한편으로 품팔이도 하였지만 다른편으로는 얼마 안되는 자기의 땅뙈기와 농기구를 가지고 개인경리의 테두리안에서 생활하여왔다. 그들은 이런 생활환경에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여왔지만 자기들의 보잘것없는 소유때문에 소소유자적근성에서 벗어날수 없었고 조직적인 투쟁속에서 단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과거중농의 경우는 소농경리의 제반 특성들과 더 깊이 련결되여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농민들의 과거생활처지가 이러하였기 때문에 협동화가 실현된후에도 그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상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도 그만큼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집단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낡은 사상잔재를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조건하에서만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농촌에서의 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또한 그러한 조건하에서만 농민들이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더많이 생산하여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에게 보내주어야 할 자기들의 책임을 다할수 있다.

모든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으로 교양개조하며 그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르게 하는데 있어서 로동계급은 그들에게 각방면의 지원을 주어야하며 자기의 혁명적작용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은 농촌의 기술혁명에서뿐만아니라 사상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도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그들을 끝까지 이끌고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은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와 방조하에서만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설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8페지)고 가르치시였다. 그러므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농민들은 계속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는것은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로 된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이 력사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자신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더욱 높여 자체를 보다더 혁명적이고 선진적이며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듦으로써 전사회,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응당한 기준으로, 훌륭한 본보기로 되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농민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2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있어서 근본문제는 그들을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농민들을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무한히 충실하고 그이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의 명령과 지시라면 어떤 역경도 가시덤불도 헤쳐나가면서 기어코 실천해내고야마는 열렬한 혁명전사로 만드는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만 우리 농민들은 혁명의 영도계급인 로동계급과 더불어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더 빨리 넘어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농민들을 착취와 빈궁의 근원에서 영원히 해방하여 주시고 그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모든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우리 농민들이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고수하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충실히 복무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구체적인 가르침과 극진한 배려는 우리 농민들의 모든 승리와 행복의 담보이다. 그이의 정확한 가르침이 있음으로 하여 지난날 우리 농민들은 실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였고 끝없이 번영할 새생활을 마련할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가리켜주시는 한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며 그이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무조건 그대로 실천해나감으로써만 더큰 승리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기 위해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사상혁명의 과업들을 정력적으로 실천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사상혁명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시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선진사상과 품성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며 그들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그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길러주며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농민들로 하여금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는 공산주의적사업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우선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며 그들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확고히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으로 무장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계급, 사회의 온갖 낡고 부패한것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관점이다. 그것은 동시에 자기 계급과 자기의 사회주의제도를 무한히 사랑하고 그 륭성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관점이며 모든것을 당과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철저히 가려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에게 있어서뿐만아니라 농민들에게 있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와 농민은 다 같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고있으며 조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자와 농민들은 다같은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그들의 리해는 근본적으로 일치합니다. 다만 분업에 의하여 로동자는 공업생산을 맡아하고 농민은 농업생산을 맡아할뿐입니다》.

농민은 이 분업을 옳게 수행함으로써 로동계급과 더불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과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들이 자기앞에 부과된 이 과업을 더 훌륭히 수행하게 하자면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을 확고히 소유하고 로동계급처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그 리익을 끝까지 고수하는 립장에 확고히 서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실제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굳건히 보위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나아가서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일층 공고히 할수 있다.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인 농민들을 확고한 계급적관점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오늘 우리 농촌에서 계급투쟁이 계속되며 우리가 여전히 미제와 직접 총부리를 맞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리에게는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비롯한 온갖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 필요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는 일체 현상을 예리하게 식별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확고한 립장이 필요하다.

모든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일층 높임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게 하며 조국땅 남반부를 강점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언제든지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울 확고한 각오로 충만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농민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야만 그들이 실제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높은 영예를 간직하고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언제 어디에서나 당과 혁명의 리익을 목숨으로 지켜낼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적극 배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개인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근성을 청산하고 그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농민들에게 남아있는 리기주의사상은 수세기에 걸쳐 대대손손으로 계승되여온 뿌리깊은 사상이다. 농민들속에서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공동재산을 애호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27페지).

우리 농민들은 협동화가 실현된이후 다같이 집단경리에 망라되여 집단주의

적원칙에서 일하고있으나 집단주의적 생활기풍을 발휘하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로동계급에 뒤떨어지고있다.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진정한 우월성과 생활력은 오직 이 제도의 주인인 전체 농민들이 리기주의를 극복하고 집단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조건하에서만 높이 발현된다.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는데서 우선 중요한것은 공동재산을 애호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주는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동지적관계를 맺고있다. 이 제도하에서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는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품성으로 된다.

집단에 대한 사랑은 집단에 속해있는 성원들을 사랑함과 함께 집단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의 협동농장들은 국가의 막대한 재정적지원과 농민들의 집체적로력으로 살림집을 비롯한 공동시설들을 많이 건설하여놓았다. 우리는 매개 농장원들에게 이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기의 마을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정신을 길러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농장원들이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집단주의는 로동에 대한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농민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농민들로 하여금 로동을 즐기고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것을 수치로 생각하며 그것을 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 증오하고 배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농민들이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공동로동에 더욱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27~28페지).

농민들이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할 때에만 집단과 사회는 더욱 번영할수 있다. 개인의 향락과 개인적인 리해관계만을 따지면서 집단과 사회의 번영을 생각지 않는 리기주의사상을 가지고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할수도 없고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살수도 없다.

더우기 우리 농민들은 당과 국가의 크나큰 배려속에서 살고있으며 로동계급이 보내주는 농기계와 비료 등을 싼값으로 받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농민들이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애써 투쟁하는것은 그들의 가장 숭고한 임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이러한 사상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는 길로 이끌어갈수 있는것이며 집단과 전체를 위하여 일하는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농민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적극 길러주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성과 조직성은 대규모적인 현대산업과 련결되여 활동하는 로동계급에게 고유한 본성의 하나이다.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이와 같은 혁명성과 조직성을 적극 본받게 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날수 있는 일체 비조직적인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농민들의 작업자체가 일정한 분산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농민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적극 배워 혁명적으로 살고 일할 때에만 당정책을 제때에 정확하게 관철

할수 있고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의 단결된 힘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농민들이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우리의 혁명위업을 기어코 완수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적극 배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농민들속에서 낡은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지향하는 정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여야 하며 그들을 혁명적락관주의로 무장시켜야 한다.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씨족관념과 문벌주의를 반대하며 그들에게서 흔히 나타날수 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더 훌륭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렬한 지향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계속전진하며 계속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28페지).

어제날 개인경리의 조건에서 착취와 억압에 시달려오던 우리 농민들의 처지는 오늘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현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찌기 그려보지 못한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미제의 파쑈적폭압통치밑에 놓여있는 남녘땅형제들을 잊어버릴수는 없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결코 우리자신만을 위한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이 건설하고 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또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남녘땅형제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세대에 기어코 남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일시적인 난관이 있을수 있다. 강도미제가 공화국남반부에 도사리고있는 조건하에서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저지시켜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힘도 우리의 전진운동을 멈춰세울수는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에로의 전진도상에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장애들이 가로놓여있고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을수는 있지마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가로막을 힘은 없는것입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4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농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와 광명한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전진하며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고 새것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완강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정부정강에서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하여서는 사상혁명과 함께 또한 문화혁명을 강력히 전개하여 그들의 문화수준을 로동계급의 수준에 끌어올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농촌문화혁명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적극 높여주는것이다. 이것은 농촌문화혁명의 기본으로 된다.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농촌에서 기술혁명도 옳게 실현할수 없으며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모든 농민들이 일반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며 누구나 영농사업에 필요한 기술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테제가 밝혀준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더 훌륭히 완성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3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속에서의 공산주의교양은 반드시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은 농민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끝까지 싸우는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에서는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내용을 깊이 인식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농민들에게 테제에 담겨져있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인식시키며 수령께서 우리 농민들에게 매시기 무엇을 요구하고계시는가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테제에는 우리 농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도달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이 밝혀져있으며 농촌에서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과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우리 당의 농업정책은 그 하나하나가 테제의 사상을 구체화하는것과 관련되여 있다. 당은 매시기의 농업정책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하여 농업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를 점차 극복하면서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테제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그러므로 농민들속에서의 당정책교양은 테제의 사상을 깊이 파악시키는것이 기본으로 되여야 한다. 모든 농민들이 이것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오직 이 길을 따라 확고하게 전진하며 거기에서 제시된 모든 과업을 정확히 실현해나감으로써만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고 휘황한 공산주의사회에 도달할수 있다.

테제와 함께 김일성동지의 모든 교시들을 일상적으로 학습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농민들이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모든 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으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정책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전통교양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깊이 인식시키며 그들이 오늘 누리고있는 자유와 행복이 얼마나 간고한 투쟁의 대가로 실현된 귀중한것인가를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륭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농민들속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을 꾸준히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회상기학습은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공산주의적품성으로 무장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회상기학습이 생활화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 항일빨찌산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고귀한 투쟁경험을 배우게 하며 항일빨찌산들의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풍모와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본받아 사업과 생활에서 적극 구현하게 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결코 일시적인 깜빠니야나 실무적조치로써 해결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이

것을 위하여서는 목적지향성있는 꾸준한 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특히 농촌당조직들이 이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농근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시기 농촌근로단체들의 주되는 사업은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에 돌려져야 한다. 근로단체들은 농민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꾸준히 진행하며 모든 농민들을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시켜 모두가 혁명적으로 살고 학습하며 혁명사상을 련마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농민들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길러주며 그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와 인습을 제때에 극복할수 있게 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된다. 조직생활을 통하여 부정적현상에 대한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을 일상적으로 전개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며 대중적통제와 조직적인 규률속에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불살라버리고 모두가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하여 당이 제시하는 매시기의 과업을 제때에 혁명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근로단체들은 농민을 교양하는데 있어서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 교양방법을 계속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군중교양의 기본방법은 사람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의 경험은 이 방법이 군중교양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긍정적모범을 보급하며 사람들을 성의껏 도와주고 꾸준하게 설복하여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농민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야 한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2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농촌근로단체들은 농민들이 가지고있는 긍정적인것을 적극 찾아내여 그것을 광범히 보급시키고 백방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농민들이 낡은 사상과 인습이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을 개조하는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게 하여야 한다. 특히 집단로동과 집단생활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싹들을 옳게 키워주며 농민들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을 제때에 정확하게 평가해줌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적농업근로자로서의 높은 긍지와 우월감을 가지고 협동경리를 발전시키는 공동로동에서 최대의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농촌핵심진지를 확대강화하며 농촌에 파견된 로동계급의 역할을 부단히 높여 농민들을 교양하는데서 그들이 본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대중교양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일군들자신이 당정책을 집행하는데서 언제나 앞장서며 실제행동으로써 대중의 모범이 되는것이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일손을 직접 도우면서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감화시켜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은 언제나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실천과 결부시켜 진행할때 더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 농촌근로단체들은 농민들속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확대하고 심화시켜 농민들의 집단적혁신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사상교양사업을 집단로동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더잘 무장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양사업을 통하여 전체 농민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이의 충직한 전사로, 진정한 공산주의적근로자로 만듦으로써 모든 농민들이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완강하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

방 문 권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계승자이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인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이 가까와오고 있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20년간의 승리의 력사는 그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앞으로 조국이 해방된후 강력하고 현대적인 인민무력을 창건할데 대하여 명시하시고 조선혁명의 군사강령을 작성하시였으며 수많은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을 육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제때에 항일빨찌산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항일유격대원들의 칠저한 반제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군민일치, 상하일치의 전통적기풍과 백전백승하는 풍부한 투쟁경험으로 무장시키시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의 인민군대는 짧은 기간에 그 어떤 포악한 원쑤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수 있으며 그 어느때나 우리 당이 내세운 혁명과업수행을 무력으로 담보할수 있는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온나라가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 있다.

당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국방력을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병진시키며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천명하신 군민일치의 위대한 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더욱 훌륭히 구현하는것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군민일치, 이것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의 빛나는 전통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유격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 군대인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유격투쟁의 숭고한 목적이 있으며 힘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싸워나가야만 우리의 목적은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을 생활과 활동의 신조로 삼고 항상 인민대중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인민에 의거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웠다. 또한 인민들은 온갖 위험과 난관을 무릅쓰고 모든것을 다하여 유격대를 도왔으며 필요한 때에는 직접 손에 무장을 들고 유격대와 함께 싸웠다.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경험은 군민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울때 아무리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우세한 침략군대라도 능히 쳐부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 어떤 악조건과 역경도, 원쑤들의 발악적책동도 항일유격대와 인민이 한덩어리로 뭉쳐 끝까지 싸우려는 억센 혁명적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우리는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높이 발양함으로써 어떠한 불의의 시각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침공하여와도 그에 섬멸적타격을 가하고 처부실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굳건히 보위하고 혁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인민과 군대에게 있어서 무한히 귀중하며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1

김일성동지의 군민일치사상은 혁명군대의 계급적성격과 사명, 혁명적무장력과 인민의 호상관계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분석에 기초하여 천명된 위대한 사상이다.

군대와 인민의 호상관계는 그 군대가 어느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며 무엇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착취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군대는 인민들을 탄압하는 폭압기구이며 살인도구이다. 이들에게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성심이란 추호도 찾아볼수 없다. 이러한 군대는 그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본질로 하여 인민의 지지를 받을수 없을뿐아니라 항상 인민들과 적대적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서는 군민일치란 전혀 생각조차 할수 없다.

군민일치는 오직 혁명군대, 착취계급을 반대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무력에만 있을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항일유격대는 일제와 지주, 자본가를 반대하고 빼앗긴 조국을 다시찾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모진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총을 잡고 희생적으로 싸운 진정한 혁명군대, 인민의 무장력이였다.

항일유격대는 자기 인민과 자기 계급에 무한히 충실하고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 등 인민의 원쑤, 계급의 원쑤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다.

로동자, 농민과 계급적으로 하나로 련결되였으며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한 항일유격대의 계급적성격과 숭고한 사명, 바로 여기에 군민일치의 확고한 기초가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혁명군대와 인민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시고 군민일치를 항일유격대의 모든 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군대이며 인민의 진정한 아들딸들이다. 우리는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투사들이다. 우리의 힘의 무궁무진

한 원천은 우리가 인민들과 일심동체가 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싸움도 항상 령활성있게 잘 해야 하지만 어디서나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자기의 가장 귀중한 생명처럼 여기며 그 어떤 간난신고도 참고 견딜줄 알아야 하며 인민과 함께 즐기고 인민과 함께 나아가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진실한 행복과 긍지와 희망이 있는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침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언제나 인민과 같이 살고 인민과 같이 싸우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해결하는 투쟁정신을 높이 발양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받들고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오직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으며 인민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싸웠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군중관점과 군중로선이 항일무장투쟁시기 군민일치를 더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킨 요인으로 되였다.

항일유격대가 그처럼 간고한 조건에서 한두해도 아니고 15성상이란 기나긴 세월에 걸쳐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이길수 있은것은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령도되였으며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투쟁하였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의 군민일치사상은 조선혁명수행에서의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 기초한것이며 이를 군사분야에 구현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폭압이 전례없이 심하였고 검은 구름이 휘몰아쳐 조선혁명의 전도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던 1920년대말～1930년대초의 그 준엄한 시기에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혁명수행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을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대사변을 떳떳이 맞이할수 있으며 해방된 조국의 민주건설도 우리의 손으로 할수 있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이며 주인인 우리자신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적극 노력하고 자주적으로 투쟁하여야만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 주체사상은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간의 혈연적련계를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일제를 반대하고 조선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투쟁력량을 강화하여야 하였으며 우리자체의 힘을 강화하려면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간의 군민일치의 고상한 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군민일치사상은 바로 이렇게 주체사상에서 출발한것이며 주체사상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자위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련계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언제 어디에서나 유격대원들과 혁명적군중들에게 바로 그들이 조선혁명의 주인이며, 조선혁명의 승리는 그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가르치시였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체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하여야 한다고 고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유격대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은 유격대를

적극 지원하여 일심동체가 되여 투쟁한다면 능히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군중들은 이러한 사상으로 교양됨으로써 높은 혁명적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간직하고 철석같은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였으며 힘을 합쳐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김일성동지의 군민일치사상은 어떠한 상상력을 가지고도 그려보기 어려운 항일무장투쟁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이루어졌으며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더욱더 위대하며 무한히 고귀한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항일유격대는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긴 조건에서 주권도, 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적의 백만대군과 싸워야 하였다. 그들은 원쑤들의 총검의 숲을 헤가르면서 하루에도 수십차의 전투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또한 공산주의운동내부의 온갖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였다.

이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에서 항일유격대를 도운것은 오직 혁명적인민들만이였으며 항일유격대가 의지할것은 로동자, 농민 등 근로인민들뿐이였다.

한편 일제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받으며 무권리와 빈궁에 허덕이던 인민대중은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고 자유를 쟁취할수 있다는 모든 희망과 기대를 오직 항일유격대에 걸고있었다.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조직하시고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이외에는 인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의탁할 곳이란 없었다.

이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유격대와 혁명적인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여 서로 돕고 합심하여 싸우는것은 가장 절실하고도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으며 그것은 조선혁명전반의 승리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김일성동지의 군민일치사상은 당시 조선혁명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가장 정확히 해결한것이며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거창한 힘을 마련하여주었다.

2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군민일치사상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에 의하여 빛나게 구현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 속에서 그처럼 높이 발양된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끊임없는 교양과 그이의 실천적인 모범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그이의 실천적인 모범은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 속에서 군민일치의 기풍을 높이 발양시키는 기본요인으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 항일유격대원들을 항상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에게 충실하고 인민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시였을뿐아니라 몸소 그 실천적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우리는 그이께서 인민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극진히 보살피시였으며 얼마나 두터운 배려를 돌리시였는가를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인민의 리익을 존중할줄 알아야 한다》, 《인민의 리익을 위하는 마음에서》 등 수많은 항일빨

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가슴 뜨거이 찾아보게 된다.

인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명절을 하루 앞둔 섣달 그믐날밤에 찬바람휘몰아치는 눈속에서 대원들과 함께 단 몇술의 조밥으로 설명절을 보내시였다는 이야기, 헐벗고 굶주리고있는 인민들에게 옷을 사입고 닭도 사서 길러 아이들에게 고기도 먹일수 있게 하신 그이의 어버이사랑, 한 가난한 농민의 농사일을 걱정하시여 로흑산전투에서 빼앗은 말을 보내주신 이야기 등 실로 헤아릴수 없이 많고 많은 그이의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두터운 배려, 인민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며 인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해결해주시는 그이의 고매한 덕성을 과연 그 어디에 비길수 있으랴.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그이의 지극한 사랑속에서》는 인민에 대한 그이의 넓고도 깊은 사랑과 배려를 가슴 뜨거이 보여준다.

1934년 겨울, 요영구유격근거지의 형편은 이루 말할수 없이 곤난하였다.

일제는 이해 겨울에 들어서면서부터 요영구유격근거지에 대한 《토벌》을 발광적으로 감행하면서 집을 불사르고 가장집물을 닥치는대로 짓부시는 한편 근거지를 포위하고 인민들을 굶겨죽이고 얼궈죽이려고 미쳐날뛰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근거지내 인민들은 모진 식량난을 겪게 되였으며 엄동설한에 옷과 신발들이 처지고 궤져서 말할수 없는 곤난에 처하게 되였다.

바로 이때에 북만원정에서 요영구로 돌아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원정기간에 앓으신 후과가 채 가셔지지도 않으신 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있는 근거지인민들의 곤난한 생활형편을 걱정하시여 삼차구성시진공전투와 같은 큰 전투까지 조직하시였다. 이 전투에서 유격대는 수많은 무기와 천을 비롯한 물자들을 로획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획한 천을 가지고 유격대원들은 물론 근거지내 전체 인민들에게 새옷을 지어 입히게 하시고 남은 천을 헐벗고 굶주리고있는 적통치구역 인민들에게까지 보내주자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일제놈들때문에 어디에서나 헐벗고 굶주리고있소. 우리는 인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싸우려는 결심을 가지고 손에 무기를 든 인민의 군대요. 그러므로 인민들이 불행과 고초를 겪는것은 바로 우리의 불행과 고초로 되오. 그러기에 인민들의 기쁨과 불행은 바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불행으로 생각해야 하오. 우리는 자나깨나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되며 또 잊을수도 없소.

그것은 비단 우리 유격구역내 인민들에 대하여서뿐만아니라 적통치구역내 인민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오. 지금 우리에게는 천이 남았소. 이것을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옷 한벌씩을 더 해입을수도 있소. 그러나 동무들, 우리가 진정 인민의 군대라면 그 천을 남겨두는것보다 이 엄동설한에 떨고있는 적통치구역인민들에게 나누어주어서 옷을 해입게 하는것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소! …》.

어버이수령의 인민에 대한 이 자애로운 사랑과 뜨거운 배려에 감동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적통치구역에 들어가 그곳 인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이의 말씀대로 천을 모두 나누어주었다.

일생동안 베옷 한벌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오던 인민들은 그이께서 보내주신 천을 받아들고 수령의 자애롭고 뜨거운 사랑에 너무도 감격하여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뜨겁고도 깊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신뢰하고 흠모하였으며 한결같이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해방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면서 항일유

격대를 성심성의로 도왔으며 그들을 혈육의 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였다.

또한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이의 끊임없는 교양과 실천적인 모범을 배워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였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인민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 몸바쳐 투쟁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 놓이더라도 항상 자신들이 인민의 군대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되오. 적과 싸울 때는 물론이고 인민들을 도와주고 인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도 모든것을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진심으로 도와주는 립장에 서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오》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침대로 항상 인민에게 충실하였으며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곤난과 위험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었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는 인민들이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처럼 쓰리고 아픈 일은 없었다.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인민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덜어주고야 마음을 놓군하였다.

수개월동안 밀림속에서 굶주림으로 고생하던 한 유격대원이 어쩌다가 민가에서 하루밤 묵게 되였을 때 맨봉당에서 지내는 집주인의 정상을 가슴아프게 생각하여 온밤을 새워가면서 밀짚로 겸을 만들어 깔아주고야 떠났다는 이야기, 식량이 떨어져 풀잎으로 끼니를 에우며 고생하다가 한 골짜기에 이르러 쌀과 감자움을 발견하고 주인이 나타나기를 1주일이상이나 애타게 기다리다가 끝내 만나지 못하고 그곳에 사과하는 편지와 돈을 묻어두고 떠났다는 한 소부대 성원들에 대한 이야기 등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게 친저히 복무하는 항일유격대원들에 대한 감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것—이것이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이며 임무였다. 유격대는 가는 곳마다에서 모든것을 다하여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위하며 로인들을 존경하고 어린이들을 깊이 사랑하는것을 항상 잊지 않았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아무리 곤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인민에게 해가 미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항일유격대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복무의 정신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인민들이 또한 그들을 혈육의 정으로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자기들의 모든것을 다하여 유격대를 성심성의로 도와나섰다.

인민들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령솔하시는 항일유격대만이 일제를 쳐부시고 자기들에게 조국을 찾아주며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시켜주리라는것을 굳게 믿고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확신으로 하여 인민들은 항일유격대를 위한 일이라면 일신상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도와나섰다. 인민들은 부상당한 유격대원들을 친자식과 같이 간호하여주었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어떻게 하면 유격대를 더 잘 도와줄수 있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우리는 그러한 모범을 《산전막의 로인》, 《장백현사람들》, 《인민들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로야령의 외딴집로인들》, 《쑥새골로인》, 《유격대는 어디에서나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었다》 등 여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감명깊게 찾아보게 된다.

그처럼 감시와 경계가 심한 《집단부락》인민들이 언제 만날지 알수 없는 유격대에 보내주기 위하여 한줌두줌씩 쌀과 소금을 모았다는 이야기, 자기 한몸의 위험은 돌보지도 않고 유격대원들에게 적정을 탐지해주고 혁명적군중과의 련계도 맺어주며 그가 떠날 때에는 식량까지 마련해준 한 농민에 대한 이야기, 쌀과 성냥을 산전막에 넣

어두고 1년 열두달 30여리나 되는 곳을 비가 올 때에도, 눈이 올 때에도 단하루 빠짐없이 다니다가 유격대의 한 소부대를 만나게 되자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이 늙은것이 애쓴 보람이 있어 당신들을 만나는구려…》라고 하면서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했다는 기특한 사연 등은 실로 우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이와 같이 혁명적인민들은 적통치구역에 갇혀있으면서도 오직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 유격대를 위한 일이라면 성심성의로 적극 도와나섰다.

온성을 비롯한 국내각지 인민들은 그처럼 놈들의 감시와 경계가 심한 조건하에서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의약품과 화약 등 수많은 물품들을 유격대에 보내주었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장백현사람들》은 항일유격대의 혁명적영향을 받은 인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는 유격대에 정성어린 원호물자를 조직적으로 보내주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1937년 봄, 불과 한두달동안에 장백현사람들은 100여필의 천과 10여섬의 쌀, 200여켤레의 지하족과 300여켤레의 짚신 등 실로 많은 원호물자를 유격대에 보내줌으로써 유격대의 활동을 적극 도와나섰다. 이러한 지성어린 물품들은 조국광복회의 조직망들을 통하여 거의 매일과 같이 유격대에 보내왔으며 그것들은 혁명조직의 주위에 결속된 인민들이 한푼두푼 모은 돈으로 샀거나 직접 모아낸것들이였다. 참으로 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령솔하신 항일유격대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유격대를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도와나섰다. 항일유격대는 바로 이러한 인민들의 군중적지반이 있었고 자기들을 혈육의 정으로 사랑하고 극진히 보살펴주는 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이 있었음으로 하여 15성상의 간고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인민들은 비록 자기 한몸에 위험이 닥쳐오고 온가족들에게 무서운 불행이 덮치게 될 정황에서도 자기 한몸이나 가정에 대해서보다도 혁명의 길에 나선 유격대원들을 더 소중히 여겼으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쳤다.

항일무장투쟁의 15성상에 인민들이 유격대를 이처럼 아끼고 사랑한 고상한 품성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이르는 곳마다 그 어디에서나 아름답게 피여났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위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을 인민들이 적극 도우며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여 원쑤와 견결히 싸운데서도 높이 발현되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무한히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서로 한덩어리가 되여 끝까지 원쑤들과 싸워이겼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하나로 뭉친 힘》, 《왕우구인민들》, 《내두산에서》 등에서 찾아볼수 있는바와 같이 일제는 우리의 항일유격대를 《전멸》시켜보려고 그처럼 악착하게 책동하였지만 인민과 한덩어리로 굳게 뭉친 유격대의 불굴의 투쟁앞에서 끝내 패하고 말았다.

유격근거지를 사수하기 위하여 준엄한 시련을 이겨낸 소왕청사람들, 왕우구와 내두산 인민들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은 유격대와 함께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적들의 공격을 걸음마다 물리치고 유격근거지를 빛나게 사수하였다.

인민들은 생산유격대를 조직하여 생산도 하면서 유격대의 전투활동을 적극 도와나섰으며 또한 적들의 동태와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유격대의 귀가 되고 눈이 되여 일제를 반대하여 함께 싸웠다.

1933년 4월부터 일제는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계신 조선혁명의 심장부로 되고

있던 소왕청유격근거지를 일거에 완전히 《소탕》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동만 각지와 지어는 타남에 있은 19사단까지 끌어들여 보병, 포병, 기병, 비행대 등 현대적무기를 갖춘 5,000여명의 이른바 《정예부대》를 가지고 공격해왔다. 각방향으로부터 포위해들어온 적들은 근거지주변의 산림과 가옥들에 불을 지르면서 소왕청유격근거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그이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하나로 굳게 뭉쳐여 끝끝내 혁명의 심장—소왕청유격근거지를 고수하였다.

불과 50여명의 적은 인원으로써 5,000여명의 적들과 40여일간에 걸쳐 피어린 싸움을 전개한 소왕청방어전투의 승리는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백절불굴의 투쟁과 함께 유격근거지내 인민들의 유격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소왕청근거지인민들은 유격대원들의 투쟁에 고무되여 일신의 위험도 돌보지 않고 견결히 싸웠다. 그들은 탄약과 식사를 이고지고 산으로 치달아올라갔으며 녀성들은 피흘리며 싸우는 유격대원들에게 한모금의 물이라도 더 보내주기 위하여 총탄이 우박치는 위험속을 뚫고 고지를 하루에도 몇번이고 오르내리였다. 아동단원들까지도 혁명가요를 소리높이 부르면서 유격대원들과 싸우는 인민들을 고무하였을뿐아니라 《자작권총》을 만들어가지고 원쑤를 질겁케 하였다. 인민들은 적들의 계속되는 《토벌》과 포위로 하여 나무껍질과 풀잎으로 끼니를 에우며 홑옷을 입고 엄동설한을 이겨내야 했으나 그 누구도 비관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굳게 확신하고 투쟁하였다.

이와 같이 소왕청방어전투의 전과정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목숨 바쳐 투쟁하는 혁명군대와 인민의 하나로 굳게 뭉친 힘은 그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그 어떤 잔인무도한 원쑤의 침략도 능히 격파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혼연일체가 되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높은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살며 싸웠다.

우리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인민은 유격대를 피로써 도왔다》에서도 인민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유격대의 전투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감동적인 사실을 보게 된다.

적들에게 보복의 총탄을 안기기 위하여 국경지대로 행군하다가 가재수부락의 적을 치는 전투를 하게 된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좀체로 항복하지 않고 완강하게 대항해나서는 적포대의 사격에 의하여 위험을 당하게 되였을 때 한 유격대원은 포대문이 있는 곳을 알려고 한 농가에 뛰여들었다. 총탄이 지붕우를 윙윙 날아오는 가운데 어린아이를 껴안고 방안에 있던 그 집 어머니는 유격대원에게서 포대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받고 두말없이 부엌에서 도끼를 찾아들고 《날 따라오시오》 하고는 총탄이 우박치듯 하는 속을 뚫고 내달리였다. 포대문에 이른 그는 도끼로 널문을 찍어넘기여 유격대의 진공로를 개척해주었으며 자신은 적의 총탄에 맞아 희생되였다.

적의 포대를 점령하고 마을을 해방시킨 유격대의 승리, 이것은 바로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싸우는 유격대와 인민의 불패의 힘을 과시한것이다.

이렇게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인민들은 항상 유격대를 자기의 군대로, 자기의 생명재산을 무력으로 보위해주며 자기들에게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마련해주는 혁명적무장력으로 굳게 확신하면서 굿굿이 살며 싸웠으며 유격대는 또한 인민에 튼튼히 의거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싸웠던것이다.

항일유격대는 바로 이런 혁명적군중에 튼튼히 의거하였으며 인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적극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15성상 일제와 싸워 승리할수 있었다.

* *

김일성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은 해방후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에 의하여 계승되였으며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과 그 위력은 미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하고 조국의 촌토를 목숨으로 사수하였으며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미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오늘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할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으며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남반부인민들도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그날을 앞당길 일념으로 불타고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당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지난시기에 그러했던것처럼 오늘도 계속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고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서로 굳게 힘을 합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전인민적지지와 원호를 강화하는것은 결국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과업이다.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은 평시에는 물론 일단 유사시에는 전선과 후방을 한덩어리로 굳게 결합시킴으로써 온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전변시키며 원쑤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는 위력한 힘을 낳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전체 인민은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원호하여야 하며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발양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군인들과 인민들이 진정한 혁명동지로서 하나로 굳게 뭉쳐 일편단심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61페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군민일치의 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항상 혁명동지로 서로 굳게 뭉쳐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낼것이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반제반미투쟁에서 힘을 합치는것은 3대륙인민들의 절박한 요구

현 권 일

우리 당 대표자회보고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반제반미투쟁의 원칙적 문제들과 투쟁방침, 김일성동지의 론문《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는 오늘 세계각국의 혁명가들과 진보적인사들, 광범한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의 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문헌들에서 모든혁명가들과 세계반제력량이 반제반미투쟁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을 명철하게 천명하시였으며 반제투쟁의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로선은 외국의 벗들도 인정하고있는바와 같이《세계인민들이 취하여야 할 정확한 투쟁로선》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강령으로 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아세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범한 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반제반미투쟁로선이 가지는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에 대하여 일치하게 경탄하여마지않으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투쟁의 앞길을 찾고있다.

말리수단련맹당의 한 대표는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보고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미반제투쟁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일본의 한 진보적인사는 김일성동지의 론문《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는《현국제정세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가장 적절한 구체적적용이며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현대세계의 최고수준의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3대륙인민단결기구집행서기국 뽀르뚜갈령 기네대표는 김일성동지의 론문에 대하여 세계혁명가들에게 투쟁의 참된 길을 똑똑히 가르쳐준 력사적문헌이라고 하면서《우리는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함에 있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걸출한 지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고 아바나에서 진행된 세계문화대회에 참가하였던 기네대표는《3대륙인민들의 반제투쟁에서 얻은 교훈들을 집대성한 문헌》이라고 하였으며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의 한 지도자는《싸우는 혁명가들에게는 무한한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는 교과서로 되며 원쑤들인 제국주의자들에게는 폭탄으로 된다》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청년운동의 한 지도자는《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부정강에는…대외정책분야에서 조선인민이 견지하고있는 철저한 반제반식민주의적립장이 정확히 반영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가장 정확하고 원칙적인 반제반미투쟁로선은 오직 40년간의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그이의 견결한 반제적립장에서,그리고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리론적으로 총화한데 기초하여나온것이며 조선혁명을 완수할뿐아니라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소멸하고 세계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며 맑스—레닌주의위업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그이의 철저한 혁명사상에서 나온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을 반제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키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속에서 김일성동지를 《반제반미투쟁에서의 승리의 상징》, 《공산주의세계에서 영원히 빛날 또하나의 별》, 《조선혁명을 위해서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을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적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지도자》로서 받들고 그이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우러러보면서 높은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다. 우리는 우리 인민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 계시며 세계인민들이 그처럼 존경하고 흠모하여마지않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그이의 전사로서 싸워왔으며 또 싸우고있는데 대하여 실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나아갈것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과 더불어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 *

우리 당 대표자회보고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반제반미투쟁로선과 론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는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데 대한 원칙적립장이 철저히 관통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론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도로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투쟁은 더욱 치렬하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은 반제국주의의 기발을 높이 들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고있으며 현국제정세발전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적실태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모든 인민혁명과 민족해방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3대륙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고수하여야 할 반제반미투쟁의 원칙적립장을 제시한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강력한 해방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나 의연히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생존을 위협하는 주되는 세력으로 남아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그 부원을 긁어내여 살이 찌고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제국주의의 침략적지반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한치의 땅이라도 더 그러쥐고 예속시키며 한푼이라도 더 빨아내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죽는날까지 인민들을 압박하고 략탈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는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에서 나오는것이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는 적지않은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이 있다. 이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완전히 주인행세를 하고있으며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국주의의 략탈적 및 침략적 본성은 결코 변할수 없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와 민족적독립, 새생활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선전을 폭로하며 그들이 식민지와 예속국들에서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내주리라는 환상을 철저히 깨뜨려버리는것이 필요하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

이 있는 법이다. 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제국주의가 폭력으로써 약소민족들을 략탈하고 압박하는 이상 피압박민족들이 손에 무기를 틀고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것은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다》 (우와 같은 문헌).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식민지, 예속국가 인민들에게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선사할수는 없는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도와줄 용의가 있다거나 《벗》으로 될수 있다고 떠드는것은 그들의 략탈적 및 침략적 본질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자들, 식민주의자들은 그 어느때도 피압박민족들과 약소민족들의 《벗》으로 될수 없으며 저들의 야수적본성을 버리지 않을것이다. 3대륙인민들은 오직 제국주의와의 비타협적인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쟁취할수있으며 이미 달성한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 새로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이미 쟁취한 독립을 수호하고 혁명을 전진시키며 아직도 제국주의 식민지예속하에 있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원하여야 할 어렵고 중대한 과업을 지니고있다.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이 투쟁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해방투쟁과 함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매장하는 주되는 투쟁의 하나를 이루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대표자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앞에는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파괴책동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분쇄하며 제국주의 및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수립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식민지통치에서 넘겨받은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20페지).

정치적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정치적독립이 달성되였다하여 반제투쟁과업이 완성되고 민족적모순이 완전히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정치적독립을 달성한후에도 반제투쟁은 의연히 첨예한 문제로 남아있으며 결코 약화되지 않는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파괴책동을 분쇄하며 그들의 반동적지반을 제거하는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심각한 반제투쟁과정이며 련속적인 혁명과정이다. 그러므로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은 식민지통치의 낡은 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며 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완전히 박탈하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진보적 사회개혁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는것은 민족해방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과업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떳떳한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으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외세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야 정치적으로도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고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을수 있다.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예속적이며 략탈적인 《원조》정책을 배격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 인민의 힘과 국내자원에 의거하여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과거의 낡고 썩은 식민지문화를 철저히 청산하고 자기의 민족문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체의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하나의 심각한 투쟁이며 새생활을 건설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예속에서 해방된

민족들이 온갖 민족적불평등을 청산하고 진정한 자유와 번영을 이룩하자면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본주의하에서는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이 지배하고 민족적불평등이 존재하며 극소수의 민족에 의하여 대다수 민족들의 자유로운 발전이 억제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다. 오직 사회주의의 길만이 계급적착취와 함께 온갖 민족적억압, 민족적불평등을 청산하고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여주는것이다.

※ ※

현시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원쑤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 미제국주의는 전세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침으로써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로 되였다.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않고있거나 미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을 받지 않고있는 나라가 없다》(《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미제국주의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는것은 오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이며 이것은 우리 당의 반제투쟁의 중요한 방침이다.

혁명에서 주되는 투쟁대상을 옳게 설정하며 그에 화살을 집중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자들의 전략전술적원칙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되는 원쑤에게 보다 강력한 타격을 가하며 제국주의의 전반적붕괴를 성과적으로 촉진시키고 혁명투쟁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하며 세계진보적력량을 탄압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자기의 강도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으면서 사회주의나라와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벌려놓고있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간섭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3대륙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으며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금 예속시키고 략탈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신생독립국가정부들을 뒤집어 엎으며 그들을 반제전선에서 떼여내기 위한 전복음모와 파괴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세계혁명력량과 반제력량이 급격히 장성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적지반이 급속히 무너져감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다.

미제는 지금 침략의 예봉을 웰남을 비롯한 아세아에 돌리고있다. 그들은 이미 50여만의 침략군과 수많은 괴뢰군을 웰남전쟁에 끌어들이고 방대한 현대적군사장비를 동원하여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으며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강도적인 폭격과 포격을 더욱더 확대하고있다.

웰남침략전쟁에서 헤여날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허덕이고있는 미제는 저들의 패배를 수습하려고 망상하면서 이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을 전조선과 아세아침략의 군사적부속물로, 병영으로 전변시키고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매일과 같이 군사분계선 전지역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있다. 이리하여 군사분계선일대에서는 미제의 모험적인 군사적도발에 의하여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또다시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정책은 물론 그들의 강대성

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미제의 날로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반제력량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원칙적립장을 견지하면서 그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효과적인 투쟁을 조직전개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혁명과 민족해방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혁명을 끝까지 전진시킬수 없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없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급적원칙을 리탈해서는 안되며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타협을 추구하는 로선을 따라서는 안된다. 제국주의에 대한 무원칙한 타협과 구걸로써는 진정한 평화를 성취할수 없다. 제국주의에 대한 타협로선은 제국주의를 더욱더 오만하게 하고 그의 침략책동을 조장하며 혁명투쟁과 세계평화에 엄중한 후과를 조성케 할뿐이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큰소리만치면서 그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효과적조치를 취하지 않는것도 본질에 있어서는 뒤집어놓은 타협로선이다.

미제에 화살을 집중하면서 그와 결탁하고있는 동맹자들, 특히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미제의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페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일환이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를 재무장시키고 그를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몰고있다. 종속적동맹관계하에 있는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복무하면서 상전을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는 한편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미제의 사촉하에 3대륙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함으로써 반제전선을 파괴하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있으며 그에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배격하고있으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하여 가장 광범한 반미통일전선과 반미공동행동을 이룩하며 싸우는 인민들에 대한 련대성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특히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공화국정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을 이룩하며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반제력량의 분렬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만 리롭고 혁명적인민들에게는 해로울뿐입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의 반제력량은 가장 광범한 반미통일전선을 이루고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그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으로 미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

만 미제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키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수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때려부실수 있습니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7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전략전술적방침은 세계혁명을 말살하기 위한 미제의 극히 악랄하고 반동적인 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인민혁명과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급속히 촉진시킬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반제투쟁로선이다.

현시기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의 진보적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이른바 세계전략은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결을 피하면서 주로 분렬된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는것이다.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악랄한 책동에 대처하여 모든 혁명력량과 반제력량은 미제가 어느한 작은 나라나 분렬된 나라를 침략하는데 힘을 집중할수 없도록 모든 전선에서 원쑤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어 그들의 력량을 최대한도로 분산시켜야 한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한 전선에서의 승리는 그들의 힘을 그만큼 약화시키며 다른 전선에서의 승리를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미제를 반대하는 가장 광범한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며 반미공동행동을 이룩하는것은 오늘 반제반미투쟁의 성과적발전을 위하여 가장 날카롭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세계혁명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키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근본문제와 관련되여있다.

반제투쟁에서 광범한 반제력량을 련합하는것은 본래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전략적원칙이다. 제국주의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때려눕히기 위해서는 단합할수 있는 모든 력량과 단합하여 동일한 보조를 취하여야 한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이 투쟁에서 그들은 공통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가 자유롭지 못하면 아세아가 자유로울수 없으며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유리하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3대륙인민들의 단결을 파괴하며 진보적정부들을 반제전선에서 떼여내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약하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전복하는 전략으로 나오고있는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미제의 이와 같은 악랄한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단합된 힘으로 그것을 분쇄하여야 한다.

광범한 반제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여 공동보조를 실현하는데서 항상 전반적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특수한 국가적리익이나 당파적리익을 정면에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현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사회제도를 달리하며 이 나라들에는 정치적견해를 달리하는 적지않은 당파들이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앞잡이들을 제외하고는 이 나라들과 당파들은 모두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들은 다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략탈과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정치제도의 차이는 힘을 합쳐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며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다. 만일 전반적리익을 보지않고 협소한 당파적리익을 앞에 내세우면서 광범한 반제반미통일전선의 형성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그것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만 리롭고 혁명적인민들에게는 해로울뿐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조선혁명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고 세계의 모든 반제반미력량과 단결하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피흘려 싸우는 혁명적벗들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고 강화발전시키며 이미 승리한 혁명을 보위하는것이 중요하다.

현시기 웰남전쟁은 미제의 야만적인 침략을 저지파탄시키며 영웅적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히 조직전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웰남은 반미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으로 되고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웰남땅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세계반제평화애호력량과 미제국주의침략세력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웰남인민은 이 투쟁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할뿐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을 보위하여,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습니다. 영웅적웰남인민은 미제침략자들에게 계속 심대한 군사, 정치적 패배를 주고있으며 그들을 헤여날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고있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74페지).

영웅적웰남인민의 불요불굴의 완강한 항전에 의하여 미제는 패배를 거듭하고있으며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지고있다. 웰남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덤으로 되고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반제력량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인 항전을 계속하고있는 웰남인민에 대한 지원을 모든 방법을 다하여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확대하여야 한다.

웰남인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화하고 조직화함으로써 궁지에 빠져 허덕이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보다 큰 타격을 주어 그들의 종국적패배를 촉진시킬수 있으며 웰남인민의 승리를 앞당기고 세계혁명운동의 발전과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에 더욱더 유리한 정세를 조성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교양되고 무장된 우리 인민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있으며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을 적극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웰남민주공화국정부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웰남인민과 함께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오늘 반제반미투쟁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꾸바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혁명적꾸바는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대표하고있으며 그 존재자체로써 이 대륙인민들의 해방운동을 고무하고있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우리 시대에 제국주의가 반드시 패망하고 민족해방혁명과 인민혁명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뚜렷한 증거이다》(《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혁명운동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며 그것은 오늘 이 대륙 인민들의 해방운동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미제를 반대하는 꾸바인민의 투쟁은 서반구에서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며 라틴아메리카와 세계혁명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적꾸바를 보위하는것은 서반구에서 혁명운동을 발전시키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투쟁으로도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책동으로부터 혁명적꾸바를 보위하는것을 자기들의 해방투쟁과 직접 결부시키고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3대륙인민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혁명적꾸바를 반대하는 미제의 봉쇄정책과 군사적침공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꾸바를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침략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미제와 맞서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 꾸바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견결히 지지하고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련대성을 강화하며 광범한 반제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반미행동통일을 이룩하려는 3대륙인민들의 지향은 더욱더 커가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3대륙인민들의 이러한 지향과 노력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것이며 그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증대될것이다.

* *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활한 대륙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매장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대조류가 홍수와 같이 밀려들고있다.

제국주의를 매장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특히 아세아에서 거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윁남과 라오스에서 반미구국항전에 일떠선 인민들은 지난 1년간에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캄보쟈인민들은 령토완정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미제와 그 주구 사이공 및 타이 괴뢰도당들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함으로써 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필리핀, 타이,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미제와 그 괴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무장투쟁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고있다.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투쟁도 강력히 전개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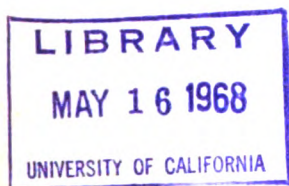
특히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반미구국항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모든 전선에 걸쳐 무장투쟁을 포함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미제의 저주로운 식민지통치를 더욱더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미제의 코앞에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 영웅적꾸바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책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으며 반미투쟁의 기치를 힘있게 고수하여나아가고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예속하에서 신음하는 아프리카의 앙골라, 모잠비크, 꽁고(킨) 등과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과떼말라 등의 수많은 나라인민들이 손에 무장을 튼튼히 틀어쥐고 압제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있다. 3대륙의 수많은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하며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고있다.

3대륙에서 홍수와 같이 세차게 밀쳐드는 인민들의 투쟁의 대조류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반제반미투쟁로선이 얼마나 정당하며 현실에서 얼마나 큰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3대륙의 광범한 인민들이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나고있는 오늘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조만간에 종국적으로 청산될것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자유롭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대륙으로 될것이다.

근 로 자 제1호 (루계 311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주 소•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68년 1월 25일 발 행•1968년 1월 30일
ㄱ—8336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 호

평양 근로자사 1968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2 호 (312)

차 례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 경축연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모두 일어서서 장내를 뒤흔드는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의 친근한 외국의 벗들!

오늘 우리는 커다란 혁명적자부심과 높은 민족적긍지를 가지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경축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뜻깊은 력사적명절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웅적인민군 륙해공군 및 경비대의 모든 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나는 또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과 아름다운 청춘을 바친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군영웅전사들에게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이와 함께 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피흘려 용감하게 싸웠으며 오늘도 계속 사회주의건설의 로력전선에서 혁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있는 모든 영예군인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그리고 나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결정과 당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굳건히 다지고있으며 인민군대를 자기의 혈육처럼 극진히 사랑하며 원호하고있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과 벗들!

우리가 인민군대를 창건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20년동안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영광에 찬 승리의 행로를 줄기차게 걸어왔습니다. 20년이란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 비추어보면 그리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인민군대는 시련도 많이 겪었고 피도 많이 흘렸으며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왔습니다.

인민군대는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찬란한 업적을 기록하여넣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인민군대는 평화적건설시기에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와 새조국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을 내외원쑤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장병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집단적영웅주의와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단련된 인민군용사들은 전후시기 원쑤들의 거듭되는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왔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과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군장병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그들이 발휘한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이 깃들어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전체 인민의 깊은 사랑과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이 지나고 보니 인민군대의 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20년동안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세찬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의 시련속에서,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지금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정신상태는 매우 훌륭합니다. 군대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당과 혁명을 목숨으로 보위하려는 한결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장병들간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규률,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 이 모든 아름답고 고상한 기풍이 인민군대의 온 대오를 지배하고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것이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우리 인민군대의 특성입니다. 인민군대는 이러한 정치도

더적우월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싸움에서 굴할줄 모르며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침략군대도 능히 격파할수 있는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장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이 훨씬 높아졌으며 그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인민군대는 최신무기로 장비되였으며 모든 장병들이 다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혁명무력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면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장구한 기간에 걸쳐 일제의 조선주둔군 및 관동군과 싸워이겼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침략군대도 때려부셨으며 유격전쟁도 해보고 현대전쟁도 해본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임의의 정황에서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능히 싸워이길수 있는 능숙하고 세련된 명군술과 전투력을 가진 혁명군대로 자라났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인민군대렬의 질적구성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특별히 기쁘게 하는것은 인민군대의 핵심인 혁명적골간이 수많이 자라난것입니다. 인민군대가 창건될 때에는 준엄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단련된 혁명적골간이 수천명에 지나지 않았다면 20년이 지난 오늘 인민군대내에는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가한 오랜 혁명투사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혁명적골간이 수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인민군대는 모든 군종, 병종에 걸쳐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로 믿음직하게 꾸려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동안 인민무력건설에서 우리가 거둔 가장 큰 성과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인민군대의 혁명적골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당의 귀중한 핵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축신하기 위한 매우 고귀한 밑천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인민군대의 혁명적골간이 많이 자라난것과 함께 전반적대렬구성에서도 질적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인민군대대렬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속에서 자라나고 공산주의적으로 교양받은 새세대들로 꾸려졌으며 또 부단히 보충되고있습니다. 인민군장병들은 모두가 다 우리 당의 정확한 교육정책에 의하여 중등 및 기술 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은 높은 기술문화수준의 소유자들입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최신군사과학기술로 무장하고 그 어떤 복잡한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도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빨리 자라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인민군대의 혁명적골간이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혁명대오가 질

적으로 강화된것을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수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지고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되고 현대적군사과학기술과 최신군사기술기재로 굳건히 장비된 정규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튼튼한 자위적태세를 갖추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특히 풍부한 전투경험과 군사기술을 가진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도시와 농촌들에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면서도 조국보위사업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위력은 더욱 튼튼히 담보되여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철벽같은 방위력을 마련하여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결코 자만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하여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도 아직 살아있고 일본군국주의도 되살아나고있습니다.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에는 지주, 자본가들과 친미, 친일 주구들의 반동관료집단이 그대로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원쑤들이 있는한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무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전반적정세는 매우 긴장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당하고있는 참패를 만회하여보려고 미쳐 날뛰고있으며 전쟁을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 확대하려 하고있습니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은 이미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요즘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나포사건과 관련하여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놈들은 남조선과 우리 나라의 동해안일대에 숱한 침략적무력을 끌어다놓고 전쟁태세를 갖추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있습니다.

우리 령해에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침범한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날강도적인 해적행위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조선에서 새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인것입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계속 무력을 동원하여 위협공갈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

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들은 이로부터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입니다. 있다면 오직 시체와 죽음뿐일것입니다.(장내를 뒤흔드는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더 큰 참패를 당하리라는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최근의 모든 사태발전은 미제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로농적위대원들 그리고 전체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있을수 있는 전쟁도발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언제나 동원된 태세에서 자기 초소를 굳건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침략자들이 함부로 덤벼든다면 그들을 일격에 때려부실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대표자회와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며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군사기술적으로 더잘 단련된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그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한 공산주의투사로 키우며 우리 군대의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담보로 됩니다.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인민군부대들에서 전투훈련을 더욱 정력적으로 전개하여 모든 군인들이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충분히 소유하며 최신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군사과학기술을 널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방사업은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입니다. 인민군대와 함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관, 기업소들,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로농적위대원들과 전체 인민이 무장하며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전쟁경험을 꾸준히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연과 후방을

막론하고 나라의 모든 곳에 방위시설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온 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에 전당적, 전인민적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인민군대를 지원하며 전체 인민이 인민군장병들을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앞에 맡겨진 군사적임무를 더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고있지마는 오늘 전반적정세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의연히 유리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대렬이 더욱더 늘어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책동으로도 앙양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야 말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것이며 적들의 전쟁도발음모를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에서의 평화를 수호할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 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인민군장병들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굳게 뭉쳐 우리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며 당과 인민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렁찬 박수)

나는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면서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의 부단한 강화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혁명무력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항일투사들을 비롯한 인민군대내 혁명적핵심과 골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인민군대와 경비대의 모든 장병들의 건강과 그들의 군사전투임무수행에서의 더욱 큰 성과를 위하여,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있는 로농적위대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전체 인민들과 여러 간부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명절을 축하하여 이 자리에 모인 각국의 외교대표들 및 무관들의 건강과 사회주의나라들의 전투적단결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장내를 뒤흔드는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육성하신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때로부터 20년이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건하시고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육성하신 조선인민군은 지난 20년간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우리 인민은 당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계속 높이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피로써 지켜냈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방선을 철옹성같이 지켜서고있는 영웅적인민군 전체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우리 인민이 해방후 새조국, 새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위대한 승리였으며 우리 나라의 혁명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조선인민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의 독립과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인민의 행복과 창조적로동을 보위하는 자기의 위력한 정규군을 가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인민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떠한 국가를 물론하고 자주독립국가는 반드시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입니다. 자기의 군대를 가지지 못한 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될수 없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조국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던것도 그 당시에 조선인민이 일본제국주의침략군대를 격파할만한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있지 못하였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며 어떠한 원쑤들의 침범도 능히 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인민의 군대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86페지).

혁명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정규적무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전국적범위에서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우세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미제와 날카롭게 맞서고있는 조건하에서도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었다.

조선인민군은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에 따라 창건되고 그이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밑에 오늘과 같은 무적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선인민의 정규적인 혁명무력건설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이전의 우리 나라 혁명운동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상비적무장력에 의거하는 항일무장투쟁으로 되여야 한다는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1932년에 우리 나라의 첫혁명적무장대오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여 몸소 고난의 앞길

을 헤치시며 15성상 일제를 반대하는 피어린 무장투쟁을 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강령에서 조국이 해방된후 강력한 현대적무력을 창건할데 대하여 **《일본군대, 헌병, 경찰 및 그 주구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진정하게 싸울수 있는 혁명군대를 조직할것》**이라고 밝히시였으며 간고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인민무력건설의 풍부한 경험을 쌓으시고 수많은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을 전망성있게 육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이 자주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우리 혁명의 승리는 우리의 강력한 무장력으로 담보되여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현대적무력을 건설할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수많은 혁명간부들을 무력건설사업에 보내시고 친히 인민군대의 기둥이 될 골간적부대들을 키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제때에 창건하시였을뿐아니라 그를 무적의 혁명무력으로 육성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매단계에서 정확한 군사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인민무력강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친히 지도하시였으며 수시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 군인들의 정치전투훈련으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날날이 돌보시고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실로 조선인민군의 창건, 불패의 혁명무력으로의 그의 장성발전은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밀림의 우등불가에서 조국의 앞날을 설계하시면서 인민무력건설의 터전을 닦아오신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의 구현이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 탁월한 군사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인민무력건설을 위하여 바치신 그이의 고귀한 정력, 세심하고 따뜻한 보살핌의 결과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육성하신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이다.

인민군대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열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군민일치, 관병일치의 혁명적기풍,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고귀한 투쟁업적과 투쟁경험 등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이 투쟁속에서 단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였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은 비록 스무해전에 정규군으로 창건되였지만 근 40년의 혁명력사를 가진 영광스러운 군대이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것은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며 가장 큰 자랑이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숭고한 사명을 지닌 우리 당의 군대이며 인민의 군대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되였으며 인민들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인민군장병들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것이다.

인민군대는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수령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 혁명과업을 무장으로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대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은 오직 조선로동당앞에 충실하고 오직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길로 전진하며 당이 쟁취한 혁명의 열매를 보위하며 혁명적방법으로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사회를 건설하는 맑스-레닌주의적 혁명군대입니다》.

인민군대는 오직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령도되며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며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과 수령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며 나라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지니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지난 20년간 승리와 영광에 찬 전투로정을 걸어왔다.

인민군대는 창건 첫날부터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량단된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하에서 원쑤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으로부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어렵고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강요된 3년간의 전쟁은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엄혹한 시련이였다.

미제는 최신무기로 장비된 자기의 륙해공군의 주요력량과 15개추종국가고용병까지 끌어들인 200여만의 대병력으로 우리 나라를 단숨에 삼키려고 덤벼들었다.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전체 조선인민은 모든것을 전쟁승리에로 부르신 수령의 호소를 따라 정의의 항전에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영웅적인민군장병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하게 원쑤를 맞받아나갔다. 인민군장병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숭고한 사명에 대한 높은 자각,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불굴의 투지로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족치고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지켰다.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우리의 영웅적인민군대와 인민앞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으며 그들의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이 부서졌다. 조선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당한 참혹한 패배는 미제국주의의 내리막길의 시초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적인민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적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궐기한 인민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에 의해서도 정복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13~14페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군대가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 그들이 이룩한 위대한 공훈과 투쟁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군군인들의 충실성은 전후 내외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고 수령을 옹호보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관철하는 투쟁에서도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우리 인민이 전후 파괴된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했던 어려운 시기를 리용하여 적들이 《반공》소동을 강화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에 도전하여나섰을 때에 우리 인민군대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높이 내세우고 당의 유일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였으며 내외원쑤들의 온갖 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였다.

인민군대는 원쑤를 족치던 그 기세로 전후복구사업과 사회주의건설사업에도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경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과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군장병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그들이 발휘한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이 깃들어있습니다》.

혁명을 위하여 이바지한 그 거대한 공헌과 불후의 업적으로 하여 인민군대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사랑과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있다.

20년이 지난 오늘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비할바 없이 강화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였다. 오늘 인민군대내에는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가한 오랜 혁명투사들과 함께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혁명적골간이 수만으로 늘어났다.

인민군대의 전반적대렬구성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대렬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되고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소유하였으며 공산주의적으로 교양된 새세대들로 꾸려졌으며 부단히 보충되고있다.

20년의 자랑찬 전투적로정을 걸어온 우리 인민군대는 오늘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현대적군사과학기술로 무장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장성강화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깊은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났으며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되고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열정으로 충만되여있으며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쳐부신 전투경험과 현대적군사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된 조선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또한 오늘 우리 나라에는 철통같은 전인민적방위체계가 확립되였으며 인민군대와 함께 전체 인민이 무기를 잡고 침략자와 싸울 준비가 되여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목숨으로 보위할 확고한 결의로 충만되여있으며 원쑤들이 어느때 어디로 기여든다하더라도 모조리 소탕하며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일층 촉진하고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더욱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긴절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고있는 남녘땅형제들을 한시도 잊을수 없다. 이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의 숭고한 민족적임무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최근 미제침략자들은 새전쟁도발책동을 전례없이 로골화하고있다. 놈들은 어리석은 도발책동을 감행하다가 그때마다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단호한 보복타격을 받은 사실들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에 최근에 또다시 우리 나라의 령해에 무장간첩선을 침입시키는 악랄한 해적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우리의 응당한 징벌조치와 관련하여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고있다. 영웅적조선인민군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침략행위도 결코 용허하지 않을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경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입니다》.

우리는 자체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무모한 침략책동을 일삼는 원쑤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우리 조국강토에서 영영 쓸어버릴것이며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같은 념원을 우리 세대에 기어코 실현하고야 말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세는 한층 더 긴장되여가고있으며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은 더욱 커가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고 원쑤들의 임의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전쟁준비를 잘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단행본, 60페지).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각급당조직들은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일상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여 그들에게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명을 더욱 철저히 인식시키며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들과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이의 가르침을 무조건 관철하고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당원들,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계급적원쑤들을 무한히 증오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자각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조국보위와 남조선해방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며 원쑤들의 임의의 불의의 침공에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받아나가 싸워이길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기초우에서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전투무기와 군사기재에 정통하고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충분히 소유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는 간부군대로 더잘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더욱더 강화하여야한다.

또한 전체 인민은 당의 군사로선에 따라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로농적위대구분대에서는 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전투정치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군사지식을 정력적으로 배우고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을 꾸준히 연구하여 유사시에는 모두가 손에 무기를 들고 원쑤를 족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20주년경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방사업은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입니다. 인민군대와 함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관, 기업소들,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돌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며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발양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군인들과 인민들이 진정한 혁명동지로서 하나로 굳게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원쑤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고 조국과 인민의 사회주의전취물을 목숨으로 보위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일층 촉진시켜야 하며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를 계속 튼튼히 꾸리고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자예비를 충분히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놈들이 어느때 어디로 기여들어와도 고떡함이 없이 일격에 소탕해버릴수 있도록 전국을 철벽의 요새로 전변시켜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조국을 보위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켜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항상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견지함으로써 적들의 온갖 준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히 분별없는 침략전쟁을 도발하는 경우에는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릴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모두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더욱 줄기차게 전진하자!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한 익 수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커다란 감격속에서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을 뜻깊게 맞이한다.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인민군대는 지난 20년간 일편단심 수령의 령도와 가르침에 충실하였고 당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인민군대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시종일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으며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를 타승함으로써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을 온세계에 시위하였다.

전후 인민군대는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경각성있게 보위하였으며 당의 군사로선을 힘있게 관철하여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자라났다.

오늘 인민군대는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단련된 수많은 혁명적골간을 가진 붉은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당과 수령이 부를 때에는 언제든지 동원되여 침략자들을 소탕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를 받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음으로 하여 인민군대는 준엄한 시련을 뚫고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될수 있었으며 승리로 아로새겨진 자랑찬 로정을 걸어올수 있었다.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인민군대를 친히 창건하시고 오늘과 같은 일당백의 무력으로 키워주시였으며 인민군대의 모든 승리를 직접 마련하여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된 무한한 긍지와 행복감으로 가득차있으며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을 따라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 충성심에 불타고있다.

1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며 어떠한 원쑤들의 침범도 능히 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인민의 군대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86페지).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무력창건을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

하였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가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 국내의 반동들을 규합하여 남조선혁명세력을 탄압해나섰으며 전조선을 자기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변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자기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는 문제는 조선혁명의 운명과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의 앞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루어진 인민무력건설의 공고한 토대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강력한 현대적무력을 창건할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창건을 위한 사업에는 간부의 부족, 물질기술적조건의 결여, 내외의 원쑤들의 방해책동 등 허다한 난관과 애로들이 가로놓여있었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예견성있는 현명한 조치와 강의한 의지,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에 의해서만 이러한 중첩된 난관들을 타개하고 인민군대를 제때에 창건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조국건설을 위한 전반적사업을 지도하시는 한편 정규적 인민무력창건을 위한 준비를 강력히 추진시키시였으며 간부들을 준비하고 정규군의 첫대오를 편성하는 사업을 친히 지도하시였다.

당시 모든 부문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간부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고있었으나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세련된 항일투사들의 대다수를 군대창건사업에 파견하시여 그들이 핵심이 되고 골간이 되여 군대를 꾸려나가도록 지도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온세상에 선포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김일성동지의 군사사상과 자위의 방침의 구현이였으며 조국과 민족을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정규무력을 창설할데 대한 그이의 오래전부터의 위대한 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조선인민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외래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강력한 현대적정규군을 가지게 되였다.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 계승자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는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진 군대이며 항일유격투쟁의 혁명전통과 고귀한 투쟁경험과 불굴의 애국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군대입니다》**(우와 같은 책, 190페지)라고 말씀하시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인 1930년대초에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기치하에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및 애국청년들로써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고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영웅적무장투쟁을 직접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직된 항일유격대는 우리 나라 최초의 혁명군대였다.

항일유격대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정확한 령도, 그이께서 작성하신 과학적인 혁명로선과 탁월한 전략전술이 있음으로 하여 모든 난관을 영웅적으로 이겨내고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였다.

15성상에 걸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기개와 불굴의 투지를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싸우는 혁명군대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군대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인민군대는 바로 항일무장투쟁을 승

리에로 령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이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속에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군사전략전술을 체득한 그이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들인 항일투사들이 골간이 되여 튼튼히 꾸려졌음으로 하여 인민군대는 어떤 사나운 풍파나 준엄한 시련에도 끄떡하지 않고 당과 수령이 주는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믿음직한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인민군대는 항일유격대의 혁명적사상체계와 우수한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계승하였다.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 수령의 령도와 가르침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혁명의 뇌수인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려는 강철같은 의지,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내려오는 인민군대에 확고히 수립된 사상체계이다.

일제를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철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등 공산주의적풍모의 모범은 인민군대의 활동과 생활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항일유격대내에 확립된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과 인민적사업작풍은 오늘 인민군대에 그대로 계승되고있으며 인민군대의 위력을 담보해주고 있다.

인민군대는 또한 무장대오에 대한 확고한 당적령도, 군대조직에서 계급적원칙의 관철,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적무장, 혁명적군사규률, 소수로써 다수의 적을 쳐이기며 렬등한 무장으로써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타승하는 명활한 작전전술 등 혁명무력건설과 혁명전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경험들과 군사유산들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라는 것은 인민군대의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그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되였으며 그의 계급적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을뿐만아니라 하나의 혁명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혁명동지로서 굳게 결합되고 있다.

계급적리해관계와 투쟁목적의 공통성 그리고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인민의 절대적지지와 사랑을 받는것은 혁명군대인 인민군대의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인민군대는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미제침략자들을 소탕하고 남반부를 해방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의 혁명위업을 이어받은 인민군대의 력사적사명이다.

만고에 빛나는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으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따라 전체인민의 지원속에서 우리 당의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바로 여기에 인민군대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으며 필승불패의 담보가 있다.

2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이 제시하는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당의 군대이며 혁명의 군대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조선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당

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조직된 군대입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318페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는것은 인민군대의 모든 활동을 일관하고있는 최고의 철칙이다.

인민군대는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외에 그 어떤 사상도 모르며 그이의 령도와 혁명사상에 충실할따름이며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고부동하게 전진한다.

인민군대가 걸어온 지난 20년간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투쟁으로 일관되고있다.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을 목숨바쳐 완수하는것은 인민군대의 전활동을 관통하고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인민군군인들의 다함없는 충성심은 미제무력침공자들을 격파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가장 빛나게 발현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 인민군장병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용감히 싸웠으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목숨바쳐 수행하였다. 그들은 전쟁의 가혹한 시련속에서 오직 당을 믿고 수령을 우러러 승리를 확신하였으며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는 적이 덤벼들 때에도 수령께 맹세다지고 불사조와 같이 싸웠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의 적극적지원이 있는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 수령의 전사로서 싸운다는 크나큰 영예감과 긍지, 수령께서 마련해주신 로동자, 농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수호하려는 열화같은 혁명적 각오—이것으로 하여 인민군장병들은 피어린 락동강의 결전장과 간고한 적후투쟁에서 그리고 1, 211고지를 비롯한 조국의 높고 낮은 봉우리를 사수하는 가렬처절한 싸움에서 세인을 경탄케 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할수 있었으며 포악한 침략자를 때려눕히고 당당한 승리자의 영예를 지닐수 있었다.

방대한 군사 및 경제력에 의거하고 현대적군사기술로 장비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3년간의 전쟁은 청소한 인민군대에게 있어서 실로 엄혹한 시련이였다.

그러나 항일유격대의 반제투쟁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불타는 적개심과 투지로 강도일제를 타승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은 인민군대는 전체 인민과 더불어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주었으며 미제침략자들로 하여금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인민군대는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함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을뿐만아니라 반제반미투쟁에 나선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군군인들의 충실성은 전후 내외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고 수령을 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는 투쟁에서도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우리 인민이 전쟁의 상처를 가시고 경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악전고투하고있는 시기를 리용하여 적들이 반동공세를 강화하고 그와 때를 같이 하여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에 도전해나섰을 때에 우리 인민군대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높이 내세우고 당의 유일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였으며 원쑤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였다.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 대두한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국제정세가 한층 복잡해진 최근년간에도 인민군대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였으며 당의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틀어차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당과 혁명을 목숨으로 보위하려는 한결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지난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그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당과 수령이 제시하는 혁명과업수행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며 원쑤들의 발악적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야 말것이다.

인민군대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적의 도발책동에 단호한 징벌을 가함으로써 원쑤들이 함부로 날뛸수 없게 하였다.

인민군대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측 지역에 대하여 총포사격을 가하며 침략책동을 격화하고있는 침략자들에게 그때마다 강력한 보복타격을 가하였으며 우리의 령해에 침입하여 적대행동과 정탐행동을 감행하던 적경호함 56호를 묘정내고 적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였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우리 당의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적들이 감행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장도발도 단호히 분쇄하며 우리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지난 20년간의 로정을 통하여 인민군대는 인민들속에서 나왔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그와 함께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의 고상한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인민군대는 항일유격대가 그러하였던것처럼 언제나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옹호하였으며 인민과 한덩어리가 되여 싸웠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싸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엄한 로력투쟁에서 그리고 오늘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는데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항상 힘을 합쳐왔으며 또 합치고있다.

전민무장화가 실현된 오늘 군민관계는 혁명적동지의 관계로 더욱 발전하였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진정한 혁명전우로서 하나로 굳게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함께 싸워나아갈것이다.

인민군대가 걸어온 지난 20년간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하에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킨 자랑찬 력사였으며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수행하는데서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로정이였다.

오늘 인민군창건 20주년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지난 20년간 인민군대가 당과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다.

지난 20년간 인민무력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과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단련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우는 혁명적골간이 확대된 그것이다.

창건당시 인민군대의 골간은 수천명의 항일투사들이였다. 인민무력의 강화발전과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수많은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로 자라났으며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인민군대에는 항일투사들을 핵심으로 하는 수만명의 혁명적골간을 가지게 되였다.

인민군대의 창건에 기여하였고 그후 20년을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한 사람들,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멀리 락동강까지 나가 영용하게 싸웠고 조국의 촌토를 피로 지켜싸운 사람들이 오늘 항일투사들과 함께 인민군대의 혁명적골간을 이루고있다.

이 혁명적골간은 지난 20년간 인민무력건설에서 우리 당이 거둔 가장 큰 성과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매우 귀중한 밑천이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골간이 수만명으로 늘어난것과 함께 전반적대렬구성에서도 질적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인민군대대렬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서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배려와 보살핌속에서 중등 및 기술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은 높은 기술문화지식의 소유자들로, 혁명과 건설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자라난 새세대들로 꾸려졌으며 또 부단히 보충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최신군사기술로 무장하고 그 어떤 복잡한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도 능숙히 다루며 강유력한 전투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빨리 발전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지고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한 수만명의 혁명적골간으로 꾸려졌으며 현대적군사과학기술과 최신군사기술 기재들로 굳건히 장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난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다.

3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그가 달성한 모든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우리 당의 자위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위의 혁명적원칙에 확고히 서시여 혁명의 매시기 매계단마다 정확한 군사로선을 수립하시고 그의 성과적관철에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반 사업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대에서 진행되는 중요회의들에 친히 참석하시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일상적으로 부대들에 찾아오시여 군인들의 교육교양으로부터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보살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무력건설의 력사적경험에 기초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기본은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된 철저한 혁명군대로 육성하는데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인민군대를 혁명군대화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인민군대를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등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군대로 육성하는 것은 그를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혁명군대가 기술적으로나 량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은 적보다 무기가 우월하여서가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우월하기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세계의 수많은 혁명전쟁의 력사적경험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육성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고 군대대렬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특히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심화발전에 상응하게 군대내 당조직체계를 개편하시고 당위원회제도를 내오시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를 일층 강화하고 군대내 군사, 정치, 후방 사업 등 모든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의 부단한 강화는 혁명군대로서의 인민군대의 본질적우월성을 훌륭히 발양시키고 그를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강철같은 혁명적무력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당은 인민군간부대렬을 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인민군대대렬을 부단히 보충하는 확고한 계급적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인민군대를 철저한 계급적인 군대로 만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혁명군대이며 따라서 그의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것입니다》(단행본, 57페지).

군대내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향에 립각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렸다.

군인들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이 힘있게 진행됨으로써 모든 군인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하고 보위하며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되여있다. 인민군군인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외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며 오직 그이의 령도에 충실할뿐이다.

오늘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사된 무한한 긍지와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그이를 모시고 그이와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 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인민군군인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공산주의적혁명사상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고귀한 투쟁경험을 깊이 체득하고 그들처럼 살며 싸우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고있으며 그들의 혁명위업을 이어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완성할 혁명적각오에 불타고있다.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 강력히 전개되여 인민군군인들은 미일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등 온갖 계급적원쑤를 극도로 증오하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싸우며 어떤 곤난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을 끝까지 보위하는 높은 계급적각오와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있다.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 혁명적군사규률이 강화되고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주신 붉은기중대운동은 오늘 3중붉은기중대운동, 붉은기련대운동으로 확대발전되고있으며 이 세찬 불길속에서 인민군대는 공산주의적 붉은 집단으로 꾸려졌다.

붉은기중대운동은 인민군대내에서 광범히 전개되고있는 공산주의운동으로서 군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며 부대앞에 제기된 과업수행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하며 인민군대를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오늘 인민군대는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동요없이 미제침략자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기어이 완성할 열렬한 혁명정신으로 무장된 강력한 혁명군대로 자라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인 군사로선을 제시하시고 그의 관철에로 인민군대를 이끌어주시였으며 그를 강력한 현대적무력으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키워주시였다.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처음으로 제시하신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적군사로선이며 철두철미 자위적인 혁명적군사로선이다. 여기에는 우리 당의 철저한 맑스—레닌주의적립장, 자주적이며 반제적인 견결한 혁명적립장과 자신의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충실성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여있다.

우리 당의 자위적인 혁명적군사로선은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에 튼튼히 서서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산구

현이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정규군인 인민군대를 강철의 혁명대오로 강화하고 그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어떠한 무력침공도 분쇄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를 간부화하고 현대화하는것은 우리의 군대를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우와 같은 책, 59페지).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방침은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고 그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현대적군사기술을 결합시킴으로써 인민군대를 어떠한 강적과도 싸워이길수 있는 일당백의 대오로 강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전군간부화방침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모든 군인들이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하게 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우리의 무력을 급속히 늘일수 있게 한다.

전군현대화방침은 현대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실정에 맞게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개선강화하며 모든 군인들이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소유할수 있게 한다.

인민군군인들이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방침을 받들고 그의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인민군대는 질적으로 더욱 강화되였고 모든 군인들이 현대전의 어떠한 복잡한 정황하에서도 자기의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높은 전투기능과 군사기술을 소유하게 되였으며 유사시에는 모두가 다 한등급이상의 높은 지휘관의 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였다.

우리 나라에 축성된 강력한 중공업과 국방공업에 토대하여 인민군대는 위력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되였으며 우리의 방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져졌다.

오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풍부한 전투경험과 현대적군사과학 및 높은 군사기술을 소유하였으며 위력한 무장장비를 갖추고 요새화된 진지에 의거하여 원쑤들의 어떠한 모험도 쳐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군대의 간부화, 현대화와 함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확립하였다.

당의 정확한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고있으며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인민군대와 함께 싸울수 있게 준비되여 있다. 전국도처에 견고한 방어시설들이 구축되여 온나라는 강력한 전투적요새로 다져졌다.

우리의 국방력은 지난 전쟁시기와는 비할바 없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원쑤들의 그 어떠한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게 준비되였다.

당과 수령,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바쳐 보위할 혁명적각오에 충만되여있으며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에 정통하고있으며 풍부한 전투경험을 소유하고있고 원쑤들의 어떠한 모험도 분쇄할수 있는 령군술과 전투기능에 숙련되여있는 인민군대가 지켜선 우리 조국의 방선은 철벽이다.

⁂ ⁂

오늘 우리 나라의 내외정세는 매우 긴장되여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은 더욱더 커가고 있다.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집중하고있는 미제는 웰남에서의 군사적참패를 만회하려는 책동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 나라에서 새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 있다.

남조선도처에서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는 애국적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에 질

접한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발광적인 《반공》소동을 벌리는 한편 군사분계선일대에서와 우리의 령해와 령공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일층 강화하고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의 령해에 기여들어 정탐활동과 적대행동을 감행하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되자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슨 《보복조치》를 떠벌이면서 병력을 동원하여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침입은 날강도적인 해적행위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조선에서 새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인것이다.

미제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다.

미제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에 매여달린다면 그들은 이로부터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이다. 있다면 오직 시체와 죽음뿐일것이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고 원쑤들의 임의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전쟁준비를 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쟁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전체 인민과 군인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교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시도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며 원쑤들의 일거일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언제나 적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 사상적 및 물질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는것만큼 우리에게는 오직 혁명을 할 과업만이 있다. 우리는 항일투사들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숭고한 혁명위업을 이어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해야 한다.

우리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임으로써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잘 갖추는 동시에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인민군대를 친형제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원호하자

오 제 룡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는 원쑤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특히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한 이 중대한 혁명과업의 수행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인민군장병들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인민군대에 대한 전당적, 전인민적 지지와 원호를 절실히 요구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사업은 우리 인민이 쟁취한 사회주의 전취물과 우리의 혁명기지를 보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인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입니다.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전체 인민은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원호하여야 하며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발양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군인들과 인민들이 진정한 혁명동지로서 하나로 굳게 뭉쳐 일편단심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단행본, 60~61페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군대, 인민의 군대를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원호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실생활에 구현하여 우리의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군대로 더욱 강화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옹성같이 다져야 한다.

그리하여 미제침략자들의 새로운 침략과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해야 할것이다.

*　　*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목숨으로 지켜싸우는 인민군대를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원호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의무이며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인민적성격과 숭고한 사명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적극 원호하게 한다. 군대가 어느 계급의 리익을 대변하여 투쟁하는가에 따라서 그 군대에 대한 인민들의 태도가 규정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 계승자로서, 로동당이 령도하는 혁명무력으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57페지).

조선인민군대는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고 령도하신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창건하시고 교양육성하신 우리 당의 군대이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였고 항일유격대의 고귀한 투쟁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정신을 계승하였으며 그 숭고한 위업을 이어받은 인민군대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옹

호보위하며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우는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들이다.

인민군대는 우리 인민들이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피로써 쟁취한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모든 혁명적전취물들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며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명과 혁명정신,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인민군대의 본질적우월성이다.

제국주의침략군대와 온갖 반혁명군대는 자본의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와 지주 등 착취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인민들을 탄압하고 략탈하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복무한다. 이들은 돈으로 매수되였거나 반동적인 회유와 기만, 강제에 의하여 끌려온 고용병들로서 철저하게 반혁명적이며 민족배타주의적인 군대이다. 그들은 인민들을 억압하고 략탈하는 도구로 복무하기때문에 어디에서나 인민들의 증오와 배척을 받으며 인민들의 항의에 부딪친다.

이와는 반대로 인민들속에서 나와서 인민과 함께 싸우는 인민군대는 인민의 안전과 창조적로동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임무로 여기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자신의 아들딸이거나 형제인 인민군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며 두터운 사랑과 지지성원을 보내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현시기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적극 원호하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받들고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가 하나로 뭉쳐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튼튼히 준비하여야 할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야 합니다》(단행본, 23페지).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확고한 승리에로 인도하시는 우리 세대에 반드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해야 한다.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공화국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싸우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전체 인민은 인민군대와의 혈연적련계와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그들을 적극 지지원호하여 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자기의 군사적임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힘을 다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오늘 정세는 한층 더 긴장되여가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은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을 적극화하면서 더욱더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원쑤들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은 또다시 무장간첩선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공공연한 정탐행위와 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현실은 우리들에게 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계속 견지하며 원쑤들의 발악적인 침략책동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출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짐으로써 일단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가 한덩어리로 뭉쳐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야 한다.

오직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원호를 받는 군대만이 어떤 환경속에서도,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 부닥

친다하더라도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적을 타승할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적시기나 전쟁시기나를 막론하고 인민군대를 친형제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그들에 대한 전인민적원호를 잘하여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대전쟁은 군대에 대한 전인민적지원과 원호를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더우기 방대한 물적,인적 수요와 전투행동의 거대한 규모, 전쟁의 장기성과 립체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현대전쟁에서 인민대중의 적극적이고 자각적인 동원이 없이는 공고한 후방도, 전선에서의 무력의 부단한 확대도 보장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함으로써 무장한 인민과 강유력한 군대가 일치단결하여 조국을 보위하며 침략자들을 완전히 격멸소탕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 수령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친 당과 전체 인민,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통일, 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의 확립—이 불패의 힘앞에서는 그 어떤 원쑤도 섬멸적인 타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

혁명군대를 친형제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훌륭한 미풍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전통적이며 혁명적기풍이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은 인민과 군대가 일치단결하여 싸울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이의 인민적사업작풍과 혁명적사업기풍을 깊이 체득한 항일유격대원들은 일편단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여 싸웠다.

1934년 겨울 요영구근거지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싸우려는 결심을 가지고 손에 무기를 든 인민의 군대요. 그러므로 인민들이 불행과 고초를 겪는것은 바로 우리의 불행과 고초로 되오. 그러기에 인민들의 기쁨과 불행은 바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불행으로 생각해야 하오. 우리는 자나깨나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되며 또 잊을수도 없소…>.

수령의 이 높은 뜻을 가슴 깊이 아로새긴 항일유격대원들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으며 가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을 도와주고 모든것을 다하여 극진히 보살펴주었다.

우리의 혁명적인민들은 일제의 폭압통치가 절정에 달했던 그 간고한 때에도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령도자로 우러러 받들고 자신의 모든 운명을 그이께 전적으로 의탁했으며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만이 조국을 찾아주고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시켜줄것이라는것을 굳게 믿었다. 때문에 인민들은 유격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전투행동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모든것을 아끼지 않았다.

적들은 유격대와 인민들간의 련계를 끊어버리려고 집단부락을 설치하고 유격대에 대한 《토벌》을 강화했으나 인민들은 아무리 곤난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 어떤 위험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어느때나 유격대를 잊지 않고 성심성의로 원호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유격대와 인민은 일치단결된 불패의 힘으로 15성상 영웅적으로 싸워 마침내 강도 일제를 격파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성취하였던것이다.

혁명군대를 극진히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혁명적기풍은 해방후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우리 당과 인민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인민군대를 창건하시면서 우리 인민군대가 더욱 우수한 군대로 되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중대한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도

록하기 위하여서는 군대에 대한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인민이 낳은 군대이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군대이며 오직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데서만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9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우리 인민은 인민군대가 창건된 첫날부터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였으며 모든것을 다바쳐 적극적으로 도와나섰다.

특히 인민군대를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적극 돕는 혁명적기풍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높이 발양되였다.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전략전술가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확고한 승리에로 인도하시면서 언제나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주체적힘을 믿으시고 그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교양하시였으며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정의의 항전에서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가 하나로 굳게 뭉쳐 끝까지 싸우도록 하시였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호소에 따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필승의 신념을 안고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전선과 후방을 강력한 전투보루로 전변시켰으며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조국의 촌토를 목숨으로 지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강원도내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은 전선과 후방에서 인민군용사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였다.

원산철도공장 로동자들을 비롯한 도내 전체 로동자들은 적들의 야수적폭격속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시생산을 보장하였으며 붉은 어로공들은 인민군해병들을 도와 적함선의 코밑까지 다가가서 기뢰를 부설하고 군수품을 날랐으며 불바다속에서 물고기를 잡아 전선에 보냈다.

당과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정권의 고마움을 체험한 농민들도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발머리에 대피호를 파고 역축에 위장을 하여 낮에 밤을 이어가면서 밭을 갈고 식량생산을 계속하였다.

전연지대 농민들은 무장자위대와 전선공동작업대를 조직하여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농쟁기를 틀어잡고 군대와 같이 원쑤들을 족치면서 전시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땅을 묵이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조국의 한치땅을 피로써 지킨 1,211고지, 351고지, 월비산의 용사들과 고성, 금강군 인민들은 실로 한덩어리가 되여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면서 용감히 싸웠다.

당과 수령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 각오로 충만된 문천, 고성, 철원 등지 인민들은 전략적후퇴의 어려운 시기에도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안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을 받들어 적후투쟁을 하는 인민군대와 함께 유격투쟁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전선가까이로부터 후방의 깊은 산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을 훌륭히 계승하여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였으며 군인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영웅적으로 싸웠다.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령도하에 침략자들을 처부시는 정의의 투쟁에 하나로 굳게 뭉쳐 일떠선 우리 인민과 영웅적 인민군대는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분쇄하고 미제침략자들에게 참혹한 군사적 및 정치도덕적 패배를 주고 력사적승리를 달성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수령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힘은 필승불패이며 그 어떠한 제국주의 침략세력도 이러한 인민과 군대를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에서는 물론 사회주의건설에서도 군민일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였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에서도 힘을 합치고있다.

전후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달성한 그 모든 성과속에는 인민군군인들이 흘린 고귀한 땀이 스며있으며 인민군대가 일당백의 강철의 무장대오로 장성강화된데는 전체 인민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 백방의 원호가 깃들어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당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민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군사지식습득과 군사훈련에 적극 참가하며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고있으며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굳건히 꾸리고있다. 이리하여 원쑤들이 언제 어디서 그 어떤 형태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감행한다하더라도 인민군대와 협동하여 적을 일격에 소탕할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하고 탁월한 자위적인 군사로선의 빛나는 결실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철벽의 요새로 되였다.

* *

인민군대를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그에 대한 전당적, 전인민적 지지와 원호를 강화하는것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짐으로써 우리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군대이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믿음직한 보위자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을 강력히 진행하여야 하며 각방면에 걸쳐 인민군대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58페지).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원호하며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광범히 전개해야 한다.

우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인민군대의 력사적뿌리와 그 성격과 사명 및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교양사업을 강력히 진행해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의 인민군대가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유격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계승자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수령의 충직한 전사들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고 언제나 그들을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며 성심성의로 원호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군민일치의 전통적인 혁명적기풍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사이에 발현된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확고히 체득시킴으로써만 그들이 이 전통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어떤 조건하에서도 인민군대를 더 잘 원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바칠수 있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일치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귀중한 경험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경제기관, 근로단체들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있는 인민군부대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가지고 군인들이 근무생활에서, 군사적임무수행에서 아무러한 불편이 없도록 백방으로 도와주고 따뜻이 보살펴야 한다.

지난 시기 강원도에서는 1,211고지, 351고지를 비롯한 주둔지역 인민군용사들과 연선군내 제대군인청년열성자들과의 련합모임을 가지고 연선지대를 철벽의 요새로 튼튼히 꾸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실천과정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서로 나누게 함으로써 인민과 군대간의 련계를 더욱 밀접히 하였다. 또한 도내 각지에서는 자기 지방에 주둔하고있는 인민군부대들과 호상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모범군무자들과 로력혁신자들, 강사들과 예술소조원들을 서로 파견하여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사업에서 거둔 성과들을 알려주기 위한 강연회, 좌담회, 경험교환회, 위안공연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군민간의 우애와 신뢰가 더한층 두터워지게 되였다.

당조직들은 특히 인민군창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인민군군인들에게 위안방문, 위문편지, 선물 등을 광범히 조직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처자를 후방에 두고 조국의 방선을 지키는 인민군군인들로 하여금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군무생활에 더욱 충실하게 해야 할것이다.

애국렬사유가족, 전사자가족,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의 생활과 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며 그들을 세심히 돌봐주는것은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원호하는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애국렬사유가족, 전사자가족,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언제나 념려하고계시며 그들을 극진히 돌봐주고계신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어버이심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돌리시는 배려가 그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가닿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그들의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며 그들이 자기 초소에서 계속 꽃을 피우도록 고무해주어야 한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당과 수령에 대한 군인들의 무한한 충성심과 함께 그의 물질기술적준비정도에 크게 달려있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현대적인 무기로 튼튼히 장비되고 공고한 후방을 가지고있을 때만이 나라의 방위력은 불패의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재로 더욱 충분히 무장할수 있도록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인민군대가 요구하는 각종 물자와 전투기자재, 생활필수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만들어 그들에게 보내야 하며 농촌에서는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식량과 부식물들을 풍족히 인민군대에 공급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고 원쑤들의 임의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전쟁준비를 잘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단행본, 60페지).

나라의 방위력을 철옹성같이 다지자면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군대로 강화하는 동시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나라를 철벽의 군사요새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인민군대와 함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연과 후방을 막론하고 나라의 모든 지역에 반석같은 방위시설을 축성함에 있어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일찌기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원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전투원들이며 일단 유사시에는 다 인민군대와 같이 남녀로소할것없이 총을 메고 싸울 사람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혁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시를 주시였다.

도내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할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와 한덩어리가 되여 원쑤들을 격멸소탕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요한것은 로농적위대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며 모든 로농적위대원들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제나 인민군대와 함께 싸울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은 당조직들의 깊은 관심밑에 일상적인 사업으로 될 때 원만히 보장될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에 온갖 열성과 지혜를 다바쳐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위대한 구상과 그 빛나는 구현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네해가 지나갔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테제의 사상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여왔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와 전반적인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 로동계급과 공업의 지원이 훨씬 강화되였으며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촉진되였다.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이 더욱 공고화되고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발전이 확고히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이 정치경제적으로 비상히 강화되였다.

생활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원칙들과 과업들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확증하였으며 테제가 우리 혁명위업의 완수를 위하여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이라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당의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며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고전이다. 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익혀오신 농촌문제해결에 관한 위대한 구상을 집대성하신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보편적진리를 천재적으로 해명하신 독창적문헌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가장 어렵고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테제는 우리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킬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새로운 탁월한 기여를 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인민들뿐만아니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게 민족적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었으며 그들속에서 새로운 투쟁열의를 불러일으키고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오늘 테제발표 네돐을 맞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를 받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신심도 높이 수령께서 가리키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대로를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1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수행을 위한 맑스—레닌주의적이며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위대한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전행정에서 농촌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해결을 위하여 일관하게

심려하시였다.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구상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을 완성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모든 계급적압박을 청산하고 로동자, 농민을 착취의 멍에로부터 해방하며 우리 조국을 장차 착취없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것을 자기의 변함없는 목적으로 삼는다》(《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제1권, 69페지).

과거 식민지반봉건사회였으며 농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를 옳게 해결하여나가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사회적진보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나섰다.

모든 계급적압박을 청산하고 착취없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과 함께 인구의 압도적부분을 차지한 농민을 2중 3중의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는것이 절실히 요구되였다. 혁명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도 광범한 농민대중을 혁명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고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튼튼히 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으며 또한 인민들의 풍족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도 농촌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농촌문제는 우리 혁명의 첫날부터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가장 날카로운 문제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와 우리 나라 주민의 계급구성, 우리 농민들의 처지를 통찰하시고 혁명의 매단계에서 농촌문제를 전반적조선혁명수행의 관건적문제로 제기하시였으며 그 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우리 농민들에게 사회적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위대한 구상을 익혀오셨으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투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초기 혁명활동시기에 벌써 광범한 농민대중속에서 각종 혁명조직들을 창설하시고 농민들을 혁명화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15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력사적뿌리를 이룩하여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경험을 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인민혁명정부의 시책을 통하여 토지개혁을 철저히 실시하고 토지를 근로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주시였으며 농민들이 자기의 토지와 영농기재로써 새생활을 건설하도록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반제반봉건민주혁명단계에서의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농민들이 나아갈 광명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는 당시 우리 나라 혁명이 처한 구체적실정과 농민들의 생활처지를 옳게 반영하여 일제와 친일주구들의 토지와 영농시설들을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며 수리시설, 역축, 농기구, 건물들을 농민들에게 넘겨주며 일체 가렴잡세와 고리부채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원칙적이며 혁명적인 방도를 처음으로 명시한것이며 우리 전체 인민들과 농민들에게 반제반봉건민주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길을 밝혀준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

쟁의 전행정에서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과 우리 농민들을 혁명투쟁에 결속시키며 그들의 절실한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투쟁을 밀접히 결부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산 좋고 물 맑은 조국명우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인민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수 있는 새사회를 건설하려는 일념으로 투쟁하도록 일관하게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압박받고 천대받는 농민들을 유격대오에 받아들여 혁명가로 육성하여주시였으며 광범한 농민군중을 묶어세워 혁명의 길로 인도하시였다. 또한 가혹한 착취와 빈궁과 무권리에서 시달리고있는 농민들의 불행과 고초를 항상 자신의 불행과 고초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농민들의 리익을 세심히 돌보시였다.

산간농막의 이름없는 소년에게 자신이 애용하시던 만년필까지 주시며 공부 잘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 타이르신 그이, 제이름자도 쓸줄 모르던 농사군의 아들을 훌륭한 정치활동가로, 군사지휘관으로 키워주신 그이, 무서운 고난과 密주림 속에서 련일 힘겨운 전투를 진행하면서도 인민들에게 페를 끼치지 말고 될수록 자체로 식량을 해결하도록 유격대원들을 지도하신 그이, 농민들이 보내준 황소의 풍방울과 엽전에서 그 소에 대한 농민들의 지성과 기대를 헤아리시고 돌려보내게 하신 그이, 농민들에 대한 이처럼 크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이께서는 전체 농민들과 인민들의 첫째가는 원쑤인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그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일관하게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익혀오셨던것이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행정에서 익히신 농촌문제 해결의 원대한 구상과 그 실천적경험은 해방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청산하며 보람차고 행복한 새생활을 창조하는 력사적위업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해방후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제를 전면적으로, 종국적으로 해결하여나가기 위한 방도를 예견성있게 구상하시면서 혁명과 건설의 매단계에서 나섰던 농촌문제를 가장 철저히 해결하시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혁명이 당면한 절실한 과업으로 나섰다.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고 그들을 봉건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함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전반적 우리 혁명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선차적인 문제였다. 그것은 반제반봉건적민주혁명에서 기본내용을 이루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생산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는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에 대하여》, 115~116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제의 전통이 강하였으며 땅에 대한 농민들의 애착심이 매우 큰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토지를 근로농민의 소유로 넘기는 원칙을 제시하시였으며 토지혁명이 혁명발전의 당면한 요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장래의 과업을 실현하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토지가 다시는 착취수단으로 될수 없게 하시였다. 또한 토지문제해결에서 고농,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는 확고한 계급적원칙을 견지하시였으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적역할을 철저히 보장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창건하시고 공고화하며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 그 복잡하고 분망하신 나날에도 평남도 숙천군내 농촌을 비롯한 수많은 농촌에 직접 나가시여 우리 농민들과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의논하시고 그것이 정확히 실시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개혁이 극히 짧은 기간내에 가장 철저히 수행되고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토지문제해결의 새로운 독창적경험이 창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이 실시된후 그 성과를 공고히 하고 농업생산을 장성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온갖 가렴잡세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하며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을 전개하는 등 계속 중요한 대책을 취하시였으며 농촌에서 국영농목장, 농기계임경소 등 사회주의적요소를 창설하고 장성시키시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이께서는 농업생산을 장성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하여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전후 농촌건설과 농업협동화의 력사적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방도를 구상하시였다.

가장 간고하였던 일시적후퇴시기까지를 포함한 전쟁의 전기간에 그이께서는 여러차례 몸소 농촌에 나가시여 농사일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일시적후퇴의 간고한 시기에 정주군의 한 마을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부업을 광범히 조직하고 집주변에 과실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가르쳐주시였으며 1952년봄에 평남도 대동군 원화리에 나가셔서는 농민들과 함께 손수 씨도 뿌리시고 두엄도 두시면서 《품앗이반》, 《소겯이반》 등을 통한 공동로동의 우월성을 일깨워주시고 전후 농업협동화를 실시할 빛나는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또한 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도 농촌기술혁명을 구상하신 그이께서는 앞으로 뜨락또르와 자동차, 기타 영농기자재를 생산할 여러 공장의 터전까지 마련하여주시였다.

이것은 농민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단히 새로운 승리에로 확고히 인도하여주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바로 그이께서 조국과 인민이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그 시각에 벌써 전쟁이 승리한 래일을 환히 내다보시고 우리 농민들을 온갖 사회적억압에서뿐만아니라 고된 로동에서까지 해방하기 위한 위대한 구상을 익히시고계시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수령의 이와 같은 크나큰 사랑과 위대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최후승리의 확고한 신심을 가슴 깊이 아로새기고 전쟁의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으며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때려눕히고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전쟁이 승리한후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상처를 가시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을 조직지도하시면서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정력적으로 추진시키시였다.

전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소상품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전환시키는것이 당면한 절실한 과업으로 나섰다. 이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였으며 특히 전쟁으로 인하여 농촌경리의 물질생산적토대가 심히 파괴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령락된 조건에서 더욱 절박한 요구로 되였다.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시하여야만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우리 혁명의 기지를 정치경제적으로 공고화할수 있었으며 농업생산의 발전과 농민생활의 향상, 전후시기에 특히 날카롭게 나섰

면 빈농민문제의 해결도 보장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시기 이 모든 사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기초우에서 농업협동화를 사회주의혁명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규정하시였으며 이를 가장 정확한 길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서 자본주의요소를 청산하고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개조함으로써 농민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사적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실물교육과 자원성의 원칙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방조에 의거하여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협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우와 같은 책, 116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어떤 기존공식에도 구애됨이 없이 오직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에 부합되게 장구한 기간에 걸쳐 면밀히 준비하시고 설계하신 구상에 따라 농촌경리의 협동화를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경리형태의 개조와 기술적개조간의 호상관계, 협동경리의 형태와 규모, 협동화의 속도 등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에서 제기되는 모든 근본적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하시였으며 협동화의 전과정에서 확고한 계급적원칙을 견지하시고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개조를 완성하는 새로운 모범이 창조되였으며 조국이 분렬되고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환경속에서, 전쟁으로 인한 혹심한 파괴를 가시기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4～5년이란 극히 짧은 기간에 농업협동화의 력사적임무가 완수되였다.

농업협동화와 같은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전후의 헤아릴수 없는 난관속에서 수정주의, 대국주의, 그에 추종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등 각종 기회주의자들의 비방중상과 방해책동을 이겨내면서 아직 누구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따라 단시일내에 완수할수 있은것은 오직 확고한 주체사상과 심오한 맑스—레닌주의리론으로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여나아가시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가능한것이였다.

오늘만이 아니라 먼 앞날까지도 명철하게 내다보시는 그이의 과학적예견성과 면밀한 구상, 오직 맑스—레닌주의원칙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매개 문제를 독창적으로 제기하시고 혁명적으로 해결하시는 그이의 확고한 주체사상과 혁명적전개력, 모든 일에서 계급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면서 대중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 혁명투쟁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시는 그이의 철저한 원칙성과 세련된 령도로 하여 우리는 농업협동화의 과업을 가장 순조롭게, 승리적으로 실현하고 농촌문제의 해결에서 력사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었다.

농업협동화의 승리로 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청산되였으며 우리 농민들을 온갖 계급적압박으로부터 해방하는 문제는 빛나게 실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착취와 압박에서뿐만아니라 고된 로동에서까지 해방하며 그들에게 더욱 보람차고 부유한 생활을 마련하여줄데 대한 일관한 구상을 더욱 철저히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농업협동화가 실현된이후에도 계속 농촌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익혀오신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김일성동지의 구상은 농민들을 착취와 압박, 빈궁과 몽매에서 해방하는데 국한되여있

지 않으며 그들을 온갖 낡은 사회의 잔재와 고된 로동에서까지 해방하며 도시와 농촌간,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철저히 없애고 농민들을 공산주의사회에로 이끌고가는 문제까지 포괄하고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원대한 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협동화이후에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을 제기하시고 그 추진을 위하여 온갖 대책을 취하시였으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촌에 대한 전인민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련이어 취하시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배려를 돌리시였다. 또한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청산리와 리현리, 숙천군과 창성군, 평남도 대동군 덕촌리를 비롯한 여러 농촌들에 나가시여 농업협동화후에 제기되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근본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로동계급의 수준에로 급속히 끌어올리며 도시와 농촌간의 온갖 차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세우시였던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일관하게 익혀오신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위대한 구상을 집대성하신것이며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력사적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창조하신것이다.

2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길을 창조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시킴뿐아니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을 풍부히 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한 다음 협동화된 사회주의농촌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적협동농민들을 어떻게 공산주의까지 성과적으로 이끌고갈것인가 하는것은 이때까지 그 누구도 해명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이다.

각국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력사적경험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는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농민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은 더욱 어렵고 오랜 시일을 요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발전단계에로 심화됨에 따라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옳은 길을 찾아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으며 따라서 현시대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선 력사적임무였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서 익혀오시고 그것을 실현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이룩하신 커다란 성과와 경험을 집대성하시고 맑스—레닌주의를 독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는 그것이 무엇보다 먼저 생활이 제기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 그러나 아직 그 누구도 해명하지 못하였던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제기하고 그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우선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 력사적근원을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적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력사적근원을 옳게 찾아내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가장 옳바른 해결을 위하여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하는가에 따라 협동화이후 맑스—레닌주의당이 농촌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모든 전략전술적과업들을 옳게 규정할수 있으며 농촌문제를 참말로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전면적으로 찾아낼수 있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의 력사적근원은 과거 착취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의 락후성에 있으며 또한 이것으로 하여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경제관리수준과 소유관계에서도 뒤떨어지게 되고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된다는것을 심오하게 밝히시였으며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적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고전적해명을 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다**》(우와 같은 책, 116페지).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 력사적근원 그리고 그로부터 규정되는 농촌문제의 본질적내용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이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명제는 사회주의농촌문제가 바로 혁명의 중요한 전략적문제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문제와 직접 관련되여있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는 물론 그 이전시기와는 달리 농촌에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부단히 공고히 하는 기초우에서 해결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 문화, 사상의 각 분야에서, 그리고 경제관리와 소유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퇴치하고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농업을 공업화하며 농촌을 모든 면에서 도시의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심각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제로 제기된다. 테제가 가르치는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는 오직 이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적내용을 해명하신데 기초하여 그 종국적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을 천재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사업에서 반드시 세개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우와 같은 책, 117페지).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민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앞에 나서는 숭고한 임무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의 본질적내용과 그 종국적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지닌 이 숭고한 임무를 가장 정확히 수행하는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농민을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모양

대로 개조하며 도시에 비한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없앰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앨데 대한 사상, 이것이 바로 테제를 관통하고있는 일관한 사상이며 기본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였으며 계속혁명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이것은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우와 같은 책, 118페지).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것은 도시와 농촌에서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고 농민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완전히 개조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은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에서 근본적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농민의 완전한 개조문제, 농민들을 고된 로동과 사상문화적락후성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는 문제가 다 해결된것은 아니다.

협동화이후에도 농민들은 아직 로동조건이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에서 로동계급에 비하여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으며 특히 그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수준에서는 로동계급보다 훨씬 뒤떨어져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을뿐아니라 로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성원을 다 혁명화하며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함으로써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데 있다. 그러자면 도시와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며 특히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로동자와 농민간의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그들을 낡은 사상과 문화적락후성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농촌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호상관계와 그것들의 구체적인 수행방도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그가운데서도 사상혁명은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이다》(우와 같은 책, 119페지).

이것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고 농민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이끌기 위한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그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데 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선행하여 농민들을 우리 당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계급의식을 부단히 높여야만 사회주의의

이 본질적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킬수 있으며 따라서 농촌에서의 기술문화혁명의 과업도,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과업도 옳게 실현할수 있다.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선진적인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농촌에서 사회제도를 개조하거나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보다 훨씬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만일 맑스—레닌주의당이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를 다만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관한 문제,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 문제로만 보고 기술혁명, 문화혁명에만 치우치면서 사상혁명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보지 못하는것으로 되며 농민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야 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임무를 잊어버리는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속에서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을 뿌리뽑지 못할뿐아니라 오히려 더욱 조장시킬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과거 착취사회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옛처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들의 파괴책동에 쉽사리 리용될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수도 있다.

농촌에서의 사상혁명은 기술혁명, 문화혁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사상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 역시 잘못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의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요구한다.

농촌에서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만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농민들의 물질문화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킬수 있고 그들을 고된 로동으로부터 해방시킬수 있으며 높은 문화기술수준도 소유할수 있게 한다. 농민들의 사상개조도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차게 추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또한 협동화이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민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원칙적립장과 태도를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된후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121페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로동계급의 동맹자로서의 농민의 특성과 농업의 생산기술적특성, 특히 협동화의 완성으로 농촌의 사회경제적성격과 로동자와 농민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심오하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내려진 귀중한 결론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것처럼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이후 도시와 농촌,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지배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로동자와 농민은 완전히 같은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힘 합쳐 투쟁하는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이다. 또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는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소유의 두개 형태로서 다같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기초를 이루고있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뿐만아니라 농민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전인민적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뿐만아니라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공업이 농업을 모든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오직 이러한 태도와 립장을 견지하여야만 협동화이후 농촌에서 제기되는 중심적인 혁명과업들을 실재적으로 옳게 수행할수 있으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

민들을 공산주의까지 성과적으로 이끌고갈수 있다.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은 자본주의사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이러한 사상에 사로잡힐수 없다.

만일 공업의 힘이 증대된다하여도 농촌사업을 홀시하고 농촌을 도와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농업을 희생시켜 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에서 긁어다가 도시를 꾸리려 한다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을뿐더러 점점 더 커질수 있다. 이렇게 하여서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발휘시킬수 없고 농촌경리를 발전시킬수 없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없다. 이것은 결국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로농동맹을 약화시키게 하며 공업자체와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에 저애를 주게 한다.

농민을 적극 지원하는것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태도이다.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여야만 농민의 로동계급화과정을 최대한 촉진시킬수 있으며 농업을 공업에 따라세우고 인민경제전반의 급속한 발전을 추동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테제에서 농촌경리의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을 창조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방향은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124페지).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기업관리방법에 부단히 접근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적협동경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농업협동경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적경리이며 현대적기술로 급속히 장비되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또한 농업의 경영규모가 부단히 커지고 그 기술장비가 점차 공업의 선진적수준에 접근되여가고있다. 이것은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접근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농촌경리를 공업과 같이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업적방법으로 관리한다는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우와 같은 책, 124페지).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는 농촌기술혁명을 추진시키고 농업관리에서의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퇴치하며 토지, 농기계 기타 생산수단들과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농촌에서의 생산문화를 높일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완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 구현할수 있는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우리 나라 농촌에서 협동화가 완성된직후에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지도에 구현한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으며 그것을 농촌경리의 지도와 관리에 적용하여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설하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새롭게 독창적으로 해결한 모범으로 되며 농촌경리의 지도관리에서 일대 혁명적변혁으로 된다.

우리의 실천적경험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확립된 새 농업지도체계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농업지도체계라는것을 실증하여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농촌경리의 지도관리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그이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협동화후 사회주의나라들의 농촌사업에서 부닥친 가장 날카로운 근본문제의 하나를 해결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가르쳐준것이다.

그것은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추진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며 농촌에서의 소유관계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하에서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간의 밀접한 련계를 실현하는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데 기초하여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에 관한 문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끌어올리는 방도에 관한 문제를 또한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하에서 농업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합하며 농민들의 의식발전정도에 부합되는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그와 함께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사이의 련계문제를 정확히 해결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호상관계,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125~126페지).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생산적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촉진시킬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다. 그것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부단히 접근시키고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과정을 순조롭게 보장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만일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약화시키며 두 소유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은 약화될것이며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인 기업관리와 생산문화는 농촌경리에 잘 보급될수 없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역시 커다란 저애를 받게 될것이다. 다른한편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함이 없이 협동적소유를 조급하게 전인민적소유에로 전환시켜도 안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의 하나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1962년에 있었던 력사적인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가 놀고있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하시였으며 테제에서 다시금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정식화하시고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이며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이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인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방도를 상세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리론의 창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지역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147페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을 옳게 설정하고 그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된다.

만일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여있는 대상을 지도함에 있어서 일정한

지역적거점을 설정하지 않고 그 역할을 높이지 않는다면 분산된 농촌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를 옳게 줄수 없다. 또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데 대한 과업도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밝히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전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천명된 모든 문제는 맑스—레닌주의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처음으로 체계정연하게 밝힌것으로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테제가 나옴으로써 맑스—레닌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비로소 명백하게 가르쳐줄수 있게 되였으며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전망과 그 실현방도를 알게 되였다. 실로 테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처음으로 체계정연하게 밝힌 력사적문헌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보편적진리를 담은 강령적문헌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려는 확고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위대한 구상을 익혀오셨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밝혀주시였다.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모든 문제들은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발전시켜나아가는 그이의 확고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서만 창조될수 있었다. 실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 근거한것이 아니라 김일성동지께서 철두철미 확고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무르익히시고 창조하신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우리 나라에서 혁명을 완성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 끝까지 수행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철저한 혁명적립장이 일관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계속혁명의 립장에서 농촌에서 토지개혁,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련이어 제기하고 철저히 실현하시였으며, 계속혁명의 립장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방도를 밝히시였다.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테제에 제시되여있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제원칙들과 과업들은 모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완성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며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혁명적립장에서 흘러나온것이다.

테제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내용과 혁명적본질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고 그 해결의 방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설정될수 있은 중요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또한 바로 이것으로 하여 테제는 우리 농민들과 전체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앙양시키고있으며 우리 혁명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은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무한한 사랑과 두터운 신임이 표현되고 있다.

그이께서는 테제에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수준에로 모든 면에 걸쳐 급속히 끌어올리며 농민들을 로동계급과 함께 공산주의사회에로 이끌어나아갈 굳은 결의와 혁명적립장을 명백히 표시하시였다. 테제는 우리 농민들을 공산주의에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않고 심혀하시는 김일성동지의 철저한 혁명적립장과 고매한 덕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테제에서 우리 농민들과 전체 인민들이 자기들의 더욱 휘황한 래일을 내다보며 수령의 따뜻한 손길과 크나큰 신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위업의 완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3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익혀오신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위대한 구상은 우리 나라 농촌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우리 농촌은 모든 면에 걸쳐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였다.

과거 2중3중의 착취와 억압이 지배하던 농촌에 오늘은 날로 발전하는 위력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농민들은 로동계급과 더불어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력량으로 급속히 자라났다.

우리의 농촌경리는 최근년간 계속된 심한 자연재해를 완전히 이겨내고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이고있다.

특히 작년에는 류례없는 큰물을 이겨내고 모든 지대에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 모든 작물에 걸쳐 전면적인 앙양이 일어났으며 알곡생산만하더라도 그 전해에 비하여 116%로 장성하였다.

농민들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도, 교육비도, 약값도 모르며 해마다 휴양의 혜택까지 받으면서 더욱 휘황한 래일에 대한 벅찬 희망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집단과 자기자신을 위하여 근면하게 살며 일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테제에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농촌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급속히 추진되고 전반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이 비상히 촉진된 결과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기술혁명이 급속히 추진되였다.

수리화가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특히 작년에는 고이는물빼기공사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에는 정연한 관개체계와 배수체계가 확립되고 어떤 기후조건에서도 생산을 계속 높일수 있는 튼튼한 생산토대가 축성되였다.

로동계급과 공업의 강력한 지원하에 기계화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여 오늘 농촌에서는 2만 500대(15마력환산)의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수많은 자동차와 각종 현대적농기계들이 농민들의 로동을 대신하여주고있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매우 널려있는 산골주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가에 전기가 들어갔으며 농촌의 모든 고정작업에 전기동력이 광범히 리용되고있다.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여 최근 5년간에만 하여도 경지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은 1.8배로, 농약공급량은 1.7배로 장성하였다.

이리하여 과거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탄하던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어떤 가물과 홍수가 져도 흉년을 모르게 되였으며 락후한 소농기구와 손로동이 지배

하면 우리 농촌에 기계화의 대군이 들어가고 기계로 밭을 갈고 전기로 낟알을 털며 약으로 김을 죽이면서 농사를 짓는 새시대가 도래하였다. 이것은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은 급속히 높아지고있으며 농촌에서는 이미 당이 길러낸 10만 4,000여명의 기사, 기수들이 일하고 있다. 도시와 함께 농촌에서도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게 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모두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육성되고있다. 또한 수많은 문화주택과 문화후생시설이 건설되고 모든 문화생활조건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더욱더 적어지고있다.

우리 농촌의 세기적락후성의 마지막 흔적인 오막살이들이 자취를 감추고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서며 무지와 몽매 속에 있던 우리 농민들이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흥겹게 일하며 문명하게 생활하는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수령의 품속에서 변모된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농촌에서는 국가자금으로 생산적건설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국가부담으로 문화주택들이 련이어 건설되고있을뿐 아니라 당과 수령의 배려에 의하여 농업현물세제가 완전히 폐지되였다. 농업현물세제의 폐지는 농민들을 조세부담에서 영원히 해방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이것은 수천년동안 봉건적압박과 갖가지 조세부담으로 신음하던 우리 농민들에게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농촌에서 살수 있는 행복을 마련하여 준것이다.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력히 전개하는 당의 방침에 의하여 우리 농민들의 사상생활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우리 농민들속에서는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를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있다.

모든 농민들이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으며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농촌에서 급격히 확대되고있는 위대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농민들의 정치사상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변을 보여준다. 지난해 11월말현재 농촌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육친적인 사랑속에서 전국에서 선참으로 천리마협동농장의 영예를 쟁취한 천리마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하여 2개의 천리마공장, 52개의 2중천리마작업반과 7,720개의 천리마작업반에 망라된 54만 2,000여명의 천리마기수들이 있다.

농촌에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그 위력을 더욱 발휘하고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발기하신 분조관리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은 더욱 훌륭히 발양되였으며 농민들의 집단주의정신과 전반적 관리운영수준이 급속히 높아지고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집단생활이 더욱 더 째여지고 더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농사일이 진행되고있으며 로력과 농기계 기타 영농기자재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리용되고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련결시키는 거점인 군의 역할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것은 전반적농촌사업에서 당의 의도와 방침을 더 훌륭히 관철하도록 하고있다.

모든 생활은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 가장 정확한 길을 따라 전면적으로 진척되고

있으며 거기에서 이미 커다란 열매를 맺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농민들을 사상, 기술, 문화 수준의 락후성에서 해방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관리운영수준, 소유관계에서의 차이를 청산하는 이 어렵고도 복잡한 사업이 가장 순조롭게, 가장 높은 속도로 진척되고있는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여주는것이며 테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당과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을 힘있게 말하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광활한 길을 찾을수 있었으며 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명철한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을뿐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시고 구체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테제를 발표하신후에도 《전당과 전체 인민이 농촌을 돕자》는 적극적인 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힘을 다하여 농촌사업을 추켜세우도록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정치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농촌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도록 백방으로 심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촌의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면서 모든 농민들이 자신의 혁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생활을 할수 있도록 농업근로자동맹을 창설하는 력사적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자금을 국방건설에 돌려야 하는 조건에서도 농촌건설을 촉진하며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 막대한 국가적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농촌에 대한 국가투자가 전반적인 국가기본건설투자액보다 거의 2배나 빠른 속도로 장성한 사실, 농산물의 수매가격을 인상하며 농기계의 작업료와 관개사용료, 농촌에 공급되는 기자재의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한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의 위대한 수령께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고 계시는가를 알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청산리방법과 새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신후에도 계속하여 농업의 관리운영수준을 제고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특히 사회주의적협동경리발전의 현실적 및 전망적 요구와 대규모협동경리하에서의 농민들의 집단생활형편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신 기초우에서 농촌경리의 가장 합리적인 생산조직형태이며 농민들의 집단생활의 세포를 강화하는 기본방도인 분조관리제를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분조관리제를 창조하심으로써 농업의 관리수준을 더욱 높이게 하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적협동농민들의 집단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하고 그들의 공산주의적집단주의정신을 어떻게 키워나갈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독창적해답을 주시였다.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실천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던 또하나의 근본문제를 명철하게 해결하신것이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실천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조치들을 련이어 강구하시였을뿐아니라 그 바쁘신가운데도 몸소 여러 농촌들을 찾으시여 농촌사업과 농민들의 생활을 더 훌륭히 꾸려나가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실로 우리 나라의 협동농장치고 수령의 극진한 배려와 세심한 지도가 미치지 않은곳이 없으며 테제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달성된 모든 성과는 그이의 따사로운 손길과 떼여서 생각할수 없다.

수령의 이렇듯 위대한 사랑과 현명한 령도로 하여 우리 나라 농촌은 수천년의 력사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천지개벽을 이룩하였으며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게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주의 농촌의 모범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달성된 위대한 성과들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남조선농민들과 인민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또한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조선의 농촌은 우리의 교과서》이라고 말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이 조선에서 꽃피고있는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조선의 농민들이 현명한 수령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고있는데 대하여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그이의 령도하에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실천적모범은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에 탁월한 기여를 하는 위대한 공헌으로 된다.

* *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촉진하는것은 우리의 숭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임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은 지난날 뒤떨어지고 가난하던 우리 농촌을 현대적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며 남조선농민들과 인민들을 더 힘있게 성원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농촌문제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다》(우와 같은 책, 163페지).

우리의 과업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며 로동계급과 농민이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더 빨리, 더 훌륭히 해결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는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인 협동농민들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더욱더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농민들을 더욱더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병진시켜 우리의 혁명기지를 철벽으로 다지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긴절한 요구이다.

농민들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계급의식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모든 농민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특히는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깊이 학습하여 그것을 뼈와 살로 만들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훌륭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근절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을 확립함으로써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

회주의농촌의 주인된 자존심과 우월감을 간직하고 착취제도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제도를 옹호발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사상을 가지고 피로써 쟁취한 땅과 공동재산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계속전진하고 계속혁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그들을 사회주의농촌의 더욱 문명한 주인으로 만들데 대한 테제의 과업을 철저히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농촌기술혁명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촉진을 위한 중대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확대공고화하는 동시에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농기계와 부속품을 충분히 생산공급하며 농기계의 정비보수사업을 잘하여 그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할것이다.

또한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며 전기화를 계속 추진시킨데 대한 테제의 과업을 확고히 관철함으로써 화학비료의 종류를 확대하고 그 효능을 높이며 작물들을 온갖 병충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며 모든 농촌과 모든 농가에 전기가 다 들어가도록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이미 확립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분조관리제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특히 농촌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며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과학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농민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고 그들의 적극성을 더욱 높이며 농촌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여 농장의 경영활동을 더욱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며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모든 방면에 걸쳐 더욱 높임으로써 매개 군마다에서 테제가 제시한 모든 과업들을 더욱 훌륭히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로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며 알곡을 비롯하여 공예작물과 남새생산, 축산업, 과수업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빨리 장성시킴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농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제시하신 과업 그리고 1967년 2월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주신 두가지 10대과업과 금년 2월에 있은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새해 농사차비를 제때에 빈틈없이 갖추며 모든 경제기술적인 대책들도 실속있게 세워 금년도에 모든 논과 밭에서 정당 알곡 500키로그람이상씩 반드시 더 생산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더욱 큰 기여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하는 길에서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으며 그이의 령도하에 테제를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그이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철석같이 뭉쳐 나아갈 때 우리는 테제의 모든 과업들을 철저히 실현할것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완성하고 남반부에서도 그 위대한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야 말것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광명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조선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에서 새로운 더욱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자.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 보고에서와 공화국정부정강에서 명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병진시켜 공화국북반부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겨나가야 할 숭고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0대정강에서 현시기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부터 정치, 경제, 각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그 성과적수행을 위해 모든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서 우리 당의 위력한 혁명적사업방법, 청산리방법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자기 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관철하여야 할것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청산리방법을 더 폭넓고 깊이있게 관철하는것은 날로 더욱 심화발전되는 우리 사회주의건설의 절실한 요구이며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오늘의 현실과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긴절한 요구이다.

수령께서 펼쳐주신 위대한 10대정강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으며 당의 사상, 당의 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 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충천하고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일을 보다 솜씨있게 조직진행한다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힘있게 발전시키게 될것이며 우리의 천리마운동을 가일층 촉진시키게 될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전변과 승리를 이룩하여온 지난 8년간의 실지생활에서 증시된 확고한 진리이며 귀중한 교훈이다.

*　　*

1960년 2월,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현지지도가 있은 때로부터 8년이 지났다.

모든 위대한 사변들이 다 그러한바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와 거기에서 천명하신 강령적교시, 몸소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사업과 생활에 더욱더 커다란 혁명적작용을 미치고있으며 그가 가지는 리론실천적의의는 비상히 증대되고있다.

청산리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우리 당 건설에서와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실로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청산리지도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가 승리한이후 당건설분야에서와 나라의 경제생활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된 긴절한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지체없이 전면적으로 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당 및 국가 사업, 사회주의건설전반에 걸쳐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데 있다.

동시에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 당 및 국가 지도, 경제관리개선의 가장 정확한 리론적원칙과 실천적방도들을 정연하게 명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곧바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명확한 길을 열어놓은데 있다.

김일성동지의 청산리지도와 거기에서 보여주신 실천적모범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철저한 혁명적군중로선, 현재와 가까운 장래뿐만아니라 먼 장래까지 내다보면서 생활이 요구하는 성숙된 문제를 적시에 포착하고 대담하게 제기하며 혁명적으로 풀어나가는 심오한 과학적통찰력과 혁명적전개력, 리론과 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주의가 승리한이후 변천된 새환경에 맞게 당 및 국가 지도, 경제관리를 개선하며 부단히 완성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가장 책임적인 임무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수행여부, 사회주의제도의 전도가 직접 이 문제의 해결여하에 중요하게 달려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전면적으로 완성되고 사회경제관계,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조성된 새환경은 필연적으로 이에 적응하게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되고 리단위로 농촌경리의 경영규모가 커진 당시의 우리 농촌에서 그것은 더욱 날카로운 문제로 나섰다.

분산적인 소규모개인경리를 대상으로 하던 낡은 행정식사업방법은 조직화된 대규모사회주의경리가 지배하는 새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수준은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였다.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 사업방법을 시급히 개선하고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지 않고는 사회주의경리를 옳바로 발전시킬수도,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갈수도 없었다.

사회주의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며 사회주의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것이 초미의 문제로 일정에 오른 바로 그때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새환경의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몸소 청산리에 내려가시여 15일간이나 현지에서 사업을 깊이 연구분석하시고 군중들과 구체적으로 상론하신 기초우에서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개선을 위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청산리방법, 이것은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지도를 통하여 새롭게 제시하시고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신, 사회주의하에서의 당 및 국가 사업, 경제지도의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방법이다.

사회주의가 승리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맑스—레닌주의리론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구현하고 가일층 발전시킨 위대한 청산리방법의 확립은 곧 당 및 국가 사업, 경제지도전반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변혁이였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철저히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립각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견결한 혁명정신이며 혁명적지도관리방법이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의 혁명적본질과 그 참다운 위력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철두철미 대중의 무궁무진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에 의거하여, 그리고 제반 주객관적조건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대한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공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가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데 있으며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급속히 촉진시키는데 있다.

청산리방법은 바로 대중령도의 진정한 당적, 정치적 방법이며 과학적인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며 혁명화의 위력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하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당 및 국가, 경제 지도의 제원칙과 방도가 명확히 제시되여

있으며 혁명적사업방법의 규범과 요구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청산리방법은 정치사업의 선행,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의 유기적결합, 지도와 대중 및 지도에서의 일반성과 구체성의 결합, 실정에 대한 구체적분석에 기초한 과학적방도의 탐구, 전반장악과 선후차의 옳바른 선정 및 중심고리에의 력량의 집중 등 혁명적지도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집대성한 가장 훌륭한 사업방법이다. 청산리방법에 구현된 그 모든 원칙과 요구는 어느 특정한 시기나 개별적분야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그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보편적인 지도원칙, 사업방법으로 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지도와 관리의 근본문제에 전면적인 대답을 준 청산리방법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지도의 리론실천적모범으로, 언제나 생동하는 산 교범으로 된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위력은 이미 생활에서 빛나게 증시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이 보급됨으로써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전변이 일어났으며 그 일군들의 지도수준도 훨씬 제고되였습니다. 청산리방법이 군중에게 접수됨으로써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으며 그들의 대중적인 사상개조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행정을 통하여 우리의 당 및 국가 사업, 경제지도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진을 방해하던 낡은 체계, 낡은 방법과 기풍이 마사지고 새로운 혁명적사업체계, 사업방법, 사업기풍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당사업은 사무실에서의 회의나 문서놀음이 아니라 창조적정열이 들끓는 논밭머리, 기대앞에서의 사람과의 산 창조적사업으로 전환되였다. 모든 일군들이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일하게 되고 현실에 깊이 파고들어 실정을 과학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정확한 해결대책을 세우며 대중에게 배우고 가르치면서 서로 힘과 지혜를 합하여 당정책관철에 전심전력하게 됨으로써 당의 의도가 대중속에 거침없이 들어가고 당정책이 더 훌륭히 관철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튼튼히 수립되고 당의 령도적역할이 일층 제고되였으며 당과 대중의 통일은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

청산리방법이 구현됨에 따라 또한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어려운 사업이 대중자신의 힘에 의하여 성과있게 풀려나가게 되고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급속히 추진되게 되였으며 모두가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생기발랄한 혁명적기풍이 전사회에 더욱 흘러넘치게 되였다.

청산리방법은 생활에서 위대한 변혁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생활과 함께 부단히 전진하며 발전풍부화되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청산리방법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 가일층의 심화발전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창설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공산주의적내용을 담은 가장 선진적인 경제지도 및 관리방법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경제지도관리에서 청산리방법을 더 잘 관철하게 함으로써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기업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고 대중적지혜와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시켜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며 계획화사업을 비롯한 사회주의경리운영수준을 전반적으로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릴수 있게 하였다.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길에서 우리는 이미 멀리 전진해왔으며 그가 낳은 위대한 열매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산천도, 사람들도, 일하는 솜씨도 몰라보게 일신된 위대한 전변, 그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생활은 청산리방법이 우리 당과 인민

의 수중에 장악된 사회의 혁명적개조를 위한 강유력한 무기이며 사회주의가 승리한 새로운 력사적조건과 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라는것을 확증해주었다.

위대한 청산리방법, 이는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은 청산리방법의 근본초석을 이루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개조하고 단결시키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군중로선입니다》.

청산리방법은 바로 군중의 힘을 믿고 군중에 의거하며 군중을 발동시키는 혁명적방법이다.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고있는 청산리방법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 발전에서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놓았을뿐만아니라 그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철저한 혁명적군중로선, 과학적인 대중령도와 군중공작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 풍부하고 다면적인 귀중한 업적과 경험이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철저히 주체적립장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여 탁월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세련된 혁명적령도예술과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가르치시면서 대원들을 항상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철저하게 군중에 의거하고 그들과 혼연일체가 됨으로써만 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수 있다는 정신으로 교양하시였으며 몸소 일상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시여 군중을 가르쳐주시고 일깨워주시며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조직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그것을 능숙하게 조직진행하시였으며 전반적혁명투쟁을 령도하시면서도 일상적으로 하부에 내려오시여 구체적분석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해결대책을 세우시고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고는 지체없이 일반화하며 항상 주되는 공격대상에 주되는 력량을 집중하여 전반적승리를 마련하시는 등 공산주의적방법을 훌륭하게 구사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걸쳐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고 전대오에 보급일반화되였던 혁명적사업방법, 공산주의적사업기풍의 전통과 경험은 우리의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15성상의 피어린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이 있음으로 하여 이 땅우에 오늘의 위대한 전변과 승리, 우리 인민의 모든 행복과 번영이 마련될수 있었으며 그 가렬한 혁명투쟁의 폭풍속에서 빛나게 승리해온 위대한 혁명정신, 혁명적사업방법의 고귀한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산생될수 있었다.

오직 심오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방법, 세련된 령도예술과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실천적경험을 소유하신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서만 진정한 공산주의적방법의 귀감이며 전형인 청산리방법은 비로소 태여날수 있었으며 그 찬연한 빛을 뿌릴수 있었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의 산 구현인 동시에 해방후 그것을 계승발전시켜나아가는 행정에서 얻은 우리 당의 제반 실천적경험의 총화이며 일반화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당이 처한 구체적조건, 우리의 혁명발전과 당건설의 특수성을 심오히 통찰하시고

처음부터 일관하여 당내에 부식되였던 관료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방법을 단호히 반대하고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확립하며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이에 있어서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1952년 2월연설, 당중앙위원회 1955년 4월전원회의, 우리 당 제3차 및 제4차 대회는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방침과 그 관철을 위한 당의 정력적인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이 모든 분야에서 훌륭히 구현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더욱 세련되고 발전풍부화되여 마침내 청산리방법에서 그 빛나는 완성을 보게 되였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고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철저한 주체사상의 결실이며 혁명적군중로선과 과학적령도방법의 빛나는 구현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이다》.**

*　　　*

청산리방법,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령도방법이며 철저한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청산리방법은 곧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배합시켜나가는 사업방법이며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고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며 상하합심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업방법이며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하고 구체적인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여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방법이며 모든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사업전반을 추켜세워나가는 사업방법이며 경제건설과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동시에 해결해나가는 사업방법이다.

혁명성과 과학성의 통일, 바로 여기에 청산리방법의 특성이 있으며 위력이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항상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문제해결의 정확한 방도를 강구하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선행시키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의 수행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선행하는것, 이것은 청산리방법의 기본이며 그 본질적요구이다.

혁명에서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대중자신의 의식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 직접적담당자인 근로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계속 견지해나가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과 재능은 저절로 발양될수 없다. 그것은 오직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자신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려는 확고한 결의로 충만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자기의 임무와 그 수행방도를 정확히 알고 일떠설 때에만 비로소 최대한으로 발양될수 있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적사업방법이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는 이 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본질적우월성에 기초하여 대중의 창발성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시킬 때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 빨리, 더 잘 촉진시킬수 있다.

더우기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되고 자립적민족경제토대가 축성강화됨에 따라 생산의 규모가 비할바 없이 커지고 그 련계가 비상히 복잡해진 조건에서는 오직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광범히 발양시킴으로써만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그의 전면적인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정치사업을 선행시켜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 창조적열성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동원하는 외에 사회주의제도를 옳바로 움직여나가며 그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가는 다른 길이 없으며 그보다 위력한 방법은 있을수 없다.

특히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제기된 방대한 혁명임무는 정치사업을 강화할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내쫓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오늘 정치사업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만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기본원칙이며 일관된 사업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사업을 선행시킨다는것은 《…어떠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나 먼저 그에 대한 당의 의도를 대중에게 정확히 해석침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하며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사업, 이것은 해설과 설복을 위주로, 대중에게 당정책과 제기된 혁명과업의 목적과 의의를 철저히 인식시키고 그 수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의하여 해결대책을 정확히 세움으로써 그들자신의 자각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에 의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이것은 명령이나 지시호령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낡은 관료주의적 행정만능식사업방법과 인연이 없으며 물질적자극, 경제기술실무에만 매여달리는 사업방법과도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참다운 당적,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다.

정치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거기에는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남조선혁명과 대외활동의 모든 분야, 모든 부문에 걸치는 우리의 활동방향과 과업, 그 구체적방도들이 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명확히 밝혀져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지도적지침이며 우리의 모든 투쟁과 활동의 강유력한 사상, 리론, 실천적 무기이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수양을 위한 기본수단이다. 우리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며 그것을 대중속에 깊이 해설침투시켜 그들의 뼈와 살로 되게 하는것은 전당과 전사회에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되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신의 확고부동한 사상과 신념으로 만듦으로써만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고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정책을 지침으로 시비를 가리며 어떠한 관문도 열어나갈수 있으며 어떠한 풍파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항상 신심과 투지와 용기에 넘쳐 혁명과업을 끝까지 훌륭히 관철해나갈수 있는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당적령도를 강화하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성과있게 보장하는 중요담보로 된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광범한 군중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동원할수 없으며 거기에서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도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에 대한 지도과정에서 정치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위원회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당위원회가 집체적령도를 잘 보장하면 전체 당원들을 발동시킬수 있으며 전체 당원들이 발동되면 전체 근로대중을 움직일수 있게 됩니다.…이렇게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생산에서 거대한 혁신을 일으킬수 있습니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위원회들은 해당단위의 집체적지도기관이며 당원들과 군중을 조직하고 발동하는 정치적지도기관이다.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며 매시기 제기되는 당정책을 당원들과 군중들 속에 제때에 정확히 해석침투시키며 그 수행에로 그들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당위원회들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그러므로 집체적령도기관인 당위원회들이 항상 정치사업을 자기의 일차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이 사업에 당원들과 일군들을 빠짐없이 인입하여 누구나 다 정치사업을 하도록 조직하고 발동할 때 당정책을 대중속에 제때에 해석침투시킬수 있으며 대중을 그 관철에 자각적으로 동원할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선행하면서 이에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갈것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은 우리의 혁명사업에서 두개의 측면인 동시에 분리할수 없는 통일체이며 그 긴밀한 결합은 우리 당 령도방법의 중요한 특성이며 기본사업방법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적과업은 그자체가 곧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것이며 정치적목적은 경제과업실행을 통하여 보장되는것이다.

경제건설사업과 유리된 정치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경제건설의 수행에 구체적도움을 줄수 없는 정치사업은 무의미한것이다. 다른편으로 정치사업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않는 경제사업은 정확한 방향을 상실하게 되며 또 그 성과는 대중의 정치적자각에 토대하지 못한것이기때문에 공고화될수 없고 확대발전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정치사업과 경제사업 이 두가지 사업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그것을 호상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만약 정치사업을 홀시하고 경제사업일면에만 매여달리게 된다면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계속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없게 될것이며 반대로 정치사업이 경제사업과 동떨어져나간다면 그것은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게 될것이다.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서 례외없이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켜나가는것이며 당일군, 행정경제일군들이 각각 자신의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호상 배합작전을 옳게 전개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만 정치사업을

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안받침할수 있게 될것이며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될것이다.

생활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선행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이 혁명과 건설에서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나타내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항상 이 혁명적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대중의 창조적힘과 재능을 발동하여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 혁명을 확고히 전진시켜왔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부단한 앙양을 이룩하여왔다.

바로 1957년에 내외의 복잡한 정세와 부닥친 모든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하면서 자체의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동원하여 전년보다 일약 40%이상의 생산장성을 이룩함으로써 세인을 놀래운 위대한 천리마진군의 력사적발단을 열어놓은것도, 또한 작년도와 같이 극히 불리한 조건과 혹심한 홍수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전반적으로 훌륭히 넘쳐수행했을뿐만아니라 1967년도계획에 예견한 장성률보다 10%이상이나 더 장성시킨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이룩할수 있은것도 그 비결은 결코 딴데 있지 않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세련된 령도, 그리고 제기된 과업이 어렵고 복잡하면 할수록 정치사업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 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하고 거기에 의거하여 문제를 대담하게 풀어나가는 그의 혁명적사업방법에 있는것이다.

력사적경험과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대중을 동원하는 여기에 생산의 계속적인 장성을 이룩할수 있는 거대한 예비와 가능성이 있으며 어떠한 침체나 답보도 모르며 주동적으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해나갈수 있는 열쇠가 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전진이 더디는것이 아니라 온갖 보수주의를 불사르고 더 빨리 나가면서 사회주의건설전반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청산리방법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생산현장에 일상적으로 내려가 하부일군들과 군중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며 현실에 깊이 파고들어 실정을 구체적으로 분석료해하고 과학적인 대책을 세우며 상하합심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의 원칙적인 요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의 모든 지도적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우리의 모든 지도기관들과 지도일군들의 사명은 아래일군들과 군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어 전반적혁명과업수행을 보장하는데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상급과 하급, 웃사람과 아래사람간의 관계는 단순한 행정실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따라 위임분공된 상하간의 관계이며 동일한 목적과 과업을 위하여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여나아가는 진실로 혁명적이고 동지적인 관계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상급기관과 지도일군들에게는 하급기관과 아래일군들을 관료적으로 지시호령하며 사무실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내리먹이는 방법이란 허용될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의 지도적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지도일군들은 어디까지나 매개 부문, 매개 단위를 책임진 지휘성원으로서 그리고 참된 인민의 충복이며 심부름군으로서 하부일군들과 군중을 성심성의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우와 아래가 일심동체가 되여 당정책의 성과적집행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지도수준이 한급 높은 상급기관과 그 일군들이 하급기관과 아래일군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는 혁명적지도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중앙이 도를 도와주고 도가 군을 도와주고 군이 리를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확립…》**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상급기관과 그 일군들이 실지사업을

통하여 하급기관과 아래일군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는것은 현실발전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아래일군들의 지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상급기관일군들자신도 현실속에서 배우게 함으로써 그 지도수준을 부단히 높이게 하여준다.

이 혁명적조치는 혁명과 건설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상하합심하여 적극적으로 타개하며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동시에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행정에서 현실발전에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일군들의 지도수준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가장 정확한 조치로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고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준다는것은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 진수를 똑똑히 파악하고 직접 하부에 내려가 군중속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그에 기초하여 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며 부족점과 결함을 정확히 찾아내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대책을 세우며 그것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책임적으로 도와주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일군들이 하부지도에서 제3자의 립장에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립장, 주인된 립장에 확고히 서서 아래일군들에게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알려주며 사업을 조직포치하고 총화결속하는 등 구체적 방법을 가르쳐주며 서로 힘과 지혜를 합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일군들이 충분한 준비도 없이 하루에 수개 대상을 돌아다니며 아무러한 실속있는 도움도 주지 못하는 유람식지도나 실정은 알아보지도 않고 명령과 지시로 지도를 대치하는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 작풍과는 인연이 없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지도방법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책임적으로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당적사업기풍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게 되였으며 일군들의 지도수준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광범히 협의하여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짜고들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대책을 세우고 상하합심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업에서 걸린 고리들이 제때에 훌륭히 풀려나가게 되였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부단한 혁신과 비약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청산리방법의 위력은 바로 단결과 협조의 위력이며 지도가 하부에 침투되는데서 나오는 위력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지도를 하부에 깊이 침투시켜 우와 아래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원되여 청산리방법의 이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게 될 때 모든 분야에서 당정책과 제기된 혁명과업을 제때에, 더욱 실속있게 관철할수 있게 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은 더 잘, 더 빨리 진척되게 될것이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며 모든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고리를 포착하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며 그 고리를 풂으로써 전반적사업을 추켜세워나가는 사업방법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하는 것은 청산리방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일반적지도는 당정책의 본질과 의의를 대중속에 침투시키고 그 집행을 호소함으로써 해당사업에 목적의식성을 부여하며 정책적방향에 기초하여 사업에서의 통일성과 기동성을 보장하게 한다. 개별적지도는 해당사업의 구체적 조건과 대중의 사상의식상태 등을 깊이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게 함으로써 매개 단위의 특수한 조건에 가장 적합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게 하며 실천을 통하여 이미 일반적으로 포치한 사업을 검증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면서 전반적사업을 강력히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는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방법에서 분리할수 없는

두개 측면이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나 만약 당의 일반적호소와 지도가 없다면 광범한 대중을 통일적인 행동에로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또 일반적호소와 지도에만 그치고 일군들이 해당한 개별적단위에 깊이 침투하여 구체적조건을 연구분석한 기초우에서 그에 적합한 실천적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반적지도에 개별적지도를 결합시켜야만 당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는데서 구체적조건과 대중에게 적합한 투쟁형태를 발견할수 있으며 사업의 중심방향을 명확히 알고 경중을 갈라서 실천에 옮길수 있는것입니다》.

지도사업에서는 반드시 개별적단위에 내려가 거기에서 문제를 포착하고 연구한후 그것을 일반화하여 전반적사업을 포치하며 그후 또다시 전형적인 한점에서 일반적포치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그를 더 심화시켜 전반을 지도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 원칙을 관철하는데서 특히 한점을 뚫고 실천적모범을 창조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전형적인 대상에서 전형적인 문제를 풂으로써 이미 포치한 사업의 구체적인 해결방도를 제시하며 그것을 더욱 심화발전시킬뿐만아니라 일군들로 하여금 그의 실천행정을 통하여 당정책의 본질과 생활력을 체득하게 하고 그 관철에 필요한 지도방법을 소유하게 하며 확신성있게 대중을 지도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 방법은 생동한 경험과 실물로써 일군들을 실속있게 가르쳐주며 그 모범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며 본받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중앙위원회 1959년 12월확대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청산리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사업에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의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지도를 통하여 우리 당 사업과 인민경제지도에서 특히는 농촌경리지도에서 무엇이 결함이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농촌경리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것인가에 대하여 누구나 다 쉽게 리해할수 있는 산 구체적 사실로써 일군들을 교양하시면서 실천적인 모범을 창조하여 전국에 일반화함으로써 당사업과 경제사업전반에서 위대한 전변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이를 통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농업과 공업, 건국의 모든 부문, 모든 사업단위에 더욱 심화관철되게 되였으며 한점의 불꽃—청산리에서의 모범은 전국을 휩쓰는 기세찬 불길로 타번져 수백수천의 청산리를 낳게 되었다.

한점을 뚫고 모범을 창조하며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은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의 능숙한 결합형식이며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 사업작풍으로 된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며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여 그것을 일반화하는 지도방법은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일군들을 실속있게 구체적으로 배워줄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적중한 지도방법이며 리론과 실천을 결합하고있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전반적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선후차를 가리며 중심고리를 포착하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은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업에서 성과여부는 자기의 력량을 옳게 타산하며 사업의 선후차를 가리며 중심고리를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전반적사업을 틀어쥐고 먼저 할 일과 후에 할 일을 구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되거나 그의 해결에 결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고리 즉 중심고리를 포착하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원칙이며 혁명적령도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우리앞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복잡한 과업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하나의 련쇄된 고리를 이루고있다.

비록 제기된 과업이 복잡하고 련이어 새로운 과업이 나선다 하더라도 우리일

군들이 당정책에 의거하여 현실속에 들어가 대중과 진지하게 의논하고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동원한다면 사업의 선후차를 정확히 가리고 중심고리를 찾아낼수 있으며 또 이 고리에 주되는 력량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하나씩하나씩 철저히 풀어나간다면 련관된 모든 고리들을 해결하고 사업전반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달성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당이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확고히 견지하고 능숙하게 적용해온 이러한 혁명적사업방법이 가지는 거대한 위력을 뚜렷이 보여준다.

과학적인 대중령도와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는 청산리방법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실로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여왔으며 또 하고있다.

청산리방법의 위력은 그것이 사회주의제도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와 관리의 확고한 지침으로 될뿐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강유력한 수단으로 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방법은 목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심도있게 수행할수 있는 위력한 사업방법일뿐아니라 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며 군중을 혁명화하는 위력한 교양방법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에서 제기되는 합법칙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켜 로동조건, 소유형태에서의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없앨뿐만아니라 모든 사회성원들의 사상과 도덕, 문화, 기술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고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또한 우리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인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그에 의거하여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감에 있어서 청산리방법은 그 위력한 방도로, 추동력으로 된다.

청산리방법은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근로자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대중동원의 적극적인 방법이며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위력한 방법이다.

정치사업은 그자체가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에서 생산자대중의 열성과 적극성을 발동시킬뿐만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의 사상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진정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치사업은 그자체가 어디서나 선동과 선전을 결합한 힘있는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이 되여야 하며 동시에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및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정치사업의 거대한 위력은 그것이 수공업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전당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된데 있으며 모든 지도일군들이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진지하게 달라붙게 한데 있다.

이리하여 청산리방법의 요구에 따라 정치사업이 목적의식성을 가지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진공적으로 조직전개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우리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은 더 힘있게 촉진되게 되였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고 단결시키며 혁명화하여 나가는데서 기본원칙으로 되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켜준다.

청산리방법의 근저에는 계급로선에 기초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이 놓여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때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더 잘 관철할수 있으며 이에 립각하여 사회주의사회의 구체적 특성과 그 계급관계의 본질에 부합되게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동시에 혁명의 편에 끌수 있는 모든 계층의 군중을 확고히 믿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옳바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이에 있어서 특히 청산리방법은 우선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하여 전체 군중을 교양개조하며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며 교양개조해나가게 함으로써 사회의 혁명화를 더욱 힘있게 촉진시키게 한다.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육성하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은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고 혁명화하여나감에 있어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이다.

이 방침, 이 방법을 정확히 구현할 때 그것은 선진분자들의 실속있고 인내성있는 교양과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대중의 계급적의식을 보다 급속히 높일수 있게 하며 혁명화사업에서 이미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이 사업을 전반적범위에서 강력히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가 지난 기간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훌륭히 해결하여왔으며 혁명의 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력량을 불패의 대오로 전변시킨것은 우리 당의 이 방침의 정당성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청산리방법이 대중을 혁명화하는 위력한 교양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상교양사업을 혁명적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게 하는데 있다.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 있어서는 사상교양사업을 강력히 전개하는 동시에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하고 개조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것은 단순히 사상교양사업일면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천투쟁을 통한 단련이 동반될 때에만 원만히 허결될수 있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단련하고 개조하며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을 육성하는 훌륭한 《용광로》로 된다.

모든 사상교양사업은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될 때에만 이미 습득된 혁명적리론과 사상은 근로자들 자신의것으로 확고히 전변될수 있고 그들의 의식속에 튼튼히 뿌리박을수 있으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굳은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실생활에 훌륭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지도를 현실에 밀접히 접근시키며 또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사상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바로 사상교양사업과 혁명적실천투쟁을 통한 단련을 호상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행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혁명화과정을 촉진하는 믿음직한 방도로 된다.

청산리방법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하는 대중적인 방법이다. 여기에 또한 혁명화의 위력한 방법으로서의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사람마다 그들이 처한 조건과 환경이 서로 다르고 사상의식수준과 생활경로가 각이한 수백만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하는 사업은 단순한 행정적 방법이나 한두사람 또는 소수집단의 힘만으로는 결코 그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오직 이 사업은 광범한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또 그들자신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개됨으로써만 성과적으

로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청산리방법은 바로 여기로부터 당일군이나 행정경제일군, 웃사람이나 아래사람, 어느 직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누구나 다 자신의 사상의식을 적극적으로 개조할뿐만아니라 당정책의 선전자, 공산주의교양자가 되여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공장과 광산, 도시와 농촌 이르는 곳마다에서 군중속으로부터 참다운 공산주의교양자, 붉은 선전선동원들이 속출되고 그 대렬이 부단히 확대강화되였으며 개별적, 집체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열렬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육성해나가는 사업이 전사회적규모에서 강력히 추진되고있다.

이에 있어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가장 우월한 형태로, 훌륭한 공산주의학교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날로 더욱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대중적인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되고있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어려운 문제를 이미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그것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가일층 심화발전되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우리 나라에서 사상혁명이 전면적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방법이 철저히 구현됨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와 우리 사회 인간들간의 관계에서는 실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되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확고히 전변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청산리방법이 사회의 경제생활, 정신생활을 다같이 근본적으로 변혁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의 전진운동을 추진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 ＊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정강에서 제시된 혁명적로선과 강령적과업을 관철하여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가일층 승리적으로 촉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이미 생활에 의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되였으며 날이 감에 따라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보다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8년간의 력사적경험이 확증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모든 분야에서 관철하여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당과 대중의 통일,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동원하여 천리마진군의 대고조를 힘있게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가일층 촉진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 기본열쇠가 있다.

청산리방법을 관철함에 있어서 우리의 당,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문제는 모든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며 자신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것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혁명정신이며 위대한 혁명적방법이다.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이 자신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깊이 체득할수 없으며 그것을 실천활동에 옳게 구현할수 없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확립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대

로 숨쉬고 행동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혁명적방법과는 배치되는 온갖 그릇되고 반혁명적인 사상과 방법을 단호히 반대하고 모든 분야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관철하며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상과 신념으로 만들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혁명적진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철저히 소유하는것은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선결조건이며 그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청산리방법은 진실로 혁명적인 군중관점을 철저히 소유하여야만 옳바로 체득할수 있고 관철할수 있다.

우리는 군중에 대한 온갖 낡은 관점과 그릇된 태도를 뿌리빼고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혁명적군중관점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며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답게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튼튼히 소유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적군중관점을 소유하는 기초우에서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어떠한 혁명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나 당정책을 대중속에 정확히 해석침투하고 그 수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의강구하며 대중자신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당정책 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도를 하부에 더욱 접근시켜 아래일군들을 친절히 가르쳐주고 그들과 힘을 합하여 걸린 문제를 풀며 이신작칙하여 그들에게 일을 잘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경제지도관리분야에서 청산리방법을 더 잘 관철할수 있게 하는 훌륭한 사업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지 않고서는 청산리방법을 훌륭히 구현할수 없으며 청산리방법을 떠나서 대안의 사업체계,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청산리방법과 경제관리에의 그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계속 확고히 견지하며 전면적으로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의 당,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이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며 자신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청산리방법을 옳바로 구현하며 자기가 지닌 혁명임무를 성과있게 수행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는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인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없애고 참말로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져야 하며 경제리론과 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고 자기 맡은 사업에 더욱 정통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는 무겁고 중대하며 우리의 투쟁은 의연히 간고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혁명의 다원하고 세련된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나가는 대중의 드높은 혁명적열의가 있고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청산리방법이 우리의 수중에 튼튼히 쥐여져있는한 극복 못할 그 어떤 난관도, 점령 못할 그 어떤 요새도 있을수 없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혁명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더욱 힘있게 촉진시켜나갈것이다. (《로동신문》에서 전재)

남조선혁명에서 인테리의 역할

한 두 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남조선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에 기초하여 청년학생, 인테리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현시기 남조선에서 청년학생, 인테리들의 운동을 촉진하고 로동자, 농민과 청년학생, 인테리들과의 련합을 실현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전반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혁명의 편에 광범히 결속하는것이 필요하다. 혁명투쟁에서 쟁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의 광범한 결속은 반혁명세력을 고립시키고 전반적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할수 있게 한다.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 남조선의 청년학생, 인테리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들은 시대의 추세에 민감하고 민족적각성이 빠르며 따라서 로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인테리들은 이러한 모든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현실적으로 미제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력량으로 되고있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1페지).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나라의 인테리들은 돈냥이나 있어서 공부는 했지만 그자체가 민족적차별대우를 받고 제국주의압박을 받는 피압박민족의 인테리들이기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적요소를 가지고있다. 그들은 비교적 높은 지식을 가진 층으로서 현실에 민감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사회적진보를 지향한다. 이로부터 식민지인테리는 근로대중속에서 문화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선진사상을 보급하며 나아가서 인민대중을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교량적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혁명투쟁에서 인테리는 선진사상을 전파함으로써 대중을 혁명의식으로 각성시키는 거대한 역할을 한다.

남조선인테리들은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하여 근로대중의 민족적각성과 계급적각성을 제고하고 반혁명세력에 타격을 주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남조선혁명발전에 적지않게 기여하고있다.

인테리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매국배족정책을 폭로배격하고 자주자립, 자주통일을 주장함으로써 인민들속에 반미, 반《정부》적 기분을 증대시키고있다. 최근년간 그들은 일제의 재침책동과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적인 월남파병책동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를 반대하고있으며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교활성을 폭로하는데로 나가고있다. 또한 박정희도당의 부정부패, 그가 초래한 사회의 참담한 현실, 야수적파쑈폭압과 학살만행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있으며 가능한 모든 계기들을 리용하여 그를 비판폭로하고있다.

애국적이며 량심적인 광범한 인테리들의 교량적역할은 남조선인민운동발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있다. 더우기 학생청년들에 대한 학자, 교원들의 영향력, 광범한 사회계에 미치는 언론인들의 영향,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문화예술인의 작용 등은 매우 크다.

이 영향력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자들도 《남조선인테리들은 학생청년들로 하여금 1960년 4. 19와 1964년 6. 3투쟁

의 육체적용맹의 위훈에로 돌진하도록 고무추동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미국의 각도에서 쓴 공식적교과서를 멸시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있는바를 그들에게 주입하고있다》고 비명을 올리고 있다.

선진적인 인테리들은 선전교양활동뿐아니라 직접 군중조직사업에 참가하거나 대중운동이 앙양되는 시기에 가두투쟁에 참가함으로써 군중들을 적극적인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험은 군중투쟁의 앙양기에 인테리들의 예리한 문필활동과 직접적인 가두투쟁이 남조선의 각계각층군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고무추동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놀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례컨대 1960년 4월 25일 서울시내 대학교수단의 가두시위는 서울시민들의 반파쑈반독재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였으며 나아가서 리승만괴뢰정부의 전복에로 대중을 고무추동하는데 적지않게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교원로조》를 비롯한 기타 작가예술인들의 대중적진출이 4. 19후의 조국통일운동을 추동하는데서 논 역할과 동국대학교 교수들의 가두시위가 1965년 4월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학생투쟁에 준 영향력 등도 그러한 례로 된다.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의 인테리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파쑈화정책을 반대하고있으며 로동자, 농민들과 광범한 계층들의 반제, 반파쑈, 반《정부》적 투쟁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 *

남조선혁명에서 인테리들이 놀고있는 중요한 역할은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에서 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식민지나라들에서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은 민족적압박과 멸시를 당하고있기때문에 대부분 혁명성을 가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01페지).

장기간에 걸쳐 미일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반에서 가혹한 민족적압박과 천대를 받아온 남조선인테리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항거정신이 강하다.

혁명에서의 각계급계층의 지위와 역할은 매개 사회의 성격과 혁명의 기본임무에 따라 규정되며 매혁명에 대한 각계급계층의 태도와 리해관계는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에 많이 의존한다.

남조선인테리들의 사회경제적처지는 그들의 대부분이 남조선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하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한다.

사실상 남조선인테리들은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민족적모욕과 멸시를 당하고있을뿐아니라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통치하에서 정치적으로 극히 무권리하며 가혹한 탄압을 받고있다. 그들은 과학연구, 언론출판, 문예창작 등 인테리들의 극히 초보적자유마저 구속당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교원, 교수들이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사회정치적활동을 금지당하고있으며 《정치교수》, 《대학정비》, 《정년퇴직》 등 구실밑에 현직에서 축출되고 검거투옥되고있다. 《언론정화》, 《설비부족》의 명목하에 언론기관들이 폐쇄되고 언론인들이 가두에 내쫓기고있으며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언론활동이 금지되고 엄격한 보도관제를 강요당하고있다.

최근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인테리들속에서 부단히 장성하는 혁명력량과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력을 탄압말살해보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와 그의 충실한 주구 박정희도당은 경북대학교 교수 김대수박사를 중심으로 한 혁명조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10여명의 애국적인테리들을 체포투옥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서울에서

있지도 않는 소위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을 날조하는 한편 저들이 승인한바 있는 《민족주의비교연구회》까지도 《불온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많은 대학교수를 비롯한 인테리들과 청년학생들을 체포투옥하고 《공판》놀음을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오늘 미제와 박정희도당에 의하여 극형과 중형을 받고있는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은 한결같이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였으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주장한 애국자들이다. 그들의 주장은 천만번 정당한것이며 조선인민으로서의 민족적의무를 리행하는 애국적인 활동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정의로운 애국행동이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에 의하여 가혹하게 유린당하고있다.

남조선인테리들은 정치적으로 극히 무권리할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한 타격을 받고있다. 그들의 경제생활처지는 어느 식민지나라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정도로 비참하다.

현재 남조선에는 20여만의 실업인테리대군이 존재하며 생활난으로 인한 인테리들의 자살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취업인테리들도 부단히 직업과 생활의 위협을 받고있다. 남조선인테리의 80%는 문화인최저생활비의 약 50%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있으며 그중에도 《국민학교》교원들의 생활은 더욱 낮은 수준에 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남조선인테리들은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약할수 없는 끝없는 불안속에서 살고있다.

인테리들의 이러한 사회경제적처지는 그들로 하여금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민족해방과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나아가게 하고있다.

오늘 적지않은 남조선의 인테리들은 감옥도, 단두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혁명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가운데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습니다. 남조선의 많은 학자들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이 심한 조건에서도, 적들에게 붙잡히면 당장 총살당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고있습니다. … 그들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하다가 죽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있으며 혁명가로 싸워야 자기 후손들에게도 행복한 앞날이 온다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인테리들이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 현실적으로 잘 싸우고있는 것은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이 두터워지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이룩된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동경심이 높아지고있는데 있다.

지금 남조선인테리들속에서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김일성동지를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으로 우러러 보면서 북반부인민들처럼 그이의 품속에 안겨 행복하게 살려는 념원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테리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와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과 인테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대하여 감탄하면서 그이를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흠모하고있으며 《김일성원수의 령도하에 그분의 품속에서 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다》라고 확신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일성수상을 모시고 온나라 인민이 그이에 대한 흠모와 존경의 일념으로 가득차고 약속된 행복, 불패의 힘이 온 강산에 약동친다. 김일성수상의 지극한 사랑과 그이의 가르침만이 바로 나의 여생의 확고한 타침판이며 등대라는것을 똑똑히 확신하게 되였다.

우리 남녘인민들은 김일성원수의 현명한 령도를 기다리고있다.

그이의 높고 깊은 사랑의 손길로 남녘의 암운을 가실 그날이 어서 오기를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그이의 가르침따라 오직 내 한몸 바침을 다시없는 영예로 간직한다》.

어느때나 가슴속에 귀중히 간직하고 있는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 그리고 그이의 가르침을 따라 한몸을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간직하는 것은 우리 인민모두의 심정이다.

실로 남조선인테리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수립된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에서 민족의 긍지 조선사람의 자랑을 느끼고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제도만이 압박과 착취가 없고 실업과 빈궁이 없으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인민의 제도임을 잘 알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테리들은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희망의 등대로 보고있으며 그 위력의 장성에서 투쟁의 용기를 얻고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인테리들은 자기들이 처한 사회경제적처지로 하여 혁명적각성이 높으며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이룩된 공화국북반부사회주의제도의 영향력으로부터 혁명승리의 신심과 전망을 가지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는것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청년학생, 인테리들의 투쟁을 남조선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부합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은 적들의 어떠한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말고 투쟁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의 운명을 그들과 련결시키면서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1페지).

남조선에서 인테리의 투쟁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로동자, 농민들과의 련합을 실현하는것은 남조선혁명력량을 일층 강화하며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을 촉진하고 군중운동의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조선인테리들이 원쑤들의 탄압과 박해를 박차고 자기앞에 나선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투쟁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혁명투쟁에서 조직은 힘이다. 특히 인테리들은 각자의 지식과 신조에 의하여 활동을 전개하고있으며 과학교육, 언론출판, 문학예술, 기술부문 등 각양한 직업에서 일하는만큼 각성되고 단련된 선진인테리들을 중심으로 광범한 인테리들을 대중조직에 묶어세울 필요가 절실하게 제기된다.

남조선인테리들을 조직에 튼튼히 결속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투쟁에 조직적으로 광범히 동원할수 없으며 사상교양사업도 잘할수 없다. 인테리들을 조직에 튼튼히 결속하여야만 그들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으며 그들에 대한 혁명조직의 지도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남조선인테리를 조직화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특성과 처한 환경을 잘 타산하고 그에 알맞게 사업을 조직진행하는것

이 필요하다. 각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각이한 사회정치세력의 영향을 받고있는 남조선인테리들을 조직에 결속시킴에 있어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인테리들을 모두 포섭하는 립장을 견지해야 할것이다.

인테리들이 혁명투쟁을 잘하려면 자기의 대중조직을 가질뿐아니라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의 지도하에 로동자, 농민과 동맹하여 투쟁에서 그들과의 행동통일을 보장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테리들의 투쟁과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을 결합시키며 남조선인테리들이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의 운명을 그들과 련결시킬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남조선에서 혁명조직의 지도하에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빈민 등 각계각층군중이 하나로 결속되여 대중적투쟁에로 나아갈 때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아성도 능히 무너뜨릴수 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이 굳게 뭉쳐 혁명투쟁에 용감하게 떨쳐나선다면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능히 타도하고 남조선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혁명가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청년학생, 지식인들의 투쟁을 결합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그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로동자, 농민과의 결합을 위해서는 특히 청년학생, 인테리들이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과 그의 동맹자인 농민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가져야 한다.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은 혁명의 주력군이다. 반혁명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인테리들은 주력군과 합세해야만 자기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쟁취할수 있다. 인테리들은 자기들의 투쟁을 로동자, 농민 운동과 결합하며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함으로써만이 진정으로 혁명운동에 합류할수 있는것이다.

남조선인테리들은 로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의 밀접한 련계를 맺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배우는 동시에 그들속에서 선전계몽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테리의 혁명화를 촉진하고 인테리투쟁의 조직성을 강화하며 그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인테리들의 혁명화는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조선인테리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의 의식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투쟁속에서 그들을 단련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은 정의의 필봉으로 남조선사회에 들씌워진 압제와 빈궁의 근본원인을 밝히며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적극 혁명화해야 한다.

남조선인테리들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 미치고있는 숭미, 공미 사상의 영향을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들이 신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남조선인테리들을 교양하고 무장시킬 때 그들의 혁명적열의는 무한히 높아질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남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이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는 담보이다.

우리 당정책에는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원칙과 방도,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당면과업,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 혁명의 대상과 동력에 대한 문제, 인테리혁명화방법, 대중속에서의 정치사상사업의 방향과 방법, 대중운동의 방향과 방법 등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한 전략전술적문제들이 명시되여 있다. 여기에는 모든 문제들이 리론적으로 해명되여있을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도까지 다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인테리들과 인민들 속에서 우리 당정책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남조선혁명을 추진시키고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는데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남조선인테리들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정책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 그 무엇보다도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혁명전통교양—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수단의 하나이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이 손에 무장을 들고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가면서 15성상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불길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남조선인테리들을 교양하여야만 그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할수 있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고 항일빨찌산들처럼 혁명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그들처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는 훌륭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현시기 인테리들이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에 적극 합류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은 남조선의 모든 혁명력량과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망라하는 대중적투쟁으로 발전할 때에만 승리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인민들은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합된 힘으로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96페지).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군사파쑈적폭압이 계속되는한 인민들은 한시도 마음놓고 살아갈수 없으며 그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는 보장될수 없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발전을 저애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당건설과 군중운동을 촉진시키며 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시킴데 대한 당의 기본방침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기본요구는 남조선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파업의 자유와 진보적인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전취하며 나아가서 군사특무테로집단인 현군사파쑈정권을 전복하는데 있다.

남조선인테리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특히는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투쟁에서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축적하였다.

인테리들은 《반공법》을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을 휘두르면서 량심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과 인민들을 체포구금학살하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민주화를 실현하는 투쟁에 기여하였다.

현시기 남조선인테리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인테리활동의 자유, 언론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남조선인테리들은 이 투쟁을 점차 맑스—레닌주의선전,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 등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진시키며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웰남침략전쟁과 범죄적인 파병책동을 비롯한 전쟁정책을 파탄시키고 나아가서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남조선인테리들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함께 온갖 시련을 박차고 혁명투쟁에 더욱 정력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근로자 제2호 (루계 312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 종합인쇄공장
인쇄 • 1968년 2월 25일 발행 • 1968년 2월 28일
ㄱ—8371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3 호

평 양 근로자사 1968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3 호 (313)

차 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

—아바나문화대회에서 대회의 문헌으로 채택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전략전술에 관한 문헌—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영웅적으로 조직지도함으로써 암담하였던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셨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조직전개된 15성상에 걸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여의 모든 형태의 대중운동을 힘차게 고무추동하고 각계각층인민들에게 강력한 혁명적영향을 주어 전반적조선혁명운동을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켰다.

조선민족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억압과 착취 밑에서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쓰고 허덕이던 그 암담한 시기에, 종래의 각종 형태의 투쟁들이 그 자체의 제한성들과 결함들로 인하여 거듭 실패를 면치 못하던 인대 시련의 시기에,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폭압정책이 그 절정에 달하여 조선민족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엄혹한 시기에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지도함으로써 조선민족은 생기를 얻어 민족재생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였으며 수령의 부름을 따라 필승의 신념을 안고 반일항전에 일떠서서 영웅적기개와 민족적영예를 온세상에 떨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영웅적으로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민족과 조선혁명의 운명을 일대 위기에서 구출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민족의 영예를 길이 빛내인 력사적인 위대한 투쟁이였다.

그러기에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혁명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시고있음을 크나큰 영예로 여기며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있으며 이 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불후의 혁명적재부로, 고귀한 밑천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그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고있다.

1. 김일성동지에 의한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무장투쟁의 강화발전에 대하여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유일하게 정당한 조선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하게 밝혀주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선행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인 교훈과 1920년대말～1930년대초 우리 나라의 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은 그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일찍부터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민족적독립과 해

방을 위한 투쟁을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진행하여왔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에 의병투쟁, 독립군운동, 애국문화적치운동이 전개되였으며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영향하에 로동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한 반일대중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들은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에 의하여 진행되지 못하였음으로 하여 그리고 일제의 야수적탄압과 그자체의 결함들로 인하여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더우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20년대 말~1930년대초에 이르러 대륙침략을 위한 전쟁준비에 더욱 광분하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온갖 합법적활동의 여지마저 말살하여버리였다.

일제는 이 시기 조선인민의 일체 애국적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수많은 병력을 상시적으로 조선에 주둔시켰으며 2,500여개소의 경찰헌병기관을 배치하였고 각종 파쑈적악법을 민들어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일제가 1929년부터 1931년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소위 《사상범》이라는 명목하에 1만 6,000여명에 달하는 애국적인 조선인민을 검거투옥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정책은 전대미문의 경제적략탈과 병행하여 감행되였다.

일제는 조선을 저들의 식량공급지와 상품판매시장으로 유지하면서 대륙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병참기지로 만들고 조선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략탈하기에 광분하였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파쑈적폭압과 략탈의 강화는 일제와 조선인민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이에 따라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이르러서는 원산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과 신흥탄광로동자들의 폭동, 단천농민들의 폭동을 비롯한 로동자, 농민들의 폭력적진출이 급격히 강화되여갔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모두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적령도가 없이 분산성을 띠고 전개되였으며 옳은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였기때문에 결국 승리할수 없었다. 더우기 이러한 투쟁방법으로써는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폭압통치가 류례없이 강화된 당시의 정세하에서 도저히 조선혁명을 전진시킬수 없었으며 조선인민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할수 없었다.

이 시기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정책을 강화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일제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며 앙양되고있는 로동자, 농민들의 폭력적투쟁에 조직성과 목적의식성을 부여하고 그를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적극적인 투쟁에로 이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은 당시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선 가장 심중하고 긴절한 과업이였다. 그러나 당시의 형편에서 혁명의 이 요구를 옳게 해결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이 나아갈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그 투쟁방도를 제시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15세때부터 독자적으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비합법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여 혁명적인 청년대중을 결속하시였으며 각종 반일대중단체를 조직지도하시여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시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의 광대한 지역에서 혁명활동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장래전망을 구상하시고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추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기치하에 광범한 대중적지반에 뿌리박은 강력한 상비적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사소한 합법적활동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말살된 당시의 형편에서 혁명을 전진시키고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항일무장투쟁로선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로선이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민족해방운동에서 무장투쟁은 최고형태의 투쟁인것이다.

모든 혁명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해방운동에서 투쟁형태는 다양하며 그것은 주객관적조건들에 의하여 변화된다.

그러나 민족해방운동의 투쟁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정치투쟁의 형태는 조직적인 폭력적 투쟁—무장투쟁, 민족해방전쟁인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본성에 비추어볼 때 불가피적으로 흘러나오는 결론인것이다.

평화적시위나 파업투쟁 등 비폭력적 투쟁형태만으로는 발톱까지 무장한 제국주의세력을 물리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주권을 찾으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하며 선거놀음을 해가지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

특히 그것은 포악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평화적인 투쟁방법으로 물리칠수 있다는 주장은 어리석은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침략세력 특히 파쑈적인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로동계급이 서서 철저한 반제반봉건적 혁명투쟁을 전개할 때 그 투쟁의 발전은 결국 민족해방운동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에로 이르게 된다.

혁명적인 정세가 조성된 시기에도 무장투쟁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있는 민족해방투쟁은 그만큼 낮은 수준에 있는 투쟁이거나 그 투쟁이 아직 결정적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초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를 정확히 포착하여 가장 포악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발전시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천명하시였다.

첫째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항일유격대결성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공산주의핵심을 골간으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을 새로이 육성함으로써 그들을 모체로 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항일무장대오의 결성과 무장투쟁의 강화발전을 실현할수 있으며 전반적혁명운동에 대한 령도와 그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할수 있었다.

둘째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형식으로서는 유격전을 기본으로 할것을 규정하시고 그를 위해 유격대를 창건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셋째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이 유격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건하에서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유격근거지는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보아 유리한 조선과 만주의 접경지대인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압록강 연안의 산간 및 농촌 지대에 설정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넷째로,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더우기 무장투쟁이 유격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건하에서 광범한 인민들과의 련계를 보다 강화하여 그들을 일제와의 투쟁에 적극 동원하고 군중들로 하여금 유격대를 백방으로 지지성원하도록 하는것은 무장투쟁의 승패를 규정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상과 같은 정확한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곧 항일유격대 창건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아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몸소 조직지도해오시던 혁명적군중단체들을 비롯한 각종 혁명조직들을 확대해나갔으며 이에 수만의 혁명군중들을 묶어세우셨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적위대, 소년선봉대와 같은 반군사적조직들이 광범히 결성되여 일제침략군의 침습으로부터 혁명조직과 혁명군중을 보위하기 위한 활동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공산주의자들은 항일유격대창건을 위한 사업을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였으며 이 행정에서 검열된 선진적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집결하여 군사력량을 꾸리기에 힘썼다.

한편 무장력의 2대요소의 하나인 무기의 획득을 위한 투쟁도 맹렬히 전개하였다. 이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였다. 나라가 이미 일제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되여 주권도 민족군대도 가지고있지 못한 형편에서 그리고 그 어데서 무장적방조를 받을수도 없고 누구에게서 무기를 넘겨받을수도 없었던 조건에서 간고한 투쟁을 통해 자체로 무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에는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하여 공청원, 적위대원, 소년선봉대원, 부녀회원들과 지어는 로인들과 어린이들까지 광범히 참가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군중들속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필요성과 무기획득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해설하고 승리의 신심을 높이게 함으로써 모두가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동원되여 투쟁에서 용감성과 대담성 및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당시 혁명조직들이 군중을 얼마나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에로 정력적으로 불러일으켰는가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호소에서도 충분히 알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아우를 잃은 무산청년들아! 금강석같이 굳고굳은 투지로 이를 갈고 주먹을 쥐고 무산계급총전선마당으로 나와 판가리싸움에서 원쑤를 복수하자!…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피끓어넘치는 청년들아! 신을 든든히 신고오라. 무장로선으로 준비하라.

동무들아 단결하라! 준비하라! 무장보선에 총동원하라!》

항일유격대의 무장장비를 갖추기 위한 투쟁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적의 무기를 탈취하여 자체를 무장하는것이였다.

혁명군중들은 《무장은 생명이다!》라는 구호하에 일제침략군, 위만군, 일만경찰, 무장자위단, 악질적인 친일지주와 관리배들을 기습하여 자기의 무기는 자기가 해결하는 원칙에서 투쟁하였다.

이렇듯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무장대오를 조직하기 위한 투쟁은 무장장비를 갖추기 위한 투쟁과 병행하여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은 준비에 기초하여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키워온 우수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선진적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우리 나라의 혁명적인민무력의 첫대오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의 창건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수행의 위대한 로선을 실현하며 우리 나라 혁명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으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항일유격대는 맑스—레닌주의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

방을 위하여 싸우는 로동계급의 첫혁명적무장력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사상이였으며 그 목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였습니다.》

항일유격대는 적과 싸우는 전투대오였을뿐만아니라 또한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였으며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조직자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창건된 항일유격대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충실한 혁명군대였다.

항일유격대는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였을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의 리익을 위해 싸우는 로동계급의 군대였다.

항일유격대는 조선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 다른 나라 로동계급을 방조하고 세계혁명을 추진하는것으로 된다는 확고한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였으며 그 위업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빨찌산은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들의 한가정의 식구였습니다. 빨찌산은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맑스의 사상을 고수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항일유격대는 바로 이러한 성격과 특성을 가지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항일유격대는 그 창건단초부터 일제를 멸망시키고 조국의 광복을 달성한 1945년 8월까지 실로 15성상의 장구한 력사적 시기에 걸쳐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타개하면서 무장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발전시켜나아갔다.

항일무장투쟁은 세계력사상 그 류례가 드문 간고한 투쟁이였다.

첫째로, 그것은 항일유격대가 일본제국주의와 같은 강대한 적을 대상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된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일본제국주의는 발생초기부터 군사봉건적특성과 가장 강도적이고 략탈적인 성격을 띠였다.

일본군국주의는 1874년 대만침공으로부터 시작하여 패망하는 날까지 10여차의 침략전쟁을 거듭하였으며 11개 나라의 광범한 지역을 식민지 및 반식민지로 강점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제국주의는 더욱 침교하고 야수적인 강도로 되였으며 략탈와 략탈, 침략과 전쟁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수 없게 되였다.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적략탈로 비대해진 탐욕적인 일본독점지배층은 호전적 파쑈분자들은 전쟁에서 전쟁에로 내몰면서 군비확장에 광분하였다.

1930년대초에 일제침략군은 벌써 200만대군으로 늘어났으며 1930년대말～1940년대초에 항일유격대를 반대하며 쏘련침공을 준비하는데 투입된 관동군만 하여도 100만에 달하였다.

일제침략군은 《정예》를 자랑하는 최신식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되였으며 현대적인 륙해공군을 가지고있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한 일제는 남의 나라와 인민을 반대하는 대외침략에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를 받았으며 파쑈독일과 이딸리아와 같은 강도적동맹자들을 가지고있었다.

둘째로, 항일무장투쟁의 간고성은 항일유격대가 이 강대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무러한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필요한 모든것을 오직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만 하였던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조선이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이미 전락된 조건하에서 우리 나라에는 항일무장투쟁을 강력히 지원할 혁명정권과 민주자체의 군사적토대도 없었다.

이리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강대한 적과의 투쟁과정에서 무장대오를 조직확대하고 자체의 힘으로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 등을 해결하며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무장투쟁은 초기부터 미증유의 간고성을 띠지 않을수 없었다.

셋째로, 항일무장투쟁의 간고성은 그 투쟁이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과도 관련되여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일제가 파쑈화되였으며 그의 식민지폭압정책이 최고절정에 달하였던 그러한 시기에 시작되여 일제가 멸망하는 때까지 15성상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초기부터 그의 간고성과 장기성을 예견하고 그에 대처할수 있게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였다.

그들은 인민대중과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면서 일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적개심과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높이며 특히 모든 곤난과 시련을 이겨나아가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였다.

항일유격대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없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오직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억센 투지를 안고 적과 싸웠다.

항일유격대는 겨울이면 령하4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를 수림속에서 지내야 하였고 때로는 눈을 녹여 목을 축이며 풀뿌리를 유일한 식량으로 하여 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항일유격대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불사조마냥 영웅적으로 싸워이겼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명확한 혁명로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무장투쟁발전의 매단계마다에서 모든 난국들을 룡소 타개하시면서 항일유격대와 인민대중을 항상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15성상에 걸치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개의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첫단계는 항일유격대를 결성하고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시작하였던 1932년부터 1935년에 이르는 기간을 포괄한다.

이 시기는 우리 나라의 북부국경지대와 동만의 광활한 지역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발전시키는 한편 혁명력량을 보존육성하고 장차 무장투쟁을 더욱 광활한 지역에로 확대하여 적극적공세에로 이행할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갖추던 시기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을 이끌어 근거지내에서 낡은 사회경제관계를 타파하고 인민혁명정권을 수립하였으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근거지내에 공산주의조직들과 각종 형식의 대중단체들을 결성하고 그에 광범한 혁명대중을 결속하였으며 실지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교양하고 간부들을 육성하였다.

이 시기 전투활동은 근거지에 의거하여 초기에는 주로 무기탈취와 소규모전투들을 진행하면서 항일유격대의 무장력을 강화하였으며 그후에는 근거지를 벗어나서 적 성시들에 대한 대규모진공전투들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적의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근거지방위전투들도 비교적 큰 규모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투쟁성과에 의거하면서 1934년에는 각지방의 유격대들을 유일한 군사지휘체계에 통합하여 인민혁명군으로 조직개편하시였다.

인민혁명군이 결성된후 군사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대규모적으로 전개되였다.

이 시기에 적들은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무력을 근거지토벌작전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전면적인 봉쇄와 대규모적인 토벌공세앞에서도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유격대와 인민대중은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영웅적으로 싸워 4~5년이

란 오랜기간 혁명근거지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항일무장투쟁발전의 둘째단계는 1936년부터 시작하여 1940년에 이르는 기간을 포괄하고있다.

이 시기는 백두산근거지를 새로 창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적에 대한 적극적공세에로 이행하면서 무장투쟁을 광활한 지역에로 확대하고 대규모적으로 강력히 전개하던 시기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에 기초하여 항일무장투쟁과 함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들을 전국적규모에서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이 시기는 일제의 식민지폭압정책과 적들의 반동공세가 전례없이 강화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조선인민의 혁명운동이 전반적으로 일대 앙양을 이룩하였던것으로써 특징지어진다.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항일유격대들은 1937년 6월 4일 보천보전투, 1939년 5월의 무산지구전투 등 국내진공작전을 비롯한 대소전투들을 련속 전개하면서 대륙침략전쟁의 확대와 대쏘침공준비에 미쳐날뛰는 일제의 뒤통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활발한 전개와 배합하여 전국각지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의 활동이 적극화되였다. 그들은 적들의 삼엄한 감시하에서도 지하정치활동을 능숙히 전개하였으며 도처에 조국광복회하부조직들을 확대하면서 광범한 인민대중들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가리키는 휘황한 길을 따라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인민은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절정에 이른 간고한 시기에도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명맥을 줄기차게 이어나가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전체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로 우러러보면서 그이에게서 힘을 얻고 조국광복의 최후승리를 확신하였다.

그들은 오직 김일성동지께 자기들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고 그이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국해방의 성전에 한결같이 일떠섰다.

항일무장투쟁발전의 셋째단계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고있다. 이 시기는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로 조성되였던 국제국내정세의 변화에 대처하여 종래의 대부대유격활동으로부터 소부대유격활동에로 이행하면서 조국의 광복,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항일유격대는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자체역량을 보존육성하고 군사훈련과 정치리론학습에 힘쓰는 일방 적을 격멸하기 위한 소부대유격활동과 인민대중들속에서의 정치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시기 최후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일제는 무장투쟁을 압살하려고 발광적으로 달라붙었으나 결코 항일유격대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 없었으며 전체 조선인민에게 미치는 그의 혁명적영향력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명성은 항일유격대의 줄기찬 투쟁의 소식과 함께 전국의 방방곡곡에 전설과도 같이 빈틈없이 퍼져갔으며 조선인민의 심장마다에 민족재생의 불꽃을 지펴주고 그들의 투쟁열의를 힘차게 북돋아주었다. 군대와 경찰, 정보와 특무망으로 뒤덮인 하나의 감옥으로 전변되였던 살벌한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도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성이 얼마나 강력한 견인력을 가지고 널리 퍼져갔는가 하는것은 다음의 실례에서도 알수 있다.

일제의 어용학자인 가마다라는자는 일제가 패망한 제2차세계대전후 《조선신화》라는 책에서 당시를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1944년경 《나는 남조선의 어느 소학교에서 6학년과 중학 2학년생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다음 〈여러분은 현재의 일본사람중에서(조선사람까지 포함하여)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있는가. 무기명으로 정직하게 투표해보라.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겁내하지 말라〉고 짐짓 안심시켜놓고 무기명으로 투표를 시켜본즉 놀랍게도 그의 67%가 김일성이라고 써여있었다.》

일제통치말기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도 인민들속에서는 반일비밀단체를 조직하고 김일성동지의 항일유격대와 합류하여 무장투쟁에 참가하려는 시도가 일반적경향성을 띠고 급속히 확대되였다.

일제가 실토한것과 같이 이 시기 광범한 청년학생들이 시도한 수많은 《결사사건》은 《일본의 패전을 맹단하고 좋은 기회를 타서 불온목적의 달성을 기도하였으며 그 구체적방법으로서는 숭배하여 마지 않는 김일성과 련계를 가지며 또는 그 산하에 참가하여 무력봉기를 감행하려고 획책한것이 거의 전부…》(조선총독부 경무국 《고등외사월보》 제46호 1943년 8월분)였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적인 조직전개에 의하여 최후붕괴에 직면한 일제의 패망을 촉진하고 조국해방을 실현한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운이 최고도로 성숙되였으며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영접할수 있는 준비태세가 전면적으로 갖추어져갔다.

15성상에 걸치는 조선인민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은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유격대가 쏘련군대와 함께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결전을 전개하여 일제를 격멸소탕하고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함으로써 자기의 총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2. 항일무장투쟁승리의 요인에 대하여

항일무장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던 승리의 중요한 요인은 어데 있는가?

첫째로 항일무장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였기때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떠한 혁명운동이든지 강력한 지도적력량이 없이는 혁명의 지도부가 옳은 정강을 내세우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대중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쟁취할수 없습니다. 아무런 조직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산만하게 진행되는 투쟁은 결코 승리할수 없는것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은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전시기까지 혁명의 령도자가 없었고 혁명적강령과 정확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의 혁명적진출이 끊임없이 있었으나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면할수 없었으며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파란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일제의 류혈적탄압에 의하여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인민은 오직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게 되였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강령을 받들고 투쟁함으로써 승리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매단계마다 조선인민이 나아가야 할 정확한 정치로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구상은 특히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전면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히 정식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10대강령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혁명으로서의 당면한 조선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천명하시였다. 강령 제1조에서는 조선인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과업으로서 강도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인민정부를 수립할것을 규정하시였다. 그리고 인민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과업들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 방침들이 제시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0대강령에서 조선인민앞에 제기된 기본적인 정치적과업 즉 일제식민지통치의 전복과 인민정부수립을 위한 실현방도로서 광범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가능한 모든 반일력량을 남김없이 총동원하여야 한다고 천명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및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과 밀접히 결합하며 그를 동시적으로 추진시키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시종일관 견지한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이였으며 또한 그를 성과적으로 관철하였기때문에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가 이룩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정치강령과 그 실행을 위한 과학적방도가 제시됨과 함께 탁월한 전략전술적지도가 보장되였기에 이루어질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면서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정세와 혁명임무로부터 출발하여 무장투쟁의 종적목적과 매시기의 임무, 군사활동지대의 선정, 유격근거지의 창설 및 공고화, 제기된 임무에 적응한 유격투쟁형식의 선택, 유격대오의 확대강화를 위한 방도 등 일련의 전략문제들을 천재적으로 천명하고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유격근거지 문제가 독창적으로 해결된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군사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유격근거지는 항일유격대가 장기간 군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적기지로서뿐만아니라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혁명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혁명기지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것은 무장투쟁이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주되는 투쟁형태이며 특히 우리 나라가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기때문에 무장투쟁이 국가적 후방과 민족적군사토대가 없는 조건하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를 정세의 변화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각이한 형태로 규정하시였다.

1930년대 전반기에는 고정적인 해방지구의 형태로 유격근거지가 창설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에 해방지구의 형태로서 유격근거지를 창설한것은 정당하였다. 이는 당시 동만의 절반이상의 농촌을 불바다로 만들었고 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 학살하고있었던 일제의 백색테로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육성함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것이였다.

유격근거지—해방지구가 창설됨으로써 항일유격대는 자기의 후방기지와 유격활동의 지탱점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무장대오의 정치군사적위력을 급속히 확대강화함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었다.

또한 적들의 군사적침공으로부터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방위하는것은 이 일대의 지리적위치로 보나 특히 험악한 산악지대를 이룬 그 지형적조건으로 보아서도 유리하였으며 가능한것이였다. 그리하여 유격근거지—해방지구는 그가 존재한 4～5년간 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강화시켰으며 전반적혁명운동발전의 기지로서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였다.

1930년대 중엽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새로운 정세하에서 그에 적응하게 항일무장투쟁의 가일층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발전적으로 해산하는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셨다.

고정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는 그에 의거하여 혁명력량을 보존하며 장성강화하려면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였고 내외정세가 무장투쟁의 무대를 광활한 지대에로 옮겨 적극적공세에로 이행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혁명적영향을 확대할것을 요구하였던 1930년대 중엽에 와서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더는 제기되지 않게 되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는 비공개적인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되였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창설한 혁명근거지는 1930년대 전반기에 창설되였던 해방지구와 같은 형태로는 될수 없었다.

조선의 북부지대와 압록강, 두만강연안에서 무장투쟁과 정치활동을 일층 강화하며 전국의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로 더 힘차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조선혁명운동을 전반적으로 조직지도할수 있고 마음대로 유동하면서 자유자재

로 유격활동을 전개할수 있게 유격근거지가 창설되여야 하였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근거지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대산림지대의 유리한 자연적조건을 리용하여 설치한 밀영들과 그를 거점으로 이 지대에 포괄되여있는 적통치구역내 인민대중속에 포치된 혁명조직들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요새로 창설하시였다.

이러한 비공개적인 유격근거지는 원쑤놈들의 발악적인 공세하에서도 특별한 방비병력이 없이 그를 은밀히 유지하며 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이고 기동성있는 군사행동과 적시적인 휴식, 훈련 및 후방기관들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었다.

1940년대 전반기에 항일유격대는 군사활동의 전지역에 림시적인 비밀근거지(아지트)를 설치하고 그에 의거하여 정치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창설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탁월한 군사전략과 유격전술을 창조하시고 그를 능숙히 적용함으로써 항상 적에 대한 전술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하고 모든 전투에서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게 하시였다.

항일유격대를 결성한 초기 가장 큰 난관은 수적으로나 무장장비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던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 유격전술을 가지고있지 못한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유격투쟁에 관한 미리 고안된 전술이나 그 누가 써놓은 유격활동의 군사교범도 없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실제투쟁과정에서 새로운 유격전술을 창조하시고 능숙하게 적용하시면서 부닥친 난관들을 타개하여나아가시였으며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의 력량을 보존하면서 대량의 적을 소멸하는 유격전의 기본원칙에 립각하여 적이 집중하여 공격하여올 때에는 적을 분산하여 각개소멸하고 적이 분산되였을 때에는 유격대의 집중된 력량으로 적을 소멸하는 명확한 전술적원칙을 제시하시였다.

이 전술적원칙은 간고하였던 유격근거지방위전투의 불길속에서 창조되였으며 실제 투쟁과정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검증되였다.

1933년말～1934년초에 일제는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토벌을 감행하여왔다. 이때 근거지방위전투는 적들과 정면으로 대치된 상태에서 1개월여에 걸쳐 계속되였다. 이 기간에 항일유격대와 근거지인민들은 유리한 지형적조건에 의거하여 영용하게 싸웠으며 적들에게 심대한 손실을 주었으나 적들은 력량상 우세를 믿고 계속 날뛰놀었다. 유격근거지내의 형편은 더욱 악화되였으며 난관은 날마다 더하여갔다.

이러한 정황에서 적들과 계속 정면충돌을 하는것은 전술상 승산이 없는 모험행동이였다.

그러나 군사모험주의자들은 계속 적들과의 정면충돌을 결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근거지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주장을 반대하면서 조성된 정황을 급변시키고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유격근거지에서의 방어전과 적후방에서의 습격 및 매복전을 배합하여 적에게 강력한 타격을 줌으로써만 적들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유격근거지를 보위할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시고 몸소 그 앞장에 서시여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1934년 1월초에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를 방어하면 유격대를 두개 부대로 편성하여 한부대는 근거지에 남아서 방어하게 하시였으며 다른 부대를 친솔하여 적의 포위진을 뚫고 적배후에 진출하시였다.

이렇게 하여 텅 빈 적의 배후에서 그 병영, 경찰과 자위단, 군수창고, 군수물자수송대들을 련속적으로 족쳐대여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적들은 부득이 유격근거지에 대한 《위공작전》을 더는 계속할수 없게 되고 끝내 퇴각하고야 말았다. 만약 이때 좌경적군사모험

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근거지방어에만 주력하였다면 대병력을 집중하여 감행하는 적의 《위공작전》앞에서 완전히 피동에 빠져 유격대는 커다란 손실을 면치 못했을것이다.

실로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4~5년간이나 사수하고 적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줄수 있은것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유격전술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던것이다.

그후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친솔하시고 백두산 서남부일대에 진출하시였던 1936년 이후시기부터 일제는 백두산 앞뒤주변에서 미친듯이 따라다니였다. 놈들의 한 부대는 산릉선을, 한 부대는 산중복을 그리고 한 부대는 골바닥을 타면서 항일유격대가 새여나지 못하도록 마치 참빗으로 훑는것같은 전술을 썼다.

적들의 이러한 전술에 대처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부대의 활동과 소부대의 활동을 배합함으로써 적들의 전술을 압도하는 새로운 유격전술을 적용하시였다. 즉 백두산 서남부일대에서 주로 두 방향으로 군사행동을 전개하였는바 하나는 소부대를 도처에 파견하여 여기저기서 적에게 타격을 주어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게 하였으며 대부대는 은밀하게 활동하다가 적의 큰 부대들을 족치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적으로 적용하신 이러한 대부대와 소부대의 배합작전으로 인하여 일제놈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였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유격전술에 의하여 항일유격대는 적이 대병력으로 공세를 감행하는 조건하에서도 자기의 력량을 보존하면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적들의 작전기도를 완전히 파탄시킬수 있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적용하신 령활한 유격전술은 능란한 집중, 분산, 이동으로써 적들이 도사리고있는 지대의 이르는 곳마다에 임의의 시각에 나타나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며 동쪽도 타격하고 서쪽도 치며 한 지점의 적을 고립시키고 래원하는 적을 소멸하기도 하며 소수의 력량으로 적을 유인하여 큰 력량을 불의에 타격하며 또한 적들의 한가운데 끼여들었다가 재빨리 빠짐으로써 적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며 멀리 이동하는척 하고 적의 코밑에 돌아앉기도 하고 위풍당당한 집중행군을 삽시간에 분산행군으로 바꾸기도 하는 일행 천리전술 등을 자유자재로 적용하는데서도 구현되였다.

1939년에 들어서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투쟁에 닥쳐온 시련의 시기에 령활한 전술로써 항일유격대에 대한 적들의 악착한 《진드기전술》을 여지없이 분쇄하여버리고 전투승리의 성과를 계속 확대하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 동북부지대에 부대를 이동시켜 유격활동을 조직전개하시면서 다시금 새로운 유격전술을 적용하시였다.

당시 적들은 백두산 서남부일대에서 항일유격대가 밀영형태의 근거지를 잡고 활동하는 전술을 알고 토벌력량을 증강집중하여 포위하고 봉쇄하는 한편 혁명의 사령부를 찾아내려고 수색전에 혈안이 되였다.

이러한 적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미리 준비된 비밀코스에 따르는 대부대선회작전을 적용하여 적들이 따라오면 또 새자리에 옮겨가고 또 그곳에 적들이 따라오면 놈들을 족치고 다른 새자리로 옮겨가군함으로써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항일유격대는 천태만변의 이러한 유격전술을 적용하면서 습격전투, 매복전투, 도시진공전투, 반포위전투, 조우전투, 방어전투 등을 전개하여 매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보장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하에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직전개됨으로써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그것은 첫째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무장투쟁을 새로 개척하며 전반적조선인민의 혁명운동을 령도하면서 그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

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하나하나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당시 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로부터 무장투쟁의 구체적방도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하여 해답을 준 미리 고안된 그 어떤 처방이란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었다. 이와 함께 외부의 지원도 없이 식량과 피복, 탄약과 무기 등 필요되는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여야 하였던 조건하에서 주체적립장과 주견 그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다면 일보도 혁명을 전진시킬수 없었다.

둘째로, 주체확립의 필요성은 당시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끼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성과도 관련되여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이미 1920년대에 커다란 해독적후과를 끼치였으며 그것은 혁명대렬내에 기여든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부식조장되였다. 이 시기 사대주의의 해독성은 자기 나라 자체의 혁명력량을 믿고 그를 강력히 꾸리려고 할 대신 국제당이나 또는 다른 큰 나라에 잘 보이기 위하여 그에 맹종맹동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옳건 옳지 않건 그것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건 맞지 않건 고려없이 교조적으로 받아무는데서 표현되였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1920년대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1930년대에도 지속되였으며 그것은 혁명운동의 발전에 계속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과 당시 우리 나라 혁명이 처한 실정을 구체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주체를 확립할것을 혁명실천의 제1차적과업으로 내세웠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초기부터 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

주체의 확립은 대국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그리고 그를 부식조장시킨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치렬한 사상투쟁을 동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국주의와 사대주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작성하고 고수하시였으며 그를 정확히 관철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초기 사대주의자들은 당시 이웃 나라들에서 실시하고있던 쏘베트로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였으며 민족해방의 임무가 전면에 제기되였던 우리 나라 혁명의 당면한 성격을 무시하면서 《사회주의의 즉시 실현》을 주장하여나섰다.

이자들은 유격근거지—해방지구내에서 《사회주의》를 당장 실시하려고 하면서 경제시책에서는 토지에 대한 일체 사적소유를 부인하고 지주는 물론 농민들의 토지마저 모두 몰수하며 토지는 공동경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좌경모험주의의 이러한 해독적후과는 지극히 컸으며 혁명운동의 발전에 많은 장애를 조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자립의 립장을 잃어버리고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자기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며 남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채로 삼켜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는 이러한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배격하면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시였다.

그러면서 주체사상에 확고히 기초하여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조선혁명의 투쟁로선, 전략전술을 작성하시였으며 무장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대주의자들의 해독행위와 함께 그자들을 조종하면서 우리 나라 혁명운동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하였던 대국주의자들의 배타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서도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 전반기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민족해방의 혁명적기치, 민족해방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헐뜯으려는 대국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과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와해하려는 그들의 준동이 로골화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운동이 일대 위기에 처한 엄혹한 시기에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혁명의 위기를 한몸으로 막아나서시여 이자들의 반혁

명적준동을 처부시고 민족해방혁명의 주체적립장,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고수하였으며 조선혁명운동의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제기하는것을 반대하여나선 대국주의자들의 부당한 견해를 규탄하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 조선혁명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말하며 그것을 위하여 싸우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당당한 권리이며 그들에게 부과된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이라는것을 천명하시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적아를 혼동하면서 대렬의 통일단결을 저해해나선 이들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폭로하면서 투쟁의 예봉을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돌리고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선입감이나 편견 더우기 민족적편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지투쟁에 엄격히 의거하여야 하며 동지들을 믿고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의 동향을 피상적으로 속단하는 현상을 없애고 반제력량을 광범히 묶어세워 원쑤 일제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것은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수호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결합시키는 기초우에서 모든 반제력량을 하나에 묶어세워 원쑤 일제에게 화력을 집중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였다.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오직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는 일신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시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칙성과 비타협성, 맑스—레닌주의적인 명철한 분석과 정연한 론리에 의하여 대국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한 혁명앞에 조성된 위기는 극복타개되고 조선혁명은 김일성동지의 확고한 주체로선을 따라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상과 같이 대국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좌경모험주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조선혁명의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과학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에 의한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운동에 대한 지도를 가일층 강화하시였다.

조선혁명에서 주체가 확고히 수립됨으로써 1936년에는 조선사람의 진정한 혁명조직인 조국광복회를 결성할수 있었으며 그가 선포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치밑에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전반적혁명운동을 새로운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릴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사대주의, 교조주의, 좌경모험주의를 부식조장시키던 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대렬내에서는 종파분자들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결속된 공산주의자들의 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철석같이 강화되였다.

전체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와 배치되는 사소한 행동에 대하여서도 제때에 타격을 주었으며 그이께서 제시한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철저히 옹호하고 관철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그 누구도 조선혁명을 대신할수 없다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15성상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였으며 오직 인민을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한다면 적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밑에서 무장투쟁을 조직하시고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혁명을 하신것도 아니였으며 그 누구의 힘도 바라지 않았고 그 누구의 비준도 받으려 하지 않으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는것은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하는것도 아니며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것도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

를의 해방을 위하여, 국제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혁명을 하고있다.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며 그것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아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이다. …우리는 결코 남의 풍에 놀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것이다.》

바로 그러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들을 민족적자주의식으로 교양하시었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자기 힘과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대국배타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싸우게 하시였으며 모든것을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다 바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다음과 같은 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조선민족과 조선의 3천리강산을 떠나서 조선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조선의 력사와 전통, 조선사람의 생활감정과 풍습을 고려하지 않고는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혁명에 대해 열정을 가질수 없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없다.》

항일유격대원들이 그 간고한 15성상에 걸친 투쟁의 나날 그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중첩된 난국을 타개하고 계속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면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실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 자주자립의 혁명적립장으로 확고히 무장된데 기인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요인은 또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광범한 각계각층인민대중과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 인민들과 함께 공동의 적, 일제를 반대하는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함으로써 민족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반제력량을 일제격멸에로 총동원한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식민지반봉건적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전략적주공방향인 일제를 격멸소탕하는데로 민족의 모든 반일력량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할데 대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공동의 적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 인민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할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우리 나라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과의 반일민족통일전선실천을 위하여, 그리고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민족주의세력까지 포함한 광범한 반일력량과의 반제공동전선실현을 위하여 인내성있게 투쟁하시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일제를 반대하는 반제공동전선운동을 동시적으로 능숙히 조직전개함으로써 민족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비록 불철저하고 견고치 못한 동맹자라 할지라도 전취하여 반일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일제를 더욱더 고립시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반제공동전선운동은 무장투쟁과의 밀접한 결합속에서 통일적으로 조직전개됨으로써 더욱 위력한 것으로 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일제에게 정치군사적으로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전개하여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유일한 강령과 규약을 가지였으며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자체의 독자적조직지도체계를 가진 반일민족통일전선체였다.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조국광복회와 같은 상설적인 강력한 통일전선체를 가짐으로써 항일무장투쟁,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범위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성과적으로 조직전개됨으로써 그 행정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나라의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강력한 혁명력량이 꾸려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가 수행한 업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우리의 민족해방투쟁의 목적과 과업을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해설하며 조국해방을 위한 공동투쟁의 기치밑에 조선의 모든 애국적력량을 동원집결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공산주의자들은 전국적으로 포치된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통하여 로동계급과 농민대중을 조직화하고 혁명화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였다.

그리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정확히 관철함으로써 일제를 반대하며 민족적해방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치밑에 최대한으로 통일결속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반일적인 모든 인민대중을 단일한 전투적력량으로 편성하고 조선인민의 주체적력량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켜놓을수 있었다.

이와 같이 반일적인 모든 인민대중을 단일한 전투적력량으로 편성하고 조선인민의 주체적력량을 확대강화할수 있었던것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무장투쟁과 결합되고 그 강력한 지원에 의거하였기때문이였다.

통일전선운동의 무장투쟁과의 밀접한 결합, 이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성과적인 발전을 보장한 중요한 요인이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가장 위력한 최고형태의 투쟁인 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됨으로써 일제의 반동공세가 강화되였던 간고한 조건하에서도 그 지속성을 견지하면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할수 있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무장투쟁의 강력한 지원에 의거하였기때문에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그와 결탁한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정체를 대중속에서 철저히 폭로할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각계각층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임을 획득하고 그들을 조국광복회에로 광범하게 결속시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공산주의자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성과적으로 조직전개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렸을뿐만아니라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총동원하여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강화발전을 크게 촉진시킬수 있었다.

조국광복회는 우선 항일유격대의 강화와 무장투쟁의 전면적인 확대발전을 촉진시켰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공산주의자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정확히 전개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광범히 축성할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었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는 유격근거지를 창설공고화함에 있어서와 무장대오의 보충확대, 군사정치활동에서 인민대중의 인적, 물적 및 정신적 지지성원에 의거할수 있었으며 적들의 포위속에서도 광범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은 무장투쟁을 강화발전시킴과 동시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반일투쟁에로 고무추동하고 로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등 조선인민의 모든 혁명투쟁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인민의 혁명운동은 조국광복회조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호상간의 련대성을 밀접히 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였을뿐만아니라 또한 무장투쟁과 련결됨으로써 그에서 힘을 얻고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민족적력량을 조직결속하여 조국광복을 위한 반일투쟁에로 총동원하는 동시에 또한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민족주의자들과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이끌어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함으로써 일제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기부터 일제의 침략을 당하고있는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 인민과의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며 그들과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쓰시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는 1931년 일제의 만주강점을 계기로 대두한 무장한 민족주의반일세력들을 인입하여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시였다.

그들은 반공적이였으며 특히 일제의 민족리간책동으로 인하여 조선사람들을 극도로 적대시하였으며 반일투쟁에서 심히 동요하는 불철저한 세력이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들이 비록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의 공동위업에로 적극 이끌고나가기 위하여 직접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그들을 넓은 아량과 포용력을 가지고 인내성있게 꾸준히 해설하고 교양함으로써 마침내 공동전선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반일세력과의 반제공동전선을 형성강화함에 있어서 일제를 반대하여나선 그들의 혁명적요소를 조장시켜 그와 적극 단결하면서도 반일투쟁에서 부단히 동요하는 타협적요소와는 원칙적으로 투쟁하시였으며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층통일과 상층통일을 배합하는 전술적원칙을 능숙히 적용하시였다.

이러한 반제공동전선은 일제를 반대하는 실제적인 공동투쟁과정을 통하여 공고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담하게 그들을 인입하여 크고작은 수많은 련합작전들을 성과적으로 조직전개함으로써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항일투쟁에로 이끌어갔다. 이 행정에서 그들의 부단한 동요성이 견제되고 교양개조되였을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들을 항일련합군의 전투대오에까지 묶어세울수 있었다.

그리하여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령도하에 항일련합군에는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광범한 인민들과 민족주의세력까지 결속됨으로써 무장한 혁명력량의 단합된 힘으로써 일제에게 공동으로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할수 있었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일본군국주의에 의한 극동에서의 전쟁의 제일발원지가 발생된 긴박한 정세에 대처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전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반제공동전선운동의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는것을 조선인민은 긍지를 가지고 자부한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반제공동전선운동의 력사적경험은 공산주의자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반제민족해방혁명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한 식민지통치자들을 혁명의 무장력으로써 분쇄하여야 하며 무장투쟁은 반드시 민족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요인의 하나는 항일유격대의 강철같은 혁명적규률과 관병일치의 기풍을 확립하며 대오의 통일단결과 전투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한데 있다.

항일유격대내에서는 상관이 부하를 억압하고 모욕하는 자본주의국가군대와는 달리 계급적리해관계와 투쟁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완전히 혼연일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지휘원과 전투원들은 친형제와 같이 화목하였으며 상하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하였다.

항일유격대의 지휘원, 전투원들은 15성상의 장구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동지를 서로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몇줌의 낟알, 한홉의 미시가루를 놓고도 동지를 위하여 서로 양보하는 품성을 보

여주었다.

가렬한 전투와 위험 속에서 대원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지휘원을 보호하였으며 지휘원들은 대원들을 교양하며 보살펴주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하였다.

그리고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과 대원들은 누구나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켰으며, 김일성동지의 명령과 지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어떤 역경속에도 뛰여들어 그를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원칙적단결은 동지호상간에 허심하고 솔직한 비판과 자기 비판의 강력한 무기로써 확고히 보장되였다.

그리하여 전투행동에서나 생활과정에서 나타난 사소한 결함이라도 묵과하지 않고 그를 시정하여주기 위하여 서로 충고비판하여주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여있었다.

이와 같이 뜨거운 혁명적동지우애와 원칙적단결에 기초한 유격대의 고귀한 관병일치의 전통은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보장한 요인의 하나로써 크게 작용하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항일유격대의 힘의 원천인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밀접히 보장한데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군민일치의 기풍과 고상한 인민적사업작풍을 훌륭히 구현하면서 싸워 승리하였다.

군중적토대가 없이 활동하는 유격대는 오래 유지될수도 없고 유격전에서 패배를 면치 못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군중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시종일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유지하고 혁명조직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불패의 힘을 발휘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빨찌산들은 원쑤에게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인민들에게는 순한 양처럼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야 한다.>, <우리가 초근목피로 끼니를 에우고 갖은 고생을 다하여 원쑤와 싸우는것은 인민을 위한것이고 우리가 굶으면서도 인민들에게 될수록 폐를 안 끼치려 하는것도 인민을 사랑하기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항상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정신으로 유격대원들을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인민을 위하여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은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그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됨으로써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적군중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들의 자각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들에 대한 설복과 교양을 강화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다만 적과 싸우는 전사였을뿐만아니라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였으며 그들을 조직동원하는 조직자였다.

그들은 각계층군중들속에 깊이 들어가 민족적자각을 계발시키고 투쟁열의를 고취하였으며 그들을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각종 반일혁명단체들에 조직결속하고 광범한 군중들을 혁명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집결시켰다.

항일유격대는 전투환경에서도 인민들에게 피해가 미칠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적을 유인하였으며 적들의 야만적폭압에서 인민들을 구원하였다.

그들은 이름그대로 살아도 인민의 사랑속에서 살고 죽어도 인민을 위하여 죽는다는 신념으로 싸웠다.

그렇기때문에 인민들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자기들의 혈육과 같이 여기고 그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지

원호하였으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격대의 통신련락 및 정찰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항일빨찌산은 <인민을 위하여 싸웠고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옹호를 받았기때문에 주권이 없이도 15성상이나 유격투쟁을 전개할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간의 련계가 긴밀히 맺어져있었기때문에 적들의 대규모적인 포위공격과 악랄한 봉쇄정책도 격파하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 *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혁명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켰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의 항일무장투쟁은 적에게 가하는 타격력과 그리고 인민대중에게 미치는 그 혁명적영향력과 동원력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어 일제의 패망을 촉진시켰으며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계급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놓았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최고한 중심을 이루고 이여의 모든 형태의 대중운동을 힘차게 고무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전반적혁명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였다.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행로는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하는 무장투쟁만이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며 인민들의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쟁취할수 있게 하는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력력히 실증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지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초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이 극복되고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튼튼히 이룩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주체사상과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 고귀한 혁명적업적과 귀중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이 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세련된 공산주의자로 육성되였으며 혁명대오의 확고한 통일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 행정에서 조선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오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그리고 종파주의가 극복되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이 비로소 확립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인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이 작성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의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이 모든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고귀한 재부이며 조선혁명의 귀중한 밑천이며 뿌리이다.

바로 이 밑천, 이 뿌리에서 우리 당이 창건되고 오늘 새로운 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고있다.

이 전통, 이 뿌리는 그것이 15성상에 걸치는 위대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것으로 하여 가장 심각하고 심오하며 그리고 무장투쟁과 그와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당창건준비사업의 행정에서 확립된것으로 하여 비할바 없이 그 내용이 풍부하며 특히 이 전통이 오늘도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향도하고계시는 조선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졌기에 해방후 무궁무진한 위력과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으며 또 발휘하고있다.

바로 그러기에 조선인민은 이 전통, 이 업적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을 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의 고상한 의리로,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해방후 조선인민은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업적을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조선혁명발전의 매단계, 매시기에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으며 오늘 이 명

우에 룽성발전하는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해방후 조선인민이 걸어온 지난 20여년간은 실로 15성상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온 자랑찬 투쟁로정이였으며 혁명선렬들이 다하지 못한 뜻을 이어 새조국을 건설하며 우리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강력한 혁명적보루를 쌓아올린 승리의 력사적 행정이였다.

조선인민은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이 튼튼한 혁명의 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해방직후 지체없이 우리 당을 창건할수 있었으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주동적으로 극복타개하면서 극히 빠른 시일내에 인민의 정권을 창설하고 제반 민주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간부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진정한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할수 있었다.

특히 이 전통, 이 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영웅적조선인민군은 1950~1953년에 걸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국제반동의 괴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16개국 무력침공자들을 쳐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으며 세계평화와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오로지 장기간의 혁명투쟁에서 세련되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조선인민의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그 진두에 서시여 전체 인민을 승리에로 확고히 령도하셨기에 달성될수 있었다.

또한 이 위대한 승리는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영웅적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풍부한 투쟁경험으로 무장하고 온갖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 불사조마냥 싸웠기에 가능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침략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정의의 위업에 한사람같이 일떠서 싸울 때 그 민족, 그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조선인민은 전후에도 이 혁명전통의 붉은기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확고히 전진함으로써 재더미를 헤치고 단시일내에 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고조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천리마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온세상을 경탄케 하는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공화국북반부는 짧은 시일내에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모르는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가진 선진적인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원쑤들의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강력한 혁명기지로 전변되였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4천만조선인민은 조선혁명을 항상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갈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없으며 극복 못할 난국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확신하고있다.

바로 그러기에 조선인민은 이 위대한 혁명의 뿌리,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철저한 반제혁명사상과 자주, 자립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에 따라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국제적인 반제반미공동행동과 반제반미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세계를 재패하려는 미제의 침략정책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은 당건설과 혁명발전에서의 강령적 지침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아홉해전, 1959년 3월에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이란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인민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함에 있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문헌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이 연설을 하시였던 당시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혁명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놓여있었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이미 완성되고 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로농동맹은 새로운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강화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한층더 공고화되였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의 대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었다.

한편 우리 당내부에서는 전후 어려운 시기에 당에 도전하여나섰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격파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들을 청산한후 그 여독을 씻어내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보다 힘차게 촉진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한층더 높이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또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강유력한 무기인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을 변천된 새환경의 요구에 맞게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는것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함북도내의 전반적사업을 친히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당 및 정권기관 사업을 개선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던것이다.

우리 혁명이 더욱 심화발전된 조건하에서 당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시기에 있어서의 인민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방도문제 등 현실이 절실하게 제기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명철하고 정확한 해답을 주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은 우리 나라의 전반적혁명과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특히 당건설에서 확고한 초석으로 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며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며 인민정권의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높이는데서 힘있는 사상리론적 및 실천적 무기로 되었다.

김일성동지의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은 당건설과 인민정권건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키고 더욱 풍부히 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공헌으로 된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뿐 아니라 래일과 먼 앞날에 있어서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함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와 그를 통해 보여주신 실천적모범 그리고 거기에서 주신 력사적인 교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해나가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 생활이 요구하는 성숙된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대담하게 제기하며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나가시는 예리한 과학적통찰력과 완강한 혁명적전개력,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및 국가적지도를 부단히 개선하며 완성해나가시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은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받들고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다가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오늘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귀중한 혁명적량식으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에서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여독을 뿌리빼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려 당에 무한히 충실한 일군으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또한 인테리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로동계급의 대렬에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을 잘 교양개조하고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에 관한 이 모든 교시에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의 초석으로 되며 우리 혁명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전당에 철저히 세우는 문제를 중요하게 천명하시였으며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들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당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개량주의당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당이며 자본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투적당입니다. 자본주의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선 당의 강철같은 통일이 필요합니다.

당의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와 결정에 의하여 전당이 한사람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도부에서 <앞으로> 할 때 가지 않겠다고 뒤에서 우물거리거나 <좌로> 하면 우로 달아나는 현상이 당내에 있

될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무정부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말단 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이며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로 된다.

우리 당내에서 전당을 일관하게 관통하고있는 유일한 령도사상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시며 령도자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 우리 혁명의 밑천을 마련하시였으며 우리 당 건설의 리론과 매시기 우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작성하시고 우리 혁명을 계속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40여년간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에 몸소 투쟁의 앞장에 서시여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길로 이끄시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바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그것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옳바르게 이끌어나가는 현시대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우리 당내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있을뿐이며 그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상이란 있을수 없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가르침에 무한히 충실하며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수령의 교시와 당결정을 무조건 접수하고 집행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전당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맑스—레닌주의적통일단결의 초석이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담보이다. 그것은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 우리 혁명과 건설을 촉진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주의와 가족주의를 뿌리빼고 당 및 국가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확고히 구현할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지시를 어길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령도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하나의 산유기체로 움직일수 있도록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확고히 구현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근본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맑스—레닌주의당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공통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산유기체로 결속된 전일적인 혁명적조직체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당내에 그 어떤 종파도, 이색적인 사상조류도 허용하지 않는다.

전당이 유일사상으로 무장되지 않고 몇갈래의 사상으로 분렬되여있다면 그것은 벌써 맑스—레닌주의당이 아니라 무정부주의자들의 《조직》이거나 한갖 구락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조직은 혁명을 지도할수 없고 구경은 혁명위업

을 말아먹고 만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확고히 구현하는것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을 보장하며 당의 조직성과 전투력을 높이는 결정적조건이다.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로 되는것은 종파주의이며 그 온상인 지방주의와 가족주의이다. 종파주의와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철저히 뿌리뽑아야만 전당에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유일적인 령도체계를 세울수 있으며 모든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일수 있고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집행할수 있다.

바로 9년전 함북도당단체들의 사업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분석하신바와 같이 당시 함북도의 실정을 보면 일군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서고 지방주의와 가족주의의 낡은 틀이 마사진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고 제기된 혁명과업들이 어렵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끝까지 정확히 집행되였으나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당조직이 무기력해지고 당이 제시한 과업들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사상근원과 해독성, 그 표현형태와 수법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그 사소한 표현에 대하여서도 추호의 용서없이 단호하게 투쟁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당원들과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군중들속에 제때에 정확히 해석침투하며 철저히 관철할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일군들은 당의 정책과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연구하고 모든 당원들이 그것을 잘 알도록 해석선전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이 당정책과 결정을 한결같이 잘 알아야만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리당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는 100만당원이 모두 숨을 쉬어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고 일치하게 행동할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접수하고 깊이 연구하며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이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일군들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침투되며 그 집행이 조직된다.

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신이 먼저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제때에 정확히 해석침투시켜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교시를 제때에 정확히 접수하고 철저히 파악하여 그것을 자로삼아 일하고 생활할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함북도당조직들의 사업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 이것을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가 내려오면 제때에 아래일군들에게 침투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일군들은 당의 정책을 잘 알고 아래에 내려가서도 당의 의도에 부합되게 사업할수 있으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수령의 교시, 당의 로선과 정책의 관철을 떠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결정을 철저히 연구하며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지방주의와 가족주의를 극복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당의 핵심이며 골간인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시고 당간부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원칙과 그것을 개선할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부사업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주의, 지방주의 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당적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당에 대한 충실성을 첫째가는 표징으로 하여 간부들을 옳게 선발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간부선발의 첫째표징은 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당에 충실하다는것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만세>만 부르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것이 아닙니다. 만세는 안불러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당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사람을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무들이 이것을 똑바로 아는것이 필요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림에 있어서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해방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특히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단련된 핵심들, 일본제국주의 통치하에서 착취와 억압을 받아봤으며 해방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오랜 로동자들과 빈농민들로 간부대렬을 부단히 보충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간부를 등용한 다음에는 그들을 교양하고 일상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들 모두가 일관하게 당과 수령께 충실한 혁명전사로 자라게 할것을 가르치시였다.

당간부사업개선의 중심과 간부선발의 기본표징, 간부들의 교양방도 등에 대하여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우리 당의 간부대렬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로동계급적선이 명확한 혁명가의 대렬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지휘성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게 하는 길을 명시하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인테리들과 로동계급대렬에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성원들을 모두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혁명화하며 혁명력량을 부단히 확대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사회건설에서 인테리들이 노는 역할과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살아온 우리 나라 인테리들의 특성을 분석하시고 그들을 적극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나가려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당조직들이 인테리들과의 사업을 잘하며 그들에 대한 교양을 계속 강화하고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기술과 재능을 남김없이 바칠수 있도록 조건을 잘 지어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인테리들을 적극 교양개조하여 당의 붉은 인테리로, 로동계급의 충실한 인테리로 키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에는 인테리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시려는 경애하는 수령의 뜨거운 어버이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전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실현되고 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로동계

급의 대렬이 급속히 확대된 사정을 깊이 분석하시고 오랜 로동자들이 핵심이 되여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을 다 교양하고 개조하여 튼튼한 로동계급으로 만들며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제외한 각계각층군중들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모든 사업을 잘 하자면 당사업에서 행정식, 명령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설복과 교양을 위주로 하는 당적사업방법을 세워야 하며 당원들이 군중에 대하여 어머니가 되고 당조직이 당원들에 대하여 어머니가 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당주위에 굳게 결속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며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에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대중을 각성시키고 혁명의 편에 전취하며 또한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육성하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 구현되여있다. 거기에는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자신의 혁명화를 촉진하여 로동계급의 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천명되여있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에 관한 교시에서 우리 당을 강철같이 통일단결된 전투적부대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당조직들의 령도적기능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이며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제시하시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이것은 모든 당조직들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 인민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에 대한 해답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여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국가기관들, 특히 지방인민위원회들이 놀아야 할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일군들의 사업능력과 지식수준을 높이며 그들속에서 관료주의를 철저히 뿌리뽑을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직후나 전쟁전과는 달리 오늘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였습니다. 사회주의제도에 알맞게 인민위원회의 사업을 개편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농민들이 개인농민들이였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다 한가정에 단합되였습니다. 한개 리가 한가정이 되였습니다. 그 한개 리의 호주가 리인민위원회이며 당단체와 협동조합관리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모든 일이 계획적으로 되여야 합니다. 생산도 계획적으로 하고 분배와 소비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생산품도 계획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운반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하고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먹여살려야 하고 입혀주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적경리이기때문에 반드시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당시 적지않은 인민위원회 일군들이 변천된 새환경에서 인민정권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똑똑히 모르며 개인경리를 대상으로 사업하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던 실정에서 그들이 자기 사업을 개편하고 맡겨진 임무를 옳게 수행하게 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것처럼 사회주의하에서 살림살이의 호주로 된 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경리의 모든 분야를 직접 틀어쥐고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의 전과정을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권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철저히 뿌리

때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세우고 그와 대치되는 관료주의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두 인민에 의하여 선출받은 일군이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군이라는 관점과 태도를 정확히 가져야 한다. 그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복무하는 일군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지말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열을 다바쳐 일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인민의 충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민들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깨도 낮아지고 쳐들었던 코대도 낮아지게 되고 군중에게 호령도 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인민들에게 호령을 할것이 아니라 인민들을 가르치고 인민들과 같이 일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민들과 같이 숨을 쉬게 되고 그들이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지녀야 할 작풍과 품성에 대하여 가르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우리 모든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으로 된다.

인민위원회사업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인민위원회들과 국가경제기관정무원들이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를 명시한 강령적지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함북도가 처한 자연지리적조건과 경제발전수준, 인민생활형편을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시고 공업, 농촌경리, 수산업, 기본건설 등 인민경제전반적부문에 걸쳐 정확한 발전방향과 구체적과업들을 명백히 제시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함북도내 공업부문 기업소들이 수행하여야 할 당면 및 전망 과업들을 일일이 제시하시면서 전력공업에서는 수력과 화력,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의 발전소건설을 배합하며 채굴공업에서는 굴진을 생산에 앞세우고 모든 기업소들에서 생산준비를 앞세우며 일을 벌려놓지말고 이미 있는 생산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지방공업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으로 생산을 발전시키며 기술장비를 현대화할데 대한 문제 등 공업발전에서 항구적이며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교시를 주시였다. 이것은 비단 함북도의 경제발전에서뿐아니라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각부문과 모든 지역들에서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신것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주을아마공장 로동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로 절삭기계를 만들어낸 훌륭한 싹을 제때에 발견하시고 지지해주시였으며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는 혁명적조치를 몸소 취하여주시였다. 이것은 기계에 대한 신비주의를 불사르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군중적인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불러일으키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의 대고조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과 함께 함북도 농촌경리부문에서 자연지리적조건을 효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농업생산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확한 방침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산이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해안선이 긴 우리 나라 실정에서 자연지리적조건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전국의 모든 지방들에서 지대적특성에 맞게 자기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은 당시 당사업과 인민위원회사업, 경제건설사업에서 해결을 기다리던 초미의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하고 전면적인 해답을 주심

으로써 우리 나라의 전반적혁명과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는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주시였다.

이 력사적인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을 통하여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철통같은 통일단결이 이룩되였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이 일층강화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차게 이끌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였으며 우리 혁명력량은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전례없이 공고화되였다.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체계가 새환경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편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이 개선되고 그들의 사업수준이 훨씬 제고되였다.

함북도를 비롯한 온나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계속 새로운 혁신과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 생산력이 류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이 더욱 심화되였다.

* *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은 우리 혁명 발전의 주객관적요구를 반영한 강령적지침으로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우리 조국 남녘땅을 강점하고있는 철천지 원쑤 미제 승냥이들의 발악적인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칠벽갈이 다지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성된 정세와 제기된 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인 인민정권의 기능을 높이며 멸적의 기세드높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더 힘차게 다그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교시와 함께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주신 교시를 계속 깊이 연구체득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나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한다.

우리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더욱 힘차게 관철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미제가 발악하면 할수록, 정세가 긴장하면 할수록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견지하고 분초를 다투어 맡은바 혁명과업을 두몫, 세몫이상씩 해제껴 생산과 건설에서 혁명적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수령의 가르침 따라 당 및 국가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촉진함으로써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자!

미제국주의자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자

날강도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격화되는 새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전반적정세는 매우 긴장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당하고있는 참패를 만회하여보려고 미쳐날뛰고있으며 전쟁을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 확대하려 하고있습니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은 이미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래전부터 조선에서 새전쟁준비에 광분하여온 미제침략자들은 최근 남조선전역에서 급격히 확대되고있는 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과 우리 나라 령해에 깊이 침입하여 적대행동을 감행하다가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사로잡힌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침입사건을 계기로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다.

이미 모든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바와 같이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전쟁방화자 존슨을 두목으로 한 악명높은 미제살인귀들의 지시에 의하여 우리의 령해를 침범하여 우리 나라의 항구들과 연해에 있는 각종 군사시설들과 무력배치상태, 공업시설 등 일련의 군사적 및 국가적 기밀을 탐지하는 정탐행동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미제의 날강도적인 해적행위이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에 대한 엄중한 침략행위이며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새로운 란폭한 유린이다. 이것은 또한 조선에서 새전쟁을 도발하며 아세아에서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려는 계획적책동의 일환이다.

우리의 용감한 인민군해군용사들이 우리 령해에 깊이 침입하여 해적행위를 감행한 미제무장간첩선을 나포한것은 그렇게 하여야 할 주권국가의 자위적조치이며 민족적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놈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을 좌절시키기 위한 응당한 조치이다.

현행범들이 고백한 자료들과 제반 물적증거들에 의하여 놈들의 범죄행위가 론박할 여지없이 백일하에 드러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에 이골이난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놈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다시는 그러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지 않겠다는것을 담보할 대신에 《도적이 도적이야!》하는 격으로 현행범들을 사로잡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조치에 대하여 도리여 《국제법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세계여론을 오도하려 하는 한편 무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예비공군과 해군항공대대와 지원부대를 서둘러 소집하는 한편 제3기동군이라는 새로운 기동함대까지 편성하여 우리 나라 근해에 배치하고 남조선기지들에 수백대의 전투폭격기들을 새로 증강하는 등 숱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완전한 전쟁태세를 취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에 비상동원

령을 내리고 지상, 해상, 공중으로부터 끊임없이 군사적도발을 일삼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에서 급격히 확대발전하고있는 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에 질겁한 박정희역도는 그것을 마치도 《북으로부터의 침입》인듯이 떠벌이면서 미친듯한 《반공》소동을 벌리며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격으로 상전의 전쟁소동에 빌붙어 이른바 《보복》조치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앙양되는 혁명투쟁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박정희괴뢰도당들을 부추겨주며 놈들을 침략전쟁에 더 잘 써먹기 위하여 《공동방위태세강화》라는 구실밑에 1억딸라의 추가군사《원조》로써 남조선괴뢰군장비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악명높은 살인귀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박정희괴뢰도당들과 전쟁모의를 빈번히 벌리게 하고있다. 미제는 박정희괴뢰도당으로 하여금 놈들이 새전쟁을 도발할 경우 즉시 그에 가담할것을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던 16개국에 요청하게 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장개석도당에게도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게 하였다.

이 모든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발악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새전쟁의 위험이 얼마나 엄중한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말하여준다. 그것은 또한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에게 민족분렬의 비운을 강요하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조선에서의 새전쟁도발을 획책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하여주고있다.

그런데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미제날강도들은 범죄적인 전쟁도발책동을 가리고 세계여론을 기만하며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무장간첩선을 나포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자위적조치와 남조선인민들의 무장유격대활동에 대하여 놈들이 그 무슨 《도발》이라고 떠벌이는것은 시비를 전도한 순전한 강도적론리이다.

우리 인민이 미제의 무장간첩선을 미국의 앞바다에 가서 붙잡아온것이 아니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만약 미제침략자들이 무장간첩선을 우리의 령해에 깊이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케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조차 않았을것이다.

우리의 신성한 자주권과 안전을 침범하는 원쑤들을 징벌하는것은 주권국가 인민으로서의 우리의 당당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날강도적인 침략행위를 자인하고 사죄할 대신 오히려 시비를 전도하여 사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며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발광적인 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는것은 놈들이 전쟁도발의 구실을 찾기 위하여 무장간첩선을 계획적으로 리용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놈들이 겁에 질려 그처럼 떠드는 남조선인민들의 무장유격대활동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와 그 괴뢰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자신의 애국적혁명투쟁이다.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더는 견딜래야 견딜수 없게 된 남조선인민들이 자기들을 억누르는 그 저주로운 제도를 전복하기 위하여 손에 무기를 쥐고 원쑤와의 판가리싸움에 일떠선것은 응당한 일이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현남조선의 파국적위기는 바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인민적파쑈통치에 의하여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이다.

미제침략자들이 심지어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란 사환군을 내세워 파렴치한 《반공》나발을 불어대며 그 무슨 《제어대책》을 운운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한것은 놈들이 새전쟁도발의 구실을 날조하기 위하여 얼마나 미쳐날

뛰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제는 어떠한 《반공》소동으로써도 범죄적인 전쟁도발책동을 가릴수 없으며 세계여론을 기만할수 없다.

력사적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의 광란적인 《반공》소동이 바로 침략전쟁도발을 위한 놈들의 상투적수법이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한때 히틀러나 무쏠리니도당이 그렇게 행동하였고 일본군국주의도당들도 다름아닌 《반공》의 간판밑에 저들의 범죄적인 침략행위를 가리며 《정당화》해보려 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도 바로 그러한 수법에 매달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불어대는 《북으로부터의 도발》이란 도대체 사리에 맞지 않는 엉터리없는 수작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정전협정의 규정을 일관하게 준수하여왔으며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고 조선의 통일을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의 모든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항상 도발책동으로 대답하여왔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승공통일》이라는 황당한 구호하에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파괴하면서 남조선괴뢰군병력을 16개사단으로부터 31개사단으로 확장하고 대량살륙무기들과 신형작전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도처에 군사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림전태세확립》에 대하여 떠들면서 남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침략전쟁준비에 징발하였으며 전쟁정책수행에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였다.

놈들은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 새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군사분계선전역과 동서해안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동을 끊임없이 격화시켜왔다.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놈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은 1966년 10월에 전쟁방화자 존슨이 남조선에 왔다간후 더욱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540여차에 걸쳐 12만 5,000여발의 총탄과 1,27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였으며 140여차에 걸쳐 각종 해군함선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놈들이 전후 13년동안에 우리측에 대하여 감행한 도발행위의 규모를 훨씬 릉가하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무장간첩선이 나포된후 지난 3월 7일까지 기간에만도 무려 176차에 걸쳐 도합 1만 3,780여발의 총포탄을 우리측 지역에 발사한것을 비롯하여 무장습격과 해군함선 및 군용비행기 침입사건 등 각종 도발행동을 끊임없이 격화시키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군사분계선일대와 동서해안에서는 어느 하루도 놈들의 총소리가 멎는 날이 없다.

오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새전쟁도발책동과 《반공》소동은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는 저들의 처지를 만회해보려는 멸망하는자들의 최후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적통치를 반대하여 반미구국항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은 모든 방면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최근 남조선전역에서 급격히 확대되고있는 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은 원쑤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걷잡을수 없이 뒤흔들어놓고있다.

미제는 또한 웰남침략전쟁에서 더욱

더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영웅적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은 사이공을 비롯한 적강점지역전역에 걸쳐 강력하고도 전면적인 대규모의 공격을 련속 들이대여 원쑤들을 무리로 쓸어비림으로써 침략전쟁확대에 날뛰는 미제침략자들을 전률케 하고있다.

놈들은 또한 라오스와 캄보쟈를 비롯한 아세아의 광범한 지역에서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인민들의 강력한 반미투쟁에 의하여 극도로 고립당하고있다. 미제는 외부에서뿐만아니라 내부로부터도 더욱더 강력한 타격을 받아 녹아나고있다.

오늘 조선에서 새전쟁의 위험이 첨예하게 조성된것은 전적으로 궁지에 빠진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기인하고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가 어떻게 발전할것인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괴뢰들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계속 격화시키면서 그 어떤 《보복》행동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의 시작을 의미할것이다. 원쑤들의 전쟁도발에 대한 우리 인민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조선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력사적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쑤들이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놈들은 과거보다 몇십배의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받을것이며 거기에서 얻을것이란 오직 시체와 죽음뿐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파멸과 죽음, 이것은 침략자들에게 차례지는 응당한 말로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의와 위력에 대하여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떤 불의의 침략도 단호히 분쇄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으며 원쑤들이 어느때 어느곳에서 덤벼들어도 단매에 등뼈를 꺾어버릴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으로 철통같이 뭉친 불패의 힘을 가진 위대한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국방력강화에 필요한 현대적군사장비와 후방의 물질적수요를 장기적으로 믿음직하게 보장할수 있는 힘있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있다.

우리의 방위력은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부서버리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수호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보다도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군사기술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일당백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군대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모든 군인들이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사회주의 전취물을 사수할 각오로 충만되여있다.

우리의 모든 인민군대는 그 어떤 흉악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능히 타승할수 있는 능숙하고 세련된 령군술과 전투력을 가진 혁명군대로 자랐으며 우리의 무력은 현대전의 요구에 상응한 위력한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되

였다.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그 어데를 막론하고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벽같은 방위시설이 구축되여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만일 미제침략자들이 이 엄연한 현실을 보지 않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끝내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의 영웅적인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당과 수령의 부름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일떠서 이 땅에서 원쑤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몽땅 쓸어버릴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정치사상적준비를 더욱 강화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철벽으로 다져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뭉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혁명적각오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당주위에 철석같이 집결시켜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반석같이 꾸려야 한다.

우리는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원쑤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일격에 쳐부실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적들의 어떠한 준동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전국적, 전인민적 방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원쑤들이 한발자국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며 덤벼드는 적들이 한놈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정강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새로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며 생산과 건설을 촉진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질적담보로 되는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공고한 후방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모든 부문에서 원쑤를 족치는 기세로 부단한 혁신과 앙양을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으로 필요한 물질적예비를 더욱 충분히 조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부르죠아평화주의적이며 수정주의적인 사상조류가 우리의 대렬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에서도 생기지 않도록 엄격히 경계하여야 하며 생활에서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조선에서의 미제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은 비단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일뿐만아니라 세계사회주의력량에 대한 도전행위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조선과 아세아전반적지역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는 모든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력량, 세계의 광범한 반제력량앞에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며 힘을 합쳐 놈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친 불패의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야 말것이며 기어코 조국통일의 위업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

강 홍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계급관계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우리 당이 이룩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과 사회발전의 동력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으며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적인 방침을 명시하시었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계급투쟁의 의의와 역할을 정확히 해명하며 이 량자를 옳게 결합시키는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맑스—레닌주의당들의 활동에서 원칙적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새롭게 천명된 이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리론과 혁명적인 방침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함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화하는데서 탁월한 기여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동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정식화하시었다: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63~64페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새롭게 정식화된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동력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하여 건설된다는 확고한 원칙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계급관계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사회관계의 기본을 명백히 밝히시고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지마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습니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과 인테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다같이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3페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계급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간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된 우리 사회에서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는 사회경제적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 목적과 사상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여있으며 그들간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단결하는것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다.

이와 같이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의 기초우에서 형성되는 계급들간의 사회경제적처지와 리해관계 및 목적의 공통성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도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주의적사회관계의 기초우에서 당과 수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지와 무한한 충성심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당의 유일사상으로 굳게 결속된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은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항상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고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혁명을 유일하게 옳바른 승리의 길로 확고하게 령도하시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자기의 실지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써만 조선혁명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으며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그이께 의탁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나할없는 신뢰와 절대적인 지지, 바로 여기에 당과 대중의 확고한 통일,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다.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결속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인민대중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으로 된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을 타도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는것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근본문제였으며 따라서 계급투쟁이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이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과거 사회와는 달리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잔재들을 청산하고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부단히 공고화하며 사람들의 사상과 도덕을 개조하고 경제와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것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근본문제로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이 근본문제는 오직 맑스—레닌주의당의 정확한 령도하에 공통된 지향에 의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바와 같이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수백만근로자들의 자각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7페지)

전체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며 정확한 투쟁목표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게 된다.

당과 수령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공고한 정치사상적통일,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당과 수령께 의탁하고 그이의 부름이라면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아가며 끝까지 혁명에 충실하려는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이것은 실로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담보이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로동계급, 농민, 인테리들간의 단결과 협조의 관계가 지배하며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사회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 적대적요소가 없다거나 계급투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됩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은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 기여드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파괴활동을 반대하며 부르죠아적 및 봉건적 반동사상과 그 침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표현됩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64페지)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에도 세계에 제국주의침략세력이 남아있으며 우리 사회내부에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며 말살하려는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국토가 량단되고 우리 혁명의 극악한 원쑤이며 국제헌병인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직접 맞서서 민족해방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동시에 수행하고있는 조건하에서 계급투쟁은 특별히 복잡하고 첨예한 성격을 띠게 된다.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적대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제때에 철저히 진압, 분쇄하였으며 계급적원쑤를 반대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투쟁을 성과있게 진행하여왔다.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추진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또한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이것을 반대하는 투쟁도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죠아사상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계급투쟁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가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약화시킨다면 근로자들속에서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이 조장될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 큰 지장을 줄뿐아니라 적들의 파괴활동에 원사리 리용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금도 늦추지말고 계속 강력히 진행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64~65페지)

사회주의 사회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사상분야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이다. 이 투쟁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는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것은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투쟁은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낡은 사상잔재와의 투쟁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나아가는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이며 그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나아가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65페지)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왔으며 인내성있는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왔다. 그리하여 그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농민과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 인테리간의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을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개조하여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습니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며 전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66~67페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모든 착취계급을 청산할뿐만아니라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유물까지 청산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이후에 로동계급앞에는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가 나서게 되며 이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로동자, 농민, 인테리의 사상을 개조하여 그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가 승리한후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령도를 강화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점차 개조하여나아감으로써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앤다.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민의 락후성을 청산하기 위하여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강력히 진행하며 각방면에 걸쳐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수준에 끌어올려야 한다. 이것은 선진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이 농민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우리 당은 오늘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면서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 인테리의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기 위한 사업을 성과있게 해결하여나아가고있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이후의 계급투쟁은 그 전시기의 계급투쟁과는 다른 일련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기이전시기에는 착취계급을 타도하고 그의 사회경제적기초를 청산하며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는것이 계급투쟁의 기본과업이였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는 로동자, 농민, 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조건에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전체 인민의 힘을 단합하여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며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진압의 방법으로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분쇄하기 위

하여 진행하는 계급투쟁의 형식이 있는 동시에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하여 로동계급과 농민과 인테리간의 단결을 목적으로 하고 교양과 개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계급투쟁의 형식이 있다. 이것을 옳게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에는 좌우경적오유를 범하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 큰 후과를 미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내용과 방도를 명확히 천명하시고 그것을 정확히 진행할데 대한 창조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새로운 조건하에서 계급투쟁을 정확히, 능숙하게 진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에 대한 창조적리론을 내놓으셨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발전시킨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우와 같은 책, 65페지)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은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나라의 내부와 외부에 계급적원쑤들이 있는 조건하에서의 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자, 농민, 인테리는 혁명의 전취물을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과 지향에 의하여 통일되여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반혁명과의 계급투쟁을 전제로 하는 단결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또한 로동자와 농민간에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하에서의 계급적동맹이며 로동계급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통일단결이다.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의 인민대중의 통일은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계급투쟁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계급적원쑤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로동계급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과거의 착취제도가 남겨놓은 계급적차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만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사회주의하에서 이 량자를 옳게 결합시킴으로써만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도, 적대분자를 반대하는 계급투쟁도 다 같이 성과있게 해결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고 그들의 통일단결이 강화되면

될수록 적대세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그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할수 있다. 한편 적대세력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광범한 대중을 인입하여 이 투쟁을 강화하면 할수록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인 각성은 더욱 높아질수 있으며 그들의 통일단결은 더욱 강화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며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과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키지 않고 어느 한 측면만을 절대화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좌우경적 편향에 떨어지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계급투쟁일면만을 강조하며 그것을 과장한다면 좌경적오유를 범하게 된다. 좌경적편향에 떨어질 때에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애매한 사람들을 적대분자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며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약화시키게 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없게 된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하에서도 적대적요소가 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일면만을 보면서 그것을 절대화한다면 우경적과오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에는 적대적요소들에 대한 경각성이 무디게 되고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이 약화될수 있으며 당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마비되고 사회생활에서 부르죠아적영향이 조장될수 있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키고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없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국 좌경적편향이나 우경적편향은 다같이 적아를 똑똑히 가려낼수 없게 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할수 없게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심대한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좌우경적편향을 다 반대하고 계급투쟁을 능숙하게 진행하면서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6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좌우경적편향을 다 반대하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하여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를 반대하는 투쟁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계급투쟁을 능숙하게 진행하면서 전체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단결시키는 사업을 성과있게 해결하여왔다.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을 철저히 진행하며 인민대중의 통일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견지한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당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견지하고 그 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한것이다.

우리 당은 당의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정확히 구현하여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항상 철저한 로동계급의 립장을 견지하였으며 계급적원쑤들과 추호의 타협도 없이 견결히 투쟁하였다. 당은 항상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강화하며 그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기초우에서 로농동맹을 공고히 하고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확고한 방침을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당의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한편 국가정권기관들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적대분자를 반대하는 계급투쟁

을 철저하게 진행할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사업을 성과있게 해결할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원칙에 따라 정확한 계급정책을 실시하여 극소수의 반혁명분자들을 철저히 고립, 진압하는 동시에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포섭하고 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동시에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67페지)

확고한 계급적원칙에서 적아를 옳게 식별하는것은 계급투쟁을 철저히 진행하며 혁명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계급적견지로보아 사회주의하에서 의식적인 적대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절대다수의 군중은 혁명의 편에 서있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명확한 방침에 따라 언제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적아를 똑똑히 가르고 극소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는 동시에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혁명력량을 부단히 확대강화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나라는 과거 오래동안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 있었고 해방후에는 미제에 의하여 조국이 분렬되였으며 더우기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의 리간책동이 있은 사정들로 하여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에서 많은 복잡성을 가지고있다. 이와 같이 주민구성이 복잡한 형편에서 사회정치생활이 가이한 계층들을 혁명의 편에 최대한으로 전취하여 당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는것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과의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매사람을 평가하며 적대분자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혁명의 편에 전취하도록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72페지)

이 원칙은 사회가 발전하고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사람들의 처지와 사상도 변하며 발전한다는 맑스—레닌주의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이 원칙은 또한 우리 당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 그리고 당의 불패의 힘과 절대적인 권위를 확신하고있기때문에 인민대중을 믿고 의식적인 반동분자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을 다 교양개조할수 있다고 인정하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할지라도 그가 현재 우리 당을 지지하고 사업에서 열성을 발휘한다면 그를 대담하게 믿어주고 포섭하며 그에게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이와 같은 방침은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고 그들을 당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킬수 있게 하며 적대분자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그를 반대하는·계급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고있다.

다음으로 우리 당은 계급투쟁을 철저히 수행하고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중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항상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고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는데 첫째가는 의의를 부여하여왔다.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에서 해방하고 모두다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만 그들로 하여금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을 반

대하여 견결히 싸우게 할수 있으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혁명의 승리를 향하여 끝까지 몸바쳐 싸우게 할수 있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교양하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며 그들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인내성있게 진행하여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일층 촉진되고있으며 혁명대오가 확대강화되고 전사회가 화목하고 명랑하고 단합된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고있다.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사회주의제도를 계속 공고발전시키는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정치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면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부단히 공고발전시켜왔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적대분자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수 있었으며 전체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공고화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은 우리 사회의 주민구성이 복잡하고 우리가 원쑤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조건하에서도 계급투쟁을 능숙하게 진행하면서 광범한 대중을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울수 있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이 일층 심화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많이 제기되고있으며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발악이 격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적대분자들과 적대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일층 강화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행정에서 우리 당의 전투력과 우리 인민의 혁명성이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이 철통같이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대고조가 일어났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지난해에 진행된 각급주권기관선거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과시하는 위력한 시위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확대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지침이다.

우리는 이 방침에 따라 계급투쟁을 능숙하게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아갈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대표자회와 10대정강에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성과있게 관철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것이며 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철벽같이 다짐으로써 새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원쑤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핵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력량강화의 확고한 담보

석 훈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혁명력량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것은 혁명의 심화발전에 따라 더욱더 확대강화되고있다.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확신성있게 승리에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혁명적인 당으로,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세련된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전체 인민들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결속되였다.

우리의 혁명대렬은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로혁명간부들과 함께 해방후 첨예한 계급투쟁과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자라난 수많은 새혁명간부들로 혁명적골간이 튼튼히 꾸려지고 당원들이 혁명가로 자라났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다.

우리의 혁명력량이 짧은 력사적기간에 오늘과 같이 튼튼히 결속되고 그 어떠한 풍파와 시련도 과감히 뚫고나아갈수 있는 강유력한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강화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그를 부단히 확대강화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력량의 확대강화를 위한 방침에서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핵심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하고 창조적인 방침에 따라 핵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당을 강화하고 당주위에 대중을 묶어세워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제기된 혁명임무의 요구에 상응하게 혁명력량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력량을 꾸리기 위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전취하도록 하는것이며, 또한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육성하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나아가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1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에 의거하여 당을 강화하며 그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결속하도록 하는 방침은 혁명력량을 빠른 시일내에 부단히 확대해나가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며 그것은 혁명력량의 확대강화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방침으로 된다.

혁명운동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수령이 몸소 키우신 혁명적핵심들을 골간으로 하여 당을 창건하고 그들이 광범한 대중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여 한사람이 열사람으로 되고 열사람이 백사람으로 되여 점차 광범한 대중을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움으로써 결국 승리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수령과 생

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아가는 진정한 혁명적핵심들이 있음으로써만 당의 공고화도, 혁명력량의 강화발전도, 혁명운동의 성과적인 추진도 담보할수 있는것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적골간—당핵심이 있어야 당의 통일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의 전투력을 제고할수 있으며 당원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당내 혁명적기풍을 확립할수 있다. 특히 당핵심진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을 급속히 높이고 모든 당원들을 혁명가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당 대렬내에는 불가피하게 정치사상적준비정도에 있어서나 실천을 통한 단련정도에서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치사상적으로나 능력상으로 보다 준비된 핵심들이 준비정도가 아직 어린 사람들을 부단히 교양하여 이끌어나가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그러므로 당대렬내에서 준비된 핵심들의 선봉적, 핵심적 역할을 부단히 높임으로써만 모든 당원들을 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제기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또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혁명대오에 묶어세우는 문제도 혁명적핵심들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달성된다.

인민대중의 정치적, 계급적 각성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목적의식적인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제고된다. 혁명적핵심들이 당원들과 사업하고 당원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하여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은 혁명적핵심이 골간이 되여 사람과의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감으로써만 실속있게 진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핵심들을 옳게 육성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핵심육성에 대한 방침은 그이의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온갖 위험을 무릅쓰시고 몸소 수많은 혁명적핵심들을 키우시기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 농민 출신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맑스—레닌주의사상과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시킴으로써 그들을 진정한 공산주의핵심으로 키우시고 그들이 혁명군중을 각성시켜 혁명대오를 부단히 확대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항일유격대결성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공산주의적핵심을 골간으로 하고 그들의 핵심적역할을 높이여 군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선진분자들을 유격대에 받아들였으며 또한 간고한 무장투쟁을 통하여 유격대원들을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육성하시고 그들이 군중속에서 정치활동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광범한 반일혁명력량을 굳게 결속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핵심육성확대강화에 대한 방침과 그이께서 몸소 키우신 공산주의핵심들의 적극적역할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회유, 기만이 우심하였던 조건에서도 혁명력량을 부단히 확대강화해나갈수 있게 하였으며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에 대하여 말할 때 공산주의핵심의 육성과 그 대렬의 확대강화에 대한 귀중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간고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교양육성된 혁명적핵심들과 핵심육성에 대한 경험은 해방후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 혁명력량의 급속한 확대강화를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투쟁에서 산귀감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당 건

설에서 당핵심을 육성하고 그 대렬을 확대하는 문제를 중요한 조직로선으로 제시하시였다.

《대중적당을 건설하면서 세포핵심을 부단히 육성하는것은 우리의 일관된 조직로선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7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조직로선은 우리 당 건설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해방후 우리 당 건설에는 일련의 특성들이 있었다. 창건된 당이 대중적당으로 급속히 확대발전함에 따라 당원들의 혁명적단련정도와 정치사상적준비정도는 각이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빠른 시일내에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핵심진지를 마련하는것이 필요하였다.

우리 당의 유일한 령도사상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전당을 확고히 지배하며 당이 모든 활동에서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정확히 보존하면서 대중적당으로 급속히 강화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당핵심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해나가야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핵심들을 우선 교양육성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우리 당은 대렬내에 잠입한 종파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을 제때에 제거하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경향들을 극복하는 심각한 사상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으며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핵심을 육성강화할데 대한 현명한 조직로선은 우리 당 건설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된 어려운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우리 당을 대중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정확한 방침으로서 당핵심진지를 꾸리는 문제를 제기하시였을뿐만아니라 당핵심의 표징, 그의 역할, 그의 육성방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핵심의 표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핵심이란 공산주의의 진리를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혁명의 길로 나아갈만한 당원들을 말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7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의 핵심은 공산주의진리를 확고히 깨닫고 우리 혁명이 완수될 때까지 어떠한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의 지조를 굳굳이 지키며 비록 육체적생명은 희생당할지언정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아가는 견결한 혁명투사들이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대로 우리 당의 핵심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확고한 계급적 립장, 정치생활의 순결성, 당규률에 대한 자각성, 부정적현상들에 대한 견결한 태도, 실천활동에서의 선봉적역할, 철저한 혁명적군중관점의 확립 등 혁명가적품성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이에 있어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우리 당의 유일한 령도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은 핵심들이 일당백의 혁명투사로 준비되는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만 당핵심들은 모든 활동에서 당적원칙과 계급적선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으며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불굴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그 어떤 혁명임무라도 능히 수행해나아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핵심육성방도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핵심육성에서 교양사업과 혁명적실천을 결합시키며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부단히 인내성있게 진행하며 특히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종파주의와 각종 기회주의를 반대하

는 사상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혁명가로 육성할것을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을 지침으로 삼아 우리 당은 당핵심들을 육성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혁명의 심화발전에 따라 핵심육성사업에서 제기된 새로운 요구를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핵심대렬은 더욱 공고화되고 확대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핵심육성확대에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을 더욱 질적으로 공고화하는데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핵심대렬을 확대강화하며 전체 당원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결속시키면서 당의 통일을 수호하여왔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19페지)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전체 당원들을 무장시키는 동시에 종파주의, 기회주의와 부르죠아사상, 사대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등을 극복청산하여야 하였다. 이 투쟁은 오직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며 계급적선이 명확하고 혁명적지조가 강한 핵심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함으로써만 가능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었다.

당핵심을 부단히 육성확대하는 사업은 모든 당원들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어떤 정황에서나 독자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준비된 혁명가로, 정치활동가로 키우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당 건설의 특성과 관련하여 당원들의 정치사상적수준이 각이하고 그들의 준비정도의 차이가 현저했던 조건하에서 모든 당원들을 빠른 시일내에 준비된 당원으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교양대책과 함께 준비된 핵심들의 역할을 높여 당원들을 교양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핵심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부단히 준비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빠른 시일내에 끌어올렸으며 당원들을 독자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혁명가로 육성할수 있었다.

당핵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는것은 또한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되였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은 무엇보다도 당핵심들의 준비정도와 그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달려있다. 견실한 핵심들로 튼튼히 꾸려진 당조직만이 전투적이며 쇠소리나는 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 비계급적 요소들과 견결히 투쟁할수 있으며 당원들과 군중을 각성시켜 당정책관철에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다.

우리 당은 준비된 핵심당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이미 실천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핵심당원들로 모든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더욱더 높일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께 무한히 충실한 수많은 우리 당의 핵심당원들은 지난 기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거듭되는 파괴책동을 제때에 단호히 분쇄하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하며 우리 당을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함에 있어서 우리 당을 대중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킴과 함께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사업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반혁명세력을 타승할수 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당주위에 사회의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려야 하며 쟁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결속하여야 한다.

혁명투쟁에서 군중을 전취하는것은 혁명승리의 관건적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광범한 혁명군중을 자기 주위에 결속하며 확고한 대중적지반을 구축하고 혁명대렬을 꾸림으로써만 혁명운동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전체 인민을 교양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은 결코 몇사람의 힘에 의해서나 자연발생적으로는 될수 없다. 이 사업은 오직 전당이 동원되여야 하며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당이 사람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하며 당조직들과 핵심당원들이 모든 당원들을 혁명가로 키우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군중을 교양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현명한 방침에 따라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적극적인 군중교양자로서 활동하게 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빠짐없이 짜고들어 목적의식적으로 교양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력량을 꾸릴데 대한 방침은 위대한 결실을 맺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확고한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졌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그 어느때보다도 장성강화된 우리의 혁명력량은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투쟁에서 달성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우리 당이 쌓은 위대한 업적이다.

2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조성된 정세는 우리의 혁명진지를 철옹성같이 다지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그 어느때보다도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단결시키는것, 즉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62페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당핵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 혁명의 심화발전과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당핵심들의 역할을 높이고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수많은 우리 당의 핵심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당정책을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선봉적이고 부정과의 투쟁에 앞장 서며 당원들과 군중의 신망이 높고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할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핵심당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을 옹호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위하여 결연히 투쟁하는데서 표현된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핵심당원들을 우리 당의 유일한 령도사상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이외에는 그 어

면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오직 수령을 받들고 그이의 가르침에 무한히 충실하며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하에서도 수령을 옹호하여 목숨바쳐 싸울 혁명적각오로 충만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핵심들로 하여금 당의 유일사상과 배치되는 종파주의와 각종 기회주의, 부르죠아사상, 사대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등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핵심당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로동계급적선이 명확하고 혁명가적원칙성, 견합에 대한 비타협성, 당적자각과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온갖 부정적인것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핵심당원들은 어떤 환경에서나 계급적립장, 당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사소한 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어떤 역경에서나 혁명가로서의 견결한 지조와 절개를 고수하며 항상 혁명가답게 혁명적으로 살며 혁명적으로 일하여야 한다.

난관앞에서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를 소유하며 당정책을 어김없이 관철하고야마는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하는것은 핵심당원들의 활동에서 표현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은 핵심당원들이 혁명실천활동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에 부닥쳤을 때 주저하거나 당황함이 없이 그를 과감히 뚫고나아가며 항상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솔선 투신하고 당원들과 군중을 이끌고나가도록 교양하여야 할것이다.

당조직들은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핵심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과 함께 모든 당원들이 군중들 속에서 핵심적, 선봉적 역할을 옳게 하도록 그들을 교양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을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로, 열렬한 혁명가로 키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군중들속에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부단히 해석선전하며 군중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능숙한 교양자로, 선전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은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묶어세우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실천활동에서의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원들이 항상 어려운 일에서 이신작칙하며 자기의 실천적모범으로 군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게 하여야 할것이다.

모든 당원들이 정치활동가로서, 공산주의교양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만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킬수 있으며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언제나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계급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만 군중과의 사업에서 원칙적요구를 제기할수 있으며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당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킬수 있다.

당원들은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묶어세우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기본군중에 철저히 의거하여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광범한 군중을 당주위에 철통같이 단결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당원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 크게 의존된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당원들이 군중을 아량있게 포섭하며 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게 함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묶어세울수 있다.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확대강화하며 우리앞에 나선 혁명위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부단히 단련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언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고 당정책관철의 앞장에 서서 신심을 가지고 투쟁할수 있게 된다.

전체 당원들은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 연구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혁명전통 학습을 강화한다는 것은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을 의미한다.

전체 당원들은 혁명전통학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적동지애 등을 본받고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적수양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오직 당생활에서만 항상 회의하고 서로 검토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교양하면서 옳지 못한것은 씻어버리고 옳은것은 자꾸 배양장성시키면서 계속발전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성단련, 당성제고도 오직 당생활에서만 가능하며 당생활을 잘하는데서만 될수 있습니다.》

오직 당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만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높은 당원으로 육성할수 있으며 군중속에서 그들의 선봉적, 핵심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핵심당원들과 모든 당원들을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군중과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수시로 당적위임분공을 조직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근로단체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매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동맹원들로 공산주의적핵심을 선발하여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양육성하며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도록 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당조직들은 핵심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모든 당원들의 핵심적, 선봉적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밑에 튼튼히 꾸려진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심진지를 더욱 굳게 다지며 당원들의 선봉적, 핵심적 역할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우리의 혁명력량은 더욱더 확대강화될것이며 그것은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결속된 불패의 력량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다.

모든 청년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자

오 기 천

1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10대정강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것을 강조하시였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청년들의 혁명화문제는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청년들은 조선로동당의 후비대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며 우리의 교대자들인 청년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을 불굴의 혁명투사로 길러내는것은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애국적인 청소년들을 앞날의 혁명가로 교양육성하시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을 《타도제국주의동맹》, 《새날소년동맹》, 《조선인길림소년회》, 《조선인류길학우회》, 《반제청년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등 각종 혁명조직에 망라시켜 훈련시키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청년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불굴의 혁명전사로 교양육성하시는 사업을 한시도 멈추지 않으시였다.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되고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단련된 혁명가들로 하여 해방후 우리의 혁명은 가장 믿음직한 혁명간부의 골간을 가질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하에서 후대교육에 대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 나아갈 후대들의 교육교양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리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배려속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도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났으며 오늘 그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일하고있다.

후대들을 우리 혁명의 대를 이울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키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과 방침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오늘 우리의 혁명대오는 강력한 력량으로, 불패의 대오로 꾸려졌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청년들을 부단히 혁명화하며 그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조선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는 열렬한 혁명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오늘의 사회주의건설에 이르기까지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이뤄어놓은 빛나는 전통과 업적을 계승발전시키며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부과되여있습니다.》(《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9페지)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루어졌다. 이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둔 우리 당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세기

적인 변혁과 위대한 발전을 이룩하여 놓았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앞으로 계속 이 유일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내이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앞에 부과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며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준비해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대내외의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은 의연히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다.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총부리를 맞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또다시 기여들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에 혈안이 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고 있다. 남녘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아가는 결사대로 교양육성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의 초소를 믿음직하게 담당하는 청년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을 억센 투지와 전투적기백으로 충만된 혁명투사로 단련시켜야만 우리의 혁명대오는 더욱 강화될것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은 촉진될것이다.

청년들의 혁명화문제는 그들앞에 나선 이와 같은 영예로운 임무와 함께 그들의 세대적특성으로 하여 또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우리의 청년들은 지주와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자라났으며 혁명의 모진 풍파를 직접 겪어보지 못하였다.

만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이 없이 살고있는 청년들을 혁명화하지 않으며 로동계급의 철저한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급적원쑤를 잊어버리고 안락한 생활에 물젖어 그저 편안하게만 살것을 바랄수 있다.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과 더불어 우리 청년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들에게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알게 하고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가 어떤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 이 제도의 특출한 우월성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청년들이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고 계급적원쑤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세계관의 형성기에 처해있다. 그들은 옳은 교양에 의해서만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이고 정의를 사랑하는 자기들의 훌륭한 특징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향락주의, 리기주의 등 온갖 부르죠아사상과 좌우경기회주의사상독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사로청의 일차적인 과업은 청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옳게 진행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대교양에 관한 력사적인 교시들에서 청년들의 혁명화의 내용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우리의 260만사로청원들과 전체 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여 혁명시대의 젊은 전사답게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고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사로청조직들이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것을 무조건 옹호관철함으로써 청년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데 있다.

2

우리의 청년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다.

청년들을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로 준비시키자면 우리 당과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받들고 그이의 가르침에 무한히 충실하며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이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른다는 그러한 사상관점으로 그들을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하에서도 수령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수령을 위하여서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울 확고한 각오로 충만되여있게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혁명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당에 대한 충실성을 말할수 없다.

모든 청년들을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탁월한 령도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고 계심으로 하여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깊은 뿌리—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루어졌다. 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해방후 조선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이 창건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 수립되였으며 그를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우리 당과 혁명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이 창건되였다. 그이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심으로 하여 우리 당은 미제침략자들을 분쇄하는 영웅적항전에로 전체 조선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로 하여금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인민이 그처럼 념원하였으며 수많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그러한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나라의 만년대계인 자립적민족경제의 로대와 철벽의 전인민적방위체계가 굳건히 꾸려졌다. 혁명의 전도는 광활하고 전국적범위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는 확고하게 약속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화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조직들에서 학습규률을 강화하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일군들을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당정책을 모르고서는 혁명화할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암만 당에 충실하겠다고 해도 당정책을 모르면 당의 로선에 맞

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며 그것은 결국 당에 충실하지 못한것입니다.》

청년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구경은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고 그이의 혁명사상이 구현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조선의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는 청년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특히는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주신 교시들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는 혁명적학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령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인식시켜 그들의 뼈와 살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전체 청년들을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참말로 당과 수령을 옹호하고 보위하는 근위대로, 수령의 교시, 당정책관철의 앞장에 서나아가는 결사대로 준비시킬수 있다.

청년들을 견결한 혁명투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에 의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자신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와 광명한 앞날을 확신하였기때문에 적들의 첩첩한 포위속에서도, 철창속에서도, 단두대에서도 결코 비관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고 끝끼지 싸워이겼다. 청년들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만 그들도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어려운 고비와 시련에 부닥쳐도 동요를 모르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위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하는 혁명가로 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가가 되자면 원쑤를 똑똑히 가릴줄 알며 사물을 분석할줄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변증법적유물론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청년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하여야 어떤 사상이 혁명사상이고 어떤 사상이 반동사상인가를 가려낼수 있으며 어느것이 혁명의 길이고 어느것이 반혁명의 길인가를 스스로 분간할줄 알게 되며,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에서 모든 사물을 볼줄 알게 되고 복잡한 계급투쟁속에서 적아를 똑똑히 가려낼수 있다.

청년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것은 우리들앞에 나선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0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지향과 투쟁을 반영하고있으며 로동계급의 계급적의식에 기초하고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만 우리의 청년들은 철저한 계급적의식을 가지고 주체성있게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심도있게 진행하여야 하며 그것이 사업과 실천에서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우리는 청년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령도하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특출한 우월성을 똑똑히 알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일하고 배우며 병

나면 치료받을수 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고있다. 전체 인민과 더불어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할뿐만아니라 이 제도를 침해하려는 온갖 내외의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끝까지 고수하고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남녘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공화국의 기치하에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도록 교양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자기의 로동이 사회주의제도의 강화와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한 영예로운 일이라는것을 깊이 자각시켜 그들로 하여금 로동을 사랑하고 사회를 위한 로동에 가장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에 대한 성실성은 공산주의자의 기본표징으로 됩니다.**》(《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15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근로대중의 자각적인 로동에 의하여 건설되는것이며 이 사회의 모든 재부는 로동의 창조물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들인 청년들로 하여금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게 하며 항상 로동을 좋아하도록 교양해야 한다.

로동과정은 우리들의 집단적활동의 중요한 측면이다. 집단적으로 살고 일하는 과정에서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는 정신과 조직성, 규률성이 자라게 되며 리기주의사상도 없어지게 된다.

청년들로 하여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장엄한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모두가 천리마기수, 돌격대의 영예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힘있고 생기약동한 청년돌격대운동을 광범히 조직전개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보수주의, 소극성, 신비주의를 짓부시고 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활기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투쟁대상은 착취계급이 남겨놓은 개인주의, 리기주의라고 가르치시였다.

개인의 리익과 공명을 모르고 자나깨나 혁명을 생각하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바쳐 일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킬줄 아는것은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품성의 하나이다.

우리는 청년들속에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고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나가는 집단주의정신과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키우며 항상 혁명적으로 살고 일하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청년들을 혁명화하며 맑스—레닌주의 세계관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 있어서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혁명전통을 학습하는것은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아 그들처럼 수령의 참된 전사로 되기 위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경험은 혁명전통교양이 직접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31페지)

청년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된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김일성동지의 유년 및 소년 시기와 초기혁명활동으로부터 지난 40여년간의 혁명활동을 심오히 학습시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 오직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여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는 곧 조선에서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을 빛나게 발전시킨 위대한 력사이며 조선혁명수행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독창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킨 력사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과 높은 덕성은 혁명가들,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살며 싸우며, 자신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위대한 귀감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과 함께 그이의 혁명적가정에 대하여 청년들에게 깊이 학습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교육가이신 김형직선생과 혁명가의 안해이시며 혁명가의 어머니이시며 녀성해방을 위한 투사로서의 강반석녀사의 고매한 애국사상과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직령도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규률, 자주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죽음앞에서도 비관하지 않으며 굽히지 않는 혁명적락관주의,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공산주의적의리,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등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산모범이 이룩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혁명의 시련속에서 단련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줄곧 행복하게 살고있는 청년들이 자신을 참된 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하여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

우리는 청년들속에서 당력사연구실을 거점으로 하여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혁명활동과 그이의 혁명적가정에 대하여 깊이 연구시키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 학습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 그리고 수령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을 따라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을 거울로 삼고 일편단심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으며 언제 어떤 정황속에서도 혁명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백절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적품성을 본받아 그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해 끝까지 싸울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청년들은 국방에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항상 앞장설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조국보위는 사로청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애국적의무이다.

청년들은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관철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는 청년들속에서 인민군대의 성격과 사명, 그 우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군사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전쟁경험을 꾸준히 연구하며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전체 청년들이 혁명시대의 젊은이답게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임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쳐들어와도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청년들을 사상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수행에 적극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사상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그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자면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부르죠아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모든 근로자들과 더불어 청년들을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우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는 동시에 문화혁명을 전개하여 그들을 높은 문화기술수준의 소유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수립하여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쓸모있는 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혁명화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로청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은 오래동안 혁명적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단련되며 집단과 전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을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조직은 생명이다. 조직생활을 떠난 혁명가란 있을수 없다. 조직생활은 사람들을 혁명가로 육성하며 단련하는 학교이며 용광로이다.

혁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투쟁속에서만 단련되고 혁명화될수 있으며 혁명적인 조직생활과정에서 혁명적세계관과 혁명적의지를 공고히 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동맹생활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수양과 조직적단련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 모든 청년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며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는 기풍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학생청년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인입하며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교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시대 붉은 학생답게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우는 전투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교양하여야만 그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어떠한 난관이나 풍파에 부닥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용감하게 전진할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러므로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 혁명적실천투쟁의 세찬 흐름속에 뛰여들어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로동계급의 조직성, 혁명성, 전투성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청년들을 오직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이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자

백 선 일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서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하며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방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입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50~5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고 있는 로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정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의 로동행정사업의 의의와 내용, 그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로동행정사업개선의 기본원칙과 구체적과업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행정사업은 인간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며 인류의 모든 행복의 원천으로 되는 로동을 조직하고 그 효과적리용을 보장할뿐만아니라 사람들의 창조적열성과 재능을 발휘시키는 사업으로서 사회주의생산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로동행정사업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고전적규정을 내리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사회적로동을 어떻게 조직하며 리용하는가, 로동의 생산능률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0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오직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주인인 수백수천만 근로자들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다. 과학과 기술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되며 기계도 사람이 만들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사람이다. 세상에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가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다.

그렇기때문에 로동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회주의건설에 인입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며 모두가 힘껏 능률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로동조직을 합리화하며 로동보호사업과 후방공급사업을 잘하고 로력후비양성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강화하며 로동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 등 로동행정사업을 부단히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로동행정사업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여름에 있은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라고 교시하시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계획화사업을 비롯하여 기술 및 설비 관리와 물자관리 그리고 재정관리를 옳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기계와 설비를 움직이고 원자재를 리용하며 생산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로동을 관리하는 로동행정사업을 잘할 때야만이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으로부터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제기되는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50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 근거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경지가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공업의 발전에 농업을 따라세우기 위하여서는 집약적농법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 농업생산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농촌경리기계화의 완성은 오랜 시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형편에서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시하여도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공업에 끌어들일수 있는 농촌인구의 원천이 많지 못합니다.》(우와 같은 책, 50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혁명을 추진하고 로동행정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여 나라의 로력자원을 가장 절약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정강에서 조성된 정세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 더욱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더우기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하는것만큼 나라의 로력자원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앞에 나선 정치, 군사적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킬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5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로동행정사업에 대하여 내리신 과학적결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며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고귀한 기여로 된다.

지금 우리는 7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1968년인민경제계획집행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금년에 우리는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선행시키고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킬데 대한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한 방향을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더욱 급속히 촉진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침입사건을 계기로 미제침략자들이 벌리고있는 광란적인 전쟁소동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철벽으로 다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부문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안일성과 해이성을 철저히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높여 지난날보다 수배, 수십배의 일을 해야 하며 1인당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 *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근로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고도로 발휘시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로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로력랑비를 없애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1인당생산액을 높이는 등 로동행정사업부문앞에 나서는 모든 과업들의 해결이 구경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자각적으로 로동에 참가하는가, 다시 말하면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졌는가 못가졌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 하여금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 사상을 착취계급의 사상으로 철저히 증오할뿐만아니라 로동이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가장 영예로운 일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고 근면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을 즐기는 정신을 키워 그들이 작업과정에서 로동질서와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모범적으로 지키며 자기가 다루는 기계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아끼며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알뜰하고 실속있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확립하고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여 그들이 어떻게 하면 로동시간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항상 머리를 쓰며 로동시간내에 맡은 과제를 다하지 않고서는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분초를 다투어 아득바득 의식적으로 일하도록 하며 특히는 초급간부들의 열성을 높여 그들이 자기의 실천적모범으로써 사람들을 교양하고 새로운 혁신에로 전체 생산자들을 이끌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의 새로운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입니다.**》(우와 같은 책, 51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을 강력히 밀고나감으로써 누구나 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새로운 사람들로서의 고상한 품성을 가지게 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여 로력랑비를 결정적으로 없애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8시간로동제는 로동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그 누구도 어길수 없는 국가법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소한 로력랑비나 로동규률위반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분초를 다투어 일하며 로동시간내에 최대한의 생산능률을 내기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1~52페지)

8시간로동제, 이것은 로동계급자신이 들고나온 구호이며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적전취물이다. 그렇기때문에 누구나 다 480분동안 성실하게 일하는것은 공민의 의무로, 응당한 사회적직분으로 알고 제정된 로동시간을 1분도 허실없이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480분로동시간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엄격한 사회주의적로동규률과 로동질서를 세우고 그것

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시기에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준수할것을 요구하며 위반하는 현상에 대하여 철저히 통제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형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가 정권을 쥐고있는 사회주의국가는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할뿐만아니라 모든 공민들이 로동법령을 엄격히 지키도록 강하게 통제하여야 자기의 독재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관, 기업소와 일터에서는 로동규률과 로동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하게 지도통제하여 생산자들이 자의로 기대를 멈추거나 작업장을 떠나는 무규률적현상과 일군들이 로동자들을 생산에서 떼내여 타사업에 류용하거나 로동시간내에 회의와 예술 및 체육 소조활동을 조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누구도 제정된 로동시간은 조금이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작업대상과 설비들의 특성에 따라 인계인수규정과 작업규정들을 정확히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게 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일에 착수하기전에 작업준비를 끝내게 하며 다음교대의 생산준비를 완전히 갖춘 조건에서 작업을 인계인수하고 작업의 마감을 위하여 로동시간을 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로동규률과 로동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게 함으로써만 남의 덕에 살아가는 건달군들이 우리 대렬내에 잠시도 끼워있을수 없고 또 적들이 감행하는 파괴암해책동도 미연에 철저히 폭로분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로력랑비를 없애고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작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로동자들에게 충분한 작업조건을 보장해주고 기술준비를 앞세워야만 생산의 파동성을 없애고 작업휴지를 최소한도로 줄일수 있으며 480분로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대로 계획의 세부화를 실현하고 우로부터 아래에 책임적으로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원료와 자재를 생산에 선행하여 정상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매 설비단위로 기공구를 기준화하고 능률적인 작업도구를 마련해주며 작업대상과 건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장조직을 개선하며 필요한 조명을 보장해주고 생산문화를 확립하여 일을 헐하고 흥겹게 하면서도 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설비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과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설비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생산의 중단과 로동시간의 손실을 없애야 한다.

이와 함께 480분리용총화체계를 세워 작업반의 매개 로동자들로부터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로동시간리용에 대한 분석총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총화사업을 진행함으로써만 결함과 부족점을 초래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똑똑히 밝혀낼수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을 세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은 로동행정사업에서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입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52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술혁신은 당면하게 긴장되여있는 로력사정을 풀며 1인당생산액을 빨리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생산에 효과적으로 도입한다면 한사람이 종전에 비하

여 수배 지어는 수십, 수백배의 생산성과를 올릴수 있으며 따라서 날로 증대되는 로력수요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경제기관 및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긴장된 로력문제를 풀고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전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소극성을 철저히 분쇄하는 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기술혁신운동에서 전진을 이룩할수 없으며 따라서 생산장성도 보장할수 없다.

인민경제 각부문과 기업소들에서는 기술혁신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지도일군들이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려는 고매한 정신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숭고한 혁명과업인 기술혁명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며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의 창조적발기를 견결히 지지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로력을 늘이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술혁신운동을 통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산을 장성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차게 전개하려면 또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의 제고는 기술발전을 촉진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인민경제 각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술학습과 기능전습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로동자들이 자기가 다루는 기계설비의 구조와 성능 및 조작원리에 정통하도록 할뿐만아니라 웬만한 것은 다 자체로 수리할수 있는 기술수준에 그들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직장장학교, 작업반장학교, 기능공학교를 더 잘 꾸리고 그것을 실속있게 운영하며 생산발전에서 절실히 필요한 특수기능공과 다기능공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고급기능공과 특수기능공들을 고착시켜 기술혁신과 제품생산, 질제고에서 그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설비조작과 작업동작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 그리고 생산부문내에서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간의 옳은 로력균형을 보장하며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것이 중요합니다.》**(우와 같은 책, 52~53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있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 그리고 생산부문내에서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간에 로력균형을 옳게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에 균형적으로 배치하는것은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과 인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생산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에 필요한 중공업제품과 경공업제품, 농업생산물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될것이며 인구 1인당 생산액을 높이고 국가축적을 끊임없이 늘이면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할수 있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는 생산부문종업원수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의 일군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원칙에 확고히 서서 나라의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비생산부문을 깊이 료해하고 불필요한 인원들을 대담하게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며 물질적생산부문의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불합리하게 배치되였거

나 지나치게 늘어난 관리 및 비생산 로력과 작업량이 똑똑치 못한 보조부문, 간접부문의 로력을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경로동부문에 배치되여있는 건장한 청장년로력을 녀성과 가정부인 로력으로 교체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절약된 로력으로써 탄광, 광산, 기본건설을 비롯한 주요부문의 로력구성을 개선하며 기본생산부문 그중에서도 직접부문의 로력자수를 결정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있는 로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급속히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단위별 로력배치기준을 정확히 규정하며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로력배치상태에 대한 해부학적분석과 근로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에 기초하여 기본생산부문은 물론 보조생산부문, 간접부문에 이르기까지 단위별 로[illegible]배치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작업정량을 가지고있는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미 도달된 평균실적만 아니라 생산조직과 480분로동시간리용에서 찾을수 있는 예비를 고려하고 작업대상과 공정들의 특성에 맞게 로력수를 정하며 장치공정들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표준로력수를 정해야 한다. 로력수의 규정은 한 축구팀이 10명으로도 안되고 12명으로도 안되며 오직 11명으로써만 구성되는것처럼 과학적으로 되여야 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이와 함께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기술로동과 잡로동을 분리시키고 기능공수와 보조공수를 규정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수 있도록 성별, 년령별, 체질, 기술기능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교대와 작업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이 중요하다. 련속작업이 진행되는 장치공정과 설비능력이 제한된 부문들을 제외한 모든 부문들에서는 될수록 2교대 혹은 단일교대를 조직할것이며 생산공정의 특성과 설비들의 배치상태, 소재의 운반거리들을 심중히 고려한 기초우에 작업반장이 자기반 성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들을 장악통제할수 있도록 작업장조직을 개선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우와 같은 책, 54페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려는 그들의 정치적자각과 혁명적각성을 부단히 높이는것이다. 만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켜 그들의 자각성과 의식성을 키우지 않고 물질적자극일면에만 치우치면서 돈을 가지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 한다면 그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부르죠아사상을 전파시키게 되며 결국은 사회주의건설에 큰 해독을 줄것이다. 다른 한편 아직 헐한 로동과 힘든 로동, 기능로동과 무기능로동, 정신로동과 육체로동 등 로동에 본질적인 차이가 남아있고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사회주의조건하에서 임금의 평균주의를 실시하는것 역시 사회주의건설에 큰 저해를 주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두 경향에 대하여 다 엄격히 경계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물질적자극을 정확히 안받침할데 대한 우리 당의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을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일한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지도 않고 더 적지도 않게 정확히 분배몫이 차례지도록 하는것은 로동의 결과에 대한 자극을 높일뿐만아니라 로동규률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을 성실하게 자각적으로 일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에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로임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다.

현시기 로임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중앙집권적규률을 철저히 확립하고 현행임금규정들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이다.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로임법규를 위반하고 로임조직을 제멋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은 로동생산능률장성의 강력한 수단이며 로동조직을 위한 기준이며 로동에 의한 분배의 중요한 척도이다.

우리가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높이고 국가축적을 증대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자면 낡은 정량을 부단히 깨뜨리고 새기준, 새기록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한다.

로동정량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기술실무적방법으로가 아니라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의 창조적열의를 동원하는 정치적방법으로 진행하며 그것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자군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군중의 지혜와 군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동원하고 이에 과학기술적타산을 배합해나감으로써 낡은 정량을 부단히 타파하고 그것을 선진적인 수준으로 계속 이끌어올려야 한다.

로동정량사업에서 가장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이 분야에서 교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이다. 모든 경제기관과 기업소들에서는 로동정량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제정하거나 도급제를 무원칙하게 적용하는 등 물질적자극일면에 치중하려는 그릇된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행정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로동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 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해결을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동계획화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로력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기초이며 따라서 로동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 기본조건입니다. 국가 및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은 로동계획화사업을 개선하여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1페지)

로동계획화사업을 옳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세부계획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경제기관 및 기업소들에서는 당의 세부계획화방침에 따라 현존로력실태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로력대장을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로력관리를 부단히 개선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로력대장에는 기업소마다 생산되는 품종은 어떤것이고 생산량은 얼마인가, 로력은 얼마이고 그 가운데서 기능공과 무기능공이 각각 몇명인가, 남자는 몇이고 녀자는 몇이며 그 가운데서 산전산후휴가를 받아야 할 녀성이 몇인가, 직접로력과 간접로력은 얼마이고 입종별구성은 어떤가, 로동정량은 어떻고 그 수행정형은 어떤가 하는것 등의 구체적자료가 정확히 반영되여야 한다. 이렇게 세밀한 로력대장을 작성하고 로동의 세부계획화를 실시하여 로력을 정확히 계획하고 그를 합리적으로 조직배치할 때야만 있는 로력을 가장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것이다.

로동계획화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또하나는 매개 로동자들에게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계획과 년간계획을 정확히 주고 그들이 다 자기가 맡은 과제의 초과완수를 위하여 온갖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돌림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실행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보호사업과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로동행정사업에서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기업소들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조건에서 마음놓고 일할수 있도록 당의 로동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동지의 건강과 생명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는 군중관점을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동보호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함으로써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며 산업위생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그 조건을 계획적으로 개선완비하여야 한다.

후방공급사업은 정치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들의 열성과 자각성을 높여 생산의 앙양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 경제기관 및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께서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주시는 모든 배려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는 동시에 자기 단위들에서 부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로동자들에게 부식물과 육류, 기름 등을 더 많이 공급할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 *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로동행정사업을 모든 사람 특히는 지도일군들의 첫째가는 사업으로 되게 하며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의 로동정책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주신 과업을 근로자들에게 원문 그대로 한조목씩 알기 쉽게 해석해주고 반복하여 계속 철저히 침투시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의도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완전히 체득하고 높은 자각적열성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달라붙도록 하여야 한다. 경험은 당정책을 광범한 대중속에 침투시키면 침투시킬수록 그리고 대중이 그것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혁명과업수행에서 무궁무진한 힘이 발휘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전체 근로대중속에 당정책을 철저히 해석침투시킴으로써 그들자신이 480분로동시간리용에서 잘못된것이 어떤것이며 그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로동행정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하고 이 사업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원되게 하여야 한다.

경제기관 및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또한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걸린 고리를 풀어주고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힘든 일을 도와주며 회상기모임도 직접 조직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행정사업에서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이 사업을 과학적기초우에서 부단히 발전시켜나가며 사회주의생산발전에서 그것이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광범한 근로자들을 새로운 혁명적고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일층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며 그들의 창조적열의와 재능을 최대로 발양시킴으로써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실현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을 병진시길데 대한 당의 방침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게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우리는 인민경제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한층 발전시키는데 심중한 당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모든 단위들에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여 전체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추진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성을 발휘하며 맡겨진 일을 두몫, 세몫하는 적극분자들의 대렬이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소극성, 보수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고 있는 로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사회주의생산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지금 로동행정부문일군들앞에는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로동성을 비롯한 각급 로동행정기관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행정사업을 중시하시고 친히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높은 영예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간직하고 우리 사업에 내재하고있는 모든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시급히 퇴치하며 그것을 하루속히 개선강화하는데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로동행정부문의 모든 일군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그리고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고 당조직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모든 일군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만 항일유격대원들이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자기가 맡은 임무에 끝까지 충실하였던것처럼 모든 일군들이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헌신성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우선 우리는 당조직들의 지도하에 모든 기관, 기업소들의 로동행정사업을 전반적으로 지도하여 로력랑비를 퇴치하고 로력을 절약하면서 더많이 생산할데 대한 당의 중요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든것을 바쳐야 한다.

로동행정부문일군들은 각 성, 국들과 지방기관들의 협조밑에 준비된 력량을 동원하여 이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계획적으로 강력히 밀고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께서 주신 이 중책한 과업을 훌륭히 집행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정강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며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여야 할것이다.

근 로 자 제 3 호 (루계 313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8년 3월 25일 발 행 • 1968년 3월 30일

ㄱ—83124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4 호

평양 근로자사 1968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4 호 (314)

차 례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56주년을 맞으면서 다함없는 충성과 흠모의 정으로 수령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4천만조선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복이다.

우리 당원들과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는 온갖 풍파와 가시덤불을 헤치시고 40여년간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였으며 오늘의 번영과 행복을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무한한 충성심이 끓어넘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하며 그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을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어떤 모진 풍파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하고 보위하며 그이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할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으며 오직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그리고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충직성과 높은 혁명적열의,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단결, 이것은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승리의 기본담보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함으로써만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촉진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혁명이 심화발전되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들 앞에 방대한 혁명임무가 나서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새전쟁도발책동으로 긴장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사정은 특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1.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령도사상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그것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하던 시기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몸소 투쟁의 앞장에 서시여 조선혁명의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에로 조직령도하고계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철저한 주체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해나가는 사상이다. 이것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해나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립장을 반영하고있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여나가는 자주적인 립장을 반영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인민들에게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여주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발휘함으로써 혁명위업을 가장 정확히 전진시켜나가게 하는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은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자립성과 군사적자위력을 튼튼히 다지는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리론실천적해답을 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나라의 사회발전법칙,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의 법칙,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법칙과 그것을 혁명실천에 구현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명해준 과학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정책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압박인민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지멍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길을 찾기 위한 투쟁방침과 방도들이 제시되여있다.

또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제국주의와 자본가, 지주 제도를 전복하고 자기 손에 정권을 틀어쥔 로동계급이 새사회를 어떻게 건설하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것인가 하는데 대한 정확한 해명을 주고있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사회의 정신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있다.

우리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함으로써만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가장 곧은 길로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만이 혁명하자는 사상이고 남조선에서 미제를 내쫓고 조국을 통일하며 조선혁명을 완성하자는 가장 정당하며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나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혁명적인 지도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수할 때까지 싸우자는 사상이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들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혁명을

부단히 계속하여야 한다는 견결한 혁명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적책임감을 발휘하여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극복하고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만 좌우경기회주의, 사대주의, 자본주의, 봉건주의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혁명투쟁에서 모든 혁명가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진리를 반영하고있으며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의 혁명실천에 깊이 뿌리박고 현실이 제기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으며 철두철미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있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리론실천적으로 위대한 기여를 한 사상으로서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끌며 전세계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의 운명을 구출한 사상이며 이 땅에 민족적번영을 열어놓은 사상이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사상이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해주며 그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오늘 세계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 혁명적인민들은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고전으로, 교과서로 부르고있으며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가장 정확한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명도사상이며 우리 당내에는 수령의 혁명사상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우리 당내에는 당의 이 유일한 사상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있을수 없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자—이것이 오늘 우리 당의 구호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명도사상으로 하여 당건설과 혁명활동을 진행하는것은 우리 당의 성격과 우리 혁명의 임무로부터 제기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사회발전의 법칙과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져야 하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력량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에 옳게 조직동원하여야 하는것이다. 이 모든 사업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수행된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명도자이시다. 우리 당의 건설, 우리 나라 혁명운동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진행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뿌리, 우리 혁명의 뿌리를 마련하시였다. 우리 당의 뿌리인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바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골간인 혁명적핵심들을 몸소 키우시고 당원들을 혁명가로 육성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강유력한 혁명력량을 꾸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건설과 우리 나라 혁명에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조하시고 투쟁의 전략전술을 제시하신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

으로서 직접 그이께서 작성하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시고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며 우리 나라 혁명을 가장 옳바른 길로 인도하고계신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떠나서는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도,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도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이 땅우에 구현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사명으로 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령도사상으로 하여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는것은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은 우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확고한 초석으로 된다.

당중앙으로부터 말단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이며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개량주의당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당이며 자본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투적당입니다. 자본주의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선 당의 강철같은 통일이 필요합니다.

당의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와 결정에 의하여 전당이 한사람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도부에서 〈앞으로〉할 때 가지 않겠다고 뒤에서 우물거리거나 〈좌로〉하면 우로 달아나는 현상이 당내에 있을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76페지)

우리 당은 유일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의지로 굳게 결속된 전일적인 혁명적 조직체이며 전투적부대이다. 따라서 당내에는 그 어떤 종파도 이색적인 사상 조류도 허용될수 없다.

당내에 유일한 사상체계가 서있지 않고 몇갈래의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맑스—레닌주의당이 아니라 한갖 조합이나 구락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한 당은 조직된 혁명적부대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무력하게 만들고 혁명을 지도할 수 없을뿐아니라 결국은 혁명위업을 말아먹고만다.

맑스—레닌주의당은 개개의 조직, 개개의 성원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바로 유일사상에 의하여 굳게 결속되고 조직된 자각적인 혁명투사의 부대인것이다.

수령은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은 전당을 결속하는 사상적기초이다.

전당이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하여야만 당은 로동계급의 전위적부대로서의 자기 사명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바로 전당이 유일한 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된데 있다.

실로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은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을 보장하며 당의 조직성과 일원성을 담보하는 결정적조건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는것은 또한 당의 혁명적성격과 로동계급적성을 고수하며 혁명적인 령도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전제로 된다.

당의 조직원칙과 령도체계, 당의 활동방법은 그 당의 령도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유일한 령도사상에 의하여 당의 모든 활동이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그에 상응한 혁명적인 조직원칙과 령도체계가 요구되며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

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적인 조직원칙과 강력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적령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수립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이 전당에 맥맥히 흐르고 당이 하나의 산유기체로 움직임으로써만 그 당은 강한 전투성과 혁명성을 발휘하게 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여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령도사상으로 하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낡은 사회를 전복하고 새사회를 건설하는 간고한 투쟁에서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항상 능숙히 해결해나가는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또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혁명가의 품성을 소유하게 하는 위대한 혁명적량식으로 된다.

매개 당원들의 혁명적세계관은 당의 유일한 령도사상인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확립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사상으로, 자기의 세계관으로 삼고 투쟁하는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다. 따라서 당원의 모든 활동은 당의 유일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만 공산주의적세계관이 확립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끝까지 투쟁하는 혁명가로 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우리 당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은 혁명을 계속하며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싸우자는것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고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혁명할수 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만 어떠한 혁명초소에서나 확고한 진로를 알고 승리의 신심에 충만되여 전진하며 모든 사업을 당과 혁명의 리익에 부합되게 전개할수 있으며 어떠한 풍파속에서도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굴함없이 싸워이길수 있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는것은 우리 당을 혁명적인 당,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근본문제로 나선다. 이것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와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전로정이 뚜렷이 확증해준다.

2. 조선공산주의운동의 40여년간의 력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력사이다

근대 40여년의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력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의 력사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의 력사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실현하고 새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력사이며 동시에 온갖 기회주의와 반동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력사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혁명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해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를 통하여 우리는 민족해방과 사회혁명에서 제기되는 문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 그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있게 체득하게 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이의 혁명사상을 명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 우리 나라와 전세계애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게 된다.

위대한 혁명가이시며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자이신 우리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라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혁명을 확신성있게 명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교훈과 1920년대말～1930년대초 우리 나라 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맑스—레닌주의기치하에 광범한 대중적지반에 뿌리박은 새로운 강력한 무장투쟁형태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구현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은 혁명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으로서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사소한 합법적투쟁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말살된 당시의 암담한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며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최고형태인 항일무장투쟁의 매단계에 정확한 정치로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작성하시였으며 몸소 그 진두에 서시여 무장투쟁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매단계마다 정확한 투쟁과업, 군사활동지대의 선정, 유격근거지의 창설 및 공고화, 제기된 혁명임무에 적응한 유격투쟁형식의 선택, 유격대오의 부단한 확대강화와 대중적지반의 축성 등 무장투쟁의 전략전술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천재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의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15성상의 장구한 기간 계속 강력히 전개될수 있었으며 수천수백배에 달하는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총적임무를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의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사회주의건설도 오직 김일성동지의 명도밑에,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음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해방후 새롭게 조성된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밝히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준 결정적담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국내외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가장 독창적인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공화국북반부를 혁명의 보루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조선혁명전반을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주기지창설로선은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량단된 조건하에서 그에 대처하여 강력한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킬수 있게 한 혁명적이며 반제적인 로선이였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 혁명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에 의하여 끝까지 수행하려는 가장 적극적인 자주로선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주기지창설로선에 의하여 우리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을 창설하였으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을 풀고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위적이며 반제적인 군사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를 제때에 창건하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이며 자위적인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군대와 15개국 추종국가군대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전후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과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가장 정확하고 창조적인 경제건설로선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을 천리마대진군에로 불러일으키심으로써 가장 짧은 기간에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할수 있게 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경제건설분야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한것으로서 자력갱생으로 나라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며 나아가서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경제건설로선이다. 이 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혁명적인 경제건설로선이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정확한 경제건설로선이다.

사회주의혁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도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기술적개조에 앞서 생산관계를 개조하는 혁명적이며 창조적인 방침에 의하여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가장 정확하게 해결하였다.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문제, 경제관리문제, 사회주의농촌문제,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계급투쟁을 결합하는 문제,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문제 등을 옳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이후 제기되는 새로운 원칙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정확히 해결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셨다.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길을 처음으로 명시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문헌이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인민경제계획화에서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 등 그이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방침들은 사회주의하에서 당 및 국가적 지도와 경제관리의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 등은 제국주의와 대치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정신적 및 물질적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게 비쳐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정확히 해명되였으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그이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그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령도사상으로 하고 그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하여온 로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으며 온갖 기회주의, 반동 사상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그와 배치되는 온갖 기회주의, 반동 사상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구현되였으며 승리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고 관철하는데서 주되는 장애로 된것은 종파주의, 좌우경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 사상, 봉건유교사상 등이였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수립하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킴에 있어서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강화발전의 첫시기에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갖 종파주의적경향과의 투쟁은 오늘 우리 당 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조선의 혁명운동에 력사적으로 막대한 해독을 끼친 저주로운 종파주의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함으로써 우리 당을 통일적이며 위력있는 강철의 대오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81페지)

종파분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으며 우리 당이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조국해방전쟁의 그 엄혹한 시기에 간악하게 반혁명적책동을 강화하였으며 전후 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복잡한 정세의 틈을 타서 당에 도전하고 반혁명적 음모를 꾸미는데까지 이르렀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비방중상하면서 제각기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에 도전하여나섰다.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을 더 없는 영예로, 행복으로 여기고있는 우리 당 조직들과 전체 당원들은 전당적인 투쟁으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모책동을 폭로분쇄하는 동시에 종파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사상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 당은 당의 통일을 좀먹는 온갖 표현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당적사상체계를 수립하며 당의 정확한 령도를 보장하며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에 제하여》, 20페지)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인 주체사상과 대치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수 없었으며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없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극복함으로써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내에 나타난 종파주의자들은 례외없이 교조주의자들이였으며 사대주의자들이였다. 전후에 와서 종파분자들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행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으로 부단히 교양하였으며 사대주의, 교조주의, 대국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않고 그와 견결히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전

당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려는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정확히 수행하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내에 좌우경기회주의가 대두함에 따라 종파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당의 투쟁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게 되였다.

우리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좌우경기회주의와의 투쟁을 단호히 전개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였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와 각종 기회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당내사상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로력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은 바로 전당과 전체 인민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 각종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전당적, 전인민적 사상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또한 이 위대한 천리마적진군으로 하여 내외원쑤들의 공격을 철저히 분쇄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종파주의와 각종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주위에 한사람같이 단결되였으며 전당은 그 어떠한 원쑤들도 능히 타승할수 있는 불패의 힘을 가진 전투적부대로 장성강화되였다.

실로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쓸어버리는 치렬한 계급투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심각한 사회적변혁과 창조적건설의 력사로 아로새겨진 조선혁명의 40여년의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로정은 오직 우리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함으로써만 이룩될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이였다.

3.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을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숭고한 사명이며 4천만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지향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량단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고 전강토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빛나게 실현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을 수행하는 길, 오직 이 길만이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다.

우리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사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우리 세대에 미제를 쓸어버리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여야 할 숭고한 력사적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땅에 원쑤가 있는한 혁명을 계속해야 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혁명투쟁을 더욱더 정력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조건에서 자기앞에 부과된 성스러운 력사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진행하고있다. 우리의 혁명이 심화되고

우리가 혁명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적들의 사상적공세와 발광적인 전쟁도발책동은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현실은 우리 혁명이 심화발전되고 계급투쟁이 첨예화되면 될수록 당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 혁명력량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전당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도래할 혁명적대사변—이것은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이며 국제헌병이며 조선인민의 100여년의 피묻은 불구대천의 원쑤인 날강도 미제국주의를 쓸어버리는 투쟁이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가장 준엄한 혁명투쟁이다.

우리는 우리 당과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추호의 동요도 없이 힘차게 전진할 때 그 어떤 준엄하고 간고한 투쟁에서도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그러므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 이것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을 바쳐 투쟁할것을 결의하고나선 우리 공산주의자들,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가장 선차적인 과업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수행의 방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며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는 정치적수령의 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당원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당의 조직적의사인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다는것은 전당과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를 철저히 옹호하며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과 같이 숨쉬고 행동하며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을 말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일편단심 그이께 끝까지 충실한 혁명전사로 되는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으며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당의 혁명전사라는 긍지보다 더 큰 긍지는 없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기 위하여 우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고 모든 활동에서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실하려면 당과 수령이 내놓은 정책들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삼으며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구현되여있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곧 우리 당의 정책이다. 따라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에 충실하는 것은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의 사상의지대로 생각하고 움직일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재보

고 옳고 그른것을 갈라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는 현상과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선집》을 비롯한 수령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연구하며 구절구절 새겨가면서 그 진수를 파악함으로써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 당을 불패의 혁명적대오로 꾸림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장구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결국 혁명을 잘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혁명전통교양을 더 심도있게 하여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혁명전통을 학습한다는것은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혁명투쟁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처럼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준비되는것을 의미한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 이것은 우리 당의 뿌리이며 우리 혁명의 뿌리이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은 당의 뿌리인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만 전당이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고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실할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40여년간의 혁명투쟁력사에 대한 자료,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심오히 연구하여야 한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혁명의 시대에 상응하게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철저하게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혁명사상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의 력사적 및 민족적 임무와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조선혁명을 위하여 일편단심 몸바치려는 혁명적세계관과 로동계급의 조직성, 적극성을 가짐으로써만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수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를 부단히 수양함으로써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것이다.

*　　*

오늘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세대에 살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 이 성스러운 력사적임무는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고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전체 인민이 당주위에 굳게 결속되여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해나감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강령적문헌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5년 4월전원회의 13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당 중앙위원회 1955년 4월전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열세해가 지나갔다.

1955년 4월전원회의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전원회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전원회의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를 발표하시였으며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 《사회주의혁명의 현계단에 있어서 당 및 국가 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등 력사적인 보고와 결론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이 력사적인 문헌들은 우리 혁명승리의 길을 뚜렷이 밝혀준 위대한 강령적문헌들이다.

1955년 4월전원회의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소집되였다.

전원회의가 소집되던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인민경제복구사업이 활발히 진척되고있었으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었다.

한편 정전은 되였으나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맛본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계속 남반부에서 식민지략탈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혁명은 의연히 장기성과 간고성, 복잡성을 띠게 되였다.

국제적으로는 공산주의운동내에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그것을 등에 업고 터무니없는 반당수정주의적구호를 들고나왔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전후 조성된 국내외의 정세와 나라의 사회경제 및 계급관계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원칙들과 우리 혁명의 전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문헌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동원될수 있게 하였다. 1955년 4월전원회의에서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력사적문헌들은 조국의 통일독립을 촉진하며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실로 위대한 전투적강령으로 되였다.

1955년 4월전원회의의 력사적문헌들에는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다지고 우리 혁명을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완수하며 혁명을 잠시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 전

진시킴으로써 혁명의 종국적승리의 길을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철저한 혁명적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이 문헌들에는 또한 정권을 자기 손에 틀어쥔 로동계급의 당들이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시기에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과 그 성과적실현을 위한 원칙적인 방도들이 정연하게 천명되여있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1955년 4월전원회의에서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문헌들은 오늘 우리 당 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관철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전원회의에서 발표하신 테제에서 현계단에서의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심오하게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명철하게 제시하심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혁명발전의 전망과 그 종국적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을 위대한 승리의 길로 확고히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현계단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며 그 동맹자로 되고있는 남반부의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남반부인민들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통일과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달성하는데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483～484페지)

해방후 미제침략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조국의 북반부는 민주주의의 길로, 남반부는 반민주주의의 길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이 완수되고 점차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이행을 위한 과도기 첫시기의 과업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으로 인하여 일시중단되지 않을수 없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과도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기초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전후시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이리하여 전후시기에 공화국북반부는 사회주의기초를 본격적으로 건설하는 력사적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미제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였다. 남조선이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변된 조건에서 조선인민앞에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며 그의 동맹자로 되고있는 남반부의 지주, 매판자본가, 친미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남반부인민들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달성하여야 할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반동적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남북반부의 모든 애국적 및 민주주의적 력량을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워 그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전민족적투쟁에로 힘차게 궐기시키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우리 혁명의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질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북반부에 조성된

각이한 정치정세와 우리 혁명의 기본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조선혁명의 원칙지이며 조국통일의 결정적력량으로 되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현계단에 있어서 우리 당앞에 나선 기본임무는 로동자, 농민의 동맹을 더한층 강화하면서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쟁취한 성과들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데 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소상품경제형태와 자본주의적경제형태를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적경제형태의 지배적지위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하여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우와 같은 책, 488～489폐지)

전후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우리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요구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한데 기초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것이였다.

그것은 북반부의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유일하게 혁명적인 길을 밝힌것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시 아직 남아있던 사적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는것이였다. 당시 소상품경리와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하여 지체할수 없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경리와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생산력의 발전을 보장할수 없으며 인민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없다.》(우와 같은 책, 485폐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에서 중요한것은 농촌경리의 협동화이다. 그것은 농민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있는 나라들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길을 따라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개조를 진행하는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제기하고 정확한 계급정책과 실물교육 및 자원성의 원칙에 립각하여 사회주의적개조를 진행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농업협동화를 완성하였다. 수공업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도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도방조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해결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4월레제에서 제시하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과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되였다.

이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이 공화국북반부에서 극히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수될수 있은것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공업화의 중심

은 중공업의 선차적발전에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4월례제에서 이미 전후 첫시기에 제시하신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재천명하시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튼튼히 축성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자립성과 국가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민경제의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켰으며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 인민생활향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전후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과 인민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동시에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은 각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였으며 이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은 착취와 압박, 빈궁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전민족적, 전인민적 투쟁인 동시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사회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4월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주위에 집결된 전체 근로인민의 창조적열성을 동원하여야 하며 그들의 혁명적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각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며 이는 우리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임무를 제기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99페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게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특히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혁명은 의연히 장기성, 간고성, 복잡성을 띠고있으며 적들이 갖은 방법으로 썩어빠진 자본주의사상을 침투시키며 북반부에 숨어있는 반동적요소와 결탁하여 각종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 주위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당시 당 사상사업, 계급교양사업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임무의 요구에 미처 따라서지 못하였던 사정과 관련하여 더 절실하게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있는 당시의 조건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이룩해야 할 혁명발전의 요구, 과거 우리 나라 로동운동발전의 력사적특수성, 로동계급을 위시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내부형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계급교양사업의 기본방향을 천명하시였으며 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교양사업에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당원들이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함에 있어서 그것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현실에 적용할수 있도록 배워야 할것입니다.…

둘째로, 당학습에서 자체의것을 많이 배우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무들은 자체의것을 잘 배우려하지 않으며 마치 자체의것은 맑스주의와는 거리가 먼것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의것이 조선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산맑스주의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37~53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교양사업을 우리 나라의 생동한 현실생활 및 실지투쟁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연과 사회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세계관을 옳게 세우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높일수 있으며 그들을 제국주의 특히 미제와 착취제도를 증오하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로,조선의 공산주의자로 육성할수 있다.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과 적극적인 대책들에 의하여 당사상사업에서는 거대한 전변이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차게 추진시킴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전원회의에서 당내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중요한 과업과 함께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퇴치하고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4월전원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는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던 시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우리 당앞에 나섰던 모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지도적 지침으로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은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비상히 높일것을 요구한다. 더우기 전후시기에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고 전체 인민들의 정치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전원회의의 보고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이 옳게 수립된 다음에는 사업의 성과적수행여부는 일군들의 실지 사업방법여하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18페지)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열성과 적극성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험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인 일군들의 관료주의적사업작풍과 형식주의적 사업방법을 퇴치함이 없이는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수 없으며 대중의 정치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당정책관철에로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관료주의의 본질과 근원, 그 극복을 위한 투쟁방도를 전면적으로 명시하심으로써 반관료주의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관료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관료주의, 이것은 봉건제도나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지배계급들의 반인민적통치방법입니다.》(우와 같은 책, 519페지)

관료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 사회제도하에서의 령도방법과 작풍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관료주의는 문자그대로 관료행동이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일군들의 혁명사업에서는 도저히 용인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은 다 인민이 선출

한 일군들이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군이다.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것은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사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관료주의는 당시 우리 나라 경제체계에 아직 남아있었던 자본주의적요소의 영향과 일제통치가 남긴 낡은 사상의식의 잔재이며 그 사상적근원은 개인리기주의, 출세주의, 고용자적노예근성 등에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관료주의의 본질, 근원, 표현형태들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실무능력이나 성격상문제가 아니라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사상의 표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에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개인리기주의, 출세주의, 고용자적노예근성 등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에게 맑스—레닌주의사상과 사업방법을 체득시키고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발양시키고 모든 사업에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킬것을 중요하게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점차 혁명적사업기풍이 확립되게 되였으며 이것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더욱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전원회의의 결론에서 당내 종파문제와 그 발생근원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내종파주의적요소를 철저히 극복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며 당의 전투력을 일층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항상 최대의 관심을 돌리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려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함으로써 당의 통일을 수호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4월전원회의에서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개인영웅주의 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전당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면한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경제절약과 재정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명시하시면서 일군들이 난관앞에 동요하지 말고 혁명가답게 계획실행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며 기업관리수준을 더욱 높이고 국가, 경제 기관들에서 강한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전원회의에서 우리 혁명이 제기하는 기본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부단히 촉진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이 승리적으로 실현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전반적으로 승리한 결과 로농동맹은 새로운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공고화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북반부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튼튼히 다져졌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관철하려는 혁명적기풍과 창조적열의가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와 착취계급, 착

취제도를 증오하고 그들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려는 그들의 계급적각성이 더욱 높아졌다.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이 전개됨으로써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은 가일층 높아지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긴밀해졌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는 비상히 높아졌다.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전당적인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확립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장성 강화되였다.

* *

김일성동지께서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를 비롯한 강령적문헌들은 오늘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의 4월테제에서 명시된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아직 완전히 수행되지 못한채 남아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계속 남북으로 갈라진채 남아있으며 새로운 한세대가 자라나도록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속에서 온갖 정치적무권리와 참을수 없는 민족적모욕과 멸시를 강요당하고있으며 기아와 빈궁 속에 허덕이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이 참경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다.

우리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우리 강토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할데 대한 4월테제가 제시한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공화국북반부는 전국에서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기지이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은 전조선혁명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남조선해방과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하루속히 완수하는것은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을뿐만아니라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우리는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하루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조선혁명의 원천지인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촉진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보다 튼튼히 다져야 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오늘 조성된 첨예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킬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확고히 무장하며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그이의 가르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

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사업 특히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중요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력사적인 4월전원회의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 특히 날강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착취제도의 본질을 더욱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쑤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제국주의자들과 적대계급들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고 그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암해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며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일체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개선하여야 한다.

당 및 국가경제 기관 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우리의 군사적위력을 일층 강화하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 한층 튼튼히 하여 어떠한 사태에도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갖 안일성과 해이성을 단호히 배격하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더욱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며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수령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높은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야 한다.

김일성동지에 의한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그의 강화발전

최 근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항일유격대 창건 36주년을 맞으면서 그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들끓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극도에 달하여 조선혁명의 전도가 극히 암담하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가장 정확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친히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실로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찬란한 투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 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인민무력건설, 반일민족통일전선의 실현,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와 같은 풍부하고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인민적사업작풍과 혁명적사업방법등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우리 당의 이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함으로써 오늘의 천리마조선을 건설하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로정과 불멸의 업적을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며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서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하던 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이고도 면밀한 조직준비사업에 기초하여 친히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하여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조직전개되였다. 인민들은 의병투쟁, 독립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20년대에는 맑스—레닌주의의 영향밑에 로동자, 농민 운동을 비롯한 대중적반일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은 혁명의 령도자와 옳은 전략전술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유일한 사상으로 단합된 혁명력량을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승리할수 없었다.

1920년대말～1930년대초 일제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출을 전대미문의 군사적폭압으로 억누르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으며 합법적활동의 온갖 가능성마저 완전히 말살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로동자, 농민들은 폭력적투쟁으로

일제에 항거하였다.

우리 인민이 앉아서 죽느냐, 일어나 싸워 승리하느냐 하는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 모든 사람들은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향도할 탁월한 수령과 현명한 령도를 그 어느때보다도 목마르게 기다렸으며 하나의 통일된 력량으로 굳게 뭉쳐 일제를 반대하는 결정적투쟁에 나설것을 한결같이 열망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 선행한 모든 투쟁의 교훈과 조성된 혁명정세,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형편과 계급적 제관계 그리고 적아간의 력량관계 등을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위한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힘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봄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우리의 당면목적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는데 있다는것, 그런데 우리의 투쟁대상인 일제는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이며 놈들은 원료원천지, 상품시장인 조선을 자기들의 제일생명선으로 여기면서 당금 중국을 침략하는데 병참기지로 리용하고있으므로 스스로 물러나가지 않는다는것, 그리고 외국의 원조로써는 절대로 독립을 찾을수 없으며 유일한 길은 우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와 맞서 싸워이기는것인데 그러자면 무장투쟁을 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적의 힘을 과대평가하여도 안되지만 결코 과소평가하여도 안되며 강한 적과 싸워이기자면 우리의 힘을 빨리 길러야 한다는것,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선 로농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앞으로 조직하게 될 무장대오의 핵심을 길러내야 하며 혁명력량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충돌과 희생을 삼가하여야 하지만 실지투쟁을 통하여 단련하고 또한 전략전술도 연구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 혁명의 승리가 저절로 올것이라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장으로 일제를 타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힘을 빨리 길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침은 가장 정확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이였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은 무장한 반혁명을 혁명무장으로써 타승하며 조선혁명은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혁명로선이였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조선혁명의 전도가 지극히 암담하던 시기에 우리 인민을 광명과 승리에로 향도한 유일하게 정당한 혁명로선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현명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무장대오결성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전개하시였다.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극도에 달하여 온나라가 하나의 감옥으로 전변되였던 당시의 환경에서 무장대오를 조직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였다.

무장대오의 조직적골간과 무장장비, 그리고 그가 의거할 대중적지반 등 그 어느것이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서만이 해결될수 있었다. 혁명을 령도할 맑스—레닌주의당도, 주권도 없었으며, 일제의 잔인무도한 탄압으로 인하여 혁명력량은 심대한 손실을 당하였으며, 단련되고 준비된 군사정치간부가 없었다. 종파분자들은 조선공산당의 해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대신 더러운 정치적 야욕을 추구하면서 계속 파쟁을 일삼았

으며 많은 민족주의자들은 타락하여 일제에게 투항하거나 그의 앞잡이로 전락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어려운 난관과 시련 속에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하였던 명철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창조적이고도 독창적인 방법으로 1930년 여름에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의 핵심들로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시였다.

조선혁명군은 광범한 지역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대중을 혁명화하며 유격대오의 후비를 육성하고 무장투쟁에 필요한 군사지식과 전술적경험을 쌓으면서 무장소조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신이후 무장투쟁의 첫시도로 조선혁명군의 무장소조들 국내에 파견하시였다. 동시에 무장소조를 만주각지에 파견하시여 무장대오의 골간을 꾸리며 농촌을 혁명화하여 무장투쟁의 지반을 꾸리시기에 온갖 정력을 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31년 《9.18사변》이후 송강 당조직 및 군중단체 책임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무장을 잡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무장을 잡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앉아서 한탄하거나 적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보고 아우성이나 치는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들은 일어나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전면적인 무장투쟁에로의 이행을 당면하게 절실한 문제로 인정하시였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항일유격대를 창건할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은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에 의거할수 없었던 조건에서 무장투쟁을 유격전쟁의 형식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출발한 가장 정확한 방침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이후 조선혁명군을 중심으로 항일유격대의 골간을 꾸리기 위하여 농촌지대에 진출하시여 지하공작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군을 각지에 파견하시고 그 사업을 지도하시는 한편 친히 반일대중단체를 조직하시고 혁명적출판물을 발간하시여 광범한 농민대중을 혁명화하며, 반(半)군사조직을 형성하시고 그 성원들을 군사정치적으로 준비시키는 등 실로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이 시기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을 갖추기 위한 사업도 직접 지도하시였다.

무장을 갖추는것은 무장대오결성을 위하여 가장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당시의 형편으로서는 현대적공장에서 무기를 생산할수도, 그 어데서 구할수도, 넘겨 받을수도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가장 정확한 무장해결방도를 제시하시였다.

《무기는 어디서 구하는가? 돈이 있으면 살수도 있고 또 만들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길은 적의 무기를 빼앗는것이다. 지혜를 짜내고 장소를 택하여 목숨을 두려워 안하고 나서면 한사람한사람이 자기가 잡을 무기는 해결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침은 당시의 조건에서 무기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된 가장 정당한 무기획득방도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무한히 고무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군중은 힘과 지혜를 모아 맨주먹으로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고 그것을 밑천삼아 또다시 원쑤를 치고 무기를 노획하여 무장대오결성준비를 촉진시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정력적이며

능숙하고도 면밀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1932년 4월 25일 조선혁명군을 비롯하여 반제청년동맹, 공청조직들에서 다년간 친히 육성하신 공산주의자들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그를 세상에 공포하시였다.

항일유격대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항일유격대가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에 대항하며 조선민족의 리익을 수호하는 강유력한 혁명군대를 가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건하신 항일유격대는 그 어떤 자본주의국가의 군대나 종전의 의병대, 독립군 등 일체 낡은 군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형태의 군대였다.

항일유격대는 우리 나라의 선진적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구성되였으며 인민의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완전히 실현할것을 자체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는 조선로동계급의 혁명군대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원쑤를 물리치는 용감한 전투원으로서만 아니라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반일투쟁에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자였으며 조직자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친히 창건하시였을뿐아니라 그를 직접 령도하시여 조선혁명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그 과정에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이처럼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결정적요인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였다. 그이께서는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무장투쟁의 매단계마다 현명한 투쟁방침과 방도들을 밝히시고 항일유격대원들과 전체인민들을 혁명승리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만이 조선혁명의 전도를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그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유일하게 정당하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그이의 두리에 한결같이 단합되여 그이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였으며 그이가 계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전체 유격대가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한것은 항일무장투쟁과 조선혁명전반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였다.

* *

항일유격대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교양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자기 대오를 부단히 확대하면서 백전백승하는 인민무력으로, 조선로동계급의 정치적 혁명군대로 강화발전되였다.

항일유격대를 급속히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항일무장투쟁의 확대와 조선혁명전반의 승리를 보장하는 절박한 요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만주일대의 광활한 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확대강화하여야 하며 점차 력량을 축적하면서 앞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국경지대와 나아가서는 조선국내에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수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신 첫날부터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튼

튼히 준비된 맑스—레닌주의적혁명군대로 꾸리는데 가장 큰 관심을 돌리시였다.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그의 전투적위력을 강화하는 기본담보였다.

항일유격대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위한 혁명군대로서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됨으로써 부대내에서 상하간, 동지호상간의 혁명적우애를 강화하며 강철같은 자각적혁명규률을 수립하고 장기간의 투쟁속에서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시련을 극복타개하는 불굴의 혁명대오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또한 인민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의 실현에로 조직동원하는 혁명투사로 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유격대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킴이 없이는 장기적이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대원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더우기 항일빨찌산은 단지 적과 싸우는 전사일뿐만아니라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가 되여야 하며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조직자가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군사간부들은 전투도 잘 지휘하여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대원들의 정치교양사업에도 큰 관심을 돌려야 하며 자신을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의 이 가르침을 받들고 언제 어데서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단련되기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들은 우선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서나 그것을 자로 삼아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는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단련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였던것은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에게 항상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을 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의 이 가르침을 모든 행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조선혁명은 오직 조선인민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완수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였으며 혁명의 전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대국주의자, 사대주의자, 종파분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시종일관 견지하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끈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사상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주체사상과 함께 일제와 그 주구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조국과 인민, 자기의 계급, 그리고 전세계로동계급을 무한히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함으로써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더욱 높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원들을 이처럼 교양하기 위하여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친히 그 모범을 보이시고 집중학습과 개별학습 조직을 강화하여 그들의 정치의식수준을 부단히 높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의 정치교양사업을 친히 지도하시였을뿐아니라 무장대오를 확대하는 사업에서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이미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무장투쟁과정에서 새대원들을 계속 흡수하여 우리의 대오를 부단히 확대하여야 한다. 유격근거지들에는 적파의 싸움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이 적지않다. 이들을 유격대에 받아들여서 훌륭한 혁명전사로 육성하여야 한다. 우리의 유격활동지역내에는 다수의 광산, 림업 로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유격대오를 장성시킬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

로동자들속에서 정치적으로 단련된 동무들을 혁명조직을 통하여 유격대에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무장대오확대방침에 따라 유격대원들은 근거지의 공산당조직 및 공청조직과 반(半)군사조직성원들을 무장대오확대를 위한 후비군으로 준비시키며 유격활동구역내의 광산, 림업 로동자들속에서 단련된 동무들을 받아들이여 유격대를 질적으로 튼튼히 꾸리였다. 또한 개별적으로 입대를 자원하는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받아들였다.

항일유격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은 특히 소할바령회의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유격대의 간부화방침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을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는 사상과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으로 무장시킴으로써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된 혁명군대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시고 그 사업을 친히 지도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위한 하나의 숭고한 사명을 위하여 결속된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었다. 그들은 인민을 교양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의 실현에로 조직동원하여야 하였으며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과 혈연적련계를 강화할데 대하여 항상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침을 모든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인민을 존경하고 인민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자신의 불행과 고통으로 여기면서 인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였다. 또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아끼고 철저히 보위하였으며 그처럼 어려운 나날에도 인민의 일손을 도왔다. 또한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하신 수령의 가르침을 받들고 인민대중의 준비정도에 알맞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기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인민대중을 가르쳤을뿐아니라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웠다.

이처럼 항일유격대는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로 자신을 단련하고 세련시킴으로써 인민들의 극진한 사랑과 지지를 받을수 있었다. 인민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을 혈육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들의 군사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일이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인민에 대한 항일유격대의 무한한 사랑과 충실성, 항일유격대에 대한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이것은 그 어떤 군대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으로 자라났으며 항일유격대를 대중적지반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킨 확고한 기초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동시에 군사기술적으로 무장시키는것을 무력건설과 그의 강화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기울이시였다.

혁명무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대원들의 정신상태와 함께 그들의 군사기술적준비를 부단히 완성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항일유격대가 현대적무장과 기술로 장비한 일제를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급속히 확대해야 하였던 당시의 조건에서 하루도 지체할수 없는 절실한 문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친히 독창적인 유격전술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격대원들을 높은 군사지식과 군사기술로 무장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집중과 분산, 적극적방어와 적후방교란, 기묘하고 명활한 유인매복, 광활한 지대에서의 대기동전술 등 그 어느것이나 다 적에게 약점을 조성시키면서 전장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백전백승하는 실로 신출귀몰하는 유격전술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 독창적인 유격전술로 대원들을 무장시키면서 항일유격대의 전투준비를 부단히 완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매개 전사들과 지휘원들은 반일유격전쟁의 전략전술과 전투경험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유격전쟁의 지휘능력을 제고하며 자기 무기에 정통하며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자체를 단련하여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재를 대량 소멸하며 원쑤들에게 조그마한 안정도 주지 말아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일제침략자들과의 치렬한 전투속에서 필요한 군사지식과 군사기술을 체득하였으며 무기에 정통하고 사격술을 련마함으로써 부대의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하였다.

유격근거지보위를 위한 전투, 보천보전투와 무산지구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 북만, 그리고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의 대기동작전에 의한 모든 전투에서 매번 승리한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천재적인 유격전술, 높은 군사지식, 군사기술로 무장한때문이였다.

항일유격대는 특히 소할바령회의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유격대의 간부화방침에 따라 군사기술적준비를 더욱 완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높은 군사지식과 군사기술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유격대의 무장장비를 강화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무장장비의 강화가 군사예술의 변경에 가져오는 중요한 의의를 강조하시면서 더많은 무기를 로획하여 유격대의 전투력을 급속히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의 가르침을 받들고 원쑤를 소멸하는 가렬한 전투에서 무기를 로획하는 한편 《연길폭탄》을 비롯한 각종 폭탄과 무기를 자체로 더많이 만들어 무장장비를 부단히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1935년에 이르러 그 량적수요를 완전히 충족시켰으며 1936년 이후시기에는 부단히 새무기로 교체하면서 자체의 무장장비를 일층 강화하였다. 1940년대에는 각종 현대적무기로

장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가올 혁명적 대사변과 정규군창건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무장의 예비를 조성하는데 주의를 돌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의 무장장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대내 자각적인 혁명규률을 확립하여 전투력을 일층 제고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에게 항상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혁명군의 전통적인 자각적규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자각적규률은 우리의 단결을 도모하는것으로서 전투력의 원천이며 우리 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불타는 투쟁정신을 안고 무장대오에 참가한 자각적혁명가들이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부대내에서 혁명규률을 엄수하는것을 수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는 징표의 하나로, 혁명가들이 응당 지켜야 할 고귀한 품성으로 간직하였다.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그의 강화발전의 일단을 보여주는 이상의 모든 성과들은 실로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의 결과였다.

* *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킨 인민무력건설의 고귀한 경험은 해방후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하고 15성상 일제와 싸워이긴 항일빨찌산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됨으로써 미제와 15개 추종국가의 침략군대를 쳐물리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오늘 그 어떤 원쑤도 물리칠수 있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이것은 오직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그이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하에 그이께 무한히 충실하였던 항일빨찌산들이 부대의 골간을 이루고있음으로 하여 달성된 빛나는 성과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으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하고있는 조선인민은 무한히 행복하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위대한 승리에로 령도하신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를 심오히 학습하고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조선인민의 가장 큰 영예로 되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열렬한 흠모

김 경 현

오늘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56주년을 뜻깊게 맞으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그이를 위해서라면 일편단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려는 불같은 충성심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40여년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인도하시였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그처럼 복잡하고 간고한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사소한 좌우경적편향도 없이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할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의 조국의 광복도, 우리 당과 인민주권의 창건도, 우리가 누리고있는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도, 나라의 장래 번영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을 세상에 더없는 영광으로, 민족최대의 자랑으로,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존과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도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와 충성심이 끓어번지고있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통일된 조국땅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미제와 박정희 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속에서도 그이의 가르침따라 굴함없이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다.

1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한결같이 김일성동지를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로,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으로 우러러보면서 그이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 열렬한 흠모와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간고한 생활속에서나, 새생활을 위한 투쟁의 시련속에서나 항상 김일성동지를 자기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태양으로, 민족의 위대한 수령으로 우러러보면서 희망과 용기와 승리의 신

심을 얻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그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의 일념으로 충만되여있기에 그처럼 삼엄한 파쑈적폭압속에서도 그이의 초상화와 공화국기발을 소중히 간직하고있으며 서로 모여앉거나 바다에 나가면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고있다.

우리 인민은 가장 행복할 때에도 가장 어려울 때에도 수령에 대한 흠모의 정이 넘쳐흐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는 암운이 드리운 남녘인민들에게 투쟁의 용기를 북돋아주며 래일에 대한 굳은 신념을 안겨주고있다. 지난날 남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원쑤와 용감히 싸워왔고 오늘도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이 노래에서 래일의 승리를 확신하고 굴함없이 싸우고있다.

김일성동지를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우러러 받들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감옥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대중앞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대전일보》에 의하면 충청남도 대전시에 사는 한 애국청년은 작년 8월 31일 시내 류천동앞길에 모여있는 군중들앞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존경하며 흠모하는 자기의 심정을 말하면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두 청년도 지난 2월 9일 뻐스안의 손님들앞에서 《나는 김일성장군을 지지한다.》고 소리높이 웨치면서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의 정을 표시하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무한히 칭송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유일한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철저한 주체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며 그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일뿐아니라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커다란 기여를 한 사상으로서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끌며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대로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통일방침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조선문제해결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통일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자주적립장을 계속 확고히 견지할것입니다.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그것은 전조선을 외래침략자들의 손에 내맡기려는 매국배족행위라고 인정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에 의하여 해결될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입니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2~18페지)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명시하신 자주통일방침을 한결같이 지지하고있다.

최근 일본에 건너간 남조선의 한 주민은 《조선신보》에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수상님이 발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은 남녘땅의 모든 겨레들에게 조국통일의 확고한 전망과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김일성수상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사상은 우리 민족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척할수 있다는 정신을 나에게 주었

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민족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20여년동안의 쓰라린 생활체험을 통하여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결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오직 민족주체적힘에 의해서만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점차 깨닫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자위로선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열렬한 지지를 표시하고있다. 그들은 우리의 영웅적인민군이 자위적조치로 날강도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사로잡은데 대하여 《인민군대가 양코배기코대를 꺾어놓았다. 빈깡통같은 놈들, 큰소리는 쳐도 인민군앞에서 꼼짝 못한다. 정말 북반부인민들과 인민군대는 당당하고 떳떳하다.》 이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도 《김일성수상님의 자주,자립, 자위의 혁명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알수 있다고 말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쥐고있으며 그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북반부인민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무한히 동경하면서 그이의 슬하에서 행복하게 살것을 열렬히 갈망하고있다.

지난날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강도일제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크나큰 뜻을 이룩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창건하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주적인 혁명로선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대로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모범으로 되고있으며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동경과 찬양을 불러일으키게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자립,자위의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힘있게 령도하시였기에 우리는 날강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 대국주의자들의 압력도 짓부시고 오늘과 같은 위대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우러러보며 말하고있다.

《김일성수상님이 정치를 잘하시여, 백성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자식을 공부시킬 걱정, 아무걱정없는 희한한 세상이 이북세상이다.》

《김일성수상님이 령도하시는 이북정치는 제일 좋은 정치이며 우리도 그이의 정치를 받아야 잘 살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북반부인민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수 있었으며 민족적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참을수 없는 무권리와 빈궁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륭성발전하고있는 진정한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래일의 행복을 확신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높은 덕성과 고상한 인민적사업작풍을 겸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받들면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전국방방곡곡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 어촌들을 몸소 찾으시여 항상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이 나갈 방향을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고계신다.

김일성동지의 높은 덕성과 고상한 인민적사업작풍은 남조선인민들속에도 널리 알려져있으며 수령에 대한 그들의 흠모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고있다.

일본에 건너갔던 남조선의 한 주민은

조국에서 보내온 기록영화를 보고 김일성동지의 높은 덕성에 대하여 자기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수상님은 참말로 만백성을 위한 정치가이시다. 기록영화에서 그분이 공장과 농촌을 찾아다니시면서 로동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고 담화하시며 농민들과 함께 콩깍지를 까시며 국사를 의논하시는것을 보니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지도자도 많지만 경애하는 우리의 수령과 같이 항상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이처럼 높은 덕성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겸비하신 수령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있다.

그러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을 세상에 더없는 영광과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수령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다.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승불패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와 높은 덕성은 아침해살과도 같이 암흑속에 있는 남조선인민에게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날을따라 높아가고있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무한한 흠모와 신뢰의 정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것으로서 그 뿌리가 깊다.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에게는 물론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속에까지 굳건히 간직되고있는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흠모의 정은 오직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지난 40여년간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언제나 승리를 확신하고 그이의 부름따라 승리와 영광의 대로를 달려온 조선인민이 그이를 우러러 따르는 오랜 력사적과정에서 생겨나고 굳어진것이다.

이미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백두의 밀림속에서 강도일제와 영용하게 싸워이기신 이야기는 전국각지에 널리 전해져있었다. 당시 남조선인민들도 남녀로소할것없이 모여앉기만 하면 《그이는 축지법을 써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일본놈들을 족치고계신다.》, 《판부련락선 천정에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장군 만세!라는 글발이 나붙었다.》등 이야기의 꽃을 피우면서 그이를 무한히 흠모하였다.

당시 수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흠모의 정이 얼마나 드높았는가는 일제의 소위 여론조사에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해방전에 발행된 일제의 어용출판물 《조선신화》에 의하면 어느 한 소학교에서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생을 모아놓고 우리에게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인가고 무기명으로 투표시켜본결과 《놀랍게도 그의 67%가 김일성이라고 써여있었다.》고 한다.

해방후에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김일성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은 매우 높았다. 그이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신뢰와 흠모의 정은 남조선출판물에까지 반영되였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발행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는 《김일성동지의 활약은(항일무장투쟁시기에 대한것을 말함) 그야말로 종횡무쌍하였으며 혁명운동토상에 쌓아올린 공적이 허다하여 금일의 그이의 이름은 세계사에 한 자리를 잡아도 손색이 없게 되였다.》고 썼다.

탁월한 령군술과 령활한 전법으로 일본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게 하시였으며 해방후 조선인민군과 인민을 령도하시여 미제침략자들을 무찌르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현대의 기적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은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쥐고 있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찬란한 성과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자신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야말로 진정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어버이심을 가슴깊이 느끼며 그이를 무한히 흠모하게 되였다.

오늘 북반부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 자녀교육과 병치료에 대한 아무런 근심도 없이 무한히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살기 좋은 사회주의제도—공화국북반부는 새정치, 새제도, 새생활을 갈망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의 등대이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더는 그대로 살래야 살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신의 비참한 생활체험과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오직 남녘땅에서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그 주구들을 타도하며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북반부와 같이 인민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함으로써만 오늘의 저주로운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을 직접 맛본 남조선인민들은 수령과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흠모하고 동경하게 되였다.

그 당시 남조선의 한 신문은 그때 남조선인민들의 심정이 얼마나 감격적이였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인민군의 진격에 의하여 농민들의 숙망은 실현되였으며 그 숙망실현에 감격한 농민들은 토지개혁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김일성수상님께 보낸것이 지난 2일간만 해도 3천여장에 달한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전대미문의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자기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항상 정확한 투쟁방향과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자기들을 하루속히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계시는데 대하여 진정 어버이수령임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그이를 더욱 흠모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조선동포들이 겪고있는 이 참경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결코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있는 이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22～2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면서 동시에 날강도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않으시고 항상 동포애적배려를 돌리시였으며 그들에게 매시기의 투쟁과업을 정확히 제시해주셨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반부에서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고 세멘트공장 하나를 세워도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할것을 구상하시였으며 방직공장 하나를 짓고 농촌마을을 하나 설계하실 때에도 도탄속에 헤매는 남조선동포들을 구원할것을 심려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는 남조선인민들속에 깊이 미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와 신뢰의 정

은 날이 갈수록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서 더욱더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근 9만에 달하는 재일 조선공민들이 수령의 따뜻하고 넓은 품속에 안겨 행복하게 사는것을 통하여 더욱 사회주의제도를 동경하며 어버이 수령을 흠모하게 되였다.

일본으로부터 공화국북반부에 귀국한 동포들의 절대다수는 남조선에 고향을 두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조선으로 가지 않고 북반부로 왔다. 이 엄연한 사실앞에서 남조선인민들은 과연 어느 제도가 우월한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께서 령도하시는 길, 공화국북반부가 나아가는 승리와 영광에 찬 길에서 통일된 래일의 조국, 자기들의 앞날을 내다보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외국의 벗들도 무한히 신뢰하며 찬양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커다란 민족적긍지를 느끼면서 그이를 무한히 흠모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40여년간 우리 당과 인민을 위하여 세우신 불멸의 업적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하신 탁월한 리론실천적공헌으로 하여 전세계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높은 존경을 받고계신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수상은 조선혁명을 위해서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을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적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시다.》라고 자기들의 끝없는 흠모와 존경의 뜻을 담아 이야기하며 우러러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그이께서 전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높은 찬양과 존경을 받고계시는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적긍지를 느끼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우리 인민의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있으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이처럼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것으로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사상감정으로 되고있다.

3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날이 갈수록 《이북의 기치를 들고 김일성수상님의 주위에 뭉쳐 궐기해야 한다.》는 지향이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이 지향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흐름이다.

지금 이 흐름은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그이의 정치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더욱 거세여지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충성심, 그이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살아보려는 불타는 지향―이것은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속에 뿌리깊이 박힌 신념이며 그들에게 불굴의 투지와 용감성을 안겨주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조선혁명조직대표는 항상 위대한 수령과 북반부를 우러러 승리의 신심을 다지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화국북반부와 김일성수상님에 대한 사랑과 동경, 이것은 전체 남조선인민을 하나의 의지와 하나의 지향으로 결속하여주는 위대한 기발입니다.

이 기발이 있기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남조선인민들은 그 처절한 피마당속에서도 굴함이 없이, 멎음이 없이, 또 길을 잃지 않고 날과 더불어 더욱더 단결되여가면서 싸워나올수 있었던것입니

다.》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으로부터 4월봉기와 3.24~6.3투쟁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투쟁은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에 대한 그들의 열망과 혁명적투지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보여주었다.

오늘도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지어는 감옥에서까지 수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서울의 많은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수년전부터 독서회를 무어 조선로동당력사와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돌려가며 읽었으며 공산주의교양강좌를 조직하여 진리를 연구체득하기에 노력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수령 김일성수상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각각 공화국기발을 가슴에 품고 《나의 생명을 바쳐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결의를 다지였다. 그리고 그들은 지하당조직을 만들 계획을 세워 이를 서울대학교내에 확대하려 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참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애국적인것이다.

특히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발톱까지 무장한 원쑤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 투쟁은 날강도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폭압을 분쇄하고 민족해방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오늘 날강도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심장마다에는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심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남조선인민투쟁에 더욱더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으며 원쑤들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전변되고있다.

그러나 날강도 미제는 우리 강토에서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을것이며 력사는 침략자들이 자기가 차지한 진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실례를 알지 못한다.

민족적, 계급적 원쑤들과는 오직 무자비한 투쟁이 있을뿐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은 오직 자기자신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날 때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쳐부실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이 굳게 뭉쳐 혁명투쟁에 용감하게 떨쳐나선다면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능히 타도하고 남조선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1~22페지)

남조선인민들은 수령의 이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적투쟁과 비폭력적투쟁, 합법적투쟁과 비합법적투쟁 등 모든 형태의 투쟁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이다.

승리는 남조선의 해방과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하여 일편단심 수령의 가르침따라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편에 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통일된 조국땅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한 지향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것이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김일성동지께서는 40여년에 걸쳐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서 혁명과 건설의 수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시고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가장 정확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도 바로 그러한 문제중의 하나로서 이것은 그이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확고히 견지하신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가장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실천적경험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로동운동의 발전과정을 천재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길을 천명하시였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문제로서 혁명실천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대한 탁월한 기여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대표자회에서 이 위대한 방침을 제기하시고 그것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한 제반 원칙들과 구체적인 방도,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대표자회 이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더욱 구체화하시고 사회의 각계급, 계층에 따르는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중요한 내용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으며 특히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대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제반 원칙들, 그 사상의 혁명적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이끌어가며 현시기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이 위대한 혁명적방침과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모든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가일층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전사회, 전체 근로자들을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꾸리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힘차게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1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대표자회에서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대한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시였다: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아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하여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을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개조하여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습니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며 전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입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66~6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내리신 이 고전적인 정식화속에는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본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과 관련되는 일련의 귀중한 사상이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정식화하신 이 사상의 거대한 의의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처음으로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정확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공산주의건설의 하나의 합법칙적요구로 된다는것을 천명하신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히심으로써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한 이후에 있어서의 맑스―레닌주의당이 수행하는 혁명과 건설의 계급적성격,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와 역할을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맑스―레닌주의당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 모든 로선과 정책을 하나의 뚜렷한 계급적목표에로 지향시킬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좌우경적편향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공산주의에로 가장 정확하게, 확고하게 도달할수 있는 길을 명시하시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해놓은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데서 하나의 뚜렷한 전환점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사명이 완성된것은 아니며 그 기본적인 사업이 끝난것도 아니다.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으로써 착취계급은 청산되였으나 국내에는 아직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에 따라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사회를 자기의 리상대로 개조하면서 공산주의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더욱 방대하고도 어려운 력사적임무를 수행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착취계급이 청산된 이후 사회에 아직 남아있게 되는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를 어떻게 없애며 어떠한 길을 통해서 무계급사회에 도달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명백히 주어져있지 않았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대한 방침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계급적본질을 정확히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명백한 해답을 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을 페절하는 과정이 다름아닌 사회의 로동계급화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다시 말하면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해나아감으로써 계급적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로동계급화를 통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앨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철저히 보장하며 사회를 개조해나아가는데 있어서 로동계급이 확고한 기준으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이 강조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령도를 약화시키거나 자신을 다른 계층들속에 용해시킴으로써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다른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으로 개조하여 나아감으로써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그의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67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침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계급적차이를 없애는데 있어서 로동계급은 우선 자기의 계급성,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계급으로서 자체를 부단히 완성시켜야 하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령도적역할을 일층 높이고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해나아가기 위하여 사상, 문화, 기술 혁명을 완강하게 추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로동계급은 실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물질적요새와 정신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자기의 리상에 따라 사회를 무계급사회에로 이끌어갈수 있다.

계급적차이를 없애는데 있어서 로동계급을 확고한 기준으로 삼으며 그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현시기 일정에 오른 일련의 리론실천적문제들—사회주의적개조이후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역할과 그 임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문제, 친선적계급들사이에 남아있는 계급적차이의 본질과 그 극복방도,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계급적내용 등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주고있다.

여기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는 계급적차이를 없애는데 있어서 생산력을 발전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로동조건의 차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의 차이를 없애는것과 함께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력히 전개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요소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문화, 도덕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는것이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개조하며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풍부한 물질적부를 생산하여도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없으며 공산주의건설의 종국적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로동조건의 차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의 차이를 없애는것과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과 도덕, 문화와 기술 수준에서의 차이도 점차 없애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부르죠아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뽑고 모든 근로자들을 집단과 전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우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동시에 문화혁명을 전개하여 그들을 높은 문화기술수준의 소유자로 만들어야 합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26~27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가르침에서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기본방도와 더불어 맑스—레닌주의당이 육성해야 할 인간, 즉 공산주의적인간이란 어떠하여야 하며 그러한 인간을 어떻게 교양해내겠는가 하는데 대한 명백한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며 그 사회에서 살게 될 인간은 경제문화생활령역에서, 사상도덕적풍모에서 다름아닌 로동계급적인간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즉 공산주의적인간을 교양육성한다는것은 로동계급의 세계관을 확고히 소유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투쟁하며 로동을 가장 신성한것으로 여기고 로동하기를 즐기며 전체를 위한 공동로동에 헌신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을 길러낸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온갖 봉건적 및 부르죠아적 사상독소로부터 해방되여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열렬한 혁명가라는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교양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혁명가를 길러내는데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교양의 계급적성격과 방도가 명백히 제시되여있다. 이것으로써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신적요새의 내용과 목표, 그 점령방도를 처

을으로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서 공산주의적인간을 교양육성하는것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많은 지식을 소유시킴으로써 해결되는것이 아니라 계급사회에서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낡은 사상독소, 즉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로동계급적관점, 견해, 관습, 생활양식 등을 배양하는 전면적인 사상혁명, 문화혁명의 과정, 혁명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사상혁명을 거치지 않고서는 낡은 사상잔재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의 로동계급화과정을 촉진하며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며 그들을 단결시킬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생활이 향상된다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와 단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진과 함께 사상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인내성있게 진행하여야만 실지로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할수 있으며 굳게 결속시킬수 있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74페지)

이 가르침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자를 교양육성하며 튼튼한 혁명대오를 꾸리는데 있어서 사상혁명은 필수적요구라는것을 강조하시였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조건하에서만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정신적 및 물질적 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된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사상혁명을 홀시하고 물질적부의 일정한 증대가 사람들의 사상의식개변을 스스로 동반하게 될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지 않는다면 그로부터는 불피코 부르죠아적요소들이 내부에서도 소생하고 외부로부터도 거침없이 침습할것이며 구경에 있어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자체를 엄중한 위험에 빠뜨려 넣으리라는것은 명백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당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가장 책임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확고히 틀어쥐고 전체 근로자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하는것이다.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라면 맑스—레닌주의당은 응당 사상혁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것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밀접히 련결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대한 방침의 정당성과 의의는 다른 측면으로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사상적개조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면서 이것과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을 통일속에서 진행할것을 가르쳐주신데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는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하여서는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력히 전개하여 사상문화령역에서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부단히 공고화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관계와 로동조건을 로동계급의 그것과 통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강조되여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사회성원들에 관한 문제이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은 이들을 혁명화하는데 직접 복무한다. 기술혁명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자체는 자연개조의 과정으로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처지, 로동조건 등의 변화를 통하여 그들의 의식에 작용한다. 따라서 기술혁명은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로동조건의 차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개조를 위한 조건을 조성해준다.

그러므로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동시에 문화혁명을 강력히 전개하며 여기에 기술혁명을 배합하여 이것들을 호상 밀접한 통일속에서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 있어서 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그들에게 현대적기계로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수 있도록 로동조건을 부단히 개선해주는것이 중요하다. 사상혁명이 문화혁명, 기술혁명과의 밀접한 통일속에서 강력히 전개될 때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은 힘있게 추진될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종국적목적인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있다.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기술혁명을 이것과 밀접히 련결시켜 진행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상혁명이 사회주의건설의 목적과 분리되여 빈 공담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사상사업의 결과는 반드시 근로자들을 진실로 교양개조하고 그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동원되게 하는데 돌려져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사상을 천명해주고있다. 다른 편으로 이 방침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상혁명을 홀시하고 물질적관심성에만 치우침으로써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조장시키는 편향에 대해서도 엄격히 경계하고있다. 이런 편향들은 다같이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주의건설 그자체까지도 망쳐버릴수 있게 한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실제상 공산주의자들이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며 그들을 혁명화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만약 우리가 사상혁명문제, 각계각층군중의 혁명화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공산주의로 빨리 나갈수 있을것이고 혁명화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산주의로 빨리 나갈수 없을것입니다.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닦기는 비교적 쉬우나 사람들의 의식을 개변하는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의식개변이 힘든 일로 되는것은 그것이 수백수천년간 내려오면서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있는 낡은 사상독소,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사상의식을 배양하는 격렬한 투쟁과정으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킬수 없고 그들을 혁명가로 육성할수 없다.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이 투쟁은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의 하나의 표현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혁명군중내부의 문제이며 그들을 개조하고 단결시켜 공산주의까지 이끌고나가기 위한 문제로서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런것만큼 이것은 매우 신중한 문제이며 어렵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되는것이다.

낡은 사상독소는 또한 외부로부터도 부단히 침습할수 있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특히 그 괴수인 미제와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의 조건하에서 부르죠아적사상독소가 침습할 위험성은 더 크다.

이 모든 사정으로 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개변하는것은 힘든 일로 될뿐아니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모든 기관들—정권기관, 학교, 과학문화기관, 근로단체, 기타의 모든 사회적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일층 강화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옳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혁명력량을 꾸릴수 없고 혁명을 앞으로 전진시킬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대한 방침은 혁명발전의 이와 같은 합법칙성을 밝힌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 혁명에 대한 무

한히 높은 책임성에서 출발한 철저한 혁명적인 로선이다. 그것은 현시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튼튼한 혁명대오를 꾸리는 문제에 직접 해답을 줌으로써 혁명발전에서 비할바없이 위력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바로 김일성동지의 이 위대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령도됨으로써 확고한 승리의 길을 따라 세찬 진군을 계속하고있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옹성같이 결속되여있다. 우리 당은 모든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확고히 들어섰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교양되고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소유한 우리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은 자기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억세게 추진시키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우리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어려운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여야 하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내쫓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해야 한다.

우리앞에는 어렵고도 장기적인 투쟁과업이 놓여있다. 우리가 더욱 긴장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내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근로자들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얼마나 훌륭히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기술문화수준을 높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들을 용감하게 이겨내며 경제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나갈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하고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성취할수 있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27페지)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보다 큰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대한 방침을 더욱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열렬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그 어떤 풍파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불패의 대오로 통일단결시켜야 한다.

2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로동계급자체를 더욱 혁명화하고 그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점차 로동계급으로 개조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여 그들을 보다 더 혁명적이고 선진적이며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들이 전사회를 개조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28페지)

로동계급은 그 사회경제적처지와 계급적본성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계급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로동계급의 세계관에 따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나아가는 과정이며 그의 리상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정치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부단히 강화하는 조건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완수해나아갈수있다.

로동계급자체를 더욱 혁명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우리 로동계급이 겪어온 력사가 청소하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청소한 로동계급이며 그들에게는 혁명적단련이 많이 요구됩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이 짧은 시일내에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로동계급의 대렬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가운데는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을 직접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많으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이후에 로동자로 된 어제날의 소상인, 수공업자들도 적지않습니다.》(우와 같은 책, 28페지)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로동계급은 그 자체의 계급적립장을 부단히 공고히 하고 자신을 참말로 혁명적이고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더잘 수행할수 있으며 농민, 인테리들을 다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까지 데리고 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이 자기의 역할을 높이고 전사회를 혁명화하는데서 응당한 기준으로, 본보기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자체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로동계급이 혁명적인 사상과 강철같은 조직성, 높은 문화성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농민과 인테리에 대한 혁명적작용을 계속 강화할수 있고 그들이 로동계급을 기준으로 삼아 자체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촉진시킬수 있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있어서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문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민은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이다.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하에 남아있는 계급적 차이를 소멸하는데서 기본문제를 해결하는것으로 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해결의 길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이것은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명백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도와 문화적영향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하며 그들의 문화수준을 로동계급의 수준에 끌어올리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8페지)

협동화후 우리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에서와 사상, 기술, 문화 수준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있었으나 그들은 아직 로동계급에 비하여 사상, 기술, 문화 령역에서 뒤떨어져있다. 그러므로 농민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도와 혁명적, 문화적 영향을 강화하면서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농민들의 사상문화수준에서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높은 문화기술수준의 소유자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계속 추진시키고 농민을 모든 고된로동에서 해방하며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점차 전인민적소유에로 넘겨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인테리혁명화의 의의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사회

주의적인테리로 교양개조하며 수십만의 근로인민출신의 새인테리들을 양성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인테리들은 당의 적극적인 교양과 새사회를 건설하는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자기들의 낡은 사상잔재를 적지않게 극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적혁명사상,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하게 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가 완전히 없어진것은 아니다. 주로 과학교육사업에 종사하며 사상혁명에 직접 복무하고있는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테리혁명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며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인테리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진정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7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인테리들의 혁명성을 믿지 않고 그들을 의심하고 배척하거나 그들속에서 발로되는 낡은 사상잔재의 위험성을 보지 않는 좌우경적편향들을 다같이 엄격히 경계하시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을 가장 정확하게 지도하심으로써 모든 인테리들을 진정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하는데 일관한 배려를 돌려오시였다. 우리 당의 인테리혁명화방침은 근로인테리에 대한 가장 혁명적인 립장을 표현하고있으며 그들을 끝까지 믿고 다같이 공산주의까지 이끌어가려는 우리 인테리에 대한 두터운 신임에서 출발된것이다.

인테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문제는 그들의 세계관을 개조하는 장기간에 걸치는 어려운 사업이니만큼 결코 일시적인 깜빠니야나 단순한 행정실무적조치로써 해결될수 없다. 우리는 인테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하고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해석침투하여 그 본질과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적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조선로동당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풍파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29페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것은 결국 그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고 우리 혁명의 총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만 그들을 참말로 조선혁명을 위해, 로동계급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로 만들수 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을 떠나서 혁명화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만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실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할수 있다. 또한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옳은 자를 가지고 어떤것이 혁명사상이고 어떤것이 반혁명사상인가를 제때에 정확하게 식별할수 있으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혁명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수단의 하나는 혁명전통교양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10대 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험은 혁명전통교양이 직접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비할바 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선렬들의 불요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31페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오랜 혁명적실천과 꾸준한 사상교양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간고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단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하여서는 지난날 혁명가들—항일빨찌산들이 수령의 령도밑에 어떻게 혁명활동을 하였으며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어떻게 혁명가로 자라났는가 하는 산모범으로 교양하는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되였고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체현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은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그이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다. 우리는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공산주의적혁명사상과 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풍부한 투쟁경험을 배움으로써 그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며 혁명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낼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을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나라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몸바쳐 일한다는데 있습니다. 이 우월성을 발양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0페지)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드높은 혁명적자부심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이 제도를 고수하고 이 제도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침해하려는 미제침략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를 반대하여 언제든지 손에 무기를 들고 결정적투쟁에 나설수 있게 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착취계급을 무한히 증오하고 착취계급이 남겨놓

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하며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나가는 집단주의정신과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특히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교양하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가 이미 창조하여놓은 모든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가 아직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지 못한 조건에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남녘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들을 도와 남조선을 해방하여야 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튼튼히 가지게 하며 항상 동원되고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사회주의건설에 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결코 북반부에서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여 안일해이할수 없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을 도와 칠천지원쑤 미제를 이땅에서 영영소탕해버리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계속전진하며 계속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하여서는 사상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문화혁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없으며 사상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누구나 다 일반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며 모든 사람이 다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31페지)

문화혁명을 잘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적극 높여주어야 그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 정책을 더잘 파악하고 그것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고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와 과학기술을 부단히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야 경제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가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그들의 당조직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을 강화할것을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용광로》**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사람들에게 조직성과 규률성, 집단주의적생활기풍을 길러주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사람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대중적 통제와 비판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결함을 제때에 알게 되고 또 남이 비판받는것을 곁에서 듣고 자기도 같이 뉘우치게 되며 자기 생활을 스스로 총화해볼수 있게 된다. 특히 간부들과 인테리들은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집단의 일상적인 통제밑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성과적으로 극복하며 낡은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제때에 고쳐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집단적로동속에서 단련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집단적로동은 인간교양의 가장 훌륭한 학교이며 인간의 의식을 개변하는 사상사업은 바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적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59페지)

사람들은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여 혁명적대고조속에서 단련되여야 강한 의지를 배양할수 있고 새것을 지향하여 적극 투쟁하는 높은 창조적정신을 소유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교양사업도 혁명실천과 결부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원칙에서 혁명적실천과 사상교양, 조직생활이 서로 밀접히 결합될 때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은 가장 훌륭히 해결될수 있다.

간부들과 인테리들의 경우에는 항상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에게 당정책과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설해주면서 현실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노력하며 생산자대중으로부터 혁명성과 조직성을 적극 배우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적실천과 사상교양사업을 결합시키는데 있어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훌륭한 공산주의학교이다. 그것은 이 운동이 집단생활을 기초로 하여 혁명적실천과 사상교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운동이기때문이다.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며 배우자》는 구호밑에 생산실천과 인간개조를 직접 결합시키고있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근로자들의 사상개조의 학교인 동시에 그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경제관리운영의 공산주의적방법까지도 배울수 있게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또한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대중적운동으로 전개하는 훌륭한 형태로 된다.

우리는 이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가일층 촉진시켜야 한다.

* *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의 혁명적본질과 창조성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대표자회와 공화국정부정강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길이다.

매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방침에 따라 자신을 더욱 혁명적으로 수양하고 단련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은 모든 사람들이 일생을 두고 진행하여야 할 과업이다. 우리는 자신의 혁명적수양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전사로 되여야 하며 당과 수령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추호의 동요도 없이 끝까지 싸워나아가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모든 녀성들을 교양하자

김 옥 순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였고 특히 우리 녀성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녀성문제는 빛나게 해결되여왔으며 녀성운동은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들을 온갖 사회적질곡에서 해방하는것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녀성운동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매시기 이에 대한 옳은 방향과 방침을 가르쳐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는 일률적평등을 보장하며 녀성들의 사회적지위를 높일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조선녀성들의 앞길을 밝혀준 등대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녀성운동발전의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구상하시면서 언제나 녀성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으며 몸소 부녀회를 비롯한 반일녀성단체를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여주심으로써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의 귀중한 전통을 마련하여주시였다.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실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혁명을 확고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녀성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시고 녀성들을 사회적질곡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주시였으며 녀성동맹을 창건하시여 녀성들에게 진정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녀성들의 법적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녀성들이 사회에 광범히 진출하여 마음놓고 일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시였으며 그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오랜 세월을 무권리와 천대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녀성들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핌에 의하여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으며 녀성운동이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당과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어엿한 주인으로 자라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녀성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키며 녀성들이 혁명과 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맡은바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녀성들이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할것을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사회

까지 이끌고가려는 원대한 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녀성들을 교양개조하는데 시종일관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어머니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공산주의사회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락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몇몇사람이 잘 살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하자는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락후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떼놓고 갈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것과 입을것을 충분히 공급해주는것보다 비할바 없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며 또 해결할수 있는 일입니다.》(《녀성동맹사업에 대하여》, 10페지)

우리의 모든 녀성들은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가르침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며 자신들의 혁명화를 위한 투쟁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그이의 높은 은덕과 배려에 보답하여야 하며 수령의 참된 전사로, 공산주의어머니로,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 *

녀성들이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는것은 녀성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와 높은 신임에 훌륭히 보답하는 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녀성들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할것을 요구하고계신다. 우리의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담당한 사회적책임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하는것으로써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해야 할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사회에 광범히 진출함에 따라 그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력량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녀성들의 책임은 더욱 커지고있다.

원래 사회를 움직이고 전진시키려면 남자와 녀자가 다같이 힘을 합쳐 일을 잘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달구지가 굴러가자면 두개의 바퀴가 서로 같이 돌아가야 하는것과 같다.

우리의 모든 녀성들은 자신을 더욱 철저히 혁명화함으로써 자기가 서있는 혁명초소에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우리 녀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바쳐 투쟁하여야만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더 빨리 앞당길수 있다. 우리의 녀성들은 자신의 헌신적인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더 잘 이바지하여야 하며 자신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단련해야 한다.

특히 오늘 조성된 첨예한 정세는 우리 녀성들로 하여금 더욱 혁명적으로 살며 일할것을 요구한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야수들과 그 주구 매국역적들은 남조선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최근 날강도 미제침략자들과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면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남조선과 우리나라 동서해안일대에 끌어들이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 녀성들은 원쑤들의 그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도록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남자들을 대신하여 공장과 농촌에서 전시생산을 보장하며 직장과 마을을 굳건히 지킬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오늘 조선인민앞에는 남반부를 해방

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여야 할 최대의 민족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를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는바 이것은 우리 녀성들에게 그 사회적역할을 가일층 높일것을 요구한다.

우리 녀성들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당의 혁명적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더욱 긴장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녀성들을 혁명화하는것은 또한 가정을 혁명적으로 꾸리고 자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혁명적으로 꾸리고 자녀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은 녀성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가정의 건전한 발전은 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은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다. 그러므로 가정을 혁명화하고 공산주의적으로 꾸리는것은 전사회의 혁명화를 촉진하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가정은 자녀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대체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또 일반 사회생활에서 교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은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기초로 되며 사람을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등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상적으로 교양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학교나 사회에서는 할수 없는 교양사업을 잘 진행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6페지)

가정을 공산주의적으로 꾸리고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것은 어머니이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현모량처》, 《녀필종부》의 봉건유교도덕이 지배하던 시기의 가정의 주부가 아니라 혁명하는 사람이며 혁명가의 안해이며 또한 혁명의 후계자들을 낳아기르는 공산주의어머니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어린이의 첫째가는 교양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걷는것과 말하는것, 옷입는것, 밥먹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첫교양을 잘 주는가 못주는가가 그 아이의 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라고 하시면서 《자녀들에 대한 교양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어머니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모든 녀성들이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됨으로써만 혁명적인 가정을 꾸릴수 있으며 후대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적역군으로 키울수 있다. 만일 녀성들이 혁명화되지 못한다면 자신이 혁명위업에 충실할수 없고 남편의 혁명사업도 옳게 도울수 없으며 혁명의 후대를 육성할 과업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실로 녀성들을 혁명화하는것은 가정을 혁명화하여 온가족들을 모두다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되게 하는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 *

모든 녀성들을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녀성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우리 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를 철저히 옹호하며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과 같이 숨쉬고 행동하며 수령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며 그와 배치되는 사소한 현상과도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수령을 옹호하며 수령을 위하여서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40여년동안 오직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일제와도 싸워이기시고 미제도 때려굽힌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고 발전시켜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인도하여 나가시는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인민이 한결같이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받드는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에 대한 충실성과 철저한 반제반미적립장,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을 위한 위대한 리론실천적공헌으로 하여 강의한 혁명가로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로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하고 세련된 지도자로서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높은 존경을 받고계신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생각할수 없으며 녀성운동의 발전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도, 그들의 휘황한 앞날도 기대할수 없다.

우리의 모든 녀성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혁명활동을 배우고 본받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덕성을 체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일편단심 그이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이께 무한히 충실해야 한다.

특히 녀성들은 녀성들의 사업과 생활에 돌려주신 김일성동지의 높은 은덕과 크나큰 배려를 가슴깊이 아로새겨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녀성들을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들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녀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혁명과 건설에 진출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들에게 그들의 가정적조건과 체질을 고려하시여 알맞는 일터와 일감이 차례지게 하여주시였으며 녀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도록 유치원, 탁아소, 아동병동 등 많은 시설들을 갖추어주시였고 지어 부엌살림살이에 이르기까지 녀성들의 모든 생활에 대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보살펴주시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나라일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늘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고 녀성들의 사업과 생활형편에 대하여, 그들의 건강과 휴식에 대하여, 자녀들의 교육과 교양에 대하여 언제나 념려하여 극진히 보살피고계시며 녀성들의 애로조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보살핌은 오늘 우리 녀성들이 누리고있는 행복한 생활의 구석구석에 미치고있다.

우리 녀성들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높은 덕성, 따뜻한 배려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편단심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고 그이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는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여야 한다.

우리 녀성들이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로서 자기앞에 부과된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를 연구하여야만 조선혁명의 정확한 전략전술을 체득할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옳은 방도를 찾을수 있습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를 깊이 소유하여야만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정책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심이 생기고 투지와 열정이 나올수 있습니다.》(《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12폐지)

우리 녀성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로 삼아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녀성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특히 전국어머니대회와 조선민주녀성동맹 제3차대회, 전국보육원, 교양원 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녀성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이 계승한 이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전체 녀성들을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만 그들을 혁명화할수 있고 그들이 어떤 어려운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고수할수 있다.

혁명전통을 학습하는것은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아 그들처럼 수령의 참된 전사로 되기 위한것이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전통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함으로써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로 되여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녀성혁명가인 강반석녀사를 본보기로 따라배워야 한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신 남편 김형직선생의 혁명사업을 모든 힘을 다하여 도우시였고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탁월하고 위대한 수령으로 키우셨으며 또한 자신께서 직접 조국의 광복과 녀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 실로 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은 혁명하는 남편을 어떻게 도우며 자제분들을 어떻게 키우며 시부모는 어떻게 공대하고 가정은 어떻게 혁명화하여야 하는가를 우리 녀성들에게 보여주는 불멸의 귀감이다.

우리 녀성들은 강반석녀사께서 조국과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신 고매한 혁명정신과 실천투쟁에서의 강의성, 충실성, 남편과 자제분, 친척, 친우들에 대한 아낄줄 모르는 사랑,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신 강직하고 억센 풍모를 따라배워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15성상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무장투쟁에서 녀성유격대원들이 발휘한 혁명정신과 그들의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은 우리 녀성들의 혁명화를 위한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녀성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으며 전투원, 재봉대원, 작식대원, 정치공작원 등으로 공작하면서 수령의 명령과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였다. 우리 녀성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녀성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을 꾸준히 따라배워야 한다.

전체 녀성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며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초기혁명활동에 대하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등을 비롯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고귀한 업적과 투쟁경험을 서술한 교양자료들을 더많이 읽고 그것을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핌에 의하여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서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의 수많은 녀성들은 전방과 후방, 적후에서 직접 무기를 들고 원쑤들을 무찔러 용감히 싸웠으며 특히 전선에 나간 남편과 아들딸을 대신하여 전시생산을 믿음직하게 보장함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녀성들은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영웅적조선녀성의 기개를 온세상에 시위하였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해방후 우리 녀성들이 발휘한 이러한 영웅적투쟁과 빛나는 위훈들을 본받는 것 역시 우리 녀성들의 혁명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녀성들은 자신의 혁명화를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집단적로동과 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단련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에 나와서 당조직생활이나 사회단체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녀성들도 남자들과 같이 혁명사업에 이바지할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발전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탁아소, 유치원, 소아병동을 잘 운영하여 더 많은 녀성들이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것은 녀성들을 로동계급화하고 혁명화하며 문명하게 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녀성동맹사업에 대하여》, 61페지)

아직도 일부 녀성들이 가정에 남아있는 조건에서 그들을 모두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은 모든 녀성들을 새로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사실 녀성들이 사회에 나가면 집단생활을 하게 되고 조직생활에도 참가할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사상을 배울수 있고 문화적소양도 높일수 있다.

모든 녀성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가시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녀성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무한히 사랑하게 되고 봉건적질곡과 식민지적예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의 처지를 잊지 않고 그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다.

녀성들은 행복하면 할수록 압박받고 착취받던 과거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준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목숨으로 지키며 그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특히 녀성다운 솜씨를 발휘하여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리고 모든 곳에서 사회재산을 적극 아끼고 절약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구나 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국가재산을 애호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만 특히 녀성들속에서 그러한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본을 받아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계속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하고 공동재산을 애호할수 있습니

[1.)(우와 같은 책, 34폐지)

녀성들은 우리가 이미 건설하고 생산한 모든것들이 나라의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원천이며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귀중한 밑천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들이 사는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는데 힘써야 하며 공공시설들과 공동재부들을 주인다운 심정으로 극력 아끼고 사랑하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녀성들의 혁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녀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며 당의 인전대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는것이 중요하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제1차적주목을 돌리고 그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계층별에 따라 실정에 맞게 부단히 심화시켜야 한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문화혁명을 강력히 전개하여 그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며 과거의 락후한 생활인습을 철저히 청산하고 혁명적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녀맹조직들은 아직 가정에 남아있는 녀성들을 다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선전교양사업을 강화할뿐만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불편없이 일할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기 위하여 더욱 세심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동시에 녀성들자신의 힘으로 필요한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녀맹조직들은 동맹회의를 준비있게 진행함으로써 그것이 녀성들의 정치적학교로 되게 하며 매녀맹원들에게 분공을 정확히 주고 철저히 총화하는 제도를 엄격히 세우며 모든 녀성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더잘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녀성들은 자신의 혁명화를 위하여 동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그것을 잘하는것은 자신을 혁명가로 단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녀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조직인 녀맹조직을 사랑하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자기가 소속한 녀맹조직에서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하며 대중의 통제와 동지적비판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낡은 사상잔재와 부족점을 빨리 극복하고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녀맹조직들은 모든 녀성들이 인민반사업에 모범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며 한놈의 적대분자도 우리 인민반에 발붙일 틈을 주지 말도록 하며 적들의 요언, 류언비어에 항상 경각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전체 녀성들은 자신을 더욱 철저히 혁명화함으로써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되며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켜 수령의 크나큰 배려와 높은 신임에 훌륭히 보답하기 위하여 온갖 정열을 다바쳐야 한다.

력사적인 북청회의의 위대한 결실

김 만 진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과수업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을 밝혀주신 력사적인 북청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일곱해가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1957년 3월 북청군일대를 돌아보시고 함경남도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사회단체 일군들앞에서 우리 나라 과수업의 발전전망과 그 실현방도를 명확히 천명하시였으며 몸소 북청땅에서 시범교육을 조직하신데 기초하여 1961년 4월에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앞에 조국의 모든 야산을 일구어 백과무르익는 과일동산으로 만들 대자연개조사업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오랜 기간 면밀히 준비하시고 직접 지도하신 북청회의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삼천리금수강산 어디나 백과주렁진 과일동산을 꾸리며 인민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한 그이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오늘 력사적인 북청회의 일곱돐을 맞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이룩한 빛나는 결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높은 덕성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며 일편단심 그이의 충직한 전사답게 그이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 그리고 과수부문앞에 주신 모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강화하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하루속히 앞당길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 *

우리 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이다. 산은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므로 산을 잘 리용하여 과수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국토를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날 우리 인민들은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하여 일치하게 념원하여왔다. 그러나 그들의 념원은 과거 착취사회에서 실현될수 없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있는 무진장한 재부의 원천인 산을 마음껏 개발하고 리용할데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조국을 광복하시고 마련하여주신 로동당시대에 와서 비로소 실현되였다.

사실 우리 나라의 과수업은 해방후 보잘것없는 토대우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해방전 우리 나라에 있었다는 과수원이란 불과 얼마되지 않았으며 그것마저 착취자들의 영리를 위한 략탈적 재배방법으로 심한 상처를 입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의 과수면적은 13만 3,000여정보로 늘어났으며 이밖에도 우리에게는 10만정보의 밤나무밭이 있다.

과수원의 지역적분포와 경리형태별 규모, 과실나무의 종류와 품종배치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과실생산량

은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의 과수업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오직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뿐만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고 조국의 모든 야산을 백과주렁지는 과일동산으로 만들며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한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과 육친적배려가 있음으로하여 이루어질수 있은것이다.

그것은 우리 당 과수업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력사적인 북청회의가 가져온 귀중한 열매이다. 그것은 또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 마련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무궁무진한 힘을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는 우리 세대의 인민들은 물론 우리 후대들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과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깃들어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수원의 대대적인 확장, 이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대한 혁명과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세대의 행복를 위한 사업일뿐만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행복를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입니다.》

산좋고 물맑은 이 땅우에 착취없는 새사회를 건설하고 조국산천의 금은보화를 마음껏 개발하며 삼천리금수강산 어디나 백과주렁진 과일동산을 꾸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실데 대한 구상은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익히신 조국광복의 위대한 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면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복잡하고 간고한 나날에도 어느한시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 대하여서까지 잊으신적이 없으며 그것을 앞으로 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련결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간고한 싸움과 행군끝에 맞게 되는 숙영의 밤에도 유격대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만경대의 진달래와 대동강의 숭어, 가을이면 주홍빛사과가 주렁지는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시였으며 하루속히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고 기름지고 살기좋은 조국산천을 다시찾아 인민들이 그것을 마음껏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량수천자부근에서 적들로부터 로획한 조선사과를 소왕청유격근거지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근거지에는 아직 조선땅를 밟아보지 못하고 조선의 유명한 사과조차 구경하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소!

그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 사과라도 보내여 맛이라도 보게 하시오.…》

김일성동지의 이 말씀속에는 조국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조선사과도 아직 맛보지 못하였던 유격근거지의 어린이들과 온갖 착취와 억압밑에서 헐벗고 굶주리던 우리 인민들 그리고 원쑤들의 발굽에 무참히 짓밟혔던 조국산천을 생각하여 가슴아파하신 수령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깃들어있으며 한알의 조선사과를 보시고도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이 땅우에 일떠세울 새조국건설의 휘황한 앞날을 설계하신 그이의 높은 뜻이 담겨져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대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자기 조국과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불씨를 심어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해방후 조국산천을 개발하는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지칠줄 모르는

힘을 낳게 한 원천으로 되였다.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조선혁명의 앞길에 새로운 엄중한 난관이 조성된 환경에서 우리 혁명을 계속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분망하신가운데서도 자연을 개조하고 농민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새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더욱 무르익히시였으며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라.》는 구호를 안겨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였던 땅에 대한 평생소원을 실현하여주시였으며 우리 농민들이 알곡생산과 함께 과수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도록 경제발전의 매시기마다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온갖 조건을 지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토지개혁직후에 강동군의 한 농촌을 찾으시여 농민들과 새생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이 분여받은 땅에서 농사를 잘 지을뿐아니라 나무없는 야산들에 과일나무를 많이 심을데 대하여 간곡히 일깨워주시였으며, 그후 시중군의 한 농촌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산과 집주변에 지방의 기후풍토에 맞는 여러가지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봄이면 백화만발하고 가을이면 여러가지 과실이 주렁지는 경치좋고 살기좋은 풍요한 마을을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이때부터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놀 국영과수농장의 터전을 친히 잡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록 해방후 인민의 소유로 된 과수원들이 많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소중히 가꾸고 잘 관리운영할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전쟁의 최후승리에로 인도하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과수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 과수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국영과수농장들을 신설확장하도록 하시였으며 친히 새로 조직할 국영과수농장들의 터전까지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의 그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국영과수농장들이 오히려 전쟁전시기보다 3배이상이나 장성하였다.

이것은 실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의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이룩될수 있은것이다.

우리 나라 과수업은 전후시기 특히 1957년 3월 함경남도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앞에서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전국의 야산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만들데 대한 북청회의결정을 관철하는 전인민적 투쟁속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온나라가 인민경제의 자립적토대를 굳건히 닦기 위한 전후사회주의경제건설의 장엄한 투쟁을 벌리고있던 시기 국토건설과 농촌경리분야에서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내외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면서 전당의 확고한 사상의지의 통일을 공고히 하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이 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험산준령을 넘어 머나먼 백무고원을 찾으시여 5호종합농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또한 우리 나라 각처의 관개공사장들과 간석지들을 찾으시여 조국의 지도를 변경시키는 대자연개조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모든 고원들과 야산들과 간석지들을 일구고 수리화하여 농경지와 염전과 갈밭으로 만들뿐아니라 과수원을 꾸리며 풍치림이 숲을 이룬 지대로 되게 할것을 구상하시였으며 그 실현에로 전체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시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협동화가 이미 완성되고 공업이 농업을 도울 힘이 더욱 강하여졌으며

협동농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끊임없이 공고화되고있는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통찰하시고 1961년 4월에 북청회의를 소집하시였으며 전국의 야산을 개간하여 과수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차게 부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야가 적고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같이 많은 과수면적을 가지려면 산을 리용하는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산을 리용한다는것을 단순히 산열매를 따고 산나물을 뜯어먹는것으로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산을 일구어 과수원을 만들고 또 원료림도 조성하여 많은 과실과 공업원료를 얻어내는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산을 잘 리용한다면 산은 평야보다 못지 않게 리로운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의 이 교시를 심장깊이 새기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강토를 더욱 아름답고 부유하게 꾸릴 일념으로 도처에서 야산을 개간하고 공한지를 일구어 과수원을 만드는 전군중적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북청회의후 불과 5년동안에만도 과수면적은 해마다 평균 1만정보이상씩이나 느는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것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밑에 진행된 북청회의가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얼마나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가를 보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 이후시기에도 우리 나라 과수업의 빠른 발전을 위하여 일관하게 심려하시고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친히 매시기 과수업이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과 해결하여야 할 과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을뿐아니라 과수농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현대적인 과실가공기지를 꾸리기 위한 국가적조치를 끊임없이 취하여주시였다. 또한 과수부문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국가적 지도체계와 과수농장의 가장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을 창조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과수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다시금 상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수많은 과수원들을 친히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과수원기술관리에서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과실나무를 키울데 대하여, 과수원에 거름을 많이 주고 김을 잘 매여 과수의 수세를 돋울데 대하여, 작업을 기계화하고 과실의 저장 및 가공 대책과 수송방도를 잘 세울데 대하여," 매 과수농장의 전망과 일군들의 건강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보살펴주시였다.

실로 우리 나라의 어느 한 과수농장과 과실나무치고 수령의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 미치지 않은곳이 없으며 거기에는 우리 세대뿐아니라 후대들까지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김일성동지의 바다보다 깊고 태산보다 높은 어버이사랑과 은덕이 깃들어있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철두철미 주체적립장에서 우리의 자원과 우리 인민의 힘으로 우리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민족과 조선의 삼천리강산을 떠나서 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만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혁명투쟁에서는 물론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에서도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 평야가 적고 산이 많은것을 탓할것이 아니라 산을 잘 리용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해야 하며 또한 바로 그렇게 투쟁하는것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의 태도이며 혁명적립장이라는것을 일깨워주시면서 우리를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국방방곡곡에서 야산을 일구어 얻은 수많은 과수원들은 우리 혁명의 오늘과 래일뿐아니라 먼 장래까지 내다보시면서 매시기 과수업이 나가야 할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인민들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 높은 덕성으로 하여 마련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 ❊

우리 나라 과수업은 지금 더욱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력사적인 북청회의후 전군중적운동으로 심은 과실나무는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으며 바야흐로 청춘기를 맞이하고있다.

우리는 력사적인 북청회의와 지난해 여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주신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심장깊이 새기고 이미 심어놓은 과실나무들을 잘 관리하여 가까운 년간에 과실생산량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며 생산된 과실의 저장과 가공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능한 모든 지대들에서 과수원조성사업을 계속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13만 3,000여 정보의 과수원과 10만정보의 밤나무밭을 귀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이것이 다 열매를 맺게 하여 과실과 밤 생산을 훨씬 높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인민들에게 맛있는 과실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결정대로 과수원조성사업을 계속 추진시켜 가까운 년간에 과수 총면적을 20만정보에 이르게 할것입니다. 해마다 더 많이 생산되는 과실을 저장, 가공할수 있는 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겠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46~47페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미 마련하여놓은 과수원을 잘 보호하고 알뜰히 가꾸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북청회의 이후 과실나무들을 경사지에 많이 심은것만큼 과수원토지가 비에 씻겨 내리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워 자연피해로부터 과실나무를 보호하며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질좋은 자급비료와 화학비료와 농약을 제때에 충분히 생산공급하도록 하며 과수원비배관리와 과수작업에서 기계화와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모든 지역들에서는 북청군의 훌륭한 경험을 본받아 경사지에 있는 과수밭에 독을 쌓거나 풀떼를 만드는 운동을 널리 전개하여야 한다.

심어놓은 과실나무를 잘 가꾸는 동시에 과수원의 개간대상지를 옳게 선정하여 새로운 과수원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새로운 과수원을 만들 때에는 절대로 논밭을 다치지 말며 될수록 야산이나 경사지를 개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과수원을 개간함에 있어서 현재 없거나 적은 품종의 고급과실나무들을 많이 심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생산한 과실을 잘 가공하고 보관하는 것은 과실생산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과실의 부패변질현상을 없애고 주민들에게 사철 과실을 공급할수 있게 하며 떨어진 과실들과 허물진 과실들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오늘 과수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들을 잘 실현하자면 이 부문일군들이 일을 더 짜고들어 과수업에 대한 지도를 한층 강화하며 과수원관리운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지도하신 북청회의의 커다란 력사적의의의 하나는 바로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진정한 인민적사업작풍과 지도방법의 모범을 우리 일군들이 더욱 잘 배울수 있게 하여주었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통하여 친히 군중로선을 구현한 우리 당의 전

통적인 사업방법의 모범, 하부지도에서 우가 아래를 진실로 도와주며 한곳에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방법의 모범을 다시금 생동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거울로 삼고 그이의 모범을 따라 부단히 배움으로써 경제지도와 작풍을 고쳐나가야 한다.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우리자신과 후대들의 번영을 위한 백년대계의 사업이다. 그것은 우리 혁명기지의 물질적력량을 강화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함으로써 자연을 개조하여 나라의 재부를 늘이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과수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모든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미 심어놓은 과실나무들을 알뜰히 가꾸며 과수업을 보다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는 착취자도 피착취자도 없으며 로동은 매 근로자들자신을 위한것이며 동시에 전체 사회를 위한것인만큼 사람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커다란 창조력을 발휘할수 있는 사회적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는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있고 착취제도가 없어지기만 하면 저절로 나타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숭고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과 선진분자들의 꾸준하고도 완강한 교양에 의해서만 광범한 군중의 사상으로, 그들의 생활신조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확증된 진리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을 자기 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사랑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은 우리 세대 사람들뿐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수 있는 공동의 재부를 더 많이 창조하고 알뜰히 다루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게 될것이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국땅우에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흘려 싸우면서 조국의 한줌의 흙, 한떨기의 꽃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그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이름없는 고지의 한치의 땅, 한그루의 나무도 목숨으로 지켜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그리고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모두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사들이 피로써 찾아준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이 목숨으로 지켜내고 땀으로 꽃피운 사랑하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조국 남녘땅에 둥지를 틀고 남조선인민들을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 속에 빠뜨렸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새전쟁도발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격화시키고있는 철천지 원쑤 미제국주의자들과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과 긴장성을 고도로 높이고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불타는 복수의 일념으로 분초를 다투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그침으로써 우리 혁명기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력사적인 북청회의의 일곱돐을 맞는 오늘 모든 근로자들과 과수부문의 일군들은 이 회의에서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더욱 가슴깊이 아로새기고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며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보다 큰 앙양을 이룩할것이다.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은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

고 승 일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현국제정세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혁명을 촉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것은 이미 승리한 혁명을 보위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혁명의 기지로 되고있는 꾸바혁명을 적극 보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이미 승리한 혁명을 보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꾸바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혁명적꾸바는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대표하고있으며 그 존재자체로써 이 대륙인민들의 해방운동을 고무하고있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우리 시대에 제국주의가 반드시 패망하고 민족해방혁명과 인민혁명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뚜렷한 증거이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318～319페지)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며 라틴아메리카와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꾸바공화국은 커다란 혁명적작용을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꾸바혁명의 승리는 미제침략자들의 코앞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진영을 서반구에까지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운동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다. 꾸바공화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의 기지로 되고있다.

꾸바인민은 라틴아메리카력사에서 처음으로 제국주의지배를 완전히 청산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이 지역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미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고있다.

꾸바혁명은 실로 미제침략자들의 공개적인 적대행위앞에서 어떻게 혁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서반구에서의 제국주의적지배가 결코 숙명적인것이 아니며 피압박인민들이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서 싸운다면 아무리 강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이라도 반드시 꺼꾸러뜨릴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이와 같이 꾸바혁명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해방투쟁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를 서반구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고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촉진함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혁명승리후 꾸바인민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의 코앞에서 놈들의 계속되는 군사적위협과 《경제봉쇄》정책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꾸바인민은 자신의 힘으로 서반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길을 개척하여 용감하게 전진함으로써 미제침략자

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과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고귀한 기여를 하고있다.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정확한 령도와 꾸바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과거 착취와 빈궁이 지배하고있던 꾸바에 오늘은 사회주의제도가 굳건히 수립되였으며 나라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여가고있다.

꾸바의 농촌에서는 이미 낡은 생산관계가 청산되였고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가 급속히 추진되고있으며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더 공고화되고있다. 농업생산은 부단히 장성하여 지난해 꾸바인민은 612만 8,000여톤이상의 사탕을 생산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지금 진행하고있는 제8기인민사탕수수가을전투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꾸바인민은 사탕증산은 곧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타격으로 된다는 구호밑에 지난해의 심한 가물에 뒤이어 새해에 많은 비가 내린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탕생산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꾸바인민은 농촌의 경지면적확대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있다.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호소에 따라 새땅을 얻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에 떨쳐나선 꾸바근로자들은 도처에서 미제를 족치는 기세로 과거 반동통치자들이 오래동안 내버려두었던 황무지와 습지대를 개간하여 옥답으로 전변시키고있으며 경지면적을 새로이 넓히고있다.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함에 있어서 꾸바인민은 농업에서뿐만아니라 공업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꾸바공화국은 공업분야에서 기계, 비료, 세멘트, 전력 등 일련의 기간공업기업소들을 신설확장하고 새로운 공업중심지들을 형성하였으며 공업에서의 식민지적예속성과 기형성을 극복하고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의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고있다.

그리하여 과거 《미국공업》의 《부속물》로 빛을 잃었던 꾸바의 공업은 지금 자체의 원료와 자원에 토대한 꾸바의 민족공업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고있다.

경제에서의 이러한 빛나는 성과와 함께 사회문화분야에서도 꾸바공화국은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꾸바혁명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꾸바의 도시와 농촌에는 오늘 수천개의 의료기관이 세워졌으며 수많은 의료일군들이 인민보건사업에 복무하고있다. 혁명정부의 옳바른 교육정책에 의하여 아바나종합대학을 비롯한 각급학교들에서 공부하는 학생수는 현저히 늘어가고있다.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과거 인구사망률이 제일 높던 꾸바가 오늘은 인구사망률이 제일 낮은 나라로 되였으며 과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문맹자였던 꾸바가 지금은 문맹자가 없고 자기의 민족간부대렬을 가진 나라로 되였다.

미제의 부단한 침략과 파괴책동을 분쇄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고있는 꾸바의 방위력은 철벽으로 다져지고있다.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자위적인 방위조치에 의하여 꾸바공화국은 전국이 요새화되고 전체 인민이 무장한 나라로 되였다. 꾸바인민은 《조국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것이다!》라는 전투적구호하에 조국보위의 초소에 튼튼히 서서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고있다. 최신군사장비와 군사기술로 무장한 꾸바의 혁명무력은 미제침략자들이 어느때 어디서 침입해와도 놈들을 일격에 소탕해버릴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춘 강력한 력량으로 장성하였다.

꾸바혁명정부는 이미 거둔 성과들에 기초하여 지금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전개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최근 개인상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꾸바혁명정부의 새로운 조치는 꾸바혁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개인상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이 조치는 꾸바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장애를 조성하고있던 자본주의적요소들과 그에 발붙이고있던 정치적인 반혁명적요소들 청산함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가일층 촉진하고 각계각층인민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게 하고있다.

또한 이 조치는 꾸바의 정치적인 반혁명적요소들에 매달려 꾸바공화국을 파괴하고 전복해보려던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개인상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꾸바혁명정부의 이 조치로 하여 지금 꾸바의 전국은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고있으며 꾸바인민의 열렬한 지지속에서 이 국유화사업의 첫단계는 기본적으로 끝났다. 개인상업을 국유화하는 조치의 첫단계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지난 3월 26일 현재 꾸바에서는 전국적으로 5만 5,636개의 개인상업이 국유화되였다.

개인상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이 혁명적조치는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맑스—레닌주의적명도의 현명성과 꾸바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꾸바인민의 견결한 립장을 보여주는것이다.

오늘 꾸바인민의 혁명의식은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인민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 강화되였다..

꾸바인민은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주위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뭉쳐있으며 원수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짓부시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고있다.

꾸바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족치는 기세로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있으며 꾸바의 전국은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정열과 기백으로 충만되여있다.

꾸바의 모든 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자라는 떳떳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자기의 온갖 정력을 쏟아붓고있으며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 미제침략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정책을 단호히 분쇄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일어난 이 모든 변화들은 꾸바를 더욱 강력한 나라로 되게 하고있으며 그것은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꾸바인민이 달성한 이 성과들로 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꾸바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은 가일층 촉진되고있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주의의 서반구 초소를 더욱 튼튼하게 해주며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기지를 더욱 굳건히 해주는 것이다.

꾸바공화국의 이러한 혁명적발전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는 커다란 고무와 신심을 주고있으며 꾸바공화국을 교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꾸바혁명의 승리와 꾸바공화국의 존재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커다란 혁명적작용을 미치고있습니다. 오늘 꾸바공화국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희망과 혁명적미래를 대표하고있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75페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수세기에 걸쳐 그처럼 념원해오던 착취와 억압, 빈궁과 불평등이 없고 모든 근로자들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받는 새로운 사회가 바로 꾸바땅에서 현실로 전환되였다. 그렇기때문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꾸바의 현실에서 자기들의 혁명적미래를 보고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진보적인 인민들이 꾸바혁명에서 그 모범을 배우고있으며 꾸바를 라틴아메리카혁명의 성새로 바라보고있는것은 다름아닌 꾸바공화국의 이러한 혁명적견인력에서 오는것이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고무와 신심을 얻으면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서고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과떼말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무장투쟁의 불길이 계속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그 불길은 날이 갈수록 더욱 넓은 지역에로 확대되고있다.

그리하여 어제날 미제침략자들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여오던 라틴아메리카가 지금 투쟁의 대륙, 혁명의 대륙으로 전변되여가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제의 지배체계는 전면적으로 뒤흔들리고있다.

꾸바혁명에 의하여 서반구에 형성된 돌파구는 지금에 와서 이미 막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침략자들은 꾸바혁명을 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미쳐날뛰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반동들을 그러모아 꾸바를 반대하는 침략음모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꾸바를 요람속에서 교살해보려던 1961년 4월 쁠라야 히론침공과 1962년 10월 카리브해에서의 강도적도발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한 미제침략자들은 최근년간 꾸바를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책동을 더욱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군사적위협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적압력과 《경제봉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꾸바의 승리적인 전진을 가로막으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꾸바의 혁명적영향력을 막아보려 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꾸바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하여 그 무슨 《파괴전복활동》을 하는듯이 허황한 구실을 꾸며 꾸바공화국을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고있으며 꾸바의 위신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각종 비열한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소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는 꾸바의 《전복활동》이니, 《파괴행위》니 하는 광란적인 소동은 다름아닌 꾸바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놈들의 상투적수법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조선침략전쟁을 통하여 이미 세상에 드러난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이러한 날강도적구실을 꾸며내고있으며 그것으로 저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수법으로 오늘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해나서고있다.

지금 꾸바인민은 세계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의 코앞에서 놈들과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놈들의 온갖 침략과 파괴 책동을 분쇄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꾸바인민의 투쟁은 서반구에서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며 라틴아메리카와 세계혁명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꾸바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원할 때 꾸바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 사회주의 서반구초소를 더 잘 지킬수 있다.

꾸바혁명을 보위하고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은 꾸바혁명과 라틴아메리카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뿐아니라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을 가일층 촉진시킴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인 문제로 된다. 따라서 꾸바혁명을 보위하고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꾸바인민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하며 꾸바인민과의 전투적인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꾸바혁명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선 꾸바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온갖 침략과 파괴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꾸바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데서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정책을 존중하고 지지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꾸바문제는 누구보다도 꾸바공산당이 잘 알며 꾸바공산당만이 꾸바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정책을 세울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주의나라든지 꾸바공산당의 정책을 존중하며 꾸바인민의 투쟁을 지원할 의무가 있을뿐입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6～17페지)

꾸바문제에 대하여서는 꾸바공산당과 꾸바인민이 제일 잘 알며 꾸바혁명의 주인은 꾸바공산당과 꾸바인민이다.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수호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시종일관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정당한 립장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지지성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날강도적인 침략책동으로 인하여 꾸바인민이 극히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치솟는 격분으로 미제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항의규탄하였으며 영웅적꾸바인민과 한전호에서 싸우는 심정으로 그들의 성스러운 투쟁에 견결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였다.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고있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언제나 꾸바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과 함께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왔으며 또 하고있다.

조선과 꾸바는 지리적으로 비록 멀리 떨어져있으나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맺어진 량국인민들간의 전투적단결과 친선협조관계는 날로 공고발전되여가고있다.

조선과 꾸바는 다같이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동방초소와 서반구초소를 지켜서고있는 전우이며 형제이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조선인민과 꾸바인민간의 친선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확고한 뉴대로 련결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서반구에서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영웅적꾸바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온갖 파괴책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꾸바인민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75페지)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영웅적꾸바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꾸바인민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뿐이다.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친 꾸바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꾸바인민이 지펴놓은 사회주의혁명의 불길은 라틴아메리카의 더욱 넓은 지역에로 확대되여나아갈것이다.

근 로 자 제4호 (루계 31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8년 4월 25일 발 행 • 1968년 4월 30일

ㄱ—83167 값 50 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 호

평양 근로자사 1968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5 호 (315)

차 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자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높이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 1968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와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욱 다그칠것을 전당과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금번 전원회의는 미제침략자들의 날로 격화되는 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조성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함으로써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관철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며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게 하는 력사적회의로 된다.

실로 금번 전원회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내외의 반동들의 악랄한 공세를 분쇄하고 방대한 5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열어놓았던 1956년 12월전원회의와 함께 우리 당 력사에 길이 아로새겨질것이다.

지금 온 나라는 금번 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원쑤들의 도발을 격파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창조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들끓고있다.

전원회의가 지적한바와 같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는 첫해인 지난해에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전당과 전체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였으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지펴주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름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증산계획을 포함한 지난해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에 앞당겨 끝내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초과수행함으로써 한해동안에 공업생산을 17%나 장성시켰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농업부문에서는 례년에 없었던 큰 물이 졌으나 알곡생산을 116%로 높이는 대풍작을 이룩하였다.

군수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당의 군사로선이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방위력

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언제 어데에서 어떤 형태의 도발을 감행한다고 하여도 일격에 쳐부실수 있게 튼튼히 준비되였다.

지난 한해동안에 달성된 빛나는 성과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앙양되고있는 혁명적대고조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 특히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독창적로선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고있다.

당대표자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된 모든 성과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혁명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 전원회의와 수많은 공장과 농촌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성흥과 룡성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켜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또한 그것은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와 침체를 불사르며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대고조는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적전취물을 확고히 수호하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과 날강도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 남조선인민들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을 해방하고 우리 세대에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완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의 발현이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동시에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혁명의 도상에 있다. 우리는 결코 이미 달성한 성과에 자만할수 없으며 혁명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완강히 싸워야 한다.

특히 미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우리 나라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한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기세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임으로써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단매에 때려부시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출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책임적인 시각에 무엇보다도 생산을 부쩍 올려 우리의 경제적위력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바로 이러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잘하기 위한 1968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의 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가 규정한 올해 인민경제부문의 기본과업은 긴장된 정세에 맞게 우리의 경제건설사업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사회주의공업화에서 획기적 전진을 이룩하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계속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이러한 기본과업에 기초하여 전원회의는 중공업과 경공업, 수산업과 농업, 운수부문과 과학문화부문, 상업과 대외무역 등 인민경제 각부문들의 중심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내세웠다.

올해에 중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전

력공업과 채취공업을 앞세우고 살붙이는 사업을 계속 정력적으로 진행하여 이미 마련해놓은 중공업의 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기간적중공업부문들의 생산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력부문에서는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배합하여 전력생산의 계절적제약성을 극복하며 일단 유사시에도 계속 전력생산을 보장할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하며 채취공업부문에서는 고열탄을 비롯한 석탄과 각종 광석 특히는 유색금속광물생산을 확대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대외무역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강철공업부문에서는 이 부문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며, 기술혁명에 요구되는 기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부문에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기계공업을 한계단 높이 추켜세우고 대형 및 정밀기계 생산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화학섬유와 합성수지, 화학비료와 각종 농약생산을 촉진하며, 증대되는 건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멘트를 비롯한 각종 건재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 명시되여있는바와 같이 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며 원가를 낮추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물, 일용품, 식료품 공업부문에서 더욱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장성의 속도를 높임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일단 유사시 더욱 큰 역할을 놀게 될 중소규모기업소들을 물질기술적으로 더 잘 꾸리고 그것들을 더욱 광범히 확대발전시켜야 할것이다.

올해 농업부문에서는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다시한번 정보마다 알곡 500키로그람증수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며 농업생산에서 더욱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수산업과 함께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부식물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축산업발전에 특별히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우리 나라 축산업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 부문에서는 사료문제와 종축문제 등을 잘 해결하고 소, 양, 토끼같은 초식가축들과 돼지를 많이 기르며 특히 가금업의 발전에 큰 힘을 돌려야 한다.

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인민경제부문의 과업들에는 생활을 통하여 이미 그 정당성이 확증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불굴의 강의성과 완강한 투지를 가지고 이 로선을 끝까지 관철하여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결의가 반영되여있다. 또한 이것은 시간을 최대한으로 쟁취하여 생산을 증대시키며 우리 혁명의 물질적력량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돌림으로써 미제의 침략책동을 단매에 쓸어버리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출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과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은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공업생산을 124%이상으로 장성시키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커다란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 매우 방대한 계획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킴으로써만 달성될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인민의 생활을 더욱 높이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훌륭히 발양시키기 위하여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할것이다.

*　*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는것이다.

정치사상적준비는 적들의 온갖 도발을 분쇄함에 있어서나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전체 지도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을 때 원쑤들의 발악이 아무리 심하고 우리앞에 제기된 과업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대고조도 바로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요구와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사명을 자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사상적으로 발동된 결과이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그것은 조선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 나라와 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만이 혁명하자는 사상이고 남조선에서 미제를 내몰고 조국을 통일하며 조선혁명을 완성하자는 가장 정당하며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될수 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특히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함으로써 좌우경기회주의, 사대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적유교사상과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반동사상과 반동적이며 비계급적인 현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과 자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떤 부문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오직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당정책을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외곡하는 현상과 당의 방침을 소극적으로 집행하거나 중도에서 그만두는것과 같은 현상을 추호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혁명적으로 전개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여야 한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는것은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튼튼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기술문화수준을 높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들을 용감하게 이겨내며 경제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나갈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하고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성취할수 있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27페지)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공산주의교양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력히 진행하는 한편 당조직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은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정치사업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우리는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하게 관철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그들의 적극성과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리익과 안일을 버리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게 하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온갖 착취계급을 증오하고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남조선혁명을 적극 지원하여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앞당겨 완수하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하에서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계속 보장할수 없다는 수정주의적《리론》을 짓부셔야 한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속도가 빠를수 없다는 《리론》과 경제발전의 속도가 빠르면 경제의 균형성이 파괴된다는 《리론》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보지 않으며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어긋나는 철저히 반동적인 리론이며 수정주의자들의 썩어빠진 궤변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산의 잠재력은 급속히 늘어나게 되며 생산은 높은 기술에 기초하여 더욱 빨리 발전할수 있다. 높은 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경제발전의 속도를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의 하나인 기본건설투자를 더욱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으며 따라서 확대재생산은 더욱 높은 속도로 촉진될수 있다. 또한 사상혁명이 추진되여 근로자들의 의식수준과 자각적열성이 높아지고 기술혁명이 실현되여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경제발전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인 로동생산능률을 장성시킬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생산자대중의 자각적열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며 기술혁명을 강화한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높이고 빠른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생산이 아무리 빨리 장성하여도 계획화사업을 잘하고 경제관리를 그에 따라세운다면 인민경제의 균형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계속 높은 속도로 생산을 장성시킬수 있다.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이다.

우리 인민들은 지난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생산을 부단히 빠른 속도로 높일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하였다.

우리는 대중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수정주의적궤변을 짓부시고 생산장성속도를 계속 높이기 위하여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기 위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으로 일하며 빨리 전진하는것을 두려워하는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뒤떨어진것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혁신 그자체가 벌써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입니다. 뒤떨어진것, 보수주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40페지)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와 온갖 침체를 쓸어버리고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새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널리 받아들이여 기계화, 자동화를 대대적으로 촉진하며 끊임없이 새 기적을 창조하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강력히 확대발전시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고 혁명화하는 사업에 제1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며 도처에서 낡은 《공칭능력》과 낡은 기준을 깨뜨리고 새 기준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천리마작업반, 천리마직장, 천리마공장 대렬이 계속 확대되고 전체 근로자들이 천리마기수가 되게 하며 전사회가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게 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이룩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지도를 따라세워야 한다.

조성된 정세의 긴절한 요구와 자기앞에 부과된 혁명임무를 깊이 자각한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지금 계속 높아가고있다. 당과 수령의 호소를 심장으로 접수한 근로자들은 도처에서 숨은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고 분초를 다투어가면서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눈부신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앞에는 대중의 이러한 앙양된 기세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그들이 찾아낸 예비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보장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지도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힘있게 이끌고나가면서 그들이 찾아낸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실생활에 구현한다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초과수행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는 바로 10년전에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방대한 5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였던것과 같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7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매우 좋은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지도일군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굳게 믿고 그들의 새로운 발기를 적극 지지해주며 대중을 발동하여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는 동시에 그것이 지체없이 실생활에 구현되도록 잘 맞물려주고 생산보장사업과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함으로써 도처에서 새로운 기적이 끊임없이 이룩되도록 해야 한다.

대규모적인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하며 생산조직사업을 잘하여 찾아낸 예비를 모조리 실생활에 구현하자면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대안체계의 기본은 경제기관, 기업소

들이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군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해결하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모든 사람이 동지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직장, 모든 공장, 모든 부문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협동생산을 발전시키며 객관적인 경제법칙들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

우리는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열의와 자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성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양시키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정치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이에 경제기술적인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여기에 물질적관심을 옳게 배합하는것,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중을 동원하는 우리 당의 기본방법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44페지)

인민경제 모든 부문 지도일군들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며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더 많은 예비를 찾고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조직사업을 잘하고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가장 우월한 형태인 우리 당의 일원화계획체계와 세부계획화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국가의 철저한 중앙집권적지도밑에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키며 주관주의와 함께 기관본위주의, 지방주의를 다같이 극복하고 생산의 내부예비를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동원할수 있게 하는 가장 선진적인 계획화방법이다.

일군들은 계획을 세우는데서 무엇보다 먼저 당의 정책과 객관적현실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발전속도와 부문간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설정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을 잘 배합시키고 축적과 소비를 옳게 결합함으로써 인민경제발전의 종합적균형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동시에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 잘 맞물려야 한다. 이와 같이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빈틈없이 결합시키고 협동생산을 세밀하게 조직할 때 새로 찾아낸 증산과 절약의 예비들도 남김없이 옳게 맞물리고 훌륭히 구현할수 있다.

이와 함께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계획에 물린 원료, 자재를 우로부터 아래에 현물로 내려다 주는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복잡하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지도일군들이 관료주의를 퇴치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당,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자신이 당의 전사이며 인민의 충복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부단히 높이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대중의 자각성과 창조력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며 각계각층군중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묶어세우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갈 때 혁명과 건설에서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은 더 훌륭

한 열매를 맺을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속도는 더욱 제고될것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절약과 증산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정치, 경제, 군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조성된 긴장한 정세는 우리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 나라의 자원과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도처에서 랑비를 결정적으로 근절하고 로력, 자재, 자금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며 모든 과업을 끝까지 해낼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살붙이는 사업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 불비한 점들을 보충완비하며 모든 기계설비들과 있는 생산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는 적은 투자로 예견된 공사를 기한전에 질적으로 끝내며 지난 기간 《평양속도》와 《비날론속도》를 창조한것처럼 군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부단히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매개 부문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추진하며 로동계획화사업을 강화하는 등으로 적은 로력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물자소비기준을 극력 낮추고 재정과 물자 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온갖 랑비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는 한편 파철과 고자재를 전인민적운동으로 수집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며 모든 부문과 기업소에서 필요한 물자예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답게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로력과 자재, 자금을 극력 아껴쓰며 나라에 보탬이 되는것이라면 크고 작은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동원하여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앙양될것이다.

* *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은 당이 제시한 방대하고 긴장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고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그것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전쟁도발소동으로 날로 긴장되는 첨예한 정세하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적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결정적투쟁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매개 부문, 매개 단위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기 위한 투쟁은 또한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기대와 크나큰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며 당과 수령께 다진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의 맹세를 실현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투쟁이다.

전체 지도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혁명 앞에서 지닌 숭고한 책임과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실한 혁명전사로서의 긍지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분초를 다투어 생산과 건설에서 더욱 큰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천리마의 우렁찬 진군을 다그쳐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하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중앙위원회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다시한번 온세상에 떨치자.

사회주의기초축성의 력사적 승리를 담보한 창조적인 전략과 전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위대한 강령적문헌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출판에 즈음하여

이번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우리나라 혁명과 건설을 위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휘황하게 밝혀준 위대한 로작들이 수록된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을 출판하였다.

이 저작선집에는 제1차5개년계획수행기간(1957~1960년)의 김일성동지의 연설, 보고, 담화들 가운데서 중요한 로작 21건이 들어있다.

*

제1차 5개년계획시기는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깜빠니야가 전례없이 강화되고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대두하여 맑스—레닌주의에 발광적으로 도전하여나선 때이며 국내적으로는 조국의 남녘땅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북진》나발을 요란하게 불어대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행위와 파괴, 암해 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던 때이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당내에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과 혁명에 악랄하게 도전하여나섰다. 이리하여 우리 혁명의 대내외정세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헤아릴수 없는 애로와 난관이 조성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기초건설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위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정확히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에 수록된 저작들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 제기된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과 그 공고화,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 새 환경에 적응한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의 확립, 사상, 문화혁명의 촉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등에 대한 전략전술을 휘황하게 밝혀주었다.

여기에는 또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과 내외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총화되여있다.

저작선집 제2권에 수록된 문헌들은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조선의 혁명과 건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조선혁명의 기본임무에 맞게 그것을 독창적으로 심화발전시킨 산모범이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크게 공헌한 위대한 문헌들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에는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 구애됨이 없이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발전시켜나아가는 창조적정신이 전반에 흐르고있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여나아가는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이 일관하게 관통되고있다.

우리는 아래에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에 관통되고있는 중요사상들에 대해서만 해설하려 한다.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는것은 5개년계획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회주의기초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 《상품류통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제1차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를 비롯하여 이 저작집에 들어있는 일련의 로작들에는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이 과학적으로 천명되고 사회주의혁명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그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이 총화되여있으며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새로운 전투적과업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사회주의적개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농촌경리의 협동화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농업협동화의 발전단계와 속도, 협동경리의 형태와 규모를 정확히 규정하시고 협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레닌적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것이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농민대중에게 농업협동조합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고 그들이 자원적으로 사회주의협동경리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빈농을 비롯한 농촌에서의 우리 당의 적극분자들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그들로써 매개 군에 몇개씩 경험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은 이 경험적단계를 통하여 일군들로 하여금 협동경리조직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하며 협동화운동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

게 하는 한편, 중요하게는 모든 농민들, 특히 중농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대중적으로 협동화운동에 끌어들일것을 목적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90페지)

누구보다도 축력과 농기구가 모자라고 생산토대도 빈약한 빈농민들로만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을 추켜세우며 개인경리에 비한 그 우월성을 보여준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당과 국가의 적극적인 방조와 농촌핵심들인 조합원들의 헌신적로동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들은 조직된 초기부터 자기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또한 경험적단계를 통하여 우리 일군들은 협동화운동을 지도하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고 신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협동조합의 관리운영에서도 일정한 경험을 쌓을수 있었고 적지 않은 관리일군도 준비할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한편으로는 실물을 통하여 사회주의적공동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광범한 농민들속에서 꾸준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한 결과 빈농민뿐만아니라 중농들이 협동화운동에 인입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협동화운동은 경험적단계에서 대중적단계로 발전하게 되여 농업협동화는 빨리 추진되게 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이 대중적단계에 들어서면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것은 협동조합의 형태와 규모를 옳게 선정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가 농민들의 사적소유로 되여있으며 농민들의 경제형편과 정치적각오정도가 서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협동경리의 세가지 형태를 규정하시고 조합을 조직하는데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그 형태를 선정하도록 하는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협동경리의 제1형태는 작업만을 공동으로 하는 고정적로력협조반이며, 제2형태는 토지를 통합하고 공동경리를 운영하되 로동과 토지에 의하여 분배를 하는 반사회주의적형태이며, 제3형태는 토지와 기본생산수단을 통합하고 로동에 의해서만 분배를 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형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합원들의 역축과 농기구 등을 기계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 통합하든가 또는 일정한 시기까지 계속 사적소유로 남겨두면서 공동으로 리용하도록 하며 통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교시하시였다.

협동경리의 세가지 형태와 생산수단의 이와 같은 통합방식은 중농들로 하여금 협동경리를 쉽게 받아들일수 있게 하였으며 광범한 농민대중이 대대적으로 사회주의경리에 망라될수 있게 하였다.

경리형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리규모를 규정하는데서도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간부들의 준비정도, 영농방법과 기술장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규모를 크게 할데 대한 창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농촌에서 사회주의개조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촌에서 옳은 계급정책을 실시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 우리 나라 농촌의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농업협동화운동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농촌계급정책의 기본은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여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부농을 제한하며 개조하는것,…》**(우와 같은 책, 296페지)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여나선것은 빈농층이였다. 새 중농의 대부분도 역시 처음부터 협동화를 지지하였으며 나머지 중농은 동요하였다. 자본주의적착취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부농은 외면하거나 반항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농촌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협동경리조직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지지하는 빈농층에 튼튼히 의거하여 협동조합들을 조

직하고 거기에서 핵심적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도방조하였으며 동요하는 중농층에 대하여서는 꾸준한 설복과 실물교양을 통하여 그들이 자진하여 협동경리에 들어오도록 이끌었다. 이와 함께 부농 가운데서 협동화를 방해하며 파괴하려는자들에게는 응당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착취행위를 버리고 성실하게 일하려는자들은 협동경리에 받아들여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부농을 수탈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방침을 제시하신것은 사회주의혁명력량이 강대한 반면에 부농자체의 력량은 매우 미약하며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급격히 진행되고 부농의 착취적대상과 지반이 청산되여감에 따라 그들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게 된 현실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신 정당한 조치였으며 창조적인 계급정책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협동화를 위한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계급정책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발생과 공고발전을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 방조를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이 모든 현명하고 창조적인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는 시작한지 4～5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성되였다.

전후 우리 나라의 주객관적정세는 농촌경리의 협동화를 절실히 요구하였으며 또한 그때 우리 나라에는 협동화를 위한 모든 조건이 성숙되여있었다.

전쟁에 의하여 우리의 농촌경리가 심히 파괴되고 로력과 축력이 매우 모자라는 조건에서 개인경리를 가지고서는 파괴된 농업생산력을 빨리 복구하며 령락된 농민들의 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없었으며 더욱 많아진 빈농민문제를 풀수 없었다.

사회주의적공업과 개인농민경리 사이의 모순은 전후 우리 나라에서 빨리 복구발전되는 공업과 매우 더디게 복구되는 농촌경리 사이의 심한 불균형으로 나타날 위험성을 가지고있었다. 개인농민경리를 그대로 두고는 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며 나아가서는 전반적인민경제를 복구하는 사업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될것이 명백하여졌다. 이리하여 농촌에서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사회주의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한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적국영경제는 개인농민경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있었으며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공업은 농촌경리의 협동화운동에 물질적방조를 줄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었다. 농촌의 사회계급적관계에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여있었다. 전쟁에서 부농들의 경제토대가 파괴되여 그 영향력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반면에 우리의 근로농민들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 가렬한 전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당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되여있었다.

이와 같이 혁명발전이 절실히 요구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성숙된 실정에서 김일성동지께서 농업협동화를 제기하신것은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한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였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농촌경리를 협동화할뿐만아니라 도시에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상품류통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와 다른 일련의 로작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정당성,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과정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시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방침에 따라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적극 추진시켰으며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는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냈다.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하게 섰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따라 로동당시대에 와서 비로소 수천년동안 지속되여온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청산하며 수백만사람들의 수세기동안 내려오는 낡은 생활관습과 유습을 그 밑뿌리로부터 흔들어놓는 세기적변혁을 가져왔다. 이것은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초를 닦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에서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장기적인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인 제1차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들이 명시되여있는 로작들이다. **《제1차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를 비롯하여 이 저작집에 들어있는 다른 많은 로작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5개년계획기간을 기술적개건의 첫단계로 규정하고 이 기간에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함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동시에 앞으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물질적 및 기술적 조건을 준비할것을 공업부문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며 나라의 통일독립과 장래번영을 위한 우리 혁명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토대를 닦는것은 우리 나라를 뒤떨어진 농업국가로부터 자립적인 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과업이였다.

우리가 낡은 사회로부터 넘겨받은 공업은 식민지적예속공업이였으며 농업도 매우 뒤떨어지고 황페화된것이였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해방후에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달라붙었으나 우리 인민의 평화적건설사업은 미제가 도발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였으며 우리 경제는 또다시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전후 3개년계획기간에 전쟁의 상처를 기본적으로 가시였으나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과 농촌경리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과업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채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조국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공업에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완전히 없애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건설하여야 하였으며 그러자면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중공업과 발전된 경공업을 건설하여야 하였다. 또한 농촌경리를 재해를 모르고 해마다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으며 식량과 공업원료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선진적인 농촌경리로 전변시키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기술적개조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공업화의 토대를 축성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는것이 특히 절실한 과업으로 나선것은

이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회경제적변혁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던 때에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여가고있었다. 그런데 오래동안에 걸치는 식민지통치의 후과와 3년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심히 파괴되였던 탓으로 생산력의 발전은 아직 낮은 수준에 있었다. 다시말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는 기본적으로 확립되였으나 사회주의의 물질적, 생산적 기초는 아직 미약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는것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이였으며 이것을 실현하려면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를 실현하여야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기본적으로 승리한 조건에서 기술적개조는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공업, 농촌경리, 운수, 기본건설 등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기술적개조가 없이는 우리 인민경제를 앞으로 더 전진시킬수 없으며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도 없으며 인민생활도 한층 더 높일수 없습니다.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이미 확립된 새로운 사회주의적생산관계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적개건을 촉진하며 사회주의의 물질적, 생산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57～15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기 위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전직후부터 견지하여왔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은 원래 우리 나라에 일정한 중공업의 토대가 있었으며 전후 3개년계획기간에 중공업기지가 적지 않게 개건확장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중공업발전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

이 저작선집에 들어있는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에는 대규모발전소를 건설하는 동시에 여러 지역에 중소규모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며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을 배합함으로써 전력공업을 인민경제발전에 확고히 앞세우며 나라의 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흑색야금공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여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종류와 규격의 강재를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며 제철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화학비료와 섬유원료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화학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등 중공업발전의 방향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 있다.

이 시기 우리 당이 중공업건설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돌린것은 기계공업의 발전이였다.

기계공업은 중공업의 심장이며 기술발전의 기초이다.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 기술혁명이란 낡은 수공업적기술을 기계기술로 교체하며 끊임없이 현대적이며 더욱 능률적인 기계설비들을 도입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생산보장하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 대하여 말할수 없었으며 우리 경제를 더욱 전진시킬수도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기계공업의 발전은 이 시기 모든 문제해결의 중심고리였다.

김일성동지의 예견성있는 현명한 조치와 깊은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기계공업의 터전이 닦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전

후시기에 그 어느 부문보다도 빨리 발전하여 기계공업의 상당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그러나 우리의 기계공업은 인민경제의 높은 발전속도와 특히는 기술개건의 과업과 관련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기계설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였다. 이러한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은 이미 마련된 기계공업의 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는 한편, 5개년계획기간에 새로운 기계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기계공업기지를 급격히 확대강화할 조치를 취하였다.

기계공업기지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당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기계설비를 만들며 기계생산의 모체인 공작기계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요구되는것이 새 기술, 새로운 기계, 설비였는데 이것을 만들려면 많은 공작기계가 요구되였다. 이 공작기계를 전문적인 공작기계공장들만으로 생산보장할수는 도저히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견지할수도 없고 기술개건을 빨리 실현할수도 없었다.

이렇게 모든것이 기계생산의 모체인 공작기계에 걸렸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독창적인 발기를 하시였다. 이 호소를 받들고 우리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였으며 한해동안에 전국적으로 계획외에 1만 3,000여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운동을 통하여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깨뜨려졌으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은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되게 되였다.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이 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였다. 1958년 1월에 열렸던 경공업성열성자회의에서 하신 연설 《경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와 다른 일련의 로작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공업부문앞에 맡겨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가장 중심적인 과업은 원료문제, 특히 섬유원료를 해결하는것이였다. 인민들의 의식주문제해결에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는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며 이것을 위하여서는 방직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였는데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고 섬유작물이 잘되지 않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농촌경리의 발전만으로는 방직공업의 원료를 도저히 보장할수 없었다. 물론 섬유원료를 다른 나라에서 사올수도 있으나 다른 나라에 원료를 의존하는것은 안전하지 못하며 또 다른 나라에 원료를 의존하여가지고서는 방직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도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섬유원료를 해결하는 결정적담보가 화학섬유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스프와 인견사 생산을 늘이고 비날론공장건설을 다그칠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자체의 원료에 의하여 경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강력한 화학섬유생산기지가 꾸려진것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우리 당이 이 시기부터 예견성있게 화학섬유생산기지를 꾸리고 확대강화하는데 많은 힘을 돌려온 결과이다.

이와 함께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뒤떨어진 부문이며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나 녀성들을 부엌에서 해방하여 사회에 진출할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식료가공공업을 다양하게 빨리 발전시키며 일용필수품의 품종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한 중요한 과업들을 내놓으셨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공장들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장들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은 이 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로선으로서 경공

업과 인민경제전반의 발전속도를 더욱 높이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또 오늘도 하고있는 정당한 로선이다.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가 있은후 이 방침에 따라 몇달밖에 안되는 동안에 전국각지에서 국가자금을 들이지 않고 순전히 지방의 유휴자재와 유휴토력을 동원하여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여기에서 중앙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것과 거의 맞먹는 소비품을 생산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산업의 발전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강원도수산부문당열성자회의에서 하신 연설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와 다른 로작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원해어업과 심해어업을 발전시키고 대규모어업과 중소어업을 배합하여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활동을 전개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가공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수산부문의 기술장비를 강화하고 수산업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며 수산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바다를 정복하고 개척하는 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하며 특히 청년들이 바다에 적극 진출할데 대하여 그리고 수산업발전을 위한 다른 일련의 중요한 대책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경축대회에서 한 보고》를 비롯한 일련의 문헌들에는 협동화이후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과 농촌경리의 발전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농업협동화가 끝난 조건에서 승리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빨리 발전하는 공업에 농업을 따라세우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농촌경리의 기술개조를 실현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협동화이후 농촌경리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심적인 과업은 기술혁명이다. 물론 높지 못한 기술적토대우에서도 경리의 계획적인 운영, 생산자대중의 자각적열성과 동지적협조에 기초한 협동경리만으로도 공동경리가 개인경리에 비할수 없는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농업협동경리가 뒤떨어진 기술적토대에 서있는한에 있어서는 생산력발전에서 일정한 한계에 부닥치지 않을수 없다. 오직 현대적과학기술의 토대우에서만 사회주의적대규모협동경리는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으며 사회주의사회의 높은 생산력을 이룩할수 있다.

이러한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개조가 승리하자마자 인차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및 화학화를 농촌기술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고 먼저 수리화를 실현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경지면적이 적고 농업에서 벼생산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해마다 4~6월에는 심한 가물이 계속되고 여름철에는 장마가 지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농업생산을 높이는 결정적고리는 관개체계를 세우는것이였다.

수리화와 함께 농촌기술혁명에서 중요한것은 기계화이다. 기계화는 농업생산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농민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고 그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며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높일수 있게 한다. 더우기 농업의 기계화는 수천년동안 뒤떨어진 농기구를 가지고 온갖 고역에 시달려온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영예로운 력사적임무를 수행하는데서 결정적담보로 된다.

농촌에서 수리화와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기화를 그

에 앞세워야 한다. 농촌을 전기화하지 않고는 수리화도 기계화도 성과적으로 할수 없으며 문화적인 농촌을 건설할수 없다.

화학화는 농업생산을 높이는 가장 위력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수리화와 함께 농촌전기화와 기계화를 실현하며 화학비료의 시비량을 늘이고 과학적시비체계를 세우는 등 농촌기술혁명의 모든 과업들을 동시에 적극 추진시키도록 하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기본건설부문앞에는 실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생산시설들을 복구, 개건, 확장, 신설하여야 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에 많은 주택과 문화후생시설들을 건설하여야 하였다. 또한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위한 관개공사도 하며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도 복구하여야 하였다. 5개년계획은 기본건설계획이라고 하여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였다.

이렇게 건설할것은 많은데 자재와 자금, 로력은 매우 제한되여있었다. 제한된 자재, 자금, 로력을 가지고 이 방대한 기본건설을 수행하는 결정적담보는 건설을 공업화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건설할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더 빨리, 더 값싸게, 더 견고하게, 쓸모있게 건설하는것이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건설을 조립식으로 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건재생산을 강화하며 건설사업을 기계화하고 건설에서 기술수준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65페지)

우리 당은 건설부문에 잠입하여 당의 건설정책관철을 방해하고 사회주의건설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분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건설의 공업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방대한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건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건설의 공업화와 함께 건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방침은 건설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였다.

건설의 높은 속도와 함께 이 시기 기본건설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건설의 질을 높이는것이였다.

평양시건설자회의에서 하신 연설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는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건물이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가진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짓는 집에서 사회주의적내용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민들에게 편리하며 아담하고 아름답고 견고한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요구하는 건설의 질입니다.》(우와 같은 책, 276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이 문헌들에는 또한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여있다.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형태인 상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공업과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있다. 전국상업일군열성자회의에서 하신 연설 《상품류통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와 다른 일련의 로작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류통사업을 개선하며 특히 도시와 로동자구들에서 식료품공급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농촌에 대한 공업품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하여, 상업일군들이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한 신성한 사업에 복무하고있다는

높은 영예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위하여 몸바쳐 일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나아가서는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담보를 천리마운동을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데서 찾으시였다.

저작선집 제2권에 수록된 《사회주의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는 김일성동지께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신 강령적문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전진운동은 언제나 낡은것과의 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뒤떨어진것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혁신 그자체가 벌써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입니다. 뒤떨어진것, 보수주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입니다.》(우와 같은 책, 240페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앙양기에 들어섰을 때 소극분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낡은 공칭능력과 기준에 매달리고 과학과 기술을 신비화하면서 대중의 창발성을 억압하려 하였으며 난관에 굴복하고 혁신을 두려워하면서 대중의 장엄한 전진운동을 저지시키려 하였다.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타파하지 않고는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할수 없었으며 천리마운동을 발전시킬수도 없었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근거하여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전면적으로 발양시켰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이 일어나 공업총생산액을 2.6배로 늘일것을 예견하였던 5개년계획의 과제를 2년반에 완수하였으며 중요한 공업제품의 현물지표별생산계획도 전반적으로 4년동안에 완수 또는 넘쳐완수하였다. 제1차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이 기간에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도 기본적으로 해결되였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할데 대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승리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이 적극 추진되던 이 시기에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키며 당면한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선 중요한 과업은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실현하는것이였다. 이 저작선집에 들어있는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시, 군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10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는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이 천명되여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자들의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투쟁에 의하여서만 건설될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은 경리형태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였다고 하여 저절로 개조되는것은 아니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자본주의적, 봉건적 사상잔재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이 낡은 사상잔재들은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장애로 되며 따라서 이 낡은 사상잔재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 전진시킬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문헌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하루빨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철저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전진을 보장할수 없으며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할수도 없습니다.

근로대중의 머리속에 아직 남아있는 낡은 봉건적, 자본주의적 사상잔재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혁명은 곧 온갖 낡은것을 때려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입니다.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 적극과 소극파의 투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투쟁, 총체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투쟁, 이것이 우리가 하는 혁명투쟁의 내용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위업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썩은것을 쓸어버리는 과정에서만 승리할수 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57페지)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와 다른 일련의 문헌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들과 사상사업방법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문헌들에서 공화국북반부와 남반부의 현실을 대비하여, 자본주의국가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처지를 대비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착취적본질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일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고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있는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는것이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사상을 철저히 반대하여 투쟁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나라의 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집단을 사랑하고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희생할줄 아는 고상한 집단주의사상으로 교양할데 대하여, 그리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교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교양에서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은 우리에게 부유한 새생활을 가져다줄뿐아니라 우리를 유능하고 견실한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로동과정에서 자연을 개조하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수 있으며 자기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동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될수 있으며 일하기를 싫어하는 착취계급들의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버리고 로동을 사랑하는 근로인민의 사상으로 무장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74~475페지)

다음으로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계속혁명의 사상으로, 계속전진하고 계속혁신하는 혁명적사상으로 교양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근로자들의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상혁명과업과 기술혁명과업은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문화혁명을 수행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기술을 배우며 또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수준을 높여야 합

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 무식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누구나 다 적어도 중등이상의 지식을 가진 유식한 사람으로 되게 하자는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일수 있고 그들을 더욱 빨리, 더욱 철저하게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65페지) 그러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면하여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전체 근로자들을 인민학교 또는 초급중학교 졸업정도 이상의 지식을 가지게 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이와 함께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공업화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인재를 대량적으로 양성하고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일데 대한 문제, 보건위생사업을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을 깨끗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며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관습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도덕기풍을 세울데 대한 문제, 과학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의 발전방향에 대하여서와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과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응당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이 위대한 창조적생활을 힘있게 형상화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천리마시대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들의 희망과 념원을 뚜렷이 나타내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72페지)

그러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가들의 불굴의 투쟁과 토지개혁,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시기의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내놓으시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문학예술을 철저히 혁명적이며 당적인 문학예술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79페지)고 교시하시였다.

다음으로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대중의 실천적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으며 실생활을 생동하게 깊이있게 형상화한 사실주의적문학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여 그의 령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다. 《제1차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업방법에 대하여》, 《함경북도당

단체들의 파업》 등 문헌들에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명백한 대답이 담겨져있으며 당사업의 기본방법과 내용들이 천명되여있다.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당대렬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것,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앞에 나선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을 성과있게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개량주의당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당이며 자본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투적당입니다. 자본주의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선 당의 강철같은 통일이 필요합니다.

당의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와 결정에 의하여 전당이 한사람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도부에서 <앞으로> 할 때 가지 않겠다고 뒤에서 우물거리거나 <좌로> 하면 우로 달아나는 현상이 당내에 있을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376페지)

당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은 오직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내에 민주주의중앙집권적인 강한 규률을 세울 때에만 이룩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철저히 뿌리빼는것이다.

전후 어려운 시기에 당에 도전하여 나섰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때려부시고 력사적으로 내려온 종파의 오물을 청산하는 획기적계기로 되였던 1958년 3월에 열린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결론 《제1차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계속 반대하고 당의 통일을 고수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욱 견결히 반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주의, 가족주의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역시 종파주의입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을따름이지 사실은 이것이 다 종파주의입니다. 》(우와 같은 책, 122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의 본질과 사상근원, 해독성, 그 표현형태와 수법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모든 당원들이 언제 어데서나 당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고 좀먹는 사소한 불건전한 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교양을 강화하며 온갖 부르죠아사상요소들과 수정주의사상조류들을 철저히 반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일군들은 당의 정책과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연구하고 모든 당원들이 그것을 잘 알도록 해석선전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이 당정책과 결정을 한결같이 잘 알아야만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리당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는 100만 당원이 모두 숨을 쉬여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고 일치하게 행동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89～390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만 모든 문제를 옳게 판단할수 있고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나쁜 사상요소들과의 강한 투쟁을 전개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정확히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문헌들에 담겨져있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우리의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을 위한것이며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광범한 대중이 동원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대렬을 잘 꾸리고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골간인 간부들을 당에 무한히 충실한 사람으로 잘 꾸리고 그들을 늘 교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간부사업의 기본원칙과 간부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명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믿고 꾸준히 교양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이 혁명에 충실하도록 옳게 이끌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인테리정책을 천명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혁명의 편에 전취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당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교시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히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 건설에서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다. 옳은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질 때에만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를 바로세울수 있고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당을 강화하고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는것과 함께 당면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을 강화하고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는것도 결국은 혁명과업을 잘 실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만큼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잘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에 따라 정확한 방침을 세우고 분공을 주며 그 실행정형을 검열하는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장과 행정일군과의 관계는 비유해말하면 배에서 키잡는 사람과 노젓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행정일군은 앞에서 노를 젓고 당위원장은 뒤에 앉아서 키를 잡고 좌로 우로 하고 지시하면서 방향을 옳게 잡아주어야 배를 곧바로 몰고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둘이 다 앞에 나가서 노만 젓다보니 빨리 가는것 같지만 곧바로 가지 못하고 꼬불꼬불 가기때문에 결국은 더디게 갈수밖에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339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에서 관료주의적이며 행정식, 명령식 사업작풍을 철저히 없애고 설복과 교양을 위주로 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항일빨찌산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울것을 교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당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당일군들의 자체수양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가족주의, 지방주의, 종파주의의 모든 요소들을 철저히 때려부시고 전당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관된 전투대오로 만들었으며 당원들과 군중을 당중앙위원회와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웠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당사업을 당원들과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서 실속있게 진행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에서 이미 거둔 승리를 공고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인민정권기관

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시, 군 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 등 문헌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정권이 걸어온 빛나는 승리의 로정을 총화하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정권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맞게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앞에 나선 방대한 사회주의건설과업을 옳게 수행하려면 사업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조건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이 모든 생활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따라서 생산으로부터 분배,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다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와 함께 우리의 정권은 인민의 정권이며 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인민의 심부름군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인민적사업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지지도를 강화하여 국가사업을 대중과 직접 토의하며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에 의거하여 난관을 이겨내며 그들의 절실한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주는 진정으로 인민적인 사업방법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민대중을 국가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인민정권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4폐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감에 따라 내외의 온갖 계급적 및 민족적 원쑤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여나섰다. 이러한 때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로작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우리 당의 계급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함에 있어서 리론실천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문헌이다.

이 문헌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이 수정주의를 퍼뜨리며 우리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약화시키려던 죄행을 폭로비판하시면서 독재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두가지 독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죠아독재이며 다른 하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입니다.

…부르죠아독재는 로동자, 농민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자본주의제도를 위하여서는 부르죠아독재가 필요하며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요합니다.》(우와 같은 책, 135폐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정권이 사회주의혁명을 위하여서는 사소한 양보도 하지 않으며 사회주의혁명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요소들과 비타협적투쟁을 전개하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법의 본질과 그 계급적성격에 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분석을 하시고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 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우리 당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법을 옳게 집행하려면 일군들이 당정책을 꾸준히 연구하고 당성을 단련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인민정권사업을 강화하며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높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강유력한 무기로서 더욱 공고발전되였으며 자기앞에 나선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발전하는 현실과 변천된 환경에 맞게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사업태도이다. 특히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 변천된 새환경에 맞게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가장 긴절한 과업의 하나이다.

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개인경리를 대상으로 하던 낡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여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되였으며 생산력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생산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대중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진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게 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수준은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의 요구와 실지 사업방법간, 현실의 요구와 일군들의 지도수준간에는 일정한 불일치가 조성되였으며 이것을 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높은 속도로 추진시킬수 없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방금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협동농장들이 리단위로 통합되여 그 규모가 커진 농촌경리부문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것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1960년 2월 청산리와 강서군 당사업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새환경에 맞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강서군당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등 문헌들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며 우리 당의 전통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에 있어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문헌들이다.

이 문헌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이후 우리 나라에서 특히 농촌에서 일어난 변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새환경에 맞게 당사업과 정권기관사업, 경제지도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에서 주되는 사업인 영농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계획화수준을 높이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농민들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할것을 교시하시면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방도와 대책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도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적,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이 지속되고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울것을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중앙이 도를 도와주고 도가 군을 도와주고 군이 리를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똑똑히 세워 당면한 애로를 뚫고나아가야 할것입니다. 특히 군이 리를 지도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시, 군 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 등 문헌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정권이 걸어온 빛나는 승리의 로정을 총화하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정권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맞게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앞에 나선 방대한 사회주의건설과업을 옳게 수행하려면 사업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조건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이 모든 생활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따라서 생산으로부터 분배,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다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와 함께 우리의 정권은 인민의 정권이며 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인민의 심부름군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인민적사업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지지도를 강화하여 국가사업을 대중과 직접 토의하며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에 의거하여 난관을 이겨내며 그들의 절실한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주는 진정으로 인민적인 사업방법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민대중을 국가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인민정권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4폐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감에 따라 내외의 온갖 계급적 및 민족적 원쑤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여나섰다. 이러한 때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로작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우리 당의 계급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함에 있어서 리론실천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문헌이다.

이 문헌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이 수정주의를 퍼뜨리며 우리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약화시키려던 죄행을 폭로비판하시면서 독재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두가지 독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죠아독재이며 다른 하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입니다.

…부르죠아독재는 로동자, 농민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자본주의제도를 위하여서는 부르죠아독재가 필요하며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요합니다.》(우와 같은 책, 135폐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정권이 사회주의혁명을 위하여서는 사소한 양보도 하지 않으며 사회주의혁명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요소들과 비타협적투쟁을 전개하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법의 본질과 그 계급적성격에 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분석을 하시고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 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우리 당 정책을 적극옹호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법을 옳게 집행하려면 일군들이 당정책을 꾸준히 연구하고 당성을 단련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인민정권사업을 강화하며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높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강유력한 무기로서 더욱 공고발전되였으며 자기앞에 나선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발전하는 현실과 변천된 환경에 맞게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사업태도이다. 특히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 변천된 새환경에 맞게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가장 긴절한 과업의 하나이다.

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개인경리를 대상으로 하던 낡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여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되였으며 생산력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생산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대중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진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게 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수준은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의 요구와 실지 사업방법간, 현실의 요구와 일군들의 지도수준간에는 일정한 불일치가 조성되였으며 이것을 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높은 속도로 추진시킬수 없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방금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협동농장들이 리단위로 통합되여 그 규모가 커진 농촌경리부문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것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1960년 2월 청산리와 강서군당사업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새환경에 맞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강서군당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등 문헌들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며 우리 당의 전통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에 있어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문헌들이다.

이 문헌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이후 우리 나라에서 특히 농촌에서 일어난 변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새환경에 맞게 당사업과 정권기관사업, 경제지도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에서 주되는 사업인 영농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계획화수준을 높이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농민들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할것을 교시하시면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방도와 대책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도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적,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이 지속되고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울것을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중앙이 도를 도와주고 도가 군을 도와주고 군이 리를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똑똑히 세워 당면한 애로를 뚫고나아가야 할것입니다. 특히 군이 리를 지도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우와 같은 책, 515페지)

변화된 새로운 현실의 요구와 일군들의 지도수준간에 생긴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이 필요하였다. 특히 리가 기본생산단위로 되고 군이 말단지도단위로 된 현실은 군일군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명령, 지시만 할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리에 내려가 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해주며 직접 군중속에 들어가서 실정을 료해하고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조직동원하는 사업기풍을 세울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객관적현실의 요구인 동시에 맑스—레닌주의적사업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은 대중자신에 의하여 진행되며 모든 당정책은 근로자들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관철된다. 당 및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아래일군들을 잘 도와주며 군중을 옳게 조직동원하여야만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우리의 실천적경험은 이러한 조치가 빨리 발전하는 현실과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일군들의 지도수준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일뿐만아니라 대중의 생산실천과 동떨어진 낡은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없애고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추진시킬수 있는 훌륭한 방도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에서 아래에 내려가 밑을 도와주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는것과 함께 모든 사업에서 반드시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사업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시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를 앞세운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당정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하며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96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적극 발양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그런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야만 높이 발양될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계급적각성과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에게 제기된 혁명과업의 목적과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려주어야 그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할수 있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가장 철저한 혁명정신이며 가장 힘있는 공산주의적군중령도방법이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확립된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이다.

청산리방법은 맑스—레닌주의당사업에서 제기되는 사업체계와 령도예술과 작풍상 요구들, 지도방법의 모든 측면들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있으며 혁명적지도의 모든 기본원칙들과 방도들을 집대성한 맑스—레닌주의적사업방법의 전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실천적모범에 의하여 창조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였으며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 당 및 국가 사업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긴절한 문제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아갈수 있는 명확한 방도를 밝혀준것으로 하여 무궁무진한 위력을 발휘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리론실천적의의는 더욱더 커갈것이다.

인민군대를 강화할데 대하여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소동과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창조적로동을 굳건히 보위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나라의 방위력 특히 혁명무력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이였다.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관하 장병들앞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는 인민군대를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방침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힌 문헌으로서 우리의 인민군대를 철저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만드는데 있어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이 문헌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거세하려던 반당종파분자들의 음모책동을 폭로하시면서 우리 인민군대가 계승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밑에 조국의 독립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한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이라고 하시면서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것은 …항일유격대의 사상체계를 계승하며 그 우수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계승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책, 66페지)고 밝히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매우 짧은 기간에 인민군대를 창건하고 그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발전시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의 성격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통일전선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조직되고 오직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령도되며 우리 당이 쟁취한 혁명의 열매를 보위하고 그가 제기하는 혁명과업의 수행을 무장으로 옹호하는 조선로동당의 군대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자기의 힘으로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고 인민주권을 옹호하며 적의 침해를 물리치고 우리의 방어선을 철옹성같이 지키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포와 비행기로 무장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더욱 중요합니다.》(우와 같은 책, 93페지)

혁명군대의 기본특성은 그의 정치사상적 및 도덕적 우월성에 있으며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인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이 계급적 및 민족적 원쑤들을 미워하고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사랑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사수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 싸울수 있는 고상한 혁명정신으로 무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그들을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에 무한히 충실하도록 옳게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군대내에서 당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내 당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보위성으로부터 사단, 련대에 이르기까

지 당위원회제도를 내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당위원회제도를 내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혁명무력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것으로서 모든 군인들을 당의 붉은 혁명전사로 키우고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군사훈련을 잘하고 방어공사를 튼튼히 하며 특히 군대의 규률을 강화하며 혁명적경각성을 높일것을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가 관철된 결과 군대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모든 군인들이 현대적군사과학과 기술로 무장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자라났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대하여

국토의 량단과 민족분렬을 종식시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최대의 혁명임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등 일련의 저작들에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다시한번 천명하시면서 《…우리 조국은 평화적으로, 어떠한 다른 나라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민주주의적의사에 의하여 통일되여야 할것입니다. 남북조선에서 모든 정당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과 구속도 없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전국적인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6폐지)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안은 조선인민의 자주적립장과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훌륭히 구현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조건을 과학적으로 명시한 가장 현실적이며 정당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들에서 통일위업의 실현을 방해하는 원쑤들의 갖은 책동으로 지금 당장 남북총선거를 실시할수 없는 조건에서 남북조선사이의 통상과 인민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통신 및 문화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체없이 취할데 대한 문제,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하여 남북조선의 대표를 참가시키는 유관국가들의 국제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 여지없이 몰락된 남조선의 민족경제를 바로잡고 극도로 령락한 인민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경제교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 등 남북조선인민들사이에 호상리해와 신뢰를 두텁게 하고 접촉을 강화하며 조국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들을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고있는 정당한 방안이며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진정으로 생각하며 초보적인 민족적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접수할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민족적숙망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민주기지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는 결정적력량으로 되고있으며 조선에서의 모든 정세변화의 기본요인으로 전변되고있습니다. 우리의 과업은 전체 인민을 동원하여 민주기지를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7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를 반대하는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들고 세계혁명을 촉진할데 대하여

저작선집 제2권에 수록된 여러 문헌들에는 세계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리고 우리 당의 대외정책이 천명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문헌들에서 사회주의진영을 제국주의자들의 공격과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부터 보위하고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세계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세계혁명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과 방침은 현시대와 현국제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고있다. 현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들의 전략전술작성에서 출발점으로 되는 기본문제이며 사회발전의 기본내용, 기본방향, 기본특징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원칙적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기본내용인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더욱 넓고 심각하고 빠른 과정을 밟아나아가고있습니다.

현국제정세의 기본특징은 사회주의가 세계무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있으며 제국주의세력은 더욱 약화되고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있는 그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26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여 미제국주의가 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혁명위업도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도 성취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미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담보는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에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사상은 사회주의가 세계적체계로 전환된 오늘의 국제정세에서 사회주의진영이 세계혁명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평가에 기초한것으로서 국제로동계급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려는 김일성동지의 견결한 혁명정신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세계혁명에 대한 그이의 무한한 충실성을 보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는 우리 나라 대외정책의 기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은 이 원칙을 훼방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을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또한 그러할것입니다. …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주의진영나라인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27페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

들의 민족해방운동을 확대강화하는것은 세계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민족해방운동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이며 세계제국주의의 마지막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왔으며 식민지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31페지)

우리 당은 또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 세계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평화애호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이 투쟁을 반제반미투쟁과 하나로 련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세계혁명에 기여한 우리 당의 거대한 공헌으로 하여 오늘 국제무대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위신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계속 강화되고있다.

특히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정이 날로 두터워가고있다. 오늘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기여한 불후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이를 《현시대가 낳은 가장 걸출하고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 《국제혁명의 세련된 지도자》,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로 우러러보며 그이에 대한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에 들어있는 로작들은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헤아릴수 없이 많은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키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이며 현명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내외의 원쑤들의 준동을 무찌르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켰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 저작선집에 들어있는 로작들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기초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한 결정적담보로 되였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우리의 위대한 투쟁강령으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저작들을 깊이 학습하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언제 어데서나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관철하며 우리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자.

김일성동지에 의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의 실현과 그 불멸의 업적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영광스러운 조국광복회 창건 32주년을 뜻깊게 맞이한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국광복회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의 기치로, 반일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등대로 되였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구현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여 모든 사람들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북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꾸리는데서 실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또한 오늘 남반부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반미구국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각계각층 군중을 하나의 통일된 정치적력량으로 조직결속함에 있어서와 나아가서 전세계적규모에서 반제반미통일전선을 실현하고 반제반미공동행동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반일력량의 단합과 행동통일이 이루어졌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이 훌륭히 실현되였다.

1936년 5월 5일 조선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국광복회가 창건되고 그이께서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추대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국광복회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동시에 조선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정치단체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한 상설적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며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가지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방해하던 일제와 대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조선혁명의 실천에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것이였다.

민족적단합과 행동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는 일제의 우리 나라 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으나 혁명의 중심, 탁월한 수령이 없음으로 하여 오래도록 실현되지 못하였다.

실로 조선인민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수탈로 인하여 조국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온갖 분렬과 대립, 파쟁을 제거하고 민족적단합과 행동통일을 실행하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탁월한 혁명의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렸다.

조선인민의 이 민족적념원과 력사적숙망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의 진두에 나서

신 그때로부터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우리 나라 력사의 선행과정, 조성된 정세 특히 민족주의운동과 공산주의운동 내부의 실태, 계급적 제관계, 조선혁명의 당면과업과 전망 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광범한 반일혁명력량의 단합과 행동통일을 혁명승리의 관건적문제로 인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수행할수 없다. …국내외에는 반일투쟁에 궐기한 로동자, 농민을 위시한 각계각층인민의 거대한 혁명력량이 있는데 이들을 모두 혁명조직에 묶어세워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는 투쟁에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력량을 집결시킬 목적으로 각종 형식의 비합법적조직을 통하여 혁명운동의 핵심을 키우시는 동시에 합법적조직들에 각이한 계층의 청년학생들을 광범히 조직결속하시였다.

그리고 1930년 길림감옥에서 출옥하신 이후에는 민족적단합에 대한 위대한 구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중남만의 광활한 지역의 조선인농촌들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결속하시는 한편 민족주의자들의 분렬책동과 공산주의대렬내에서의 종파분자들의 악랄한 파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민족적단합과 행동통일,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원대한 구상은 그이께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새로운 단계에서 더욱 발전하게 되였다.

항일유격대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정치적 및 군사적 동맹의 체현자로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기본담보였으며 조선혁명의 주도적력량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반일대중단체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유격근거지에 조직된 농민위원회는 빈농과 중농을 기본성원으로 하고 기타 반일사상을 가진 각계각층군중을 망라한 농촌에서의 통일전선적조직이였다. 반일회도 역시 통일전선적요구를 가장 폭넓게 체현한 광범한 사회계급적지반에 기초한 대중단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고 유격근거지에서 그것을 실현하심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당면과업을 무시하고 쏘베트정권형태를 고집하고 그에 의거하여 당장에 사회주의적시책을 실시하려던 좌경기회주의자들, 유격근거지와 적통치구역의 인민들을 갈라놓으려는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극복청산하시면서 군중을 인민혁명정부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시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1930년대후반기에 들어와서 매우 조직적으로 전국적규모에서 급속히 확대발전되여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2월 남호두회의에서 각계각층 반일군중을 전국적규모에서 조직결속할수 있는 상설적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시기 위하여 친히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작성하시고 선언과 규약을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면밀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이해 5월, 동강회의에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위대한 10대강령을 온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가장 혁명적강령이며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불멸의 기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는 인민정부의 수립, 토지문제, 중요산업국유화와 같은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단계에 상응하는 기본적

이 전략적과업들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였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로동계급의 기본요구와 각계각층인민들의 리익을 가장 정확히 결합시키였으며 혁명의 기본문제인 주권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무장투쟁과 통일전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혁명적강령이였다.

이 강령은 또한 장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반영한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가장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아올리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전국적범위에서 성과적으로 조직전개됨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꾸려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다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기 위하여 조국광복회 회원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시였다: 《조선인민중에서 반일독립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본회의 취지와 그 강령의 실현을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남녀, 로소, 직업, 종교, 지방,빈부, 당파 등의 차별없이 본회에 자원참가하여 본회의 회원으로 될수 있다.》(규약 3장 3조) 그리고 모든 반일력량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조국광복회선언에서는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힘이 있는 사람은 힘과 기능을 바치여 2천 3백만 민중이 한데뭉쳐 행동으로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참가한다면 조국의 독립, 해방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라고 호소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전취의 기본척도를 오직 일제에 대한 태도여하에 두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와 같은 방침은 원쑤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보다 광범한 군중을 혁명과 수령의 두리에 결속시킬수 있게 한 기본담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군중전취사업의 정확한 척도를 규정하시고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외 각지에 파견하시여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을 확대하도록 지도하시였다.

이리하여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은 갑산과 혜산으로부터 서울, 인천,부산에 이르는 전국각지에는 물론 동만, 남만, 북만의 조선인거주지역의 그 어디나 할것없이 널리 조직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지역에 조직된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을 거점으로 로동자, 농민들을 조직화하고 혁명화하여 조선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민족주의자, 종교인, 청년학생, 도시소시민, 중소상공업자 등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전취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어 적기관에 복무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반일사상을 가지고있다면 아량있게 포섭하고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전취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모범을 따라 정치공작원들은 그처럼 어려운 조건하에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전취하기 위하여 그들속에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깊이 침투시켰으며 그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고 부단한 교양과 혁명실천을 통하여 훌륭한 혁명가로 키웠다.

이리하여 조국광복회가 창설된후 불과 수개월동안에 수십만의 각계각층군중이 회원으로 망라되여 위대한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적아간의 력량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휘황한 앞날을 내다본 전체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된것을 더없는 긍지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이께 절대적인 신뢰를 표시하고 조국과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그이께 의탁하였으며 조국광복의 기치하에 하나로 굳게 뭉쳐 싸웠다. 인민들은 항일무장대오를 부단히 보충하며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였으며 그의 군사,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조선혁명의 주도적력량인 항일유격대는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자기 대오를 더욱 급속히 확대하고 전투력을 일층 제고하였으며 이르는 곳마

다에서 일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였다.

혁명적인민들은 강력한 무장투쟁의 영향하에 다양한 형태로 반일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선진적인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자체로 무장하고 항일유격대와 합세하여 전인민적무장봉기를 준비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리하여 조국광복회는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통일전선운동과정에서는 또한 당창건준비사업이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되여 갔다.

전국각지에 포치된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조직생활과 실제적인 혁명투쟁을 통하여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며 당창건의 준비를 위한 조직적골간을 꾸리는 거점으로 되였다. 또한 장차 창건될 조선공산당의 최저강령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전략전술로 무장시키며 사대주의자, 종파분자들을 극복청산하고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상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가 확고히 이루어졌다.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이 확대되고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력이 강화됨으로써 인민대중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는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나섰다. 이리하여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대중적지반이 확고히 꾸려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통일전선운동의 가장 정확한 전술적원칙을 확립하시고 고귀한 경험을 쌓아올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고 상층통일과 하층통일을 옳게 배합하며 단결을 목적으로, 단결과 투쟁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전술적원칙을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주의자들의 무장조직들인 조선독립군과 반일부대, 종교단체들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 상층과 하층을 엄격히 구분하시였다. 그리고 하층통일에 기본을 두시고 상층통일을 이에 밀접히 결합시키시였다.

또한 민족자본가들을 포함한 중간계층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들의 2중성을 통찰하시고 반일적요소들을 적극 조장발전시키고 동요성을 철저히 극복시키면서 단결을 목적으로, 단결과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전선조직의 형태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가장 현명한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정당이 없었던 환경에서 조국광복회와 같은 독창적인 통일전선조직을 창조하시였을뿐아니라 그 하부 조직의 형태규정에서도 가장 창조적인 방도를 재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의 명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선 조직의 명칭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사회주의계몽운동이 발전한 지역들과 민족주의운동이 발전한 지역들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곳에서는 조국광복회, 어떤 곳에서는 민족해방동맹, 또는 반일동맹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조직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실정에 맞게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을 급속히 확대할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비합법적 투쟁조건에서 조직의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 귀중한 지침이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무장투쟁, 조선공산당창건준비사업, 인민대중의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과 호상 밀접히 결합되고 정확한 전술적원칙에 기초하여 전개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운동은 전례없이 앙양되여갔다.

반일력량의 민족적단합과 행동통일, 전국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의 빛나는 실현, 그 행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

과 고귀한 경험은 오직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빛나는 구현인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강력한 견인력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걸쳐 악독한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을 달성하며 가혹한 탄압과 착취에서 인민을 해방하기 위하여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체사상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위대한 주체사상, 혁명사상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빛나게 구현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가장 정확한 조선혁명의 로선을 밝힘으로써 전체 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수령의 령도밑에 민족이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또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군중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혁명적강령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광복회가 선포하고 또한 집행한 정치적로선은 조선인민의 근본적인 민족적리익에 부합되였다.》(《김일성선집》, 제4권, 293페지)

조국광복회강령은 그것이 조선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것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조국광복회의 기치하에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되고 행동통일을 기할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정확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정황과 계층별 대상에 가장 알맞는 군중공작방법을 창조하시고 그 모범으로 정치공작원들을 무장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치공작원들을 지방에 파견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지하공작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하시는 동시에 특별히 류의할 점들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정치공작원들이 인민을 극진히 사랑하고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며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으로 인민들을 민족적자주의식과 반일애국사상으로 인내성있게 교양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취하게 하심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령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였으며 수령의 모범을 따라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으로 각계각층군중을 조직결속하였다. 정치공작원들은 어떤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지하공작의 행동강령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자기 희생적인 투쟁과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으로 광범한 각계각층군중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웠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직령도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우리 나라 혁명운동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된 이후시기처럼 우리 민족이 혁명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통일된 력량으로 굳게 단합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발전되여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졌다. 조선혁명의 주력부대인 항일유격대는 조국광복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이후시기에 더욱더 자기 대오를 확대강화하고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의거하여 종횡무진한 군사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조국광복회운동이 확대발전되면서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의 반일군중이 확고히 결속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강력한 혁명적영향하에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발전되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급속한 확대발전은 조국광복회조직들을 거점으로 하여 조선공산당창건준비사업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국적규모에서 더욱 줄기차게 추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력사적경험은 현시기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우리의 혁명적력량을 부단히 강화발전시키며,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군중을 반미구국통일전선에 굳게 결속시키는데 있어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경험은 또한 세계혁명발전에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초에 이미 반파쑈인민전선운동의 선구자적역할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기부터 공동의 원쑤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과의 행동통일, 특히 민족주의군대인 반일부대와의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기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반일부대들과의 반제공동전선과 공동행동을 실현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반일부대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그들의 정치적암둔성으로 인한 적대적망동과 혁명대오내에서 반로씨좌우경적편향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반일부대들과의 반제공동전선문제를 전면적으로 폭넓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혁명에 만회할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정세하에서 외유내강하고 인내성있는 설복력, 맑스—레닌주의적원칙성과 견결성, 아량있는 포용력, 체계정연한 론리, 위대한 감화력으로 포악한 반일부대의 두령들을 해설설복하여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이미 1930년대초에 가장 위대한 반제공동전선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반제공동전선과 반제공동행동의 선구자적역할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이것은 실로 세계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온갖 편협성을 버리고 국제적으로 대두한 파씨즘과 침략전쟁의 위험에 대처하여 응당 견지하여야 할 명백한 행동강령으로 되였으며 국제반파쑈인민전선운동의 강화발전에서 귀중한 공헌으로 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실현하신 반제공동전선과 그 운동과정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경험은 현시기 반미공동전선의 실현과 반미공동행동의 강화발전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와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등은 오늘 전세계의 수많은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현시기 전세계 인민들이 김일성동지께 절대적인 신뢰를 표시하고 그이를 세계혁명운동사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는 태양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 존경하고있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 *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구현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정에서 이룩된 불

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우리 당 통일전선정책의 확고한 기초로 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인민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하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력사적인 연설 《새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새민주조선을 건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공산당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며 광범한 대중을 공산당의 주위에 집결하는 사업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매 공산당원들은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며 우당들과 성심성의로 합작하며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9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당시 우리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 당면한 혁명과업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당을 강화하고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각당, 각파, 각계각층군중과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모든 애국력량을 총결속하는 위대한 지침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해방직후의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지체없이 당이 창건되고 새형의 인민정권이 수립되였다. 또한 인민무력이 창건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단시일내에 실현되고 북반부는 강력한 혁명기지로 전변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한 16개국 무력침공자들을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피로써 수호하였다. 또한 전후 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를 건설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킴에 대한 혁명적로선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미제의 발악적인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기본담보는 각계각층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조직진행함으로써 그들을 아량있게 포섭하고 교양개조하여 김일성동지와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결속시켜 혁명력량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는것이다.

전체 군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은 특히 미제와 그 추종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현정세하에서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며 각계각층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전개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키며 전사회를 단합되고 화목하며 생기있는 하나의 붉은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경험은 오늘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무한히 귀중한 재부로 된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교육사업은 혁명사업이다

리 장 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은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 교육일군들로 하여금 높은 영예와 책임감, 무한한 긍지를 가지게 한다.

우리들은 이 교시의 참뜻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진정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육성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의 기지를 반석같이 다지고 혁명대오를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교육사업은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새세대들을 혁명의 후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어떻게 길러내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새사회건설에서 사활적문제의 하나이다.

후대교육문제는 곧 혁명의 장래문제와 결부되여있다. 후대들을 옳게 교양육성하여야 그들이 우리의 혁명위업을 이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고수하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사업은 후대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이며 가장 책임적인 당적과업이다.

교육사업은 또한 자라나는 후대들뿐만아니라 전체 사회성원들을 교양개조하는데 복무한다.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하여 자라나는 후대들과 사회주의건설을 직접 떠메고나가는 사회성원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며 자신을 부단히 혁명사상으로 무장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모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철저히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공산주의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며 이에 있어서 학교는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사상혁명의 강력한 수단으로 되며 거점으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응당 사상혁명의 강력한 수단인 교육사업을 틀어쥐고 자라나는 후대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상혁명을 철저히 진행하여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학교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사업이란 매우 중요한 일인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할것없이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있어서 학교교양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공산주의사회가 가까와지면 질수록 국가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맡고있는 학교의 임무는 더욱 커집니다.》(《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원래 사람들에 대한 교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학교교육을 거쳐서 그 기초가 닦아지며 사회교육을 통하여 계속 완성된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은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된다. 특히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학교교육이 차지하는 위치가 더욱 커진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대부분이 유치원교육을 거치며 또 누구나 다 만7살부터 만16살까지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받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급속히 발육하는 청소년시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은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의 기초를 마련하여줄 무거운 책임을 바로 학교가 훌륭히 수행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학교교육은 필연적으로 교육교양의 내용에서는 물론 그 방법에서까지 계급적성격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사회주의교육과 부르죠아교육간에 가장 엄격하고 선명한 계급적선을 그을것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학교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시고 로동계급적선이 명백한 혁명적인 교육, 공산주의적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학교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되고 새사회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공산주의건설자를 키워내는데 있습니다. 공산주의사상과 결부되지 않은 지식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우리의 교육은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부르죠아교육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부르죠아지는 교육의 무계급성을 표방하면서 교육의 목적을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노복을 기르는데 두고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부르죠아교육은 사회와 인민의 운명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개인의 리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인간, 부르죠아지의 돈벌이를 위해서 복무하는 인간을 길러낸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혁명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부르죠아교육은 교육과 생산로동을 분리시키며 《교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은 혁명과 건설에 절실하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실천적능력과 고상한 풍모를 옳게 배양할수 없다. 혁명적실천과 유리되고 그에 도움을 줄수 없는 지식과 기술은 죽은 지식이며 쓸모없는 기술이다. 학생들을 단순히 《리론을 위한 리론》만을 소유한 《글뒤주》로 만들어서는 아무러한 소용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와 사회생활을 련결시키며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육방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미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학교는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사상혁명의 강유력한 수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초기부터 교육사업을 혁명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간주하시고 그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교육사업에 항상 선차적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그것을 줄기차게 이끌어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활동의 초시기에 농촌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청소년교양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시였으며 친히 교편을 잡으시고 우리의 글과 력사 등을 가르치시였으며 학생들에게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을 광복해야 한다는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유격근거지에 학교들을 세우시였으며 아동단과 소년중대를 조직하시고 몸소 교재를 집필하시면서 청소년들을 혁명투사로, 혁명의 골간부대로 길러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후대교양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익히시였으며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의 철폐,…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것.》이라는 주체적인 교육로선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혁명적 교육강령과 항일무장투쟁시기 후대교육사업에서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인 교육전통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건국초기에 모든것이 부족하고 해결을 기다리는 복잡한 문제들이 련이어 제기되고있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후대교육을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학교부터 세워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엄혹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후대교육에 대하여 심려하시고 안전한 지대와 지하교실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배울수 있게 하여주시였으며 몸소 학생들을 찾으시여 그들의 학습과 생활에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보살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재더미속에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에 낮을 이어 복구와 건설을 다그치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선참으로 후대교육을 위하여 모든 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55년에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고 1958년에는 동방에서 제일 먼저 력사적인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다 같이 힘을 많이 넣어야 할 그러한 때에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실시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는 후대들을 미래의 혁명가로 키우는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교육제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인 교육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맑스—레닌주의적교육리론으로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후대교육사업을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며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교육사업이 우리 당의 계급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이 혁명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되게 하자면 우선 청소년학생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항상 첫자리에 놓고 이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후대들에게 선진적과학기술을 소유시키는것은 결국은 그들을 우리 혁명을 위해서 충실히 복무할수 있는 쓸모있는 인재로 만들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 가장 선차적문제로 된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없으

면 그 지식과 기술은 아무 소용도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과학기술, 지식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사상과 결합될 때에 비로소 산지식으로 되는것이다. 로동계급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 각오가 높으면 과학기술지식도 더 빨리 습득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학생들을 지덕체가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육성하는 교육사업에서 항상 사상교양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라나는 후대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만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어떤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하고 보위하며 수령의 명령과 지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교양육성하여야 한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교양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적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에게 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험은 혁명전통교양이 직접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31페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승리를 담보하는 힘의 원천이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깊은 력사적뿌리이다.

우리의 모든 학교들에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그이의 40여년간의 혁명투쟁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시키며 그들이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나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모든 난관을 용감히 뚫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백절불굴의 혁명투사로 자라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높은 계급의식을 소유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어떤 원쑤의 침해도 물리치고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이 확고히 서야 사물과 현상들을 계급적으로 판단할수 있으며 배운 지식도 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히 활용할수 있다.

우리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우월감과 민족적긍지,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높은 혁명적자부심으로 교양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제도를 증오하고 멸시하며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조국과 사회주의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행복이 있고 래일의 희망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과 반동관료배, 지주, 매판자본가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길러주는 동시에 남반부형제들

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들을 도와 미제를 몰아내고 남반부를 기어코 해방해야 하겠다는 혁명적각오로 무장시켜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학생들을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며 로동을 사랑하고 국가, 사회 재산을 애호하도록 교양하여야 하며 어려서부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솜씨를 길러주어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에게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동지와 집단을 사랑하고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킬줄 아는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함으로써만 그들이 어려서부터 로동을 즐기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충실한 일군으로 자라날수 있다.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후대들을 우리 나라 혁명에 쓸모있는 인재로 교양육성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청소년학생들이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는것은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할뿐만아니라 현실체험을 통하여 수령의 령도의 혁명성과 당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는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생활은 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부단히 단련하는 하나의 훌륭한 학교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도록 부단히 교양하며 공장과 농촌, 가두와 인민반들에 나가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널리 선전하며 그것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해석선전하는 강연도 하게 하고 그들로써 과학선전대, 학술선전대, 위생선전대 등을 조직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교육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일관된 교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하고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광범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가시킴으로써 그들을 혁명적기백과 열정이 넘치는 혁명투사로, 쓸모있는 산지식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육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그들에게 높은 과학지식과 튼튼한 체질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싸우는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여야 한다.

* *

우리 당은 교육일군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믿음직하게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할데 대한 영예로운 임무를 맡기고있다.

오늘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교육사업을 직접 담당하고있는 교원들이 자각적으로 자기들앞에 부과된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자기에게 필요한 인재를 훌륭히 길러내는가 못내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고도 말할수 있다. 교원들은 청소년들을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는 직접적인 책임을 당앞에 지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일군들은 혁명위업의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들을 담당교양하고있다는 높은 책임성과 영예를 간직하고 자신이 우선 공산주의자로, 혁명가로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양자들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하며 혁명가로 되여야 합니다.》(《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우리 교육일군들은 수령의 이 교시를 깊이 명심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임무이다. 특히 학교가 우리 당의 사상혁명의 강력한 수단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원들자신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교시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하게 관철할수 있으며 후대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조선혁명의 대를 이어가는 견결한 혁명가로,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최신과학기술과 문화를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키워낼수 있다.

교육일군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는것이다.

전체 교육일군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으로 교양육성된 항일빨찌산투사들처럼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굳건히 지켜 수령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는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교육전사로 되여야 한다.

우리 교육일군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또한 중요한 방도는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는것이다. 교육일군들은 당조직생활과 동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자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자본주의적 및 봉건적 사상독소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일군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중요한 방도의 다른 하나는 부단히 현실과 접촉하며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벅찬 현실속에 들어가야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더 잘 배울수 있다. 교원들은 거기에서 당이 준 과업을 기어코 수행해내고야마는 로동계급의 투쟁모습과 근면하고 소박한 생활태도를 직접 보고 배우면서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비판적으로 검토할수 있다. 교원들은 계획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로동계급의 혁명성을 배우는동시에 거기에서 당정책을 생산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줌으로써 당정책이 더 훌륭히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교원들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육성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동시에 과학리론수준과 교육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전체 교육부문일군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마련하여주신 혁명적인 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후대교육에 돌려주신 그이의 육친적배려와 우리 교육일군들에 대한 높은 신임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분조관리제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

전 추 호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 분조관리제가 전반적으로 도입된 때로부터 2년이상이 지나갔다.

지난 2년 남짓한 기간의 경험은 분조관리제가 농민들속에서 공산주의적정신을 키우고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 특히는 협동농장의 관리운영을 개선케 하는데서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분조관리제는 농민대중의 집단생활조직과 협동농장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준것으로 하여, 전체 농민대중이 그것을 심장으로 접수한것으로 하여 농촌경리발전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더욱더 위대한 전변을 가져오게 할것이다.

우리는 얼마전에 있은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주신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분조관리제를 심화발전시키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시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리키는 휘황한 길을 따라 농촌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차게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이것은 오늘 전체 농업부문일군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한 분조관리제의 전면적확립은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그것은 분조관리제가 사회주의농민들의 자각성과 책임성을 최대로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물질적 및 사상적 요새를 훌륭히 점령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분조관리제의 혁명적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독창적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분조관리제는 농민들을 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게 하는 훌륭한 생산조직형태이며 그들이 공동경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게 하며 그들속에서 공산주의사상을 키우는 집단생활의 가장 합리적인 세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사회주의경리의 관리운영에서 집단생활단위, 작업단위의 규모와 기층생산조직형태를 옳게 설정하는것은 사회주의생산관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고 생산자대중의 로력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로동이 넓은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될뿐아니라 그 취급과 관리에서 높은 책임성과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생물체를 작업대상으로 하고있으며 로동의 결과를 가을에 가서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야 정확히 알수 있는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에서는 우로부터의 지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층생활단위, 생산조직단위를 옳게 설정하고 농민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는것이 매우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규모집단경리의 우월성을 어느정도로 발휘시키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진운동을 얼마나 빨리 촉진시키는가 하는것이 결정적으로 의존된다.

농촌집단생활의 단위, 작업단위의 규모와 기층생산조직형태를 옳게 설정하는것, 이것은 사회주의농업관리운영을 개선하고 농촌에서의 혁명을 계속 철저히 추진시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성과적진척을 보장하는 관건적문제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주체적립장,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 그리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분조관리제를 창조하심으로써 생활이 제기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발기에 의하여 도입된 분조관리제는 무엇보다도 광범한 농민대중을 집체생활에 망라하고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가장 훌륭한 형태, 농촌집단생활의 세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농민들의 집단생활은 단순히 집단의 규모를 크게 하는것을 통하여 강화되는것이 아니다. 집단이 아무리 커도 그속에서 생활하는 농민들이 집단경리를 자기경리처럼 여기지 않고 그들속에 개인리기주의가 계속 남아있으면 집단생활은 실속있게 진행될수 없다.

농민들의 집단생활을 강화하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공산주의적사상과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알맞춤한 규모로 농장원들의 집단생활단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농촌집단생활의 단위를 알맞춤한 규모로 적절하게 설정하여야만이 농장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잘 교양할수 있으며 그들의 집단생활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분조관리제는 농업생산의 특성과 도달된 기술수준, 관리운영수준 및 농장원들의 사상의식수준에 맞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알맞춤한 규모로 집단생활의 기층단위를 정함으로써 농민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함께 투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성격도 더 잘 알게 되고 서로 더 잘 리해하게 되여 농장원들간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속에서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분조관리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을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온갖 형태의 개인리기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사상, 집단주의정신을 키우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집단생활의 세포로, 거점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확립된 분조관리제는 또한 광범한 농민대중을 공동경리의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그들을 대규모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익숙케 하는 가장 훌륭한 생산조직형태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분조관리제는 분조에 일정한 면적의 포전과 로력 및 역축 기타 생산도구를 고착시키고 국가계획에 준하여 해당 분조에 좋수확고과제를 준 다음 그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분조성원들의 로력일수를 평가하도록 하는것이다.

분조관리제에서는 농민들이 생산조직과 로력조직을 포전의 특성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생산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생산의 전기간 농장원들을 분조의 포전에 확고히 고착시키게 되여있다.

분조관리제실시이전에는 기층생산조직단위가 작업반이였던것만큼 농장원들은 작업반적인 범위에서 조직되는 일에 참가하였으며 따라서 일정한 포전에 그들이 고착될수 없었다.

분조관리제에서는 또한 매분조성원들이 매일 일한것만큼 로력일을 평가받고 가을에 가서 생산성과에 의하여 로력일을 재평가받으며 그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여있다.

이 모든것은 분조관리제가 협동농장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기업소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접근시켜나가며 농

촌경리의 관리운영을 사회주의생산관계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가는 확고한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말하여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확립된 분조관리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현계단에서만 큰 의의를 가지는 그 어떤 일시적이며 과도적성격을 떤것이 아니다. 분조관리제는 농민들의 집단생활조직과 협동농장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기본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한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계속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항구적이며 적극적인 방도이다.

우리 나라 협동농장에서의 집단생활의 세포인 분조는 앞으로 토지정리사업이 진척되여 포전들이 넓어지고 농촌기술혁명이 촉진됨에 따라 그 성원이 더 적어질수도 있지만 광범한 농민들을 집단생활에 망라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단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분조자체가 페기될수는 없는것이다. 왜냐하면 수천수만개의 세포가 모여서 유기체를 이루는것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사회도 작은 사회적집단의 세포들로 이루어질것이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분조는 전민소유제로 넘어간 다음에도 계속 남아있게 될것이며 광범한 농민들을 단합시키고 그들속에서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키게 하는 합리적인 생활단위로 될것이다.

우리 나라 협동농장들에서 작업반의 역할을 일층 높이면서 동시에 집단생활의 세포, 기층생산조직단위로서의 분조의 주동적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분조관리제는 농업협동화이후 사회주의농촌경리를 관리운영하는데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근본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농촌경리발전과 사회주의농촌건설을 강력히 추동하는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선진적인 제도이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창조성은 농업생산의 특성과 대규모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적응하게 집단생활의 단위를 규정하며 협동농장관리운영에 국가기업소의 선진적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적협동농장의 관리운영 나아가서는 사회주의농촌경리전반에 대한 지도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데 있다.

우리 농장원들의 생활과 사업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분조관리제의 창조와 그 도입, 일반화 그리고 심화발전의 전과정에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일상적인 지도와 극진한 보살핌이 깃들어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인농경리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적대규모집단경리를 창설하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농촌경리운영을 위하여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분조관리제를 창조하시여 대규모공동경리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협동화가 승리한 다음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힌 위대한 사회주의농업강령이며 농촌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킨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경리관리운영의 구체적방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독창적으로 조직된 분조관리제는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분야에서 맑스—레닌주의의 보물고에 거대한 기여로 된다.

우리는 리론실천적으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이 제도가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창조되였다는것을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게 된다.

*　　　*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확립된 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의 관리운영 나아가서는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전반을 개선하고 대규모집단경리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분조관리제하에서의 지난 2년간의 생활은 그것이 농촌에서의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며 협동농장관리운영을 개선하는데서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분조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모든 협동농장들이 례외없이 농업생산에서 앙양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분조관리제를 가장 선참으로 도입한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에서는 지난해에 알곡생산을 1965년에 비하여 166%로 높였으며 군적으로는 같은 기간에 알곡생산을 133%로 장성시켰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7개군 52개협동농장들에서도 지난해 알곡생산을 1965년에 비하여 거의 20%나 증수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호당분배는 알곡 2톤 364키로그람으로부터 2톤 995키로그람으로, 현금수입은 642원으로부터 733원으로 장성되였다.

농민대중의 정치—도덕적풍모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의 광범한 농민대중속에서는 서로 믿고 도우면서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며 다같이 힘을 합쳐 공동경리를 발전시켜나가려는 협조와 단결의 공산주의적기풍이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분조에 맡겨진 일에 대하여 모든 농장원들이 다같이 책임지려고 하며 어떤 애로와 곤난이 있더라도 부과된 혁명과업을 끝까지 철저히 완수하며 다른 사람이 채 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동지를 도와 그것을 보장하는 공산주의적풍모가 전 농촌을 지배하게 되였다.

농민대중의 높은 자각적열성에 기초하여 농촌기술혁신운동이 촉진되고 노동행정사업이 개선되여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제몫씩 일을 해제끼게 되였고 농업생산에서 계속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지난 2년간 우리 나라 농촌경리분야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분조관리제의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의 빛나는 결실로 된다.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광범한 농민들의 집단생활, 조직생활을 더 잘 할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각적열성과 전투적기백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에 대하여》, 119페지)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는 모든 곳에서는 집단생활의 세포인 분조를 단위로 하여 영농사업이 조직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구체적실정에 맞게 정치사업이 부단히 반복진행됨으로써 모든 농장원들이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제때에 정확하게 철저히 알게 되고 그것을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지체없이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해에 례년보다 훨씬 빨리 모내기를 끝낸것도, 전국의 방방곡곡 모든 논배미마다에 백수십만개의 유아등이 켜지고 병해충을 예방구제하기 위한 전군중적투쟁이 벌어져 그 피해를 거의 근절하게 된것도 그리고 추수탈곡과 결산분배 등 한해농사를 결속짓는 일을 그렇게 빨리 할수 있은것도 중요하게는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이 분조를 통하여 모든 농장원들속에 제때에 침투되고 철저히 관철된 결과라고 말할수 있다.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정치사업,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할수 있게 되였으며 분조성원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분조관리제에서는 한사람이라도 일에서 빠지거나 맡은 과업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그만큼 지장을 받게 되여있으며 그들모두가 열성껏 동원되지

않고서는 도대체 분조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되여있다. 그렇기때문에 분조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분조성원들과의 사업에 1차적인 관심을 돌리지 않을수 없으며 분조에서 뒤떨어진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모든 분조성원들의 공동적인 관심사로, 집단적인 사업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분조내에서 정치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분조원들이 자기의 초소와 임무를 똑똑히 알고 집단에 대한 현대적책임을 자각하게 되였으며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게 되였다.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은 또한 사회주의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에서 특히는 협동농장관리운영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데 있다.

분조관리제의 실시는 광범한 농민대중을 협동농장의 모든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고 그들의 의사가 농장사업전반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무기인 위대한 청산리방법이 농촌경리관리운영의 말단지도영역인 협동농장관리운영에서까지 철저히 관철될수 있게 하였고 협동농장지도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분조관리제가 모든 협동농장들에 전반적으로 도입되면서 농업부문지도일군들과 농장관리일군들 속에서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가 극복되고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모든 농장원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다음으로 분조관리제는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분공을 명백히하고 모든 일군들의 자각성과 열성을 최대로 높이여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킴으로써 계획화사업, 생산조직사업을 비롯한 협동농장의 모든 경영활동이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진행되도록 보장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분조관리제는 계획화사업에서 당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더잘 관철할수 있게 하였으며 농업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더 잘 동원하게 하였다. 분조관리제에서는 국가계획과제가 작업반, 분조에까지 시달되고 그에 확고히 기초하여 분조생산계획이 세워지기때문에 국가의 리익과 농장, 작업반, 분조의 리익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였으며 농업생산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가 강화되면서 농민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농업부문에서 생산계획과 로력계획, 그리고 기타 보장계획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더 잘 맞물릴수 있게 되였다.

분조관리제는 또한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인 토지와 부림소 및 기타 생산도구들을 알뜰하게 다루고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분조관리제가 도입된후 농장원들의 열성과 책임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속에서는 토지리용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고 부림소와 농기구의 관리가 전집단의 관심속에서 책임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분조관리제의 실시는 특히 협동농장관리운영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하였다. 분조에서 로력리용이 더욱 계획화되고 조직화됨으로써 농장원들의 가동일과 로력일수득이 많아지게 되고 기본생산부문에 력량이 집중되게 되였다. 분조관리제를 실시한 다음부터는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같은 중요농산작업에 그전보다 거의 2배의 로력을 집중하고있다는것을 자료들은 보여주고있다.

분조관리제는 또한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자극을 강화함으로써 농민대중의 생산의욕을 높이는데서도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분조관리제를 실시한후 협동농장들에서 작업정량사업과 로력일평가사업을 정확히 할수 있게 되고 특히 생산결과에 의하여 로력일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분배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창조된 분조관리제는 이와 같이 생산현장을 사상교양사업의 거점으로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실현할뿐만아니라 농촌경리관리운영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고 협동농장의 모든 경영활동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농촌경리의 발전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 *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분조관리제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을 전체 농업근로자들속에 깊이 해설침투시키고 그들이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 나라 협동농장들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되고있는 분조관리제는 단순한 로력보수 및 물질적자극형태가 아니라 집단생활의 세포이며 가장 훌륭하고 합리적인 생산조직형태이다. 이것은 광범한 농민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속에서 공산주의사상을 키우도록 사상혁명을 힘차게 전개하게 하며 발전하는 농업생산력에 적응하게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대규모집단경리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다.

우리는 모든 협동농민들속에 분조관리제의 혁명적본질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높은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분조관리제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하며 농업생산발전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도록 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분조관리제를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분조원들을 당정책과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분조내 사상의지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입니다.》**(《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9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의 확고한 통일이 없는 분조는 참다운 혁명적집단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분조는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재대로 수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지난해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교시와 농업부문에 주신 현지교시들, 중요하게는 금번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분조관리제를 심화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더욱 심오히 학습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일편단심 수령께 충성을 다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을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치도록 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분조관리제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리론, 실천적으로 그 정당성이 확증된 분조관리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분조를 알맞춤한 규모로 조직하고 분조장대렬을 당과 혁명에 충직한 사람들로 잘 꾸리며 분조성원과 농경지, 부림소, 농기구를 고착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는 분조관리제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분조장대렬을 지난날의 고농, 빈농들과 피살자가족 등 농촌핵심들로 튼튼히 꾸려야 하며 책임성이 강하고 신망이 높은 사람은 분조장으로 선거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운영의 가장 아래단위에서 당정책을 조직집행하는 초급지휘성원들인 분조장대렬을 어떤 사람들로 꾸리는

가 하는것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발휘시키는가 못시키는가, 농촌의 계급진지를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기본문제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된 사람, 지난날의 고농과 빈농, 그 자제들로서 책임성이 강하고 신망이 높으며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소유한 농촌핵심들로 분조장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분조장들이 자기 분조성원들의 성격과 체질, 능력과 수준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잘 료해한 기초우에서 구체적실정에 맞는 정치사업과 경제사업분공을 잘 조직집행할수 있도록 그들을 한자리에 오래동안 고착시키고 도와주어야 한다.

분조관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분조조직에서 그 규모와 구성을 옳게 정하며 분조의 성원과 생산수단들을 엄격히 고착시키는것이다.

분조의 규모는 매개 협동농장의 지대적조건과 기계화수준 등 구체적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엄수해야 될것은 분조가 어디까지나 집단생활에 알맞춤하게 조직되여야 한다는 그것이다. 다시말하면 분조는 사람들이 서로 사상이 통하고 서로 리해되고 모두 합심하여 일치하게 공동경리발전을 위하여 투쟁할수 있는 그런 규모로 조직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을 종합하여보면 분조의 규모는 15~20명정도로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또한 분조조직에서는 분조성원과 분조에 맡긴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들을 철저히 고착시키도록 하며 분조마다 핵심력량이 고르롭게 배치되고 한 가정의 로력자는 반드시 같은 분조에 망라되도록 하여야 한다. 분조를 이렇게 조직함으로써만 모든 농장원들이 공동경리를 자기의 경리로 여기게 되고 집단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높은 책임성과 자각성을 발휘하게 된다.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운영하며 그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그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분조관리제가 좋은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지도를 잘하지 않으면 결코 잘되여나갈수 없습니다.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이나 작업반장들이 분조를 잘 꾸리고 지도를 잘하여야만 분조관리제를 옳게 운영할수 있으며 그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습니다.》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작업반장들은 로력을 배치하거나 로력일을 평가하는 일에서 벗어난것만큼 분조장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분조들에 기계와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며 분조에 들어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농장원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여주어야 한다.

협동농장관리위원회에서는 분조와의 사업체계를 똑똑히 세워 분공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가르고 농장원들속에서 민주주의를 더높이 발양시키며 분조생산활동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리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단기영농강습, 방식상학, 경험교환회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분조장을 비롯한 모든 분조성원들에게 최신농업과학과 선진영농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 날강도 미제침략자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길은 김일성동지께서 간곡히 교시하신것처럼 농사를 더잘 짓는것이다. 우리는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운영하고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뜨락또르, 부림소, 기타 많은 생산도구들을 보다 정히 다루고 뜨락또르기름을 비롯한 중요물자들을 아껴쓰면서 농사를 더잘 지어 더많은 알곡을 생산할것이며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력사적과업수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시기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강령적지침

백 길 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보고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조성된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현단계에서의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을 제시하시고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혁명의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하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이며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력량을 강화하며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 *

김일성동지께서 명철하게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에 따라 오늘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혁명의 선차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

혁명투쟁에서 혁명력량을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오늘 남조선에서 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달성하는데 있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들은 남조선혁명의 투쟁대상이다. 남조선혁명의 승패는 이 반혁명세력을 능히 격파할수 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는가 못꾸리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며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기본방침은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반혁명세력을 결정적으로 짓부시고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타승하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의 충분한 준비가 없이는 혁명적대사변을 영접할수 없으며 적들의 일상적인 반혁명공세에도 대처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96~97페지)

현시기 남조선에서 혁명의 객관정세는 점차 성숙되여가고있으며 전반적정세는 혁명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원쑤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사회적모순은 격화되고 인민들의 반발과 항거는 증대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앉아서 죽기보다 일어나 싸울것을 결심하고 도처에서 용감히 들고일어나 원쑤와 싸우고있다.

문제는 첨예화되고있는 남조선의 사회정치적모순을 해결할수 있도록 혁명의 주체적요인을 부단히 장성시키며 혁

명력량을 충분히 준비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혁명투쟁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는 문제에 언제나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여왔으며 또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의 준비는 적들의 일상적인 반혁명공세에 대처하여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비롯한 반혁명세력은 포악한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최근에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침입사건과 관련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고있다. 놈들은 남조선과 우리 나라 동해안일대에 숱한 침략적무력을 끌어다놓고 전쟁태세를 갖추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있다. 이것은 조선에서 새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행동의 일환인것이다.

미제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들은 저들의 간악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밀고나가기 위하여 파쑈폭압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놈들은 이미 경북대학교 교수 김대수박사를 중심으로 한 혁명조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작년가을에는 부산일대에서 인민혁명당사건이란 《죄명》을 씌워 많은 청년들을 체포구금하였다. 그들은 서울에서 소위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을 날조하고 별의별 《죄명》을 다 씌워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였다.

반혁명이 류혈적인 폭력으로 인민들을 억누르고있는 조건에서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반혁명의 폭력에 혁명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혁명을 전진시킬수도 없으며 남조선혁명을 최후승리에로 이끌수도 없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전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의 실현을 앞당기는 확고한 지침이다.

남조선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도 공화국북반부에서처럼 자체의 튼튼한 혁명력량을 가질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공동투쟁과업이다. 남북의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그 힘을 합쳐 싸울 때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달성할수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성과적으로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인민들이 남조선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또한 남조선혁명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이래야만 남조선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남조선인민들을 백방으로 도와주어야 하지마는 남조선인민들은 자신의 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할 각오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인은 미제의 착취와 압제를 직접적으로 받고있는 남조선인민자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반부혁명은 남반부인민들자신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해결될수 없습니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210페지)

오늘 남조선인민들앞에는 민족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남조선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켜야 할 원칙적요구가 제기되고있다.

더우기 공화국북반부혁명기지가 불패의 력량으로 전변되고있는 조건에서 오늘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달려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직접 받고있는것도 남조선인민들이며 미제에게 쉬임없이 타격을 가할 주동적인 력량도 남조선인민들이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서는 우선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해야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에 직접 타격을 줄수 있으며 남조선혁명이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급속히 추진될수 있는것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전체 남조선인민들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설 때 그것은 거대한 힘을 발휘할것이며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보존, 축적, 장성시킬데 대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조선인민이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고 우리 세대에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 *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며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기본방침은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가르쳐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에 대한 당의 기본방침을 제시하시면서 혁명력량을 보존, 축적, 장성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편성하는 동시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동원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혁명대오의 튼튼한 편성은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모든 계급계층들을 그들의 처지에 맞게 혁명의 각이한 전선에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한것이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과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일체 력량을 잘 꾸리고 혁명대오를 잘 짜는것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모든 혁명력량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결속하며 인민의 원쑤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키면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가져오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주력군과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일체 력량을 잘 꾸리기 위해서는 혁명의 동력으로 될수 있는 각이한 계급계층들의 력량관계와 그들의 처지를 잘 타산하여야 하며 혁명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제국주의,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이며 민족자본가들도 반제반봉건투쟁에 참가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주력군이란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기본계급과 그속에 깊이 뿌리박은 맑스—레닌주의당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사회의 기본계급인 로동자, 농민이 동원되여야만 혁명이 승리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의 전위이며 참모부이다. 로동계급이 복잡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기의 선봉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져야 하며 그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을 건설함에 있어서 지도적골간의 형성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조직의 지도적골간은 어떠한 복잡한 정황에서도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적원칙에 의거하여 운동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준비된 혁명가들로 꾸려져야 합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9페지)

당은 준비된 지도적골간의 목적의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건설될수 있으며 공고발전될수 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전사들로 당조직의 지도적골간을 꾸림으로써 조성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혁명조직들을 옳게 장악지도하고 혁명에 대한 당의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해나갈수 있다.

또한 투쟁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혁명가들로 당조직들을 질적으로 꾸리며 원쑤들을 반대하는 실천적투쟁을 통하

여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당원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투쟁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양훈련사업을 꾸준히 강화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의 전투력은 당의 량적장성과 함께 질적구성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적들의 파쑈적폭압이 심한 조건에서 당원들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면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적극 강화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당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혁명의 주력부대인 기본군중을 당주위에 결속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맑스—레닌주의당의 힘의 원천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과의 튼튼한 련계에 있다.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 농민을 대중조직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주위에 집결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대중조직은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는 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진정으로 계급적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원칙상 합법적조직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는 각양각색의 대중단체들이 존재한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대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를 불문하고 그들속에 들어가 사업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단체들을 군중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조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군중을 당주위에 집결할수 있다.

혁명대오를 꾸리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적극 동원하는것이다.

혁명투쟁에서 쟁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것은 반혁명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각계각층군중은 혁명의 주력군으로 될수 없으나 로동자, 농민과 힘을 합할 때에는 적에게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중요한 력량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각계각층군중을 혁명의 편으로 묶어세우도록 통일전선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혁명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대중자신의 사업으로서 혁명의 승패는 결국 광범한 대중을 누가 쟁취하는가에 달려있다.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잘 꾸리면 주력군에 대한 적의 임의의 공격을 분산시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주력군을 튼튼히 편성하는데 유리한 정세를 지어주며 전반적혁명력량을 강화할수 있다.

남조선에서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그의 사회정치적기초로 삼아야 한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 통일전선운동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적당의 령도는 통일전선형성의 전제조건이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형성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의 사회정치적기초로 되는 로농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혁명의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인테리들의 련합을 실현하는것이다.

로동자, 농민의 동맹은 반미구국통일전선의 사회정치적지반으로 된다.

로동자, 농민은 남조선사회의 기본군중으로서 주민의 다수를 이룰뿐만아니라 혁명성이 강한 계급이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인테리들은 시대의 추세에 민감하고 민족적각성이 빠르며 로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며 현실적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력량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은 청년학

생, 인테리들과 굳게 단결하여 당면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동시에 앞으로 새사회를 건설하는데서도 그들과 함께 손잡고나가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혁명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였으며 오늘 남조선에서의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에서 귀중한 경험으로, 지침으로 된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고귀한 혁명전통과 경험을 거울로, 지침으로 삼아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당주위에 집결시킴으로써 남조선에서 하나로 굳게 뭉친 강력한 혁명력량을 키워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에서의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혁명투쟁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반혁명세력을 백방으로 고립약화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는것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과 마찬가지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서 반혁명력량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은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이며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는것이 상대적으로 혁명세력의 강화를 가져온다.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적군와해사업이다. 《국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을 인민과 민족의 편으로,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우는것은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조선괴뢰군의 절대다수의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출신이다.

군대는 지배계급이 의거하고있는 마지막아성이다. 남조선괴뢰군을 인민의 편에 돌려세울 때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붕괴되지 않을수 없다.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인민대중속에서의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여 더많은 군중을 반혁명의 영향에서 떼내여 혁명의 편으로 이끎으로써 원쑤들을 백방으로 고립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반혁명을 고립시키며 혁명력량을 장성시키는 모든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02~103페지)

인민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으로 각성시킴으로써 그들을 반동사상의 영향에서 혁명의 편으로 전취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을 반동사상에서 해방하고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킴에 있어서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천명하신 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로선과 방침 특히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에 관한 리론과 방침을 깊이 체득하여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은 남조선인민들을 혁명화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시키며 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과 남조선사회의 식민지적성격을 잘 발가놓아야 한다.

대중의 계급적 및 민족적인 각성을

제고시켜야만 혁명의 편에 그들을 전취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킬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반혁명세력을 타승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에 앞서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림으로써 혁명을 기어코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확고한 지침이다.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투쟁을 백방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을 제시하시면서 남조선혁명력량은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된다고 하시였으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운동과 투쟁을 맑스—레닌주의 전략전술적원칙에서 옳게 지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력사는 혁명적실천투쟁이야말로 군중을 평상시보다 몇배나 빨리 각성시키는 학교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투쟁의 시련속에서 준비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인민대중이 각성되며 혁명력량이 장성강화된다.

남조선에서 혁명발전의 추세는 오직 반혁명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만 당원들과 인민들이 준비된 혁명가로,투사로 자라나며 그들속에서 유능한 지도핵심이 배출되고 혁명력량이 급속히 확대강화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지식인들의 대중운동이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이와 함께 혁명가들의 지하활동이 강화되고 그 대오는 부단히 확대발전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발톱까지 무장한 원쑤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피어린 투쟁의 길에 용감히 나서고있다.

남조선도처에서 전개되고있는 무장유격투쟁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적폭압을 분쇄하고 혁명력량을 보존축적하며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은 남조선에서 무장유격대활동이 확대되고 대중적혁명투쟁이 급속히 강화되고있는 현실을 통하여 더욱 똑똑히 증시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대중운동과 투쟁을 혁명의 전략전술적원칙에서 정확히 지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하지 않고 국내외정세를 신중히 평가함이 없이 모험주의적인 투쟁을 벌린다면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고 축적하는데 엄중한 손실을 주게 될것이며 결국은 혁명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반면에 혁명이 간고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도래하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혁명력량을 축적할수도 없고 혁명도상에 조성되는 어려운 국면들을 타개할수도 없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9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투쟁에서의 좌우경적편향은 혁명에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끼친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승리의 객관적요인과 함께 주체적요인을 타산하여야 하며 혁명력량과 함께 반혁명력량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제를 위시한 외래침략세력이 둥지를 틀고있는 남조선에서 조성된 정세를 여러가지 측면으로 깊이 분석하고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부단히 장성시키면서 적절한 시기에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는것이 요구된다.

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소여시기의 조건에 가장 합당한 투쟁형태를 찾아내여 적에게 가장 효과적인 타격을 가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조직들

과 혁명가들이 좌우경적편향을 범하지 않으면서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방법을 옳게 배합하여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켜나갈것을 강조하시였다.

오직 부단히 변동되는 정세발전에 적응한 투쟁형태를 찾아냄으로써만 적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의거하여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혁명의 실천적행정에서 모든 형태의 투쟁을 적절히 배합해나가야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킬수 있다.

혁명은 복잡하며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요구한다.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혁명력량이 장성함에 따라 더욱 령도예술을 세련시켜야 하며 발악하는 반혁명세력의 책동에 대처해서도 항상 전략전술적으로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대중투쟁을 조직전개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인민들에게 투쟁의 목표를 정확히 알려주고 전망을 안겨주는 혁명적구호를 정확히 제시하여주는것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의 전략적구호를 계속 견지하면서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전쟁정책과 파쑈화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생활개선을 위한 반파쑈민주화의 절박한 당면투쟁구호를 제시함으로써 대중적인 공동투쟁에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을 현실적으로 인입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을 저지시키며 현군사파쑈정권을 뒤집어엎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의 청산과 혁명의 종국적승리에로 남조선인민들을 이끌어나갈수 있다.

물론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결코 쉽게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 앞길에는 많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어떠한 난관과 원쑤들의 어떠한 발악도 남조선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인민대중이 혁명을 하자고 결심하고 영웅적투쟁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나서 승리하지 못한 혁명이란 없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투쟁에서 외롭지 않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북반부의 위력한 혁명기지는 날로 륭성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당과 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남조선을 해방하고 우리 세대에 조국통일을 기어코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겠습니까?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쳐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의 숭고한 민족적임무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23페지)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세대에,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여 승리한 우리 세대에 남조선혁명을 적극 지원하여 기어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였으며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갖추는데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단계에서의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남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리론실천적무기이며 투쟁의 지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에 철저히 립각하여 오늘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자기의 투쟁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투쟁을 백방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고 최후승리를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신생독립국가들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민족해방혁명의 완성을 위한 성숙된 혁명과업

김 웅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정강에서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의 경험을 일반화하시고 세계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합법칙성에 관한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합법칙성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새로운 위대한 기여로 되며 세계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민족들의 불평등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을뿐만아니라 제국주의,식민주의의 기반에서 해방된 수많은 인민들이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기본방도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아세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로부터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그처럼 명철하고 힘있는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높이 받들고 무한히 존경하면서 그이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상과 그 구현으로 되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서 배우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으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가장 위대한 결실을 맺고있는 나라로 우러러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민족적억압과 예속을 청산하고 완전한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모든 인민들의 숭고한 념원을 반영하고있으며 그것은 신생독립국가들이 경제건설에서 확고히 걸어나아가야 할 앞길을 밝혀주고있다.

*　　*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오늘 정치적독립을 이룩하고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신생독립국가들앞에 나서고있는 성숙된 혁명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많은 신생독립국가인민들앞에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

파를 가시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자기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67페지)

민족해방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달성하였다. 이 나라들은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경제적독립과 완전한 민족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장기간의 식민지통치로 인하여 빚어진 경제적 및 문화적 락후성과 빈궁을 완전히 가시지 못하고있으며 적지않은 나라들에는 의연히 신구식민주의자들의 마수가 깊이 뻗쳐있다. 일반적으로 나라의 공업과 농촌경리는 혹심한 식민지적편과성과 기형성을 면치 못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전횡과 략탈이 계속되고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식민지통치의 악결과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원료와 농산물만을 생산하거나 지어 일부 국한된 품종만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적지않다. 제국주의자들은 적지않은 나라들에서 대외수출의 주되는 부분을 이루는 이러한 원료들을 거의 통제하고있다. 놈들은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무진장한 석유, 각종 광물과 농산물들을 략탈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각종 형태로 긁어가는 리윤은 매년 300억딸라에 달한다. 이것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경제적락후성과 빈궁의 근원인 신구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경제적자립을 이룩함에 있어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이 얼마나 날카로운 문제인가 하는것을 말하여준다.

신생독립국가들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로 인한 경제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정치경제적자립을 이룩함에 있어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14페지)

정치적독립은 민족해방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정치적독립을 달성하였다고하더라도 경제의 명맥이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게 되면 정치적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독립국가로서의 떳떳한 지위를 유지할수 없다. 나라들 사이에서 경제적예속은 정치적예속을 불가피하게 한다.

오직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길로 확고히 나아갈 때에만 주권국가로서의 완전한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식민지통치로 인한 경제적락후성과 세기적빈궁을 빨리 청산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발전된 중공업과 믿음직한 경공업토대를 쌓을수 있으며 농촌경리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가져야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을 창설할수 있고 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와 현대적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국가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 그리고 민족적긍지도 더욱 높아진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에 의거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견지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추진

될수 있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입니다.

이러한 혁명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여야만 우리는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에서도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14페지)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에, 민족자체의 주체적힘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것을 해결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여나갈 때 어떠한 난관과 애로도 용감하게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고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자기의 힘을 믿고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투쟁하는 인민은 불패의 힘을 낳으며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은 결코 싸우는 인민들간의 국제적협조와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 싸우는 나라들 호상간의 진정한 국제주의적지원은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고 꾸려가는 자주정신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국제적지원과 협조도 응당한 효과를 나타낼수 없는것이다. 국제적협조와 지원은 어디까지나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쌓는데 돌려져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신생독립국가들의 정치경제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는 기본담보로 될뿐만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전반적인 정치경제적위력과 세계반제력량의 강화를 위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치경제적독립을 실현하게 되면 이 대륙에서 제국주의의 생명선은 종국적으로 끊어질것이며 따라서 식민지인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제국주의적서구라파도, 제국주의적북미주도 존재할수 없게 될것이다.

신생독립국가들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을 종국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심각한 반제투쟁과정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한치의 땅이라도 더 그러쥐고 한푼이라도 더 짜내려고 날뛰면서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유지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하여 식민주의의 새로운 형태인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워 해방된 나라 인민들을 또다시 자기들에게 예속시키려고 꾀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들의 자주권을 짓밟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67페지)

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원조》, 《협조》, 《개발》 등의 허울좋은 탈을 쓰고 신생독립국가들에 기여들어 정치경제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며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여 우경에로 돌려세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는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거기에서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있다. 놈들은 이 지역 인민들의 해방투쟁과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정치군사적압력과 함께 경제적예속화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미제의 이른바 《원조》정책은 독점자본의 치부의 수단이며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적지않은 신생독립국가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정치경제적압력을 물리치면서 반제반미투쟁의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는 나라들에서는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경제적자립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있으며 반대로 통치집단이 친제국주의, 친미정책에 매달리면서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고있는 나라들에서는 례외없이 나라의 자주성이 상실되고 정치적독립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이르고있다.

이 모든것은 신생독립국가들의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경제적자립을 위한 투쟁이 반드시 철저한 반제반미투쟁과 결합되여야 하며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생독립국가들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관련된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의 파괴활동을 분쇄하고 그의 경제적지반을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이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314페지)

신생독립국가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문제는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제기되는 다른 모든 문제들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해결되여야 한다. 이 나라들에서 경제적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청산함과 함께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청산하며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을 봉건적착취에 얽매고있으며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전자본주의적생산관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농업이 경제의 주되는 부문을 이루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토지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것은 농민대중을 낡은 착취관계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국내시장을 확장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축성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준다.

토지문제의 민주주의적해결은 또한 농촌에 뿌리박고있는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고 나라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적 발전을 급속히 촉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적자립을 실현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토지문제의 정확한 해결과 함께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의 기업체들을 철저히 몰수하여 국유화하는것이다.

일례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는 미국독점회사들만 하여도 2,000여개가 있으며 그것들은 적지않은 나라들의 경제의 중요부문들에서 독점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미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철광석의 거의 전부, 동광의 90%, 아연광의 3분의 2, 석유생산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있으며 방대한 농토를 점유하고 농업생산에서 특권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중근동석유의 90%이상을 독점하고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전략광물의 거의 전부를 장악하고있다.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나라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는 외국독점자본가들과 예속자본가들의 모든 기업체들을 철저히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나라의 정치경제적독립을 위협하며 자주적발전을 저애하는 주되는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할뿐만아니라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으며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다.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국가경제관리를 담당할수 있는 준비된 간부대렬을 꾸리는것은 다른 모든 문제와 함께 신

생독립국가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광대한 령토와 풍부한 자연부원 그리고 재능있는 인민들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자들의 야수적통치의 후과로 현대적과학기술, 문화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으며 자체의 민족기술간부대렬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 나라들은 장기간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빚어진 기술적락후성과 근로대중의 문맹을 퇴치하지 않고는 나라의 경제건설과 전반적국가건설에서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으며 과학기술문화의 전면적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이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해서는 재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한데 기초하여 점차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나라의 공업화를 수행하여야만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자립적인 민족공업을 창설할수 있다.

과거에 락후한 처지에 있었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공업화를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기계공업을 골간으로 하는 믿음직한 중공업을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중공업은 인민경제발전의 기초이다.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수 없으며 인민경제 각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없다. 특히 중공업은 나라의 정치경제적독립의 물질적기초로서 그것 없이는 자립적민족경제란 말할수 없고 국방력도 강화할수 없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20페지)

국내의 자연부원과 원료원천에 기초한 튼튼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함으로써만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제기되는 각종 수요들을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다.

믿음직한 중공업발전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장성하는 다양한 수요를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경공업기지와 주민들의 식량과 경공업원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다각적으로 발전된 농촌경리를 창설하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자체의 현대적경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져야만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공업제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며 농촌경리의 락후성으로 인한 모든 후과들을 청산할수 있다.

강력한 중공업과 그에 의거한 현대적경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졌을 때 비로소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있으며 나라의 정치경제적독립의 물질적기초를 확고히 쌓았다고 볼수 있다.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용감히 물리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과 혁명적원칙에 튼튼히 의거하여 강력한 자립적경제토대를 쌓아올림으로써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며 독립국가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할수 있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하여 제기되는 이 모든 문제의 성과적수행여부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정치적 및 생산적 열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동시키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특히 로동계급은 주도적 생산부문의 담당자일뿐만아니라 민족해방혁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령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선진적이며 애국적인 력량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적극 동원하지 않고서는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는 문제도,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다. 생산의 담당자이며 나라의 주요정치력량인 근로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처지를 부단히 개선하여주는것과 함께 민주주의적권리를 적극 보장하

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과 고귀한 경험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하고있으며 그것은 오늘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싸우는 인민들에게 무한히 큰 고무적영향을 주고있다.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과 혁명적원칙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 부닥치는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오늘과 같은 힘있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현대적대규모공장건설에 필요한 각종 종합설비들과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들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요구되는 설비들과 자재들을 자체로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강력한 자립적중공업과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믿음직한 경공업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어떠한 자연재해도 극복하고 대풍작을 이룩할수 있는 발전된 사회주의적농촌경리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 어떤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끄떡없이 제힘으로 나라의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급속히 높일뿐아니라 원쑤들의 임의의 침공도 일격에 격파하고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이처럼 힘있는 경제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남을 쳐다보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고있으며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푼전을 아껴가면서 악전고투하여 마련하여놓은 자립적민족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번영을 누리고있으며 보다 찬란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전적으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셨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관철에로 직접 조직동원하시였다.

생활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얼마나 정당하며 그것이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적번영, 우리 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해방된 민족들이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달성하며 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과 혁명적원칙에 튼튼히 의거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구축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함에 있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 호상간의 협조와 지지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이 지역 나라들간의 경제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매개 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을 위한 투쟁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전반적정치경제적위력을 강화할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은 신생독립국가들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모든 노력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및 경제적 부대조건도 없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신생독립국

가들과 경제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완전한 정치경제적독립을 이룩하며 이 나라 인민들이 민족적번영을 도모하는것을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할것입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67페지)

사회주의나라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신생독립국가들이 제국주의렬강들의 경제봉쇄를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경제적자립을 실현하는데서 사회주의나라들에 더욱 의거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나라들은 어떠한 정치적부대조건도 아무런 사심도 없는 더많은 물질적지원을 줌으로써 신생독립국가들의 민족해방혁명의 완성과정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그들의 반제반미투쟁의 립장을 더욱 강화하여줄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은 이 나라들과의 경제관계에서 결코 협소한 민족리기주의적립장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숭고한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세계혁명발전의 리익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숭고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신생독립국가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있으며 경제적자립을 위한 이 나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해방된 민족들이 온갖 민족적불평등을 완전히 청산하며 민족적번영을 누릴수 있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본주의의 길은 나라의 재부가 극소수의 착취계급의 수중에 장악되고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고 민족적불평등이 지배하며 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이 억제되는 길이다. 오직 사회주의의 길만이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 민족적불평등을 영원히 청산하며 경제의 광활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보장하여준다.

* *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고 공고화하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날을 따라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되여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이미 경제적자립을 실현하는 길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서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민족해방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일떠선 각성된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이 대륙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종국적으로 쫓겨날 날은 멀지않다.

거세찬 투쟁에 일떠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은 자기들의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생활을 반드시 건설할것이며 새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위업에 더욱더 큰 기여를 할것이다.

근 로 자 제 5 호(루계 315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8년 5월 25일 발 행 • 1968년 5월 30일

ㄱ—83195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 호

평양 근로자사 196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6 호 (316)

차 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정강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쌓아올린 모든 성과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였으며 우리앞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하여 해결할 때에만 우리 혁명을 더욱 위대한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주체사상은 일찌기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에 걸쳐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그것은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의 절박한 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한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게 하며 맑스—레닌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풍부화하는 탁월한 혁명사상이다.

오늘 주체사상은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 위대한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기치로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입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9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활동의 기저에 놓여있는 확고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의 진수를 이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정책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 우리 당내에는 당의 이 유일한 사상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있을수 없다.》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조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사상이다.》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민주혁명을 수행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삼는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을 완성할뿐아니라 또한 세계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모든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청산하며 세계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이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서 우리 당은 항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혁명은 조선인민이 완전히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주로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완성할데 대한 견결한 립장에서 모든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관철시킨다.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를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당은 우리 혁명의 당면한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통일문제도 어데까지나 자주적원칙에서 실현하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당은 국제무대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나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도 항상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진행한다.

대내외활동의 모든 령역에서 우리 당이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고있는 주체사상은 일찌기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신 그이의 탁월한 혁명사상이며 조선혁명의 전기간에 걸쳐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확증된 불패의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위대한 뜻을 품으시고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총화하시고 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그 발전의 본질적요구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하신 기초우에서 우리 혁명이 나아갈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오직 조선인민자체의 힘과 투쟁에 의해서만 수행될수 있다는 확고한 혁명적립장에서 처음으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꾸려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1930년에 청년공산주의자들앞에서 조선청년들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을 해방하며 나아가서는 조국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며 계속하여 세계혁명도 수행해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였으며 조선의 독립은 외국의 원조로써는 절대로 실현될수 없고 유일한 길은 우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와 맞서 싸워이기는것이라는것, 우리는 승리가 저절로 올것이라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으며 반드시 무장으로 일제를 타도해야 한다는것,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빨리 길러내야 한다는것에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위기에 처하였던 조선혁명과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혁명의 위대한 앙양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로선의 천명이였다.

탁월한 혁명의 수령의 령도가 없었기에 우리 혁명의 전도가 가장 암담하던 때, 인민들이 투쟁의 앞길을 찾지 못하고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헤매이던 때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주체적로선과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그이의 독창적인 혁명활동만이 조선혁명의 앞길에 서광을 비쳐줄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울수 있었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혁

명활동의 개시는 조국땅우에 무겁게 드리웠던 암운을 가셔낸 혁명의 위대한 승리의 새아침을 의미하는것이였으며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획기적전환을 열어놓은 위대한 주체시대의 탄생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지난 40여년간 일제와 미제를 때려부시며 세기적탁후와 전쟁의 혹심한 파괴를 가셔내며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를 타승하고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과 위대한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조선혁명의 전로정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항일무장투쟁시기,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혁명시기와 미제침략자를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 등 우리 혁명의 매단계, 매시기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승리는 오직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룩될수 있었던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 우리 혁명의 전로정에서 그처럼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은것은 그것이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운동의 근본원칙과 우리 혁명발전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운동과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자기 나라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것은 공산주의운동과 혁명운동 발전의 근본요구이다.

혁명은 계급투쟁의 법칙에 의하여 그 나라 내부에서 일어나는것이며 그 나라 인민자신이 수행하는것이다. 따라서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인민자체의 힘이다. 혁명투쟁은 그 나라의 구체적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되는것이며 맑스—레닌주의도 그 나라 혁명의 현실과 결합된 때에만 혁명의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이것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언제나 주인다운 립장을 견지하며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창조적으로 해결하여나가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주체를 세우는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9페지)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우리 혁명에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대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매우 날카로운 과업으로 나섰으며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은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것을 특별히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조선인민의 과거력사에서 제일 강대한 국가였던 고구려가 패망한후 고려중엽부터 우리 나라에는 무능하고 부패한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사대주의가 부식되였었다. 사대주의의 영향은 공산주의운동내부에도 미치였으며 인민들속에도 적지않은 독소를 뿌려놓았다.

사대주의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과 우리 혁명의 매단계에 실로 커다란 해독을 끼치였다.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가 결국 우리 민족을 망국노의 쓰라린 운명을 체험하게 하였으며 공산주의운동내부에 조장된 사대주의가 1920년대 조선공산주의운동을 말아먹었다. 사대주의는 그후 항일무장투쟁과 해방후의 혁명과 건설에도 헤아릴수 없이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다.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지않고 남의 나라만 쳐다보면서 그에 아부굴종하는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각종 기회주의를 혁명운동내부에 부식시켰으며 제각기 큰 나라를 등에 업고 파벌싸움에 광분하면서 혁명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실로 사대주의는 자기 나라 혁명과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망국배족의 사상이며 제것을 낮추보고 남의것만 쳐다보는 민족허무주의사상이며 자기 힘을 믿지않고 외세에 의존하는 노예적굴종의 사상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 대국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지 않고는 우리 혁명을 일보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또한 우리 혁명은 매우 간고하고 복잡한 로정을 걸지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혁명은 국내의 착취계급과 반동세력뿐만아니라 강대한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을 그 직접적인 투쟁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였다.

전조선땅을 강점하고 중국과 아세아의 광활한 지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던 강도일제를 반대하여 장기간의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함으로써만 우리는 조국의 해방을 달성할수 있었으며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보장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주권도, 국가적후방도, 외부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진행되는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투쟁이였으며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조선혁명의 모든 근본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풀어나가는 실로 복잡하고 심각한 최고형태의 정치투쟁이였다.

해방후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게 되였다.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의 식민지정책과 끊임없는 침략전쟁정책은 우리 혁명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으며 이리하여 우리 혁명은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게 되였다. 우리는 미제와 직접 총칼을 맞대인 긴장된 환경속에서 당과 인민정권과 인민무력을 창건하고 공고화하며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세기적락후성을 청산하는 어려운 사업을 가장 짧은 기간내에 수행하여야 하였으며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는 심각한 혁명사업을 전개하여야 하였다. 또한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가렬한 전쟁도 겪어야 했고 전쟁의 혹심한 파괴를 가시기 위한 힘겨운 복구사업도 하여야 하였다.

해방전후를 통하여 우리 혁명이 흉악한 외래침략세력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게 된것은 혁명의 전로정에서 민족적해방을 위한 과업과 계급적해방을 위한 과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통일적과정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해방후에는 세계반동의 두목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국제헌병인 미제를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쓸어버리고 조국을 통일하는 위업과 북반부에서 사회제도를 변혁하며 창조적인 건설을 진행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해결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간고한 우리 혁명은 첫날부터 그 어떤 기성공식이나 기성경험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지고는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해결하여야 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여나가야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바로 우리 혁명의 승패를 결정하는 이 관건적문제에 전면적해답을 주었다.

그것은 우리 혁명이 나아갈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인 길을 가르쳐주었으며 우리 혁명의 튼튼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할수 있게 하였다. 실로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음으로써만 혁명의 매단계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으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튼튼한 담보를 축성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를 보장하고 조국광복

의 위업을 성취할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가장 깊은 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제기되는 그 모든 근본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하였으며 사대주의, 종파주의, 대국주의, 온갖 기회주의의 해독적작용을 분쇄하고 항일무장투쟁과 조선혁명전반을 가장 정확한 승리의 길로 인도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령도됨으로써만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주체적력량이 꾸려질수 있었으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튼튼한 밑천이 마련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을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승리에로 확고히 인도하여주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튼튼히 담보할수 있는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적 력량으로 전변시켰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만이 해방직후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등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을때마다 머리를 추켜든 종파주의, 사대주의와 외부로부터 미치는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대국주의의 영향을 극복하고 우리 혁명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인도하여주었으며 미제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보장하여주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만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혁명적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러러보는 《천리마조선》,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전변시킬수 있었으며 이 땅에 위대한 민족적번영의 시기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지난 기간 우리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모든 부문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의 빛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주적으로 자기의 정책을 규정하고 그 수행에로 근면하고 재능있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풍부한 국내부원을 동원하였기때문에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수 있었습니다.》(우와 같은 책, 11페지)

우리는 사상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웠기때문에 사대주의, 교조주의, 좌우경기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력사적고질로 되여있던 종파주의를 뿌리뽑을수 있었으며 전당과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수 있었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이고 그들속에서 모든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할수 있었다.

우리는 정치에서 자주성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였기때문에 미제의 온갖 침략책동과 대국주의의 압력을 단호히 분쇄하고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었으며 국제무대에서 혁명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강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분야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기때문에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나라의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할수 있었으며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었다. 주체가 선 결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이 촉진되고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개화발전하게 되였다.

우리는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기에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도 일격에 때려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강유력한 국방력을 창설강화할수 있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의 혁명력량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우리는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믿음직한 담보를 이미 마련하여놓았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고야 말 확고한 신심과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사상일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위대한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탁월한 혁명사상이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 받들면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심혈을 기울여 따라배우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투쟁에서 누구나가 다 견지하여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길》로,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이 구현하여야 할 혁명적인 사상》으로,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천금보다 더 귀중한 가치》로 된다고 말하고있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결정적인 기여》로, 《현대인류의 모든 진보적사상의 최고봉》으로 된다고 말하고있다. 그들은 주체사상에서 《혁명승리의 열쇠》를 찾고있으며 주체사상을 자기들의 《고귀한 지침》으로, 《투쟁강령》으로 삼고있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그것을 자기들의 혁명투쟁의 지침으로 삼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현시대의 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주고있기때문이다.

오늘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이며 세계혁명위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우리 시대는 모든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주성과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세계혁명운동은 모든 대륙에 걸쳐 미증유의 규모로 확대발전하고있으며 매개 나라의 다양한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서 각이한 단계를 밟으면서 혁명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있다.

각국의 혁명력량도 비상히 강화되였다. 각국의 인민들은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되여 혁명투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떠서고있으며 투쟁과정에 한층 더 단련되고있다.

다른 한편 세계혁명운동이 강화되고 모든 대륙과 모든 나라들에서 혁명력량이 장성함에 따라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의 공세가 발악적으로 강화되고있으며 혁명정세는 급격하고 복잡한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더우기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는 좌우경기회주의가 나타나고 복잡한 정세들이 조성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변천하는 혁명정세와 우심해지는 적들의 발악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자기 위치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며 온갖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것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바로 우리 시대의 혁명운동발전의 이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길을 가리켜주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력량의 단결을 강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확립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32페지)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힘있게 추진시켜나아가는것은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립장이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기의 혁명위업에 대하여 주인다운 립장을 견지하며 자기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혁명투쟁을 전개하여야만 어떤 복잡하고 급변하는 정세에서도 항상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줄수 있으며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보장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며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때 조성된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제기된 과업이 아무리 크고 벅차다하더라도 혁명은 반드시 승리에로 이룰수 있는것이다.

또한 이렇게 할때에만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나 로선과 정책에서 일관성과 원칙성을 견지할수 있으며 자기의 혁명적지조를 지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잃고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독자적인 사고력이 마비되여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는것은 물론, 나중에는 옳고 그른것도 가리지 못하고 남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며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모든것을 남에게만 의존하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종파주의 등 좌우경기회주의를 다 범하게 될것이며 혁명과 건설사업을 크게 망쳐버릴수 있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79페지)

자주성과 자력갱생의 정신을 고수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사대주의에 빠지게 된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특히 오늘 좌우경기회주의가 대두하여 해독을 끼치고있는 조건에서 사대주의를 근절하고 자주성과 자력갱생의 정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항상 주견있게 옳고 그른것을 가려낼수 있고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굳건히 고수할수 있다. 자주성과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따라서 오늘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맑스-레닌주의 혁명적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을 최대한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원칙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신념에 따라 판단하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정책을 규정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여 혁명을 발전시켜 나아가는것, 이것이 현시대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립장이다.

모든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정신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기 위치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강화할때에만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력량의 통일단결도 이룩할수 있다.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지 않고는 대국주의를 견제할수 없으며 착

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할수 없다.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근절하고 주체를 세울 때 대국주의가 무기력해질것이며 좌우경기회주의도 범접하지 못할것이다. 또한 매개 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기 위치에서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고 혁명을 부단히 발전시켜 나아갈 때 온갖 기회주의조류의 반동적본질은 더욱 철저히 폭로되고 그것은 모든 인민들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게 될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력량의 통일단결도 오직 철저한 자주성과 평등의 기초우에서만 강화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은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됩니다. 모든 당들이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만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37페지)

자주성을 파괴하는 대국주의, 사대주의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당들간의 평등이 보장될수 없으며 따라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한 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이 이룩될수 없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철저하게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인 사상이다. 그것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할뿐아니라 그 어떤 민족리기주의도, 민족배타주의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사대주의, 교조주의, 대국주의,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수 있게 하며 현시대의 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의 초미의 문제들을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는 길을 가리켜주고있다. 따라서 그것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그처럼 큰 힘으로 틀어잡는것이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그처럼 강력히 고무추동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모든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칙의 불멸의 위력을 훌륭히 발휘시키며 맑스—레닌주의를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게 하는 탁월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 속에서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며 그것이 세계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수를 위한 투쟁에 결정적기여를 하게 되는 중요한 리유의 하나가 또한 여기에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학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에 비로소 그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70페지)

각국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며 그것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실천에서 검증된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학설이며 모든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합법칙성을 제시하고있다. 시대의 변화를 구실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부인하는 수정주의와는 정반대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동시에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하나의 교조로서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며 그것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창조적으로 적용할것을 요구한다. 자기 나라의 력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나라의 현실과 자기 인민의 기호와 정도도 무시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혁명사업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원칙을 고수하는것도 아니며 그에 충실한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은 매개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칙을 튼튼히 고수하는 동시에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원칙을 매개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가르쳐준다.

주체사상은 또한 혁명운동의 발전에 따라 맑스―레닌주의를 부단히 발전시켜나아가게 하는 창조적인 사상이다.

모든 나라에서 혁명이 심화됨에 따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앞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련이어 제기된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과 반혁명간의 투쟁이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는 조건에 맞게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의 전략전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조건에서 과거에는 아직 절실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도 명확하게 예견하지 못하였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부단히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명하며 맑스―레닌주의를 계속 발전시켜야만 혁명투쟁의 승리를 확대해나갈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바로 우리 시대의 혁명운동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해명을 요하는 근본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대답을 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에 통달하시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키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더 풍부화하여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벌써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확고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달성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일련의 근본적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쌓으시였다. 특히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무장투쟁로선과 유격투쟁의 전략전술을 비롯하여 공산주의운동사상 처음으로 천명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 및 반제통일전선로선 등과 그 실천적경험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과 국가건설 및 인민무력건설리론, 그리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수행을 위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본질적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명하여주시였다.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독창적으로 제기하시고 원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천명하신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개조를 실현할데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방침,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로선,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과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 등과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 세계의 혁명력량을 단합하여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실천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대한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이러한 로선과 방침들은 맑스―레닌주의일반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한 탁월한 모범으로 될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후의 프로레타리아독재

의 력사적임무와 계속혁명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문제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동력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임무와 그 지도방법에 관한 문제, 제국주의와 대치한 조건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 및 정신적 요새를 점령하는 방도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계급적차이와 민족적차이를 소멸하는 원칙과 방도 문제, 사회주의진영이 형성된 조건에서의 사회주의나라들간의 정치경제적련계를 발전시키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세계적범위에서의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전술문제 등 우리 시대가 제기한 새롭고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천재적인 해명으로 된다.

실로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사상으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실천적경험을 총화분석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먼 장래까지 과학적으로 예견하시면서 맑스—레닌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시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계신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난날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의 새로운 혁명적리론과 사상이 국제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 속에서 거대한 견인력을 발휘하고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였던것과 같이 오늘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혁명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으며 그들의 투쟁의 강력한 무기로 되고있는 것이다.

* *

우리 인민은 세계의 모든 나라 혁명적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한결같이 우러러받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우리 나라와 전세계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하고있는 것을 무한한 자랑으로, 가장 높은 영광으로 여기고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 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대국주의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훌륭히 투쟁할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철저한 공산주의자,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유일한 자로 삼아 모든 것을 재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 나갈 때 우리는 자기앞에 제기된 모든 혁명임무를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길수 있다. 또한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시켜 나아갈 때 세계혁명위업도 더 훌륭히 촉진시킬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나아가야 할것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그이께서 가리키신 자주, 자립, 자위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자부심

•

지금 온나라는 위대한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천리마의 대진군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혁명의 절박한 요구와 자기앞에 부과된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깊이 자각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려는 일념으로 낮에 밤을 이어 분초를 다투어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이 높은 혁명적기백, 우리 인민의 터진 화산과도 같은 이 앙양된 혁명적열의의 근저에는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려는 그들의 불같은 충성심이 놓여있으며 수령의 혁명전사된 크나큰 긍지가 맥맥히 흐르고있다.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넘쳐흐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무한한 긍지와 혁명적자부심,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혁명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드높은 긍지는 우리 인민의 비상한 혁명적열정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인민들을 더욱 위대한 승리에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무한한 혁명적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 인민을 백배로 강하게 만들며 우리의 전진운동에 더욱 큰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 *

우리 인민은 혁명의 진두에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예술, 고매한 덕성으로 하여, 지난 40여년간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하여 세우신 불멸의 업적과 공헌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모든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가장 높은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집중하고계신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로정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혁명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영명하신 수령을 모시고 그이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였기에 우리는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 《사회주의의 모범》을 창조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와 우리 조국의 광복도,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강력한 경제력과 국방력과 찬란한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가진 오늘의 사회주의조국도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도 생각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자기들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일편단심 수령을 따라배우며 그이께 무한히 충직하려는 드놓지않는 결의에 충만되

여있는것이다.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혁명적 자부심은 바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고있다는데 있다.

혁명하는 인민에게 있어서 영명한 수령을 모시고있는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그것은 영명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인민만이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투쟁의 가장 정확한 앞길을 명확히 찾을수 있으며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혁명적절개를 지키며 용기백배하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기때문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정확한 투쟁강령과 혁명로선을 제시하고 혁명과 건설의 매단계에서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우며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준다. 또한 수령은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며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화한다.

자기들의 투쟁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인민, 계급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군중은 혁명투쟁에서 큰 역할을 놀수 없다. 수령이 없는 당은 지휘관이 없는 군대와 같으며 현명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인민은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혁명투쟁에 나선 인민은 영명한 수령을 모시고있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수령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비관과 동요를 모르며 항상 승리의 신심에 충만되여 꿋꿋이 싸워나가는것이다.

조선인민은 영명한 수령을 모시는것이 혁명하는 인민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심장깊이 체험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우리 인민은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하여 분연히 일떠섰으나 혁명의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함으로 하여 투쟁의 향방을 찾지 못하고 쓰라린 실패와 희생을 면치 못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 맑스—레닌주의가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공산주의운동도 전개되였으나 혁명의 탁월한 수령의 통일적령도를 받지 못하였기에 결국 승리할수 없었다. 우리 인민은 발톱까지 무장한 원쑤와의 싸움에서 피흘리며 쓰러지면서 투쟁의 앞길을 해빛처럼 밝혀줄 영명한 수령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렸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모시게 된 때로부터 비로소 영광스러운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수많은 파란곡절과 시련을 겪어오던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은 확고한 승리의 로정을 걷게 되였다.

지난 40여년간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이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은것도, 우리 인민이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은것도 오직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예술, 고매한 덕성을 겸비하신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아왔기때문이다.

조선혁명은 실로 복잡하고도 간고한 로정을 걸어왔다. 우리 인민은 전조선을 강점하고 아세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발광하던 강도 일제를 때려눕혀야 했고 해방후에는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전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며 세계를 제패하려고 꿈꾸는 세계반동의 두목 미제와도 싸워야 했으며 국내의 온갖 반동세력과도 치렬한 계급투쟁을 진행하여야 했다. 우리들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할뿐만아니라 혁명운동대렬내에서 발생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를 반대하여서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은 극히 짧은 력사적기간내에 온갖 압박과 사회적질곡을 청산하는 위대한 혁명사업을 수행하여야 했으며 세기적락후성과 혹심한 전쟁피해를 가시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는 위대한 건설사업을 진

행하여야 했다.

우리 혁명의 로정은 이처럼 복잡하였으나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언제나 혁명투쟁의 휘황한 앞길을 내다보면서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가장 곧바른 길을 따라 전진하였다. 또한 우리 혁명의 길은 그처럼 간고하였으나 우리 인민은 오직 수령을 믿고 수령께 자신의 모든것을 의탁하면서 그 어떤 동요와 비관도 없이 혁명승리를 위한 일념으로 싸워왔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이의 탁월한 령도는 우리 혁명의 앞길을 태양과 같이 밝혀주었으며 우리 인민을 어떤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고뇌하지 않는 떳떳한 인민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그이의 탁월한 령도로 하여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을뿐만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고수하면서 세계혁명위업의 촉진을 위하여 거대한 기여를 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생활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나갈 때 아무리 복잡한 환경에서도 명확한 진로를 알며 어떠한 역경에서도 굴할줄 모르며 자기앞에 부과된 모든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가장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무한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민으로 된다는 드놀지 않는 신념을 가슴깊이 체득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40여년간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행정에서 우리 인민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며 밑천으로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혁명하는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혁명투쟁행정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업적들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긴다. 지난 기간의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업적이 크면 클수록 인민들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혁명투쟁의 참된 보람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며 이미 쟁취한 성과를 밑천으로 하여 혁명의 더욱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일떠서게 된다.

우리 인민은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을 통하여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하여야 할 유일한 혁명전통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계승할 혁명전통은 우리 당 규약에 명백히 씌여있는바와 같이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15년간의 투쟁에서 이룩해놓은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이룩하여놓으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이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뿌리이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가장 고귀한 밑천이다.

이 전통, 이 뿌리는 그것이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하고도 위대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것으로 하여 가장 심각하고 심오하며 그리고 무장투쟁과 그와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된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의 행정에서 확립된것으로 하여 비할바없이 그 내용이 풍부하다.

우리는 이 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갈 때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그 모든 문제들을 가장 훌륭히 해결할수 있으며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을 오직 승리에로 전진시킬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혁명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하여놓으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온세상에

자랑하고있으며 그것을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나아가는것을 가장 고상한 혁명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해방후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와 업적을 이룩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동안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정책과 인민정권의 불패의 생활력에 의하여 그리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적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가혹한 착취와 압박,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강토에 오늘은 모두가 서로 돕고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2페지)

이 땅에 확립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 이것은 항일혁명선렬들과 혁명적인민들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이룩된 혁명의 전취물이며 수세기에 걸친 우리 인민의 념원이 빛나게 구현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제도는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이다. 이 제도가 있기에 모든 사람들은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되여 의식주와 병치료,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모르며 누구나가 마음껏 일하고 행복을 누리며 투쟁속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느낀다. 이 제도가 있기에 생산력과 과학기술, 민족문화가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사람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근로하는 인민의 지상락원이라고 부르며 온세상 인민들이 부러워마지 않는다. 실로 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인민도 많지마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하고 자랑찬 인민은 없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무한한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께서 마련해주신 이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며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혁명적투지와 드높은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　　*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며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모든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자부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위대한 혁명투쟁을 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을 도와 조국강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전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청산하고 전세계 혁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우 영예스러운 사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성스러운 일이며 값있고 보람찬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걸어온 혁명투쟁로정에 대하여 언제나 떳떳하게 생각하며 혁명사업에 몸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있는 혁명은 항일혁명투사들의 위업을 계승하여 조선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며 온세상에서 온갖 압박과 착취를 청산함으로써 모든 근로인민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투쟁이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혁명투쟁에 참가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수 있으며 가장 큰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사람은 혁명을 하면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지 혁명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밥이나 먹고 세월을 보내서는 사는 보람이 없습니다. 더우기 오늘과 같이 벅찬 혁명의 시대에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것은 사실상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값에 가지 못합니다.》

혁명위업에 충실한 인민들, 진정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에서 사람으로서의 참된 행복과 삶의 보람을 느끼기에 혁명의 리익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혁명의 한길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우는것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가장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혁명위업에 헌신하는 혁명전사라는 혁명적자부심을 소유하고 자기앞에 부과된 모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에 대한 자부심을 깊이 간직할 때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결코 사람들에게 단순한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주려는데만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주는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보다 중요한 목적은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튼튼히 가지도록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고있으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에 대한 크나큰 긍지에서 표현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 자기의 혁명위업에 대한 높은 긍지를 가질 때 가장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소유할수 있으며 자기 조국과 인민, 자기 민족을 가장 열렬히 사랑할수 있다.

혁명적자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용기와 신심을 불러일으키며 더 빨리 전진하려는 혁명에 대한 높은 자각과 정열을 불러일으킨다.

만일 사람들이 혁명에 대한 자부심, 자기들이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이룩해놓은 빛나는 업적에 대한 긍지를 가지지 못한다면 필연코 민족허무주의에 떨어지게 되며 자기 나라의 모든 우수한것을 부정하고 남의것을 덮어놓고 례찬하며 우상화하는 사대주의에 빠진다. 사대주의는 망국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 독소이다. 사대주의를 뿌리뽑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필수적조건이며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자부심과 민족적긍지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돈으로도 얻을수 없고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 나라가 더욱 륭성발전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48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자부심은 매우 귀중한것이다. 이것이 없는 민족은 망할수 있지만 혁명적자부심이 높은 인민은 불패이다.

혁명적자부심, 민족적긍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게

하며 조국을 침해하려는 원쑤들을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게 한다. 혁명적자부심과 민족적긍지는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온갖 현상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인민들을 추동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의 보람찬 혁명위업과 자기의 행복한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때 민족허무주의, 사대주의, 대국주의,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가장 곧바른 길로 더욱 빨리 전진시킬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자부심을 더욱 높이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그이의 령도하에 이룩된 위대한 혁명업적들을 그들속에 철저히 파악시키는것이다.

인민들은 수령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보다 심오히 학습하면 할수록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덕성을 더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무한한 자부심과 영예감을 심장깊이 간직할수 있다.

또한 수령의 령도하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철저히 파악할 때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계승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혁명적자부심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높은 긍지를 소유하고 혁명과 건설에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자부심을 높이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여야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할수 있으며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정책이 가장 위대하고 현명하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자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신심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들은 원쑤들의 첩첩한 포위속에서도 철창속에서도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결코 비관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있었으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와 광명한 앞날을 굳게 믿고있었기때문입니다.》(《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자기들이 수행하는 혁명위업의 정당성,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은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투지를 북돋아주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에서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물러서거나 동요함이 없이 계급적원쑤를 반대하여 가장 견결히 싸울수 있게 한다. 혁명투쟁에서 승리에 대한 신심이 확고할 때 눈앞에는 허다한 난관이 쌓여있고 전도가 료원한것 같은 그런 때에도 혁명가로서의 립장, 혁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일신을 돌봄이 없이 꿋꿋이 싸워나갈수 있는것이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하며 어떤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와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야 할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

오늘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중요한 한부분을 이룬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고귀한 전통은 해방후 당의 령도밑에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는 행정에서, 특히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정에서 우리 인민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높뛰고있으며 철천지원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와 새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게 하는 중요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전개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확고히 간직하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이 땅우에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더욱 륭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형성될수 있은것은 이 투쟁이 확고한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진정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며 조국땅우에 인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이였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하며 우리 나라에서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을 근절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의 목적과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항일유격대는 우리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일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무장력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조선인민의 절실한 념원은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하루속히 타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는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력량을 집결하여 무장투쟁을 더욱 대규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를수는 없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모든 계급적압박을 청산하고 로동자, 농민을 착취의 멍에로부터 해방하며 우리 조국을 장차 착취없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것을 자기의 변함없는 목적으로 삼는다.

항일유격대는 언제나 이 과업수행을 자기

의 기본사명으로 하는 맑스-레닌주의군대로 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천재적인 예지와 심오한 통찰력,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전개력을 지니시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전면적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빼앗긴 조국을 찾고 민족의 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이였다. 이 투쟁행정에서는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이 밀접히 결합되였다.

항일유격대는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2중3중의 압박과 착취를 그 누구보다도 혹심하게 받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된 혁명적무장력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들의 계급적처지와 생활환경으로부터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제를 타도할뿐아니라 온갖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소유하고있었다.

항일유격대는 철저하게 자체의 힘을 믿고 싸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에게 항상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의 승리는 조선인민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가르치시였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체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하여야 한다고 그들을 고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을 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대사변을 떳떳이 맞이할수 있으며 해방된 조국의 민주건설도 우리의 손으로 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철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빼앗긴 조국과 억압당하고있는 동포형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기어코 해방하고 근로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겠다는 드높은 책임감으로 무장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 간직하고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적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한 가장 열렬한 애국자, 혁명투사들이였다.

이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확고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이 결합된 가장 높은 애국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조국강토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굴의 투쟁정신 등에서 발현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은 김일성동지의 항일유격대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양과 그이의 실천적인 모범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끊임없는 교양과 그이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고매한 덕성과 실천적인 모범을 본받음으로써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높이 발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 그 어느 한시도 일제에게 짓밟힌 조국산천과 기아선상에서 신음하고있는 우리 인민을 잊으신 때가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선은 문자 그대로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산도 좋고 물도 맑다. 어느곳, 어디서나 끓인 물이 필요되지 않는다. 비옥한 토지에서는 기름진 오곡을 풍성하게 거둘수 있게 하며 동서해안의 무진장한 가지가지의 수산물과 가는 곳마다에 매장된 금, 은, 동, 철, 석탄 등 모든 귀중한 자연부원들은 우리 인민들을 모두다 잘 살수 있게 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은 그것을 일제놈들에게 죄다 빼앗겼다.

유명한 평양국수, 달콤한 감자(고구마), 가을이면 유명한 대동강의 숭어, 기름진 백미, 경치좋은 모란봉과 만경대, 그 어느 하나 뺄것없이 모두가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는 이 모든 자랑스러운 자연풍경과 부원을 일제놈들에게 강점당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간고한 투쟁은 반드시 오늘의 개구리료리를 미구에 대동강의 숭어료리로 전환시키고야 말것이다. 이것은 의심할바 없는 하나의 진리이다.》.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사랑의 정을 금치 못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밀림에서 울려오는 도끼질소리를 들으시고도, 압록강, 두만강우로 떠내리는 떼목을 보시고도 조국의 귀중한 자원들이 강도 일제에게 짓밟히고 빼앗긴다는 생각으로 하여 밤잠을 이루시지 못하셨다.

하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일신의 위험도 돌보시지 않고 항상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인민에 대한 가장 깊고 뜨거운 사랑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 인민을 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극진히 보살피시였으며 그들에게 두터운 배려를 돌리시였다.

《인민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인민의 리익을 존중할줄 알아야 한다》 등 수많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가슴뜨겁게 찾아보게 되는것과 같이 인민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며 인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해결해주시는 그이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이루다 말할수 없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항상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전투환경속에서도 먼저 인민을 생각하시였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미칠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희생을 무릅쓰고 적들을 딴곳으로 유인하시였으며 유리한 지점을 적에게 내주면서까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투에서 로획한 전리품 하나를 놓고도 혹시 잘못되여 그속에 인민의것이 들어있지 않는가 안심되지 않으시여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관하게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항일유격대의 본분으로 삼으시였다.

그러기에 인민들은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신뢰하고 흠모하였으며 그이를 민족의 영웅으로, 수령으로 받들고 한결같이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해방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면서 항일유격대를 성심성의로 도왔으며 그들을 혈육의 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이의 실천적인 모범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제침략자들을 이 땅우에서 몰아내고 조국강산을 인민의 보람찬 행복의 요람으로 전환시키려는 절절한 념원을 안고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인민에게 충실하였으며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곤난과 위험 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셨기에 조국땅을 짓밟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씌운 강도 일제침략자들을 극도로 증오하시였으며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시고 원쑤격멸에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빼앗은 일제침략자들과의 투쟁을 그 어느 한시도 늦추어본적이 없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떠한 곤난과 시련 속에서도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불타는 적개심으로 적과 싸우셨으며 대원들을 원쑤격멸에로 고무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인민에게는 순한 양처럼 자기의 모든것을 바쳤으나 원쑤들에게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싸워이겼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을 창건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락관주의 등에서 여실히 발휘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들에서 조선혁명의 휘황한 앞길과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확고히 내다보았으며 그이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싸웠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심장에 아로새긴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떤 곤난과 시련 속에서도, 천고밀림속에 홀로 남게되는 경우에도 추호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굳게 믿고 끝까지 혁명의 지조를 지켜싸웠다.

수령의 따사로운 어버이품속에서 자라난 리권해동지는 원쑤들의 야수적인 고문과 위협공갈 앞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의 본심은 몸이 가루가 되여도 변하지 않소.… 고문이나 회유에 못이겨 혁명을 배반하는 그런 서푼짜리 공산주의자는 우리 항일유격대대렬내에는 한사람도 없다.…총칼이 세상만사를 좌우하는줄 아느냐? 권총이 아니라 대포나 폭탄으로 위협해도 공산주의자는 혁명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네놈들이 죽인다고 해도 혁명의 절개를 팔면서 목숨을 구걸할 내가 아니다.》라고 소리높이 웨쳤다.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을 혁명위업에 복종시킬줄 알며 미래를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공산주의자의 숭고한 혁명정신에서 흘러나온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굴욕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원쑤와 싸우며 혁명적지조를 지켜 죽는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여겼던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을 위하여, 광명한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한 새생활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고귀한것을 다바쳐 투쟁한 열렬한 애국자들이였다.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사랑속에서 자라난 항일유격대원들이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찬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보여준 락천성도 바로 해방된 조국땅우에 실현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굳은 신념에서 우러나온것이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은 해방된 조국땅우에서 자기의 힘으로 풍부한 부원과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공장도 짓고 기계도 만들며 농사도 자기 손으로 지어 인민들이 풍족하게 잘살 사회주의적조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높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발휘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은 세계혁명의 일환으로서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인 동시에 모든 제국주의자들을 타격하고 약화시키는 중요한 투쟁이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국제주의자로 되지않고서는 자기 조국을 사랑할수 없으

며 진정한 애국주의자로 되지않고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자로 될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진정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였을뿐아니라 진정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전사였다. 그들은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세계혁명에 기여한다는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간직하고 견결히 투쟁하였다. 항일유격대는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들고 당시 유일한 사회주의나라였던 쏘련을 피로써 옹호하였으며 중국인민들과 손잡고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또한 항일유격대원들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배치되는 민족주의, 민족배타주의, 사대주의 등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이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발현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조선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켰을뿐아니라 세계혁명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게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며 그이께서 계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데서 가장 높이 발현되였다.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니였던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이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이였다.

김일성동지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실현하는것이 곧 조국의 광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달성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임을 깊이 확신한데서 온것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나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는것을 수령의 전사로서의 첫째가는 생명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는것이 곧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으로 되며 그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된다는것을 심장깊이 느끼고있었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간악한 일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조국의 광복도, 인민의 행복한 미래도 도저히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굳게 믿은 항일유격대원들은 항상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영웅으로, 승리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그이의 주위에 굳게 뭉쳐싸웠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계신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것을 조선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존망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여기고 자나깨나 혁명의 사령부의 안전에 대하여 생각하였으며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이 계시는 사령부는 조국을 해방하는 혁명의 심장이요.

우리는 그이의 팔과 다리가 되여 그이를 받들며 철석같이 보위하여야 하오.

이 정신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목숨을 바쳐 고수하여야 하오.》

불굴의 혁명투사 권영벽동지의 이 말은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들인 모든 항일유격대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표현한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였던 오중흡동지의 생애와 활동은 그이가 계신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실로 오중흡동지는 김일성동지께서 계신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사령부를 무한히 신뢰하고 그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의 명령과 지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진정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였다.

그는 김일성동지께서 계신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는것이 곧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라는것을 심장깊이 느끼고있었기때문에 어디에서나 어떤 불리한 정황속에서나 항상 사령부

의 안전을 먼저 념려하고 그이의 주위에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는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1938년말~1939년초의 간고한 100여일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기 위하여 모든 위험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면서 적들을 멀리 유인하여다가 무자비하게 족치군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보위하려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심정은 바로 이러하였다.

혁명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고 그이가 계신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낸 항일유격대원들의 고결한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그대로 살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자랑스러운것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이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을 창조하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민족적독립과 영예를 고수하며 부강하고 륭성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는 보람찬 투쟁행정은 그대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개화발전하는 행정이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도의 혁명적열의와 투지로 불타게 하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킨 중요한 힘의 원천이였다.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이 땅우에 사회주의제도의 확립과 함께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게 되였으며 오늘 그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부단히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는 강력한 추동력의 하나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그처럼 높이 발양되고있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감정은 바로 우리 나라에 수립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 튼튼히 뿌리박고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더욱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훌륭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일하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높이 간직하여야 하며 이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며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위업, 이것은 우리 세대 인민들뿐만아니라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가장 숭고하고 보람찬 사업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을 바쳐 적극 투쟁하는것은 가장 애국적이며 영예로운 일이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날강도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사상적준비와 물질적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가장 열렬한 애국자로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되여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켜낼것이며 남조선에서 날강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타도하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당정책관철에서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김 창 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확립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일것을 다시금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이 강령적교시를 깊이 체득하고 실지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두고 혁명력량을 보다 튼튼히 꾸리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켜 우리 혁명기지의 정치적력량과 물질적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직접적인 조직집행자인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사회주의하에서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며 당과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대중의 정치적열성과 창발성을 혁명과업수행에 최대한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3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과 정권기관의 모든 일군들이 실천활동에서 옳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확립하고 광범한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조직동원한다면 당의 로선과 정책은 어김없이 관철될수 있다. 전투에서 군대의 승패가 지휘관의 지휘여하에 크게 달려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데서도 그 성과여부는 혁명의 매개 초소를 맡고있는 지휘성원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어떻게 잘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당이 당의 기본핵심이며 혁명과업수행에서 지휘성원들인 간부들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사람과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시종일관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는 중요한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관건적고리는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에 달려있습니다.》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한다는것은 그들이 당과 우리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성을 다하며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고 목숨으로 보위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한몸을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로서의 혁명적립장과 정치도덕적풍모를 철저히 갖춘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군들 자신이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시키고 그들을 그 어떠한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의 관철에로 능숙히 조직동원할수 있는 강유력한 무기를 소유하는것으로 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선봉에 선 혁명투사이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또한 다 인민이 선출한 일군이며 인민을 위하여 성심성의 일하는 심부름군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립장, 사업방법과 실천활동은 철두철미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일군들이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로동계급의 길위투사,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는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

모든 일군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에 설 때만이 그들은 한가지 일을 하여도 로동계급과 혁명의 리익에 맞게 그리고 모든 문제를 명확한 로동계급적선을 그어놓고 판단처리할수 있으며 그와 배치되는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여 타협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당성이 있으면 로동계급성이 있게 되고 또 로동계급성이 있어야 진실로 인민성을 발휘할수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일군들의 지식수준이나 기술실무능력도 결국은 그들이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확고한 소유자로 될 때 혁명을 위하여 참으로 쓸모있는것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오직 당적립장, 로동계급적립장에 튼튼히 설 때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성과적으로 집행해나갈수 있으며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경제 기관 정무원들은 다 인민이 선출한 일군들이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군들입니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복무하는 일군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쳐 싸워야 하겠습니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3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정책의 집행자인 우리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제고하고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에 항상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우리 당 건설과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과 대책을 마련해주시였으며 몸소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여왔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우리 당은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낡은 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반대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왔다. 오늘 우리

일군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전선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관철하며 당정책집행을 능숙히 조직할줄 아는 유능한 지휘성원들로 자라났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여 당정책관철에서 그들의 핵심적역할을 강화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혁명적대고조를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실천적경험은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높고 혁명적군중관점에 확고히 서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 때에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당정책은 례외없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며 모든 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매초소를 담당한 지휘성원들이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어떻게 몸바쳐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현시기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로 하여금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체득하고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전망적요구와 당면한 현실적요구의 견지로 보아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한층 앙양시켜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도래할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기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통일을 성취하여야 할 숭고한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당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킬것을 호소하였다. 지금 당의 혁명적호소를 받들고 일며선 대중의 혁명적기세와 열의는 충천하다.

대중의 혁명적기세를 계속 앙양시키기 위하여 우리 일군들은 그들의 앙양된 열의에 지도를 앞세우며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사업방법과 작풍을 따라세워야 한다.

오늘 문제해결의 결정적고리는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의 사업여하에 달려있다. 당 및 국가, 경제 기관의 모든 일군들이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등 온갖 부정적인것을 불살라버리고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며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능숙히 조직동원한다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과업은 옳게 수행될것이며 당정책은 전반적으로 더욱 훌륭히 관철될것이다.

* *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무엇보다도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그들의 실지사업에서 나타나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그들의 실지투쟁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위한 그들의 실지사업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우와 같은 책, 33~34페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으로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리익과 지향을 반영한것이며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우리는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고 조국통일과 전국적범위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전세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적극 기여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수령께서 주신 교시와 당정책을 어김없이 관철하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부과된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차적인 과업이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발현으로 된다.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옳게 구현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모두가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관철자로 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되여야 하며 그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34페지)

일군들은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와 배치되는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인 요소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하며 수령의 교시,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대중속에 제때에 정확히 해석침투시키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당정책의 옹호자, 선전자로서의 책임적인 역할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자신이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 진수를 파악하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투쟁의 무기로 틀어쥐는것이다. 일군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그것을 지지옹호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을 고수할수 있으며 대중이 당정책의 진미를 알도록 정확히 해설선전하며 집행할수있다.

당정책을 옹호한다는것은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 진수를 파악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오직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만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재여보고 시비를 가려내며 당의 의도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현상과는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사상요소들에 대하여 추호도 타협하지 않고 투쟁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그것은 대중이 파악하고 그 관철에 자각적으로 발동될 때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나타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해석침투시킴으로써 대중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발동되도록 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기본사명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일군들이 당정책을 잘 해석선전하지 못하게 되면 군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잘할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령의 혁명사상을 옹호할수 없으며 그것을 자로 삼아 사업하며 생활할수 없게 된다. 당정책은 당원들과 근로대중이 알수록 좋고 당정책에 대하여 대중속에서 선전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인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면 시킬수록 좋다.

대중으로 하여금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에 이악스럽게 달라붙게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지도일군들에게 달려있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대중속에서 정치활동가, 선전교양자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여야만 당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관철해 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사업행정에서 제기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이악스럽게 달라붙어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가적 기풍에서 발현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사람들을 교양개

조하며 온갖 낡은것을 타파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투쟁이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스럽게 달라붙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지혜와 힘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투쟁하는것이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으로 된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구경은 혁명과 건설의 실천활동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중을 발동하여 당정책을 충실히 관철해나가는가 하는 문제에 귀결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실하려면 당과 수령이 내놓은 정책들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삼으며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에 충실하다는것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것, 실지로 자기 맡은 사업을 실속있게 충실히 집행하며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당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말한다.

오늘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우리 당과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방대한 과업들을 제기하고있다. 당은 더욱더 많은 군중을 당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력량을 보다 튼튼히 꾸리며 시간을 최대한으로 쟁취하여 생산을 증대시키고 우리 혁명기지의 물질적력량을 계속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바로 어떠한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자기가 맡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당이 제기하고있는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철저히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는 물론 예상치 않았던 애로와 난관이 제기될수 있다. 당정책은 오직 우리 일군들이 난관앞에서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 일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결사적으로 달라붙어 완수하고야마는 철저한 혁명가적기풍을 발양할 때 비로소 훌륭히 관철될수 있다.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경험은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하는 단위에서는 반드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세인을 놀래우게 하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와 변혁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그이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기때문이다.

당정책관철에서 일군들의 혁명가적기풍, 이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혁명과업수행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타개해나가며 자기 단위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로력과 자재, 자금을 극력 절약하면서 분초를 다투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생산하며 건설하도록 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당정책의 집행자인 지도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견지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우리의 천리마대진군을 저애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안일과 침체, 사대주의와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이다.

오늘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현실은 일군들속에서 있을수 있는 소극성, 보수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강화, 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의 제고와 그들의 충천한 혁명적기세, 이 모든것은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온갖 반동적인것, 보수적인것, 낡고 침체한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일군들은 빨리 전진하는것을 주저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에 사로잡힘이 없이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에 발맞춰 그들의 투쟁을 이끌고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일군들이 실지사업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제시된 당정책을 어김없이 관철할수 있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다.

* *

당 및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이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선전자, 집행자로 되기 위하여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는것은 그들의 본분이며 평생의 과업이다.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것은 부단히 혁명적수양을 쌓고 자신을 꾸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이에 있어서 근본은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에 충실한가 충실하지 못한가 하는것은 혁명을 오래하고 적게 하였거나 공부를 많이하고 적게 한데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되였는가 못되였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은 당에 충실한 사람이며 당의 사상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은 당에 충실치 못한 사람입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당에 대한 충실성이다. 당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일군만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만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될수 있으며 어떤 풍파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과 수령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킬수 있다.

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 학습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와 위대한 혁명사상,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한 항일유격대원들의 공산주의적풍모를 따라배워 그들처럼 수령의 참된 전사로 되여야 한다.

동시에 일군들은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함으로써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혁명가로서의 사상관점과 사업작풍, 사업방법, 혁명적기질을 배양하기에 힘써야 한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이 실천투쟁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자면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관료주의를 없애며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과 의논하며 군중을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해결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을 체득하여야 합니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자기 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관철하여야 할것입니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3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성과적

건설을 위한 이 위력한 무기를 튼튼히 틀어쥘 때만이 대중을 발동시켜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군중로선에 의거한 사업방법 즉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군중의 정치사상적각오를 부단히 높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이다. 당정책의 성과적관철은 일군들의 주관적욕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도일군들은 먼저 당의 의도를 대중에게 정확히 해설침투시키고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방도를 찾고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달라붙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을 선행시킴과 동시에 중요한것은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지도방법을 결정적으로 고치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은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실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아래일군들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며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의 기업관리와 대중지도에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사업작풍을 고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문제가 아니라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사상의 표현으로서 일군들의 풍모를 광범한 군중앞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상잔재와 그 표현인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철저히 뿌리빼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은 대중을 대함에 있어서 교만하지 말고 허심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소탈하고 진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의 모든면에서 항상 대중의 모범이 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항상 기수가 되여야 군중과 잘 어울릴수 있고 그들에게 강하게 요구할수도 있으며 군중은 또 진심으로 일군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계급적관점과 군중관점을 세움과 동시에 책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학풍을 세워 자체의 정치사상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제기된 모든 혁명과업을 능숙히 조직집행할수 있도록 자신을 부단히 준비하여야 한다.

* *

당 및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제기되는 필수적인 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성과의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근로대중을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보다 강화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높이 불러일으킬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며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진행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관철하는 견결한 혁명가로서 전체 근로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당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명시된 전략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 더욱 큰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자

전 창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전에 진행된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우리의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강령적교시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운동을 심화시킴으로써 전체 근로자들과 천리마기수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앙양시킴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깊이 연구하고 심장으로 받들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천리마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조하신 천리마운동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공산주의학교이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비상히 촉진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드는 하나의 공산주의교양운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는 공산주의적전진운동입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7페지)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사업과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는 전인민적운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여있다. 이 로선의 본질은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당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고도로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잘, 더 빨리 건설한다는데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46페지)

천리마운동의 근저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이 놓여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를 더잘,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한 힘의 원천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여 일어난 위대한 전진운동이다.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에서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넘겨받았으며 그것마저 미제가 도발한 3년간의 전쟁에서 여지없이 파괴되였다. 우리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되여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

주의를 건설하며 동시에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락후한 처지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특히 우리 인민은 지난날 제나라, 제주권이 없었던 탓으로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억눌려 살아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주권하에서 우리 인민은 다시는 과거의 쓰라린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빨리 나가려는 혁명적각오가 남달리 강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우리 혁명발전의 이러한 근본적인 요구와 빨리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반영하여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인민대중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사회주의혁명의 결정적승리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전제조건으로 되였다.

그러나 객관적조건과 가능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는것은 아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오직 대중을 혁명적대고조에로 이끌수 있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천리마운동과 같은 심각한 정치사상적변혁을 동반하는 일대 대중적혁신운동은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 혁명에서 1956~1957년은 실로 어려운 시련의 시기였다.

우리에게는 자재도 부족하고 자체의 경제적토대도 아직 미약하였으며 인민생활은 아직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거기에다가 내부에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이 당을 반대하여나섰고 밖에서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매국역적들이 《반공북진소동》을 발광적으로 일으켰으며 한편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현대수정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이 심하였다.

이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직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로동계급의 불같은 충성심과 혁명적의지를 믿으시고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이 어려운 시기, 모든 곤난을 이겨나가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동무들입니다.**

당은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계급의 힘을 굳게 믿고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당의 로선관철에로 힘차게 고무하시였다.

수령의 크나큰 신임에 고무된 강선의 강철전사들을 비롯한 전체 로동계급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을 옹호하여 분연히 일떠섰으며 수령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천리마의 대진군속에서 내외원쑤들의 온갖 비방중상과 파괴책동은 산산이 부서지고 나라에 조성되였던 난국은 성과적으로 극복되였으며 온나라는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정열로 들끓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발단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천리마운동은 시작된 첫시기부터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집단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적인 대중적대진군운동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우리 당은 천리마운동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추진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방도를 찾고 이 운동을 부단히 발전시켰다. 이리하여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락후하고 침체한것을 불어버리면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는 수백만 근로자들

의 일대 혁명운동으로 되였으며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당의 총로선으로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단계마다 과학적인 분석과 명철한 통찰력으로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성숙된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그를 해결하시였으며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시고 한 고지를 점령하고 련이어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투쟁에로 대중을 힘차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천리마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데로 이끌어주시였다.

천리마운동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소극성과 보수주의, 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특히는 대중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교양이 강화되고 사람과의 사업이 심화되여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일로 되고 그것이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이 더욱 심화발전된것으로서 인민경제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근로자들의 대중적경제관리의 훌륭한 방법으로 되였을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교양의 방법으로 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54페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의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체현하고있다.

이 운동은 제1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 줄기찬 투쟁행정에서 더욱 급속히 확대되고 심화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상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우리 당의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구현된 대중운동으로서 우리의 로동계급이 창조한 근로대중의 훌륭한 공산주의학교입니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 제1차적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사람을 교양개조하여 그의 자각적열성을 발동시키는데서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의 결정적고리를 찾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60페지)

천리마기수들은 사상혁명을 앞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첫째가는 의의를 부여하였다.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과업인 인간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훌륭히 해결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사상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공산주의교양의 훌륭한 방법이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일로 되게 한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교양을 실속있게 효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있으며 그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여 모든 사람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훌륭히 육성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오늘 공화국북반부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으로 튼튼히 꾸며졌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의 기본목적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가는 과도기에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소극분자를 적극분자로 만들고 뒤떨어진 사람이 한사람도 없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데 있습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7페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든 이 운동참가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에 기초하고있기 때문이다.

천리마기수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락후성을 가시고 우리 나라를 하루속히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짓부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있다. 천지를 진동하며 나아가는 천리마의 우렁찬 발구름소리에 《공칭능력》과 《기준량》에 매달리던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는 타파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생산규모가 커지면 전진속도를 높일수 없다는 수정주의적이며 사대주의적인 궤변도 부서져나갔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우리 나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세기적인 락후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위력한 자위적인 방위력, 찬란한 문화를 가진 사회주의의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켰다.

실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천리마의 속도로 내달림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다같이 일하고 잘 살며 다같이 무료로 치료받고 공부하는 가장 선진적인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아래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천리마운동은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열화같은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천리마의 조선》,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의 모범》으로 불리고있다.

만약 우리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운동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우리 나라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세계에 그 빛을 뿌리지 못하였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운동은 이미 거대한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보여주었으며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전투적기백을 천리마운동에서 높이 시위하였다.

* *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금번 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명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은 첫째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둘째로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셋째로 책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람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사상혁명을 하라는것이며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기술혁명을 하라는것이며 책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곧 문화혁명을 하라는것입니다. 이 세가지 사업을 잘하는것, 다시말하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잘하는것이 바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기본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11～12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천리마운동의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것으로서 사회주의하에서 혁명을 계속 추진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

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수행방도를 누구보다 더잘 알고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며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는 정치적수령의 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당원들이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당의 조직적의사인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는것은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우리 당 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은 혁명을 계속하며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싸우자는것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고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혁명할수 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장 곧바르게, 가장 빠른 길로 이끌며 제국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것은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의 최대의 의무이며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옳고 그른것을 똑똑히 가려볼수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투쟁의 앞길을 용감히 헤쳐나갈수 있다.

전체 근로자들과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친위대, 결사대로 되여야 하며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은 수령의 로작과 자기 부문, 자기 공장 앞에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체계적으로 심오히 연구하고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어떤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끝까지 관철하는 중앙집권제적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데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반동적사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고수해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하에 진행된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모든 승리의 원천이다.

전체 근로자들과 천리마기수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그이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를 심오히 연구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며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과의 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며 집단생활, 정치적조직생활을 하기좋아하도록 그들을 교양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집단주의사상에 기초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사람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는 자본주의사상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사상, 집단주의사상과 한자리에 있을수 없습니다. 사람들속에서 집단주의사상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남아있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합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15페지)

천리마기수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뽑고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과 조직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싸우는 집단주의사상과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이 우리 사회에 차고 넘치게 해야 한다.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당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 그리고 집단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자체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부단히 단련해야 한다.

사상혁명을 힘차게 전개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집단생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비롯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6페지)

로동계급은 우리 사회의 령도계급으로서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일층 높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자기의 혁명성과 사상성, 조직성과 규률성, 문화성을 더욱더 높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농민과 인테리들에 대한 계급적령도와 혁명적작용을 일층 더 강화함으로써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부단히 촉진해야 한다.

우리는 근로자들과 천리마기수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안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그를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온갖 정열을 다바쳐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천리마작업반의 기본사업대상의 다른 하나는 설비 및 자재와의 사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설비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군대에서 무기없이는 적과 싸울수 없는것과 같이 공장에서 설비없이는 생산을 할수 없으며 자연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19페지)

설비를 아끼고 사랑하며 더 능률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생산을 장성시켜 인민생활을 보다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천리마기수들은 직장과 공장의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습관을 붙여야 하며 설비를 알뜰히 거두는데서 언제나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설비를 아끼고 사랑할뿐만아니라 그에 정통하며 그를 부단히 혁신하는것은 전면적기술혁명의 시대에 사는 우리 천리마기수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10년전 천리마운동을 시작하던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은 대단히 높아졌다. 이러한 실정은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켜 인민경제를 한계단 더 높이 올릴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여야 하며 모든 기계설비들을 더욱 쓰기 간편하고 성능이 좋은것으로 끊임없이 개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성

산과 건설의 진정한 주인답게 자재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랑비하는 현상과는 강하게 투쟁하며 적은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해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진행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천리마작업반앞에 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은 책과의 사업, 즉 문화혁명을 잘하여 자신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책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하나의 량식입니다. … 혁명하는 사람은 책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수 없으며 아무 활동도 할수 없습니다. 정치사업이나 문화사업을 하려고 하여도 책을 보아야 하며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여도 책을 보아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4페지)

책은 일반지식수준을 높여주는 수단이며 우리의 모든 사업과 생활의 귀중한 량식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책을 많이 읽고 부단히 학습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이미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여 누구나 다 독자적으로 책을 읽고 배운 지식을 활용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고 독서에 전심한다면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훌륭히 기여할수 있다. 전체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고 가르치신 수령의 교시를 깊이 명심하고 학습을 생활의 첫공정으로 삼고 책을 사랑하며 하루에 2~3시간이상씩 책읽는 운동을 광범히 전개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교시, 당정책학습과 혁명전통학습을 생활의 철칙으로 삼고 꾸준히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기술서적과 문학서적도 공부하여 우리 혁명에 훌륭히 기여할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 설비 및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은 천리마작업반들에서 한시도 놓쳐서는 안될 중심적인 과업이며 이 세가지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 때 천리마운동을 더한층 심화발전시키고 생산과 기술, 사상과 도덕,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계속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것을 호소하시였다.

우리의 전체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있는 힘, 있는 지혜, 있는 예비를 총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킴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일전으로 완수 및 초과완수하며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로력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뒤떨어진것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혁신 그자체가 벌써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입니다. 뒤떨어진것, 보수주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40페지)

계획은 적게 받으려 하며 낡은 《공칭능력》에 매달려 일을 쉽게 하려는 소극성, 보수주의는 우리 천리마기수들의 전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공칭능력》이란 따로 없으며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부단히 갱신되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만이 있을뿐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혁명이 추진되여 근로자들의 의식수준과 자각적열성이 높아지고 기술혁명이 실현되여 나라의 경제적토대가 강화될수록 생산장성의 예비는 더욱더 많아지며 따라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새기록, 새기준을 창조하여 혁명하는 시대에 사는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온세상에 떨침으로써 수령의 크나큰 기대에 훌륭히 보답해야 한다.

로력을 극력 아껴쓰고 절약하며 로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현시기 인민경제발전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배양하여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480분 로동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함으로써 두몫, 세몫, 열몫을 해내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또한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현존설비와 생산면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전국이 혁신으로 들끓게 하기 위하여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미 천리마칭호를 받은 천리마집단들에서는 달성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전진, 계속혁신을 일으켜야 하며 천리마작업반은 2중천리마작업반의 영예를, 2중천리마작업반은 천리마영예상을 수여받는 높은 영예를 지니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천리마작업반, 천리마직장, 천리마공장의 대렬을 부단히 늘이여야 한다. 특히 아직도 천리마작업반의 대렬에 들어서지 못한 단위에서는 빨리 천리마칭호를 받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발휘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천리마기수들과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항상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당정책을 해설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동원하여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전체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긴장된 투쟁으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우선적으로, 집적으로 생산하며 일단 유사시에도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보장할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연과 후방, 해안과 내륙지대를 막론하고 모든 곳에 철벽같은 방위시설을 구축하며 군사지식과 군사기술을 꾸준히 련마하며 언제든지 원쑤들과 맞서서 싸워이길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지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직업동맹조직들의 책임성을 높이는것이다.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직맹조직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자기 사업의 중심고리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에 대한 지도사업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

직맹조직들과 그 일군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를 일반화하여 심화발전시키며 천리마작업반의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꾸준히 높여주어야 한다.

또한 직맹조직들과 그 일군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지도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뿌리뽑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모든 군중이 천리마작업반운동에 한결같이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총돌격하자.

축산업에서 더욱 큰 혁신을 일으키자

장 국 찬

최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특히 축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현시기 우리 나라 축산업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방향을 명백히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며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에 있어서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미룰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축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은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을 광복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며 우리 인민에게 《**모두가 다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무조건적으로 관철하여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축산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　　　　*

현시기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고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하며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알곡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축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해결할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56페지)

축산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인민들의 의식주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생활이 현저히 향상된 조건에서 그들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 중요한 고리이다. 인민들은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고기, 젖, 닭알을 더 많이 요구하며 이 요구를 해결해주기 위하여서는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은 인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문제이며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기본방도의 하나로 된다.

축산물생산을 빨리 증대시켜야 인민들에게 고기, 알, 젖 등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많이 공급하여 주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푸짐하게 만들수 있다.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케 한다면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생산과 건설에서 더 큰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게 될것이다.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농사를 추켜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목축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목축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근로자들에게 부식물을 더욱 원만히 보장할뿐아니라 농사를 추켜세우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농사가 잘되여야 축산토대를 쑥 올려세울수 있는것처럼 목축업이 잘되면 그만큼 농사를 추켜세울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산과 축산은 불가분리의 호상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축산과 농산은 호상 밀접한 련관속에서만 발전할수 있다. 농사가 잘되여야 축산업발전에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되는 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동시에 농사를 잘하자면 축산업을 발전시켜 논과 밭에 질좋은 두엄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더우기 오늘 화학비료의 공급량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질좋은 두엄을 더많이 내게 함으로써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그 비옥도를 계통적으로 높이며 화학비료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게 한다.

축산업을 발전시켜 고기공급을 늘이게 하여 부식물이 많아지면 식량을 절약하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식량예비를 더많이 조성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축산업이 발전되여야 경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를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이와 같이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실현을 다그쳐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인민들의 생활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내게 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전반적으로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축산업이 인민생활향상과 인민경제발전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로부터 출발하여 그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축산업발전의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돌려주심으로써 우리 나라 축산업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략탈정책은 원래부터 락후하였던 우리 나라 축산업을 더욱 뒤떨어지게 만들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멸망에 직면한 시기에 략탈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축산업토대를 혹심하게 파괴하였다. 많은 농민들은 집짐승을 기를만한 밑천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가중되는 략탈로 하여 기를래야 기를수도 없었다.

우리 나라 축산업의 력사적락후성은 오직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서 비로소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락후한 형편에 있던 우리 나라 축산업을 우리 나라 자연경제적조건에 맞게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여주시였다.

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 축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리는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국영목장과 종자집짐승생산기지를 꾸리고 축산업발전에서 그의 선구자적역할을 높이게 하며 기술일군양성사업과 과학연구기관들을 창설확대하

는 동시에 국가자금으로 농민들에게 종자집짐승과 먹이를 보장하여주는 등 집짐승을 기를수 있는 일련의 물질기술적대책을 세워주었다.

또한 당은 국영축산업과 협동농장공동축산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개인부업축산을 배합하여 집짐승기르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축산업을 빠른 시일에 추켜세우도록 하였다.

나라의 축산업토대가 강화되여 축산물생산의 규모가 커지고 이 부문 기술력량이 강화됨에 따라 당은 최근에 와서 축산업에 대한 유일적인 전문적지도체계를 확립하고 축산업을 전문화, 집약화, 현대화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의 축산정책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집짐승마리수는 전례없이 늘어났으며 축산물생산은 높이는데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특히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중요도시와 로동자지구 주변에 현대적설비를 갖춘 큰 가금목장들과 원종장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고 배합먹이공업이 창설되여 가까운 장래에 공업적방법으로 값눅은 닭고기와 닭알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이 공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축산업발전의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전국의 목장들을 일일이 지도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하여 수많이 건설되는 목장들의 터전을 몸소 잡아주시고 건설사업을 하나하나 지도하시면서 축산일군들로 하여금 교조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하고 축산업을 대담하게 발전시키며 축산물생산을 확고한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도록 친히 그 방도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나라의 여러 곳에 수많이 건설된 목장들에는 수령의 손길이 닿지 않은데가 없으며 그이의 깊은 배려가 돌려지지 않은 곳이 없다.

우리 나라 축산업에서 이룩된 오늘의 모든 성과는 실로 우리 인민의 보다 유족한 생활을 위하여 해방후 첫시기부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리고 전후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게 축산업발전에 심려하여오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의 결과이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에 많은 힘을 돌리며 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치는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긴장한 투쟁속에서 또다시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것은 오직 인민의 리익을 자기 활동의 최고법칙으로 삼는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생활에 돌려주시는 또하나의 극진한 배려이다.

금번 전원회의가 제기한 과업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나라 축산업을 한계단 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축산업분야에서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축산업을 더욱 현대화하여 이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축산업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미 닦아놓은 축산업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축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이 부문의 락후성을 없애고 축산물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46페지)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기초하여 금번 전원회의는 산이 많고 경지가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의 자연경제적조건에 맞

게 소, 양, 토끼와 같은 풀먹는 집짐승과 돼지 기르기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국영축산업과 협동농장공동축산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기관, 기업소, 개인부업축산을 배합하며 축산업을 전문화, 집약화, 현대화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발전의 요구수준에 맞게 축산물생산을 급속히 높일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다.

우리는 전원회의가 제시한 축산물생산의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영축산의 생산비중을 빨리 높이며 협동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 축산분조를 조직하고 해마다 작업반당 2~3톤, 매 농호에서와 집짐승을 기를수 있는 모든 지대의 로동자, 사무원 세대당 100키로그람이상의 고기를 생산하며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부업생산을 짜고드는 등 고기생산을 훨씬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강력히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조선소와 젖소, 염소 마리수를 늘이여 소고기와 젖 생산을 높일것이며 특히 국영목장과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 학교 그리고 매농호와 로동자, 사무원 세대들에서 토끼를 많이 길러 전체 어린이들에게 털모자, 털외투를 만들어주며 양을 길러 모방직공업의 털수요를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

전원회의가 제기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발전에서 기본으로 되는 원종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집짐승별 종축체계를 잘 세우는데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은 순종에 의한 계통번식을 하여 종자집짐승품종들이 가지고있는 특성과 생산성을 끊임없이 높여 고기와 알을 내는곳에서 품종간, 계통간 교잡을 조직할수 있도록 종자집짐승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줄것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축산업의 기본생산수단인 종자집짐승의 품종여하에 따라 축산물생산의 성과가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그러므로 집짐승별, 품종별 원종생산기지를 잘 꾸리고 품종이 좋은 집짐승을 빨리 늘여 같은 밑천을 가지고도 더 많은 축산물을 내야 한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먹이기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공고한 사료기지를 마련하는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논, 밭 2모작을 널리 도입하는 한편, 수확성이 높은 사료작물을 대대적으로 심으며 배합사료공장을 여러 곳에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6페지)

축산업발전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공고한 먹이기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2모작먹이작물재배에서는 밭앞뒤그루를 옳게 리용하면서 특히 뒤그루에서 더 많은 먹이를 내는데 힘을 넣으며 논앞그루가 가능한 지대는 호밀을 심으며 과수원사이그루에서 소출이 많은 먹이작물을 대대적으로 재배하는것은 먹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도이다.

우리는 재배먹이기지와 자연먹이기지를 적극 조성하며 단위면적에서 더 많은 먹이를 내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국영목장들에서 영양가가 높고 소출이 많이 나는 먹이작물의 재배면적을 계속 늘이며 협동농장들에서 작업반마다 1정보, 매농호에서도 집주변에 많이 심어 널리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종 먹이작물을 심을수 있는 야산, 경사지, 동뚝 등과 방목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재철에 말린풀과 풀절임을 많이 생산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농부산물을 적극 수집리용하여야 한다.

특히 배합먹이공업과 화학먹이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면서 건먹이를 제때에 보장하여주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또한 수의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을 치료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집짐승들의 질병과 페사를 결정적으로 근절하며 수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대책을 예견성있게 취하여야 한다.

축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이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축산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맡겨진 혁명임무에 대하여 깊이 자각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며 자체의 과학리론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하며,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한 부문별 전문화와 고도의 집약화를 실현하며 축산물의 생산조직과 사양관리에서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하는 등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전망적인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또한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수의축산기술일군양성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이 부문 기술자, 기능공들에 대한 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축산부문의 기본건설을 앞세우며 축산작업의 기계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것은 축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집짐승우리건설에서 당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면서 축산업을 전문화, 집약화, 현대화할수 있게 하며 매개 지방의 자재원천을 적극 리용하여 평방당건설원가를 극력 낮추어 적은 투자로 더 많이 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생산이 유리한 여름철에는 야외집짐승우리를 많이 지으며 포전까지의 거리가 먼 협동농장들에서는 간편한 이동식집짐승우리를 현지에 짓는것이 축산물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합리적인 방도이다.

축산업을 생산공정별로 기계화, 자동화하여 일군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것은 인민들에게 값눅은 축산물을 공급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함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로 된다.

축산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관리일군들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부터 기계화하고 점차 종합적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며 가금목장들에서는 특히 가금우리안의 온도, 습도, 환기, 조명 등에 대한 자동조절장치를 빨리 완성하여야 한다.

매개 도와 군들에서는 축산작업전반을 기계화하는 본보기를 몇개씩 우선적으로 꾸리고 그를 널리 일반화할것이며 모든 국영목장과 협동농장들에서는 한 사람이 맡아기르는 집짐승마리수를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공업부문에서 축산작업에 요구되는 모든 기계설비를 질좋게 만들어주는것을 비롯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축산작업의 기계화를 적극 도와주는것이 필요하다.

축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장비가 강화되는 조건에서 경영활동전반을 더욱 개선강화하는 문제가 긴절하게 제기되고있다.

농업지도기관일군들과 계획기관일군들은 전원회의가 제시한 축산업의 발전방향과 과업에 립각하여 먹이, 종자집짐승, 축사시설 등 제반 생산조건과 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투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며 이를 어김없이 실천할수 있도록 보장사업과 수매, 가공, 공급 등 모든 부문을 잘 맞물리고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축산부문의 로력구성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전문화, 집약화, 현대화에 따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며 로력관리질서와 로동규률을 강화하는 등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야 하며 물자재산 및 재정관리 사업을 잘하고 축산물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오늘 축산물생산이 증대되는 조건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잘 가공하여 인민들에게 제때에 공급하는것은 생산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부문 일군들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립장에서 축산물에 대한 수매와 가공, 공급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수매를 제때에 하고 수송조직을 빈틈없이 하며 메개 시, 군마다 랭동설비를 갖춘 고기저장고와 도살장을 잘 꾸리는 것은 고기를 도중손실없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데서 아주 중요하다.

오늘 축산업을 더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의 하나이다.

축산일군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축산부문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한조목 한조목 깊이 새겨 자기들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며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는데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창발성을 다 바쳐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한마리의 돼지를 기르는데서나 한개의 닭알을 다루는데서도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또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으로 살고 일하며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축산물생산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은 당의 방침대로 축산부문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생산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움으로써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혁명적열정과 로력적앙양으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 *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금번 전원회의의 조치는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며 우리 나라 축산업발전에서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것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있다. 이제는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많은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이 당면한 과업으로 되였다.

축산물생산을 증대시켜 근로자들에게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원만히 공급하는 것은 그들의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수 있게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은 우리 인민에게 고기를 더 많이 먹이며 그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케 하시려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깊은 배려에 반드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축산물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을 강력히 조직전개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지방산업공장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정당성과 생활력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 열돐을 맞으며—

림 경 식

오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고있는 환경속에서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 열돐을 맞이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우리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에서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대규모공장들을 건설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이에 병행하여 지방의 유휴로력과 자재 등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중소규모지방산업공장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창설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지난 10년간의 우리 나라에서의 실천적경험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규모공장에 병행하여 중소규모지방산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이 소비품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며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 열돐에 제하여 그이의 탁월하고 현명한 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을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불타는 결의로 가득차있다.

우리의 모든 경제일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규모공장에 병행하여 중소규모공장들을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모든 경제내부예비를 다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앙양시키며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규모공장에 병행하여 중소규모공장들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은 사회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그것은 모든 경제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달성하며 모든 지방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소멸하며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경험은 경공업부문에서는 그 경제기술적특성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대규모공장과 중소규모의 공장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이 합리적이며 특히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지방공장들을 광범히 건설하는것은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소비품생산의 장성과 전반적인 공업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방공업의 건설은 또한 나라의 모든 지방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특히 공업을 농업에 접근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24～25페지)

대규모공업과 중소규모공업은 각기 자체의 우월성을 가지며 다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한다.

대규모공업은 사회주의적생산의 기본형태로서 현대적기계설비와 기술에 기초하여 제품의 대량생산을 보장하며 제품단위당원가를 낮출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규모공장들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중소규모공장들을 발전시키는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였다.

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공업에 병행하여 중소규모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달성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소규모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가일층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원래의 계획보다 더 빨리 향상시킬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는 참 좋은것을 착안하였으며 훌륭한 일을 시작하였다. 인민경제 각부문에서 요구하는 세멘트와 철재가 더 나오게 되였으며 인민들이 먹고 입을것이 더 많아지게 되였다. 정말 성수가 나는 일을 하여놓았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짧은 기간내에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적경제건설로선이다.

중소규모지방산업공장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창설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우리 나라 매개 군들에서 광범히 건설한 지방산업공장들은 국가에 큰 부담을 줌이 없이 지방의 유휴로력과 자재를 동원하여 소비품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킴으로써 지방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제때에 기동적으로 충족시킬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축적의 원천을 확대하고 기계공업을 비롯한 중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자극하며 국가자금을 중공업의 건설과 대규모경공업공장 그리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 돌릴수 있게 한다. 이것은 지방산업공장들의 창설과 발전이 생산장성의 거대한 예비이며, 중공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자극을 줌으로써 인민경제전반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대규모공장에 병행하여 중소규모지방산업공장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모든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에 공장을 광범히 건설한다는것은 공업을 농업에 더욱 접근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41페지)

사회주의하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에 있으며 이 차이를 극복하는것은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기본고리이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도시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로동자들보다 사상의식이 뒤떨어진데서, 또한 이것으로 하여 소유관계에서 뒤떨어져있으며 경제관리의 수준에서도 뒤떨어져있는데서 표현된다.

바로 이러한 차이를 없애는데서 중소규모지방공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은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방법과 생산문화, 기술을 농촌에 보급하는데 큰 작용을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이 창설되고 발전됨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공업의 지도적역할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더욱 제고된다.

지방산업공장들은 또한 여러가지 농산물과 부산물을 제때에 수매가공하여 소비품들을 농촌과 도시에 공급하여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농민들의 생산열의를 북돋아준다.

지방산업공장들의 발전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인 군을 강화하고 공급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높이며 모든 지방들을 고르게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중소규모지방산업공장들의 창설과 발전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그것이 또한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62폐지)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강화하며 전국을 요새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는 동시에 전시태세하에서의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고려하여 생산력을 적당하게 배치하는것은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국도처에다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여놓으면 전시에 능히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지방산업공장들의 대대적인 발전은 또한 녀성들을 사회생활에 광범히 진출시키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뿐만아니라 화학, 건재, 기계, 제철 등 중공업부문들에서도 대규모기업소와 중소규모기업소를 병진시키는 방침을 취하였다. 당의 이러한 방침은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고 공업부문구조의 다면성을 보장하며 생산의 전문화체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제반 사실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규모공업에 병행하여 중소규모공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방침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시키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방침이라는것을 잘 말해준다.

* *

우리 나라에서 중소규모지방산업공장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여 대규모공장들과 함께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거대한 역할을 하게 된것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핌이 있었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공장과 중소규모공장들을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의 발전단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여주시였으며 거기에서 제기되는 중심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지방공업창설의 첫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선 문제는 일부 일군들속에서 지방산업에 대하여 신비하게 생각한데로부터 나타난 이러저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우선 대담하게 시작부터 하도록 하는것이였다.

6월전원회의후 많은 지방들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을 창설하는 사업이 광범하게 전개되고있었으나 일부 일군들은 지방산업에 대하여 신비하게 생각하면서 대담하게 달라붙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주로 두 경향으로 나타났는바 그 하나는 기본건설투자액도 받고, 무슨 기계도 만들고, 모든 준비를 다해가지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큰 계획만

짜고있는 경향이였으며 다른 하나는 6월전원회의결정이 자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할념도 안하고있는 경향이였다. 이러한 경향성을 시정함으로써만 지방산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빨리 창설하고 발전시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그릇된 경향을 없애며 지방산업공장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건설하기 위한 방향을 명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첫째로는 큰 투자를 하지않고 이미 있는 공장들에 부산물직장을 설치하고 일용품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둘째로는 오막살이집도 좋고, 한간짜리 집도 좋고, 어떤 창고 한귀퉁이도 좋으니 이런데서 독이나 몇개 놓고 채소가공공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공장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용품공장이라고 하면 걸상 몇개하고 깎고, 두드리고, 썰고, 자르는 도구를 몇개 가지고 일용품들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조선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라고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민들이 먹고 입을것이 더 빨리 많아지게 될것이며 농촌건설에 필요한 스레트, 세멘트, 철재를 생산하는 소규모의 공장도 앞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케 하였으며 지방산업공장들이 우후죽순과도 같이 일떠서게 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당중앙위원회 6월전원회의에서와 그후에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있은 후 전국각지의 근로자들은 그이의 교시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불과 수개월동안에 국가자금도 별로 들이지 않고 지방의 원료원천과 유휴자재, 로력을 동원하여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지금은 이미 그것이 2,000개를 훨씬 넘어섰고 소비품생산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의 창설에서 일정한 성과가 달성된 토대우에서 6월전원회의의 결정실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분석하시고 원료기지를 튼튼히 조성하며 계획화사업을 잘하는 등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획기적대책을 세우시였다. 그리하여 지방산업공장들에 대한 정연한 지도관리체계가 세워지고 관리운영이 개선되였으며 소비품생산에서 더욱 큰 성과가 달성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소규모공장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여 소비품생산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지방공업을 한계단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로서 기계화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중소규모지방공업을 한계단 더 발전시키는데서 1962년 8월 8일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의 생산능력이 미약하였던 이전에는 족답기로라도 천을 짜야 했지만 오늘의 사정은 벌써 달라졌습니다.

기술혁명을 해서 아직까지 수공업적으로 하고있는 공정을 다 기계화해야 합니다. 지방공업에서 아직 전반적공정을 자동화할수는 없다쳐도 모든 공정을 기계화하는데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일이 헐하게 되고 생산능률도 높아지며 또 많은 로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로력으로 지방공업을 더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도 반드시 기계화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 16~1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지방공업의 기계화방침은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요구가 높아진 조건에서 제품을 량적으로 더 많이 만들고 질적으로 더 잘 만들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였다. 기계화를 하는 외에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다른 방도는 없었다.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제품의 질적요구수준이 더욱 높아진다는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법칙이며 이 합법칙적인 변화를 제때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사업방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계기로 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사업에서는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지방산업공장들의 관리일군들과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낡은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였으며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을 대담하게 생산에 도입하였다. 또한 큰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광범히 조직전개하여 지방산업공장들에 보내줌으로써 생산공정의 기계화를 적극 도왔다.

그리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이 급속히 장성하고 제품의 질도 현저히 개선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의 발전단계와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여주시는 동시에 각지방에 광범히 건설되고있는 지방산업공장들을 친히 하나하나 찾으시여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어느 중소규모지방공장이고 그이의 직접적인 가르치심과 보살핌을 받지않은데가 없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창성직물공장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59년 7월 30일 처음으로 이 공장을 찾으신 때로부터 창성련석회의가 있기까지 무려 4차에 걸쳐 현지지도를 하시면서 공장의 집터를 손수 잡아주시였으며 원료문제, 재품의 실현문제, 제품의 질제고문제, 로동조직과 로동자들의 휴식에 대한 문제 등 공장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공장을 한계단 더 높은 단계에로 추켜세우기 위하여 기계화를 하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문화수준을 높이며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보살핌으로 하여 1958년 9월에 남의집 웃방에다 베틀 두대를 놓고 하루에 너새무명 두서너자 짜내면 고작이였던 이 공장이 1961년에는 벌써 날마다 1,200여메터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천을 기계로 척척 짜내게 되였다.

실로 그이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이며 가장 현명한 방침과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핌이 있었기때문에 지방공업이 대대적으로 발전할수 있었고 국제국내적으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였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총생산액적으로 2년반이나 앞당겨 완수할수 있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보장하고 짧은 기간내에 인민생활을 오늘과 같은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릴수 있었다.

우리 나라가 전후 짧은 기간내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고 우리 인민들이 다양하고 맵시있고 쓸모있는 풍부한 일용소비품들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면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오직 휘황찬란한 앞날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안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며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앙양시킬수 있는것도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 *

오늘 우리앞에는 대규모기업소에 병행하여 중소규모기업소들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부문들과 기업소들을 보강하고 완비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개선하며 대규모기업소들과 중소규모기업소들을 계속 병행하여 발전시키며 나라의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특히 지방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56페지)

우리는 앞으로도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대규모기업소들을 많이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중소규모기업소들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근거하여 우리 인민들이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여놓은 지방산업공장들은 평시에도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때에는 그 역할이 더욱 커질것이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중소규모공장들을 발전시키는 바로 여기에 생산장성의 거대한 예비가 있다.

오늘 중소규모지방공장들을 한계단 더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이미 건설하여놓은 공장들을 더욱 현대화하며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지금 있는 중소규모공장들을 현대화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생산을 장성시키고 품종을 늘이며 제품의 질을 높여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여기에서 큰 공장, 기업소들이 중소규모공장들에 대한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큰 공장, 기업소들이 그 지역의 중소규모공장들의 공무동력직장을 잘 꾸려주며 기술장비를 강화하고 생산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와준다면 중소규모공장들의 기계화, 자동화는 더 빨리 실현될것이며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 더 잘 해결될것이다.

매개 중소규모공장들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자체로 낡은 기계설비들을 부단히 현대화하며 선진작업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장들을 기종간에 균형이 잘 맞고 갖출것을 다 갖춘 완비된 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있어서 지방산업공장일군들로 하여금 자체로 기계설비들을 보수, 정비하고 공장을 더욱 확장할수 있는 경제적조건을 지어주며, 그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생산조건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고 공장들을 사회주의의 맛이 나게 더욱 알뜰히, 문화위생적으로 꾸려야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을 발전시키자면 생산품종을 고착시켜야 한다. 품종을 고착시켜야 생산을 더 빨리 장성시킬수 있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

원료기지를 튼튼히 조성하는것은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조건의 하나이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자체의 원료기지를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성할것이 요구된다. 특히 군직물공장들에서는 자기 군내에 있는 원료를 가지고 천을 짜도록 하며 제지공장들에서는 소다를 적게 쓰는 쇄목팔프를 널리 리용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대상이 녀성들에게 알맞고 녀성들이 많이 나와 일하는 조건에서 녀성간부들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며 녀성들의 혁명화를 촉진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에서 피흘려 싸웠고 오늘도 당정책관철에서 계속 꽃을 피우고있는 영예군인들로 지방공장들의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미 있는 공장들을 잘 꾸리는 동시에 사과, 포도 등 과일을 가공하는 공장들과 판지공장들을 비롯한 새 지방공장들을 광범히 건설하여야 한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그이의 보살핌에 의하여 각지방에 광

범히 조성된 과수원들이 바야흐로 청춘기에 들어서고있는 오늘 과실가공을 위한 공장들과 포장지를 해결하기 위한 판지공장들을 빨리 건설하는 문제가 긴급하게 제기되고있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뿐만아니라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등 일련의 중공업부문들에서도 경제적리익을 위해서나 국방상 리익을 위하여 대규모공장들과 중소규모공장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발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중소규모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꾸리는것은 공업에 살을 붙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소규모공장들은 소요량이 그리 많지않은 수백수천종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할수 있다. 이것은 국가자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짧은 기간에 공업의 부족점을 보충하고 생산구조를 더욱 완성하며 공업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게 한다.

당의 조치로 최근년간에 광범히 설치된 중소화학공장들에서는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경공업과 인민경제 각부문에 필요한 여러가지 화학자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공업부문에서도 당의 방침대로 한두가지의 부속품이나 부분품을 생산하는 전문화된 중소규모기계공장들을 더 많이 창설하여 대규모기계공장들과의 배합작전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 건설을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수력자원이 풍부한 산간지대와 내륙지대에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수력자원이 없는데서는 중소규모의 공장화력발전소나 디젤발전기를 많이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채굴, 채취, 건재 등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대규모생산과 중소규모생산을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것이다.

특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경제적리익과 국방상 리익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대규모기업소와 중소규모기업소들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며 생산력의 지리적배치를 잘하도록 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대규모공업에 병행하여 중소규모공업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키는 사업은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천리마적속도를 계속 견지하며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며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보람찬 일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위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우리 인민을 더욱 문명하고 유족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에서 살게 하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하며 바로 여기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성과 로동계급성 그리고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대규모기업소에 병행하여 중소규모기업소들을 적극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창조함으로써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에서 주신 력사적인 교시의 위대한 생활력을 영원토록 꽃피게 하여야 할것이다.

제국주의는 사상루각이다

고 훈 일

제국주의를 어떻게 평가하며 그를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반제투쟁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평가는 제국주의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규정하며 반제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작성하는 출발점으로 된다.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에 기초해서만 반제투쟁의 정확한 전략과 전술이 작성될수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평가문제는 특히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최후발악을 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국주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시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인도하고계시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신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는 강한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루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면서 허장성세하지만 그들 역시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입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9폐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제국주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들어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에 걸쳐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철저한 반제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력사발전법칙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그이의 오랜 혁명투쟁의 실천적경험과 세계혁명투쟁의 경험을 일반화한데 기초하여 나온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것이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인 법칙이며 바로 이러한 법칙에 의하여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종국적으로 승리하고야 만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산 낡은 력량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력량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낡은 봉건사회가 멸망하고 새로운 자본주의사회가 발생발전한것처럼 오늘에 와서 자기 세기를 다 산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막을수 없는 법칙이다.

제국주의는 멸망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제국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안으로부터 병들어 썩고있으며 죽어가고있는것이다. 모래우에 선 루각이 오래갈수 없는것과 같이 자체의 고유한 모순에 의하여 제국주의는 조만간 멸망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의 허장성세와 침략정책의 강화는 놈들의 취약

성과 부패성의 반영이며 죽어가는자들의 최후발악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침략과 전쟁정책의 강화로써도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썩고 죽어가는 제국주의의 말로를 앞당기게 할뿐이다.

력사는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자들이 모두 수치스러운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난날 독일파씨스트가 그러하였고 강도일본제국주의가 바로 그러하였다.

과거 구라파에서 히틀러도당은 저들의 《강대성》을 자랑하면서 제2차세계대전을 도발하여 전세계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보려고 망상하였다. 독일파씨스트들은 한때 구라파의 많은 나라들을 강점하였으며 지어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쏘련을 나누어 먹으려는 망상까지 하면서 온갖 야수적인 전쟁방법과 횡포한 만행을 다 감행하였으나 결국 패망하고 말았다.

아세아에서 《대동아공영권》을 참망해나섰던 일본제국주의자들도 한때 조선을 강점하였을뿐만아니라 만주를 비롯한 중국의 많은 지역과 동남아세아를 강점하였으며 아세아 전지역을 점령하려고 날뛰였으나 결국 히틀러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이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감행하는 광란적인 전쟁소동은 놈들의 강대성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취약성을 보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인 법칙이며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진행된 15성상에 걸친 항일무장투쟁과 미제를 타승한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 및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경험은 이 진리를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강대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세계력사상 그 류례가 드문 극히 간고한 투쟁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당시 아세아에서 가장 강대한 군사력과 전쟁수단을 가진 강도적이며 야수적인 침략자였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일제침략군을 상대하여 아무런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없이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장구한 기간에 걸쳐 싸운다는것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항일유격대원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철저한 반제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모든 풍파를 헤치며 원쑤와 싸워나갔으며 마침내 일제를 때려눕히고 승리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빨찌산들은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있었기때문에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신하고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곤난을 뚫고 간고한 투쟁을 계속하여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7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며 놈들을 능히 꺼꾸러뜨릴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간직하시고 수량상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일제침략군과 싸워 항상 백전백승하셨으며 끝내 놈들을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15성상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은 제국주의는 결코 불패의 적이 아니며 놈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운다면 그 어떤 흉악한 원쑤도 때려눕힐수 있다는것을 온세계에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탁월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력사상 처음으로 때려눕힘으로써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깃부셔버렸다.

100여년간의 야수적인 침략전쟁의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우리 인민을 쉽게 굴복시킬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저들의 수적우세와 기술적우세를 광신하면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시간문제라고까지 호언장담하였다.

당시 우리 공화국은 아직 청소하였다. 창건된지 겨우 2년 남짓한 우리 인민군대는 현대전의 경험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세계의 이목이 조선에 집중되였으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전쟁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하여 주시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전쟁수단들을 다 동원하였으나 영웅적투쟁에 궐기한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지않을수 없었다.

이 준엄한 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오직 15성상 명확한 전법으로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일제의 대병력을 족치고 백전백승하신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가능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모든 사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진두에서 우리 인민과 군대를 확고하게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이 준엄한 시기에 놈들을 능히 때려엎을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우리 인민을 고무하시였으며 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는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승리이며 반제사상의 승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령도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겨주고 놈들을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시였으며 반제반미투쟁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힘으로써 미제가 결코 무적이 아니며 혁명적인민들이 침략자를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운다면 그 어떤 강대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꺼꾸러뜨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적인민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적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궐기한 인민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에 의해서도 정복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제국주의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폭로하였으며 세계피압박민족들에게 미제가 결코 불패의 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13~14페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줌으로써 그들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고무하고있다.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에게 호되게 얻어맞아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에게서 얻어맞은 상처를 아물리지 못한채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계속 얻어맞고있으며 멸망의 구렁텅이에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조선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꾸바혁명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 특히는 오늘의 웰남전쟁을 통하여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다시한번 여지없이 깨여졌다.

이 모든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강한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루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하다는것을 명백히 증명해주고있다.

＊ ＊

오늘 제국주의 특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이 세계도처에서 녹아나고있는 현실은 제국주의가 사상루각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하다는 김일성동지의 사상의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현시기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이 투쟁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날로 쇠퇴와 몰락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으며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은 계속 장성발전하고있다.

세계적범위에서 력량관계는 사회주의와 혁명적인민들에게는 더욱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에는 극히 불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우리 나라와 웰남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력량은 날로 장성강화되고있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세력은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력량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고있으며 놈들의 침략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있다.

조선혁명의 기지인 공화국북반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튼튼히 꾸려졌으며 원쑤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략도 일격에 무찌를수 있는 강력한 보루로 전변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방위력은 철벽으로 다져졌으며 공화국북반부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였다. 지난 1월 우리 나라 령해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의 자위적조치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미제침략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침입해와도 우리는 원쑤들을 단매에 쓸어버릴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의 위력에 고무되면서 남반부인민들은 원쑤들의 파쑈적폭압을 박차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대중적투쟁을 강화하고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무장유격대는 매국역적박정희도당의 소굴인 《청와대》에까지 진출하여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으며 놈들은 날이갈수록 심각한 궁지에로 깊이 빠져들어 가고있다.

위기에 직면한 미제침략자들은 총검으로 남조선 전지역을 뒤덮고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에 매달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탄압하려고 혈안이 되고있지만 놈들은 그 어떤 야수적폭압으로써도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다.

지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은 놈들이 발붙이고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다.

웰남인민의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에 의하여 미제침략자들은 웰남전쟁에서 병신이 되여가고있으며 죽어가고있다. 놈들이 그처럼 호언장담하던 《특수전쟁》

전략도, 《계단식확대》전략도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선 웰남인민을 굴복시키지 못하고있으며 그것은 오히려 놈들에게 패배와 죽음만을 가져오고있을뿐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 자기의 병력을 이미 50만명이상 밀어넣고있으나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의 전면적인 공격앞에서 놈들은 전전선에 걸쳐 붕괴상태에 직면하고있으며 죽어가고있다.

웰남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대성》의 신화는 다시한번 깨여지고있으며 웰남인민의 투쟁은 미제침략자들이 그 어떤 야수적인 전쟁방법으로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침략과 전쟁정책을 로골화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놈들의 침략적야망은 가는 곳마다에서 파탄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놈들의 지위는 현저히 약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이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고있다.》(《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3페지)

바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미제침략자들의 숨통은 끊어져가고있으며 놈들의 종국적인 멸망과정이 날로 촉진되여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시대는 혁명의 시대이며 제국주의가 망하는 시대이다.

제국주의가 망하고 혁명적인민들이 승리하는 시대인 오늘 세계의 그 어느 곳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안전한 후방》이란 없으며 놈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얻어맞고있으며 배격당하여 고립되고있다.

실로 미제침략자들이 오늘과 같이 세계도처에서 배격받고 고립된 때는 일찌기 없었으며 놈들의 침략적지반이 오늘처럼 뒤흔들린적도 일찌기 없었다.

미제침략자들의 취약성과 위기는 제국주의진영의 분렬과 자국내부의 모순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고있다.

제국주의진영은 그 내부모순과 알륵으로 하여 글자그대로 사분오렬되였으며 지리멸렬한 상태에 처하여있다. 조선전쟁때까지만 하여도 미제국주의자들은 《동맹국》들을 침략전쟁에 마음대로 동원할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수 없게 되였다.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매국역적 박정희나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타이의 친미괴뢰 등과 같은 무력한 졸개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동맹국》도 미제의 침략전쟁에 공공연히 가담하는것을 꺼려하고있다. 일부 《동맹국》들은 날이 갈수록 미제의 지휘체계에 순종하지 않고있을뿐만아니라 오히려 그에 도전해나섬으로써 놈들을 뒤로부터 후려갈기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호되게 얻어맞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자기의 《동맹국》들로부터도 배척당함으로써 지금 사실상 의지할 곳이 없는 《국제적고아》로 되고있다.

미국내부에서 날로 심화되고있는 사회적모순은 놈들의 위기를 가일층 증대시키고있다.

오늘 미국내부에서는 파업과 반전운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으며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흑인들의 투쟁이 더욱 확대되고있다. 특히 침략전쟁의 확대를 위하여 지배층이 강요하는 방대한 군사비부담과 전쟁마당에서의 값없는 개죽음은 미국인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격발시키고있으며 사회적모순을 증대시킴으로써 존슨도당을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있다.

미국독점지배층들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파업투쟁과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전운동은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흑인들의 투쟁과 결합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의 통치지반을 그 근저로부터 뒤흔들어놓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엄중한 위기에 처하여있다.

미제의 무모한 전쟁정책으로 하여 심각화되고있는 딸라위기를 중심으로 한 재정경제적위기는 미제의 지반을 날로 허물고있으며 놈들의 쇠퇴몰락을 촉진시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뿐만아니라 프랑스, 서독, 영국 등 서구라파의 제국주의나라들도 날로 격화되는 사회경제적모순으로 하여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파멸적인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잘 보여주며 놈들이 안팎으로 얻어맞아 내리막길로 더욱더 깊이 굴러떨어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현시기 반제투쟁앞에 제기되고있는 기본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제국주의는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략탈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도로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투쟁은 더욱 치렬하여지고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은 반제국주의의 기발을 높이 들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1~2페지)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멸망에 직면하고있으나 결코 력사무대에서 자진하여 물러가려 하지않으며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정책에서 찾으려고 발악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늘 미제침략자들은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결을 피하면서 주로 분렬된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는 전략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의 진보적나라들을 침략해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이에 있어서 미제침략자들은 특히 조선과 웰남을 비롯하여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웰남에서 피비린내나는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날강도적인 전쟁소동을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하고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우리 나라 령해에 대한 침입사건과 군사분계선상에서 계속되고있는 광란적인 전쟁도발소동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놈들은 웰남에서 침략전쟁을 가일층 확대하는 한편 우리 나라에서 또다시 새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놈들의 격화되는 전쟁확대정책으로 말미암아 아세아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내리막길에서 허덕이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멸망에 직면한 저들의 운명을 구원해보려고 최후발악을 다하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제국주의가 살아있는한 놈들은 아직도 많은 죄행을 저지를수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대하여 사소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해서도, 세계평화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함으로써만 이미 칠성판에 오른

놈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더 깊이 처박아넣을수 있으며 세계혁명운동발전을 급속히 촉진시킬수 있다.

오늘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기되는 전략전술적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방침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데 있습니다.》《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달려들어 미국놈의 왼다리와 오른다리, 왼팔과 오른팔도 떼내고 귀도 떼내고 이빨도 빼내고 하다못해 살을 꼬집거나 머리카락을 뽑아도 좋습니다. 미국놈의 힘이 강하다고 하지만 여러 나라 인민들이 달라붙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면 그놈들을 얼마든지 녹여낼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방침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어 놈들을 종국적으로 멸망시키며 세계혁명투쟁을 급속히 촉진시키는 가장 정확한 전략적방침이다.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인민들이 들고일어나 미제에게 타격을 주어 놈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키며 함부로 날뛸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을 때 이러저러한 지역에 힘을 집중하여 혁명하는 인민들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전략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놈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이 처박아넣을수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경험이 실증하여주었으며 꾸바혁명의 승리가 보여주고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이 확증하여주고있는바와 같이 비록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운다면 놈들과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이 힘을 합쳐 놈들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한다면 미제침략자들은 마침내 멸망하고야 말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미제침략자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함으로써 미제의 멸망과 세계혁명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100여년의 력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에게 온갖 재난과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극악무도한 원쑤 미제살인귀들을 소멸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다.

만약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놈들을 단매에 쳐눕힐것이며 우리 강토에서 놈들을 영영 쓸어버리고 말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의 발악책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세계의 모든 곳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대렬은 더욱더 늘어가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그 어떤 횡포한 발악으로써도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있는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마음대로 날뛰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과 현시대의 발전추세를 보지않고 어리석은 망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놈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오직 죽음과 멸망뿐일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력사의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으며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날강도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전 기 홍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한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미제는 100여년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미제의 조선침략의 전과정은 가장 악랄하고 강도적인 침략과 략탈의 력사이며 가장 음흉하고 야수적인 살륙과 폭압, 파괴와 유린으로 일관된 죄악의 력사이다.

19세기중엽부터 조선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책동을 일삼아온 미제는 20세기초에 들어와서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비호해주고 조선에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20여년간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여왔다.

우리 인민앞에는 세기를 두고 조선에서 천인공노할 온갖 범죄행위를 감행한 날강도 미제침략자들을 하루속히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할 절박한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 *

미제는 조선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강요하였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악독한 범죄자이며 우리 인민의 첫째가는 원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입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22페지)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한 민족이며 재능있고 근면한 인민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가 없었더라면 우리 인민은 오늘과 같은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지 않을것이며 북반부인민들처럼 남조선인민들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있을것이다.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벗어난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아직 우리 나라가 통일되지 못하고 우리 인민이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참을수 없는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에 기인된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분할하여 통치》하는 음흉한 침략수법에 따라 민족분렬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왔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강점 첫날부터 저들의 음흉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군정을 선포하였으며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해내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불같은 지향을 악랄하게 탄압하고있다. 조국의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리유로 수천수만의 무고한 인민들이 체포투옥되고있으며 수많은 애국자들이 학살당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조국통일을 백방으로 방해하면서 소위 《반공》의 간판밑에 조선에 대한 민족분렬정책을 《정당화》하고있으며 우리 민족 내부에 반목과 불신임을 조성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악랄한 민족분렬책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인민은 실로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겪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계속 남북으로 갈라진채 남아있고 새로운 한 세대가 자라도록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20여년이나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에 의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로 인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의 차이는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있으며 한조상의 피줄을 이은 겨레들이 수천년동안에 걸쳐 이루어놓은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와 풍습마저 점차 달라지고있다. 나라의 부원과 인민의 지혜와 재능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동원리용되지 못하고있다.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있는 우리 인민은 부모, 처자, 형제자매와 친척친우들을 지척에 두고도 서로 래왕할수 없으며 한장의 편지조차 주고받을수 없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에게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온갖 고통을 들씌웠을뿐만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은 가혹하게 억압착취하며 인간생지옥속에 빠뜨린 우리의 계급적, 민족적 원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북조선의 분렬은 특히 남조선인민들을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 속에 빠뜨리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9페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을 저들에게 완전히 예속시키고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친미친일주구 등 한줌도 못되는 민족반역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내세워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침략자들의 악랄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 유린, 말살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전지역을 감옥과 교수대로 뒤덮고 나라의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고있다. 놈들은 1949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무려 10만 9천명에 달하는 남조선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11만 600여명을 체포투옥하였다.

특히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놈들의 폭압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놈들이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을 비롯한 혁명적진출을 말살하기 위하여 동원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및 경찰은 예비사단을 포함하여 무려 10여개사단이나 되며 이른바 《소탕작전》에 직접 참가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및 경찰의 수는 연 600여만명에 달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초보적인 자유와 민주주의,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기고있으며 아무런 죄없이 체포투옥당하고있다.

공업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민족경제의 자주성은 찾아볼수 없으며 시장에는 외국상품이 범람하고있다.

농촌경리는 피폐화되고 농업생산은 해마다 감소되고있으며 곡창지대로 알려졌던 남조선은 만성적인 기근지대로 전락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처지는 말할수 없이 비참하다. 인민들은 이중삼중의 착취와 략탈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약할수 없는 끝없는 불안속에서 살고있다.

미제의 사상문화침략책동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사회에는 부패한 《양키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이 만연되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 민족의 문화와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으며 패륜패덕이 사회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침습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과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하여지고있으며 그로 인한 인민들의 피해는 헤아릴수 없이 크다.

남조선출판물에 의하더라도 작년 1월부터 금년 1월까지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살인, 폭행, 재물략탈 등 야수적만행은 무려 1,876건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전역은 인민들의 피로 물들여졌으며 미제살인귀들에 대한 원한이 차넘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전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강도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흉악무도한 범죄자이며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일관하여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뿐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여왔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6~87페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남조선을 식민지, 군사기지로 전변시켜온 미제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는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흉악한 야망을 품고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인류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횡포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살인귀들은 우리의 모든 도시와 농촌을 무차별 폭격하여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세균무기를 포함한 온갖 살인수단을 다 사용하여 수많은 평화적주민들을 학살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것이 어린애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죽여라.》고 떠벌이면서 조선인민을 가장 잔인하게 학살한 인간백정들이다.

피를 보고 희열을 느끼는 살인귀 미제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을 남녀로소할것없이 닥치는대로 쏴죽이고 생매장하고 불태우고 배를 가르고 젖가슴을 도려내고 이마에 못을 박고 눈알을 뽑아내는 등 야수적방법으로 학살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신천군을 강점한 불과 45일간에만도 군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383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인간백정 히틀러나 도죠를 훨씬 릉가하는 가장 야수적인 전쟁방법을 적용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에서 놈들이 감행한 만행은 조선인민에 대한 가장 흉악한 죄악으로서 천추만대에 걸쳐 우리 인민의 분노와 저주를 면치 못할것이다.

이 간악한 원쑤들은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은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계속 전조선을 침략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남조선에서 새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괴뢰군병력을 증강하고 새로운 군사장비들을 더많이 끌어들이고있으며 각종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늘이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태세》를 강화하면서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매일 북반부지역에 수백수천발의 총포사격을 가해오고있으며 우리측 연해에 무장합선단을 빈번히 침입시켜 악랄한 도발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해적행위를 하다가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붙들린후 4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에만도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 등을 520여차에 걸쳐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였으며 그것으로 연 580차에 걸쳐 3만 5,600여발의 총포탄을 우리측 지역에 발사하였는데 이것은 정전후 지난 13년동안에 적들이 우리측에 발사한 총포탄수의 4배에 달한다.

놈들은 또한 최근 약 3개월간에 21차에 걸쳐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장공격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무장간첩선을 포함한 연 6,730여척의 각종 선박들과 각종 군용비행기편대를 우리 나라 령해와 령공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로골화하고있는 새전쟁도발음모에 일본제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고있다. 놈들은 또한 남조선의 수많은 청장년들을 남부웰남에 끌어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저들의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리용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오늘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온갖 고통과 특히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고있는 헤아

될수 없는 불행과 재난의 장본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온갖 범죄행위는 어제오늘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놈들이 오래전부터 감행하여온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의 계속이다.

미제는 100여년간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한 극악한 범죄자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한세기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입니다.》

미제는 벌써 지난 세기 40년대에 《유리한 전략적위치》와 풍부한 자연부원을 탐내여 이른바 《조선개방안》을 《국회》에서까지 모의하고 1860년대부터 우리 나라에 직접적인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1866년 해적선 《샤만호》의 대동강침입, 1868년 해적선 《차이나호》의 아산만침략, 1871년 미아세아함대의 강화도침략, 1882년 조선봉건정부를 무력으로 강박하여 얻어낸 침략적불평등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등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이 해적의 무리들은 조선강토에 기여들 때마다 우리 인민을 살륙하고 부녀자들을 릉욕하였으며 민가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빼앗는 온갖 악착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조선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저들의 무력침공이 거듭 실패하게 되자 일제의 조선강점을 비호해주고 조선에서 많은 경제적리권을 차지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착취략탈하였다.

바로 이러한 날강도 미제침략자들이 오늘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으면서 남조선인민들을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에 몰아넣고있으며 조선인민에게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온갖 고통을 강요하고있다.

제반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는 100여년에 걸쳐 우리 인민의 가슴에 맺힌 원쑤이며 20여년간 우리 조국을 분렬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을 4천년래의 민생고와 무권리와 생지옥 속에 몰아넣은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 *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강토에서 감행한 전대미문의 죄행에 대하여 반드시 피의 대가를 받아내야 하며 미제살인귀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피에 사무친 원쑤를 갚아야 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강도놈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며 100년동안에 걸쳐 우리 인민의 가슴에 맺힌 원쑤를 갚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100년동안에 걸쳐 우리 인민의 가슴에 맺혔던 원쑤를 갚고 조국을 통일하며 우리 손으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고 남반부인민들과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하기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지원하며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영영 쫓아버려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며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지 않고는 남조선인민들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이 계속되고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있는한 조선인민은 잠시도 편안히 살수 없으며 오늘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미워하여야 하며 그놈들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미제침략자들을 미워하고 그놈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야만 남조선인민들은 자유와 행복을 쟁취할수 있으며

조국의 통일도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은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치솟는 복수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놈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수 있으며 우리 인민은 승리할것이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가 어떤것인가를 잘 알고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싸워보았으며 놈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자기의 조국을 피로써 수호하였다. 조선전쟁은 미제가 결코 무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제국주의의 패망은 불가피하다. 제국주의가 반드시 멸망한다는것은 사회발전의 필연적인 법칙이며 세계력사에 의하여 확증되고있는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뿐만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만회할수 없는 패배를 당하고있으며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고있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코대를 꺾이고 꾸바혁명에서 얻어맞은 미제는 지금 웰남에서 병신이 되고있다.

미제는 내부에서도 타격을 받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죽어갈수록 한푼의 돈이라도 더 그러모으며 한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발악하는것이 제국주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냥이는 언제든지 야수적본성을 버리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해를 끼치는 법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직도 많은 죄행을 저지를수 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밑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보려고 새전쟁도발책동을 로골화하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더욱더 강화하고있다.

그러나 놈들은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이미 멸망에 직면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우리 인민은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쳐 미제를 남조선에서 영영 쓸어버릴것이다.

우리 인민은 능히 미제와 싸워이길수 있다.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영웅적인민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할수 있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추호의 동요없이 이겨낼 혁명적각오로 충만되여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국방력은 굳건히 다져졌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어떠한 원쑤도 타승할수 있는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였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의 그 어떠한 도발책동도 일격에 소멸해버릴것이다.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도당의 악랄한 파쑈폭압을 단호히 박차고 무장유격투쟁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혁명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과정에서 믿음직하게 자라고있으며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우리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돐경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더 큰 참패를 당하리라는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할것입니다.》

만일 원쑤들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얻을것이란 오직 시체와 죽음뿐이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쳐 100여년의 피묻은 침략의 력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에게 온갖 재난과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극악무도한 범죄자, 20여년간 우리 조국을 분렬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을 4천년래의 민생고와 무권리의 생지옥속에 몰아넣은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를 우리 조국 땅에서 영영 쓸어버릴것이며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근 로 자 제 6 호 (루계 31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 인쇄공장
인 쇄 • 1968년 6월 25일 발 행 • 1968년 6월 30일
ㄱ—83240 값 50전